백두산전설편

5

위대한 수령님께서 《충마애견》이라고 못내 잊지 못해하시던 백마, 이 백마에는 위인칭송의 전설이 깃들어있어 사람들을 신비경에로 이끌어간다.

신출귀몰하는 조선인민혁명군의 불벼락에 만신창이 된 일제군경들의 몰골

백두산대장수님께서 악질적인 《정안군》놈들을 통쾌하게 족쳐버리신 로흑산골짜기

걸음걸음 혈전으로 이어진 우리 수령님의 혁명력사에는 로야령에서 있은 가슴뜨거운 이야기도 있다. 그이께서 십여명의 대원들을 데리고 로야령을 헤쳐가실 때 산신령이 나타나 위험한 고비를 넘게 해주었다는 전설은 오늘도 중국 동북지방인민들속에 널리 전해지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잊지 못할 고장이라고 감회깊이 회고하신 하바롭스크의 련합군지휘부와 아무르강변

여기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백마를 타고 달리시는것이 아니라 날아다니시여 이전 쏘련군대지휘관들을 깜짝 놀라게 하시였다는 전설이 깃들어있다.

감쪽같이 사라진 유격대!

(유격대원들이 사다리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게 분명하다. 저 진대나무들이 그 사다리를 만들었던것이 아닐가?) 얼이 빠진 《토벌》대장놈이 중얼거리며 하늘만 쳐다보았다는 전설이 깃든 라자구일대

유격대를 물심량면으로 원호하여 쌀나무가 생겨났다는 전설을 남긴 백두산기슭의 울울창창한 나무들

이름난 칠보산의 책바위를 비롯한 기암괴석들은 보기에도 황홀하지만 자못 신비한 전설을 안고있어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있다.

칠보산 내칠보에 있는 개심사의 한 중은 백두산대장수님을 뵙고 돌아와 3년이면 일제가 망한다는 등의 글을 책바위에 써놓았다고 한다.

백두산밀 이곳 가야산기슭의 작은 마을에는 일제놈들이 강요하는 《창씨개명》에 항의하여 온 마을사람들이 모두 성을 《백두》로 고치여 놈들을 혼비백산하게 했다는 전설이 깃들어있다.

《창씨개명》에 강제로 내몰리운 서울시민들

해방전 서울시가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 서울의 반도호텔에 들리시였는데 그이를 어째보겠다고 발광하던 고등계형사놈이 《조선독립대장 김일성》이라는 명함장을 보고는 아예 미쳐버리고말았다는 전설은 오늘도 남녘인민들속에 널리 전해지고있다.

일본 혹가이도의 바바이탄광

백두산대장수님의 부하가 삯빨래로 연명해가는 녀인에게 주고간 다듬이방치소리만 들어도 왜놈들은 이마가 터지고 피투성이가 되였다는 전설은 바로 여기서 생겨난 이야기이다.

차　　례

백 두 산 바 람

항일무장투쟁시기 우리 인민들속에서는 경애하는 **김일성**장군님께서 축지법을 쓰실뿐만아니라 장신술, 분신술도 쓰시여 왜놈들을 혼비백산하게 만드셨다는 통쾌한 이야기가 널리 퍼졌다.

이 이야기는 왜놈들의 군대와 경찰이 욱실거리던 서울 한복판에서 있은 일이라고 한다.

어느 봄날, 서울 룡산경찰서에 새로 부임된 와다나베 다로형사는 전화를 받다가 갑자기 두귀가 번쩍 열려 《핫! 핫!》하며 연신 고개를 갑삭거렸다.

《**김일성**빨찌산을 아는가? 그 빨찌산의 **김일성**장군이 도꾜에 나타났다는 정보이다. 틀림없이 이삼일안으로 서울을 통과할것이다. 기회를 놓치지 말라. 다년간 유격대<토벌>에 참가했고 또 **김일성**장군을 본바 있는 군에게 주는 특별임무이다. 명심하라. 쥐도새도 모르게 포위망을 쳐놓았다가 꼭 체포해야 한다. …》

전화기에서 쏟아져나오는 호통소리였다.

《핫, 기어이 각하의 두터운 신임에 보답하겠습니다.》

총독부 경무국장이 직접 걸어준 전화를 받게 된 와다나베형사는 황송하고 감격하여 긴 허리를 나무판자처럼 꿋꿋이

펴고 《핫!》을 련발하였다. 이것이야말로 하늘이 준 기회가 아니겠는가.

벌겋게 상기된 그의 눈앞에는 화려한 출세길과 재부가 어려왔고 얼굴에는 흡족하고도 교활한 웃음이 흐물흐물 피여올랐다.

《어제 도꾜에 있었다, 그러니 오늘은 부산, 래일이나 모레쯤엔 반드시 서울역에…》

고등계형사인 그는 비교적 돌아가는 두뇌와 비상한 수완으로 《승진일로》의 큰길을 걷고있다고 할수 있었다. 물론 국경일대에서 일반경찰로 근무할 때는 **김일성**장군유격대의 빈번한 출몰로 하여 어느 하루도 발편잠을 잔적이 없었다. 령하 40도를 오르내리는 혹한속에서 허리치는 눈을 헤치며 끌려다닌적이 한두번이 아니였다.

어느때인가는 **김일성**장군의 신출귀몰하는 유격전법에 걸려 밤새껏 제편끼리 맞불질을 하다가 하마트면 천당으로 갈번하였다. 다행히도 부상을 입어 유격대《토벌》에서 제외되는통에 목숨이나마 부지할수 있었다.

그는 꾀바른자였다. 자기의 목숨을 건지자면 유격대《토벌》에 끌려다니지 말아야 하며 백성들의 원한을 사지 말아야 한다는것을 잘 알고있었다. 몽둥이를 휘둘러대는 일에는 다른 자들을 내세웠다. 그대신 곳곳에 끄나불들을 박아넣고 정보를 수집하는 교활한 방법을 취했다. 그리하여 애국자들도 몇명 잡아들이고 혁명가들도 몇명 색출해낼수 있었는데 그덕에 그는 상관들의 눈에 들게 되였다.

와다나베는 일반경찰로부터 고등계형사로 되였으며 얼마전에는 총독부가 있는 서울룡산경찰서로 일약 승진해왔다.

그런데 벌써 경무국장의 눈에 들어 특별임무까지 받게 될 줄이야. 경무국장의 말이 기분좋게 되살아났다.

《…**김일성**장군을 본바 있는 군에게 주는 특별임무이다.》

와다나베형사는 자기가 **김일성**장군을 보았다고 확신하고있었다.

어느해인가 진드기《토벌》작전에 몰리워 유격대의 꼬리를 물고 추격한적이 있었다. 그때 유격대와의 거리는 불과 250메터 되나마나했다.

유격대의 맨앞에는 키가 름름하고 기품이 범상치 않아보이는 지휘관이 걷고있었다. 그 지휘관이 한참씩 서서 쏘아볼때면 머리칼이 쭈빗 일어서는것 같았고 몸이 가드라들고 발이 땅에 얼어붙은듯 떨어지지 않았다.

와다나베는 륙감으로 그 지휘관이 **김일성**장군이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그날 와다나베가 속한 《토벌》대는 유격대를 추격하는것이 아니라 오히려 끌려다니다가 거의 얼어죽고 굶어죽고 겨우 몇몇이 구사일생으로 본거지로 돌아왔다.

와다나베형사는 그때일을 생각하면서 끝없는 밀림이나 산속이라면 몰라도 인총이 많고 경찰과 군대로 겹겹이 에워싼 이 서울바닥에서는 한번 본때를 보여줄수 있다고 쾌재를 올렸다.

그는 전화로 자기의 끄나불들에게 지시를 주었다. 그리고는 경찰서에서 나와 역방향으로 가는 전차에 몸을 실었다. 차안은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시루속의 콩나물처럼 빼곡하였다.

와다나베의 머리속엔 하나의 계책이 맴돌고있었다,

(관부련락선에서 내린 **김일성**장군이 경부선기차를 탈테지. 기차안에서부터 미행을 달고 포위해오다가 서울역구내에서 철컥…)

그의 눈앞에는 력사적인 활극같은 장면이 선히 떠올랐다.

이때였다.

《아침부터 취했어? 왜 이러는거야 주정뱅이같은게…》

별안간의 쇠된 악청에 펀득 정신을 차리고보니 군턱이 진한 녀자가 울상이 되여 발을 구르고있었다. 살이 말짱 들여다보이는 양말을 신은 그 녀자의 발잔등에 얼룩덜룩한 발자국이 찍혀져있었다.

어쩔바를 몰라 《하, 이거 미안합…》하고 머리를 숙이는 순간 와다나베형사는 《앗!》하고 작은 두눈에 쌍심지를 켰다.

앞자리에 범상치 않아보이는 젊은 사람이 태연히 앉아 신문을 보고있었다. 준수하고도 인상깊은 얼굴, 정기도는 눈빛, 깊숙이 내리쓴 창이 넓은 중절모…

꼭 어디선가 본것 같은 모습이였다. 순간 번개치듯 (**김일성**장군?!…)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니,아니야. 아무리 날고뛴다 해도 사람이 어떻게 하루밤사이에 도꾜와 서울을 오락가락한단말인가.

그런데 부정하면할수록 이상하게도 **김일성**장군이라는 확신이 더 강해지는것이였다.

와다나베가 이런 생각을 굴리는새에 전차는 멎고 신문을 보던 그 젊은 사람도 사람들 틈에 섞이여 전차에서 내리였다.

전차가 《땡 땡》종을 울리며 떠나는 순간에야 와다나베형사는 펄쩍 정신을 차리고 차에서 뛰여내렸다.

(**김일성**장군이다! 축지법을 쓰는 장군이니 그쯤한 거리야 무슨 대수겠는가. …)

와다나베는 저도모르게 몸을 떨었다. 백두산의 눈무지속에서 얼어죽고 굶어죽은 《토벌》대의 숱한 주검이 눈앞에 얼른거렸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아무리 신출귀몰한다는 장군이라 해도 이 서울거리에서는 빠지지 못하리라는 위안이 생겼다.

(산에선 빨찌산을 하지만 이 거리바닥에서까지야 빨찌산을 할텐가.)

신바람이 난 그는 멀리로 사라지는 젊은 사람의 뒤를 황급히 뒤쫓았다.

정오를 가까이한 때라 거리는 사람사태가 났다.

젊은 그 사람은 신문을 옆구리에 낀채 서두름이 없이 천천히 걸어가고있었다.

와다나베는 너무도 여유작작한 그 기품에 놀라면서도 걸음을 더 빨리 하였다.

조금만 더… 그러면 경찰서앞에 이를것이다.

드디여 경찰서 앞마당에 이르렀다. 《서라! 잡았다!》하는 고함소리가 그의 목구멍에서 막 터져나오려는 순간이였다.

《어이쿠…》

와다나베형사는 별안간 불어치는 돌개바람속에 휘말려들었다.

아찔했다. 온몸이 허궁 들리워나가는듯 하여 눈을 꽉 감았다. 다시 눈을 뜨고보니 이게 어찌된 일인가. 눈앞에 한사람뿐이던 그 젊은 사람이 갑자기 둘, 셋, 넷으로 나타난것이 아닌가.

름름한 몸집이며 점잖은 걸음새, 깊숙이 눌러쓴 창넓은 모자까지도 네사람이 신통히도 꼭 같았다.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그는 자기가 환각속에 빠져든것만 같아 볼을 꼬집어보았다. 아픔이 느껴졌다. 결코 환각은 아니였다.

와다나베는 곧 경찰서로 뛰여들어가 전화통에 매달렸다.

《젊은 사람… **김일성**장군이 분명한데 지금 종로거리를 향해서… 동대문방향과 서대문 그리고…핫, 핫.》

김일성장군이 서울에 나타났다는 와다나베의 정보를 받은 경무국장은 즉시 중무장한 경찰대를 총출동시켰다. 거리는 온통 수라장이 되였다. 싸이렌소리가 숨가쁘게 울리고 차들이 멎어서고 길가던 행인들이 경찰들의 곤봉에 떠밀리워 끌려다녔다.

그런데 거리와 골목들을 샅샅이 뒤져내고 행인들의 통행검색을 강화했어도 와다나베가 보았다는 그 젊은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이날 경무국장에게 불리워가서 얼벌벌하게 뺨을 맞고 나온 와다나베는 혼이 빠졌는지 안면신경통이 생겼는지 웃는지 우는지 알수 없는 상이 되였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란말인가.…)

바로 이때였다. 벽에 걸린 전화통에서 종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와다나베가 힘겹게 몸통을 일으켜 전화를 받으니 제 끄나불에게서 온 전화였다. 대뜸 그의 눈이 커졌다.

《뭐, 뭐야? 반도호텔에… 방금전에 그 젊은 사람이… 창넓은 모자를 썼구 보통사람같지 않다, 좋아! 내 이제 갈테다!》

와다나베는 이번에는 그물속의 고기라고 믿었다.

전차에서는 부득이 혼자 따르다가 혼잡속에서 그런 랑패를 보았지만 호텔에 들어간 다음에야…

그는 헌병대, 수비대,경찰대에 알려 개미 한마리 얼씬 못하게 반도호텔을 세겹네겹으로 에워싸게 했다. 그다음에야 총을 든 수십명의 경찰들을 끌고 호텔로 돌입하였다.

마침 와다나베가 전차안에서 보았던 젊은 그 사람이 저녁식사를 마치고 홀에 있는 안락걸상에 앉아 천천히 차를 마시고있었다.

와다나베는 기회를 놓칠세라 경찰들을 끌고 그리로 밀려갔다.

그런데 정작 그앞에 이르자 와다나베는 풍만난 사람처럼 와들와들 떨었다. 어디선가 순간적으로 바람이 불어온듯 생각되였다. 말을 해야겠는데 입도 열리지 않았다.

《무슨 일이요? 갑자기 병이 왔소? 왜 그렇게 오한이난 사람들처럼 떨고있는거요?》

젊은 그 사람이 물었다.

와다나베가 옆을 둘러보니 경찰들 역시 자기처럼 우들우들 떨고있는것이였다.

차를 다 마신 젊은 그 사람은 태연자약한 걸음으로 호텔주인에게로 다가가 몇마디 말을 주고받더니 밖으로 나가버렸다.

그제서야 경풍에서 벗어난 와다나베는 이 모든것이 그 젊은 사람의 《도술》에 의한것임을 깨달았다. 경찰들도 방금전의 일이 믿어지지 않는듯 서로 마주보며 눈만 데룩거렸다.

와다나베는 주인에게 방금 그 신사와 무슨 말을 했는가고 물었다. 그는 빙그레 웃음을 지으며 이렇게 대답했다.

《아, 그 손님말인가요. 보통분이 아닙니다. 그분의 말씀이 인차 조선이 독립된다더군요. 일본 천황에게 최후통첩을 하려고 도꾜를 다녀오는 길이라더군요. 참, 내 정신두… 여기에 그분의 명함장이 있을겁니다.》

호텔장부를 펼치니 그 손님이 놓고간 명함장이 끼여있었다.

명함장을 집어들던 와다나베는 순간 몸의 균형을 잃고 모재비로 쿵 나가넘어졌다. 경찰들이 다급히 몰려와 그 명함장을 손에 들었는데 그들 역시 그 자리에 쓰러지고말았다.

호텔주인이 하도 이상하여 명함장의 글을 읽어보았는데 거기에는 《조선독립대장 **김일성**》이라는 존함이 명백히 씌여져있었다.

김일성장군님께서 서울에 오시다니!

그후 고등계에서는 반미치광이가 된 와다나베를 가두어넣고 소문을 막아보려고 했으나 이 소식은 서울장안은 물론 조선의 곳곳으로 급속히 퍼졌다.

사람들은 백두산대장수이신 **김일성**장군님께서 일본제국주의에 죽음을 선고하시기 위해 잠시 일본 도꾜를 다녀오셨는데 그때에 축지법을 써서 하루사이에 부산을 거쳐 서울에 도착하시였고 반도호텔에서 하루밤을 묵으시며 서울거리를 돌아보시였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김일성**장군님께서 장신술, 분신술을 쓰시고 백두산바람을 불게 하여 와다나베형사가 눈을 감게 한후 유유히 호텔을 떠나셨다고 저마다 제가 본것처럼 소문을 돌렸다.

그 소문이 어떻게나 급속히 전파되였던지 왜놈들은 그것을 백두산바람이라고 아우성치며 벌벌 떨었다.

소덕수의 물방아

항일무장투쟁시기 우리 인민들은 빼앗긴 나라를 찾기 위해 백두광야에서 백만대적과 맞서 싸우는 조선인민혁명군을 물심량면으로 도와나섰다. 천과 쌀, 신발, 소금, 성냥… 필요한것이라면 그 무엇이든 산으로 보내주었다.

특히는 많은 식량을 보내주기 위해 애썼다. 마을마다에서는 밤마다 왜놈들의 눈을 피해 쌀을 찧는 물방아소리가 그칠새 없었다고 한다. 그 물방아소리를 두고 수많은 전설들이 생겨났다.

이 이야기는 소덕수마을의 물방아를 두고 생겨나 전설로 전해오는것이다.

해방전 하나둘 인가들이 모여 마을을 이룬 크지 않은 소덕수마을에는 사시장철 마르지 않는 골개물을 리용한 물방아가 있었다.

아침이고 낮이고 저녁이고 호기있게 쿵쿵거리는 방아소리가 깊은 산골의 정적을 깨치며 멈출줄 몰랐다.

한알이라도 유격대에 쌀을 더 보내자고 그 아근의 마을은 물론이고 멀리에서까지 쌀섬들을 지고이고 찾아들군했다.

유격대의 원호미를 찧고 또 찧는 방아소리를 들어야 이곳 사람들은 마음이 편해지고 잠도 잘 온다고 말들을 하며 이

물방아를 마을의 자랑으로 여기였다.

왜놈들의 귀에도 이 소문이 들어갔다. 그러잖아도 산으로 빠지는 쌀의 출처를 밝혀내기 위해 전전긍긍하던차에 소덕수 마을의 물방아로 낮이고 밤이고 숱한 쌀을 찧어낸다니 그것은 분명 유격대의 원호미일것이라고 쾌재를 올렸다.

왜놈들은 소덕수의 물방아를 목표로 총출동하였다.

가을날의 이른아침이였다.

물방아소리는 그전과 다름없이 쿵쿵 아침대기를 깨쳤고 마을의 집집마다에선 부지런한 녀인들이 불을 지피는지 굴뚝마다에서 연기들이 모락모락 피여오르고있었다.

왜놈들은 은밀히 물방아를 포위하고 달려들었다. 그런데 물방아주변에는 사람그림자 하나 찾아볼수 없었다. 물방아소리는 여전히 쿵쿵거리고…

밤낮으로 쌀을 찧는다던 사람들이 왜 보이지 않는가.

졸개들을 끌고온 《토벌》대장놈은 이상해서 방아공이가 내리찧는 방아확을 들여다보았다. 언제 쌀을 찧어냈는지 알수 없게 텅 비여있었다.

《토벌》대장놈은 그 어떤 놀림가마리에 든것만 같아 피대줄을 세웠다. 그 분풀이를 해대지 않고서는 성을 가라앉힐수 없었다.

그놈은 졸개들을 시켜 마을사람들을 끌어내라고 호통을 쳤다.

집집마다에서 어른아이 할것없이 끌려나왔다. 《토벌》대장놈은 사람들속에서 그중 나이가 많은 로인에게 을러멨다.

《오늘 아침 령감은 뭘이나 먹었는가?》

《아직 식전이우다.》

그놈의 상통이 소태를 씹은듯했다.

《뭣이나 먹게 되는가말이다.》

《풀죽을 먹수다.》

《쌀이나 많이 찧어서 어디에 가져갔는가?》

《쌀이 어디 있수?》

그놈은 또 한 녀인에게 눈을 부라리며 물었다.

《쌀이나 많이 찧었지?》

《쌀구경한지 까마득한데요. …》

가까스로 자신을 다잡듯 살기떤 웃음이 그놈의 얼굴에 나타났다.

왜놈대장놈은 이번에는 옆구리에 차고있던 일본군도로 예닐곱살 되여보이는 더벅머리총각애의 턱을 들어올렸다.

《너는 알지? 너의 엄마가 밤마다 쌀을 찧었지?》

더벅머리총각애는 금시 왕-하고 울음을 터뜨릴듯 겁을 먹고 비실비실 물러나며 고개를 저었다.

그렇단말이지, 누구도 쌀을 안찧었다. … 쌀을 먹지 않는다. …

왜놈대장놈은 음흉스러운 상통에 보기에도 오싹해질 살기어린 웃음을 지었다. 그놈의 눈길은 쿵쿵거리는 방아공이를 따라 오르내렸다.

마침내 그놈은 졸개들에게 명령했다.

《저 물방아를 흔적조차 없애버려!》

왜놈들은 간악한 심보그대로 물방아를 찍어넘기고 꺾어버리고 그것도 성차지 않아 불을 달아 재가루만 남게 하였다. 그리고는 제놈들의 상부에 유격대원호미를 보장하는 근원을 깨끗이 없애버렸다고 보고를 했다.

그런데 며칠후 왜놈들의 상부에서 오히려 독설이 섞인 추궁이 떨어졌다.

《빠가야로(머저리같은 자식), 근원을 없앴다? 물방아소리

가 들리지 않는가?》

정말로 쿵쿵 물방아소리가 들리는것이였다. 그 무슨 우뢰같은 힘을 가진 틀림없는 물방아소리였다.

전에 없던 그 소리에 몸이 오싹오싹해나고 눈앞이 어질어질해나는듯싶었다.

《당장 출동하라. 물방아간을 향하여 돌격!》

이윽고 《토벌》대장놈은 고래고래 소리치며 졸개들을 내몰았다.

그런데 웬일인가. 소덕수마을로 가는 곳곳의 마을들에서 더 크고 힘찬 물방아소리가 들리는것이였다.

이쪽 마을에서도 쿵 쿵… 저쪽 마을에서도 쿵쿵… 그 소리가 합쳐져 그리도 크게 쿵쿵거리는 소리로 메아리되여 울리고있었다.

소덕수마을에 들이닥친 왜놈들은 깜짝 놀라 서로 마주보며 눈알을 데룩거렸다.

종전의 물방아보다 더 크고 더 힘찬 소리를 내는 물방아가 그 자리에 있었다. 골개골의 물량도 더 많아지고 물살 또한 세차게 흘러내리고있었다.

어찌된 일인가, 귀신의 조화로다.

《토벌》대장은 마을의 좌상로인에게 사연을 물었다. 로인의 대답은 청천벽력같은 이야기였다.

며칠전 조선인민혁명군부대를 이끄시고 소덕수마을을 찾으신 **김일성**장군님께서는 물방아가 없어 안타까와하는 마을사람들에게 원래 물방아를 놓지 못하고 살아왔는가고 물으시였다고 한다.

왜놈들이 달려들어 그 물방아를 없애버렸다는것을 아신

장군님께서는 몹시 노하시여 대원들에게 더 크고 힘찬 물방아를 놓아줄데 대한 명령을 내리시였다. 그이께서는 떠나시면서 이제 이 물방아소리를 듣고 왜놈들이 올터인데 이 물방아를 없애는놈은 천벌을 받을것이라는 경고를 전하라고 이르시였다는것이다.

《토벌》대장은 장군님의 존함만을 듣고도 벌써부터 제정신이 아니였다. 사지가 떨려나고 아래턱이 눈에 알리게 덜덜거렸다.

그러니 감히 물방아는 다치지 못하고 골개물을 이루게 하는 샘을 없애버리고 황황히 소덕수마을을 떠났다.

그런데 일은 그 이후에 벌어졌다.

밤도 깊은 밤, 갑자기 어디선가 쏴아- 하는 물소리와 함께 왜놈병영을 향해 물사태가 났다. 하늘엔 푸르청청 별이 떴는데 때아닌 물사태가 이 어인 일인가.

여기서도 물, 저기서도 물… 삽시에 왜놈병영안은 아비규환의 수라장이 되였다.

자다가 죽는놈, 허우적거리다 죽는놈, 뛰다가 죽는놈, 별의별놈이 다 있었다. 이상한것은 그날밤의 그 물사태가 왜놈병영만을 휩쓸어간것이였다.

이 일을 두고 사람들은 물방아의 샘줄기를 막아버린 왜놈들에게 **김일성**장군님께서 천지조화를 일으켜 벌을 내리신것이라 했다. 이 소문이 날개가 돋쳐 여기저기로 쉬임없이 전해지는 과정에 어떤 사람은 백두산의 천지물이 격랑을 일으키여 왜놈병영을 향해 폭포처럼 쏟아지는것을 보았다고도 했고 어떤 사람은 압록강의 물이 왜놈들에게 쏟아져내렸다고도 했다.

어쨌든 그 일이 있은후로 왜놈들은 더는 물방아를 없앨념을 못하고 그 소리만 듣고도 공포에 질려 벌벌 떨었다는것이다.

일본땅에 나타난 특사

1940년대 전반기 일본제국주의자들은 《대동아공영권》의 야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중국대륙에 대한 침략전쟁을 결속하지 못한채 동남아시아지역으로 전쟁의 불길을 미친듯이 확대하였다.

일본천황과 군부정권은 날마다 그 무슨 황군의 혁혁한 《전과》를 요란스레 떠들며 《후방의 안녕》을 위해 만전을 기하라고 고아댔다.

이로 하여 놈들의 아성인 도꾜궁성과 대본영은 철통같은 경비진을 쳤고 거리와 골목, 지어 일터와 대학들, 눅거리 술집과 하루밤려인숙 할것없이 헌병, 경찰들의 살기띤 눈초리속에 들어있었다.

그때에 바람을 타고 구름을 타고 소곤소곤 우리 동포들의 원한서린 고역장들과 그들이 사는곳으로 백두산의 장수별이야기가 파다하게 퍼져나갔다.

그 이야기들속에는 《**김일성**장군님의 특사가 도꾜에 나타났댔다.》는 희한한 소문도 들어있었다.

어떻게 왜놈들의 삼엄한 감시망과 열겹, 스무겹으로 둘러싼 경비진을 뚫고 **김일성**장군님의 특사가 도꾜의 네거리 한복판에 나타났을가?

… 일본에서 제일로 용감한자, 일본에서 제일로 무서운자, 성미가 면도칼같은 사나이로 불리우는 악명높은 도죠 히데끼가 대본영의 주인으로 틀고앉은 때의 일이였다.

면도칼같은 도죠는 입만 벌리면 《대동아공영권》을 제창하며 천황폐하를 위해 죽으라느니, 다이나마이트가 되여서라도 태평양전쟁에서 이겨야 한다거니 하며 목이 터지라 고아댔다.

이미 조선과 중국대륙에 손을 뻗친후 이제는 온 아시아를 전쟁의 불도가니속에 집어넣은 도죠였다. 그러한 그가 요즘 신경과민증에 걸려 대본영을 일대 수라장으로 만들었다. 걸핏하면 전화통을 집어던지고 각료들에게 고래고래 소래기를 지르기도 하고 어떤 날에는 머리에 수건을 질끈 동이고 끙끙 앓음소리를 내다가는 갑자기 머리칼을 쥐여뜯으며 미쳐날뛰기도 했다.

처음은 한달에 두번정도 나타나던 증상이 최근에는 거의 매일이다싶이 나타났다. 그도그럴것이 백두산에서 **김일성**장군님께서 관동군을 련속 수세에 빠뜨리고 《대일본제국》의 명줄을 각일각 조이고있다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이 매일 날아오기때문이였다.

각 전선에서 방대한 무력을 저마다 보내달라고 아우성치는 때에 관동군이 **김일성**장군유격대에 발목을 붙잡혀 오도가도 못하는 가련한 신세가 되였으니 실로 복통이 터질노릇이였다.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김일성**장군님의 특사가 일본본토에까지 나타났다는 소문이 퍼져 도죠의 신경발작은 날이 갈수록 더해만졌다.

어느날 도죠는 각료들을 불러다가 다불러댔다.

《바야흐로 천황페하의 하늘같은 존엄과 대해같은 덕망으로 하여 조상대대 꿈속에서만 그려보던 <대동아공영권>의 성업이 이룩되고있는 력사적시각에 후방이 어째서 이리도 소란하단말이냐.… 괴멸되였다던 **김일성**장군유격대는 의연히 동에 번쩍, 서에 번쩍 하며 우리 황군의 뒤통수를 후려치고있다. 게다가 요즘은 도꾜 한복판으로 백두산의 특사가 대낮에 활보한다고 하니 경무총감, 말해보라. 이게 사실인가?》

《각하!》

경무총감은 전기에라도 감전된듯 와뜰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최근시기 **김일성**장군유격대의 맹렬한 군사정치공작으로 조선인들의 태도가 눈에 뜨이게 달라지고있는바 진해해병대에서 조선청년들이 **김일성**장군님유격대로 가겠다고 일으킨 집단탈출사건, 평양주둔 80사단의 반일학도병무장대사건 등을 보고했다.

또한 조선인들의 이러한 반일기운이 본토에까지 뻗쳐 동맹회, 충성회라는 각종 명칭의 비밀조직이 나오고 지어 자산계급출신의 자식들이 다니는 제국대학과 중앙신학교, 6고등학교사건들과 니이가다철공소의 《**김일성**대》가 특별히 주목을 끌고있다고 장광설을 늘어놓았다. 그리고는 다시 도죠쪽을 바라보며 어조를 바꾸었다.

《각하! 그러나 그닥 념려할것은 없습니다. 벌써 전국각지에 특고를 비롯한 경찰대와 헌병대를 그물망처럼 늘였습니다. <대일본제국>의 수도인 이 도꾜에는 절대로!… 그 특사설은 필경 류언비어일것입니다.》

《닥쳐라! 본관은 관동군 헌병사령관시절에 **김일성**장군과

직접 겨루어 고배를 마신 경험이 있다. 승천입지, 신출귀몰하는 축지법, 네가 이걸 알기나 하는가?》

도죠는 회의석상이라는것도 잊고 자기도 깜짝 놀랄 정도로 고함을 질렀다. 신경발작이 일어난것이였다.

낮이 기울어서야 입맛 없는 점심을 치른 그는 심신의 피로를 풀양으로 폭신한 침대에 몸을 던졌다.

한 15분 지났을가, 잠든듯하던 도죠가 와락 이불을 걷어차며 몸을 일으켰다.

《에이, 개자식!》

벌겋게 충혈된 눈을 부릅뜬 도죠는 머리가 쪼개지는것 같은 불쾌감을 어쩔수 없었다.

그는 자기 머리를 마구 거머쥐고 흔들어댔다.

이것도 최근에 계속되는 이상증상이였다.

어쩐지 잠만 들면 관동군 헌병사령관시절 밀림속에서 유격대의 총에 맞아죽고 얼어죽고 굶어죽은 졸병들의 시체가 자꾸만 눈앞에 얼른거리는것이였다.

오늘은 그 시체들이 모두 되살아나서 자기를 따라오는데 아무리 총을 쏘고 칼로 찔러도 소용이 없었다. 너도 우리와 함께 가야 한다고 소리치는자도 있었다.

아무리 뛰고뛰여도 마음뿐이지 걸음은 떠지기만 하더니 마침내는 그자들의 손아귀에 덜미를 잡히우게 되였다.

도죠는 너무도 기겁하여 소리를 지르며 뒤로 벌렁 나자빠지는통에 잠에서 깨여났다.

이날은 종일 기분이 나빴다.

오후 첫 전화종소리가 울렸다.

《뭐야? **김일성**장군의 특사가?!》

김일성장군의 특사가 먼 북해도의 탄광에 나타났는바 자기 동포들과 오래동안 이야기를 나눈후 감쪽같이 사라졌다는것이였다.

도쬬는 헌병대를 몽땅 풀어 특사의 행처를 기어이 찾아내라고 명령했다.

그럴 때 두번째 전화가 걸려왔다. 도꾜경시청에서 온 보고인데 지금 **김일성**장군의 특사가 제국대학에 나타나 버젓이 강의를 하고있다는것이였다.

이건 무슨 도깨비감투끈인가, 특사에게 날개라도 달렸단말인가, 북해도에서 언제 도꾜에까지…

다시 전화종이 울렸는데 경찰들이 포위환을 치고 들어가보니 혼잡통에 특사는 감쪽같이 사라졌다는것이였다. 변장술이 보통 능하지 않고 눈앞에서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 조화를 부린다고 했다.

《밥통들! 머저리들! 모가지를 베버릴 썩어질것들!…》

도쬬는 너무 분통이 터져와 살맞은 범처럼 이리뛰고 저리뛰며 안절부절했다. 전화통이 또 박살이 났다. 오늘만도 벌써 두번째의 신경발작이였다.

의사가 달려와 주사를 놓았다.

도대체 특사는 어디로 사라졌는가?

그때 조심스레 들어온 처녀서기가 한뭉테기의 편지묶음을 내놓았다. 그중 큰 봉투를 따로 내밀면서 《한 젊은 사나이가 면회를 청하고 기다리다 이 편지를 두고 갔습니다.》하고 조용히 아뢰였다.

도쬬는 그것들을 활 밀어놓았다. 그런데 왜서인지 그 큰 봉투에 자꾸만 눈길이 갔다. 저도모르게 손을 뻗쳐 겉봉을

뜯었다. 봉투안에서 편지지가 떨어졌는데 아무것도 쓰지 않은 빈 종이장이였다.

도죠는 호기심이 부쩍 동해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그러자 놀랍게도 아무것도 씌여있지 않았던 백지에서 글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침략의 괴수 도죠 히데끼 앞.

우리는 조선에서 강도 일본제국주의를 몰아내기 위해 싸우는 조선인민혁명군이다.

침략자는 제가 지른 불에 타죽기 마련이다. 너희들이 아무리 최후발악을 해도 그것은 네놈들의 멸망을 앞당길뿐이다.

네놈들이 살아남는 길은 무조건 전쟁을 중지하고 항복하는 길뿐이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최후통첩이다.

조선인민혁명군》

도죠는 얼굴이 하얘지면서 두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조선인민혁명군의 최후통첩장이 도죠의 얼을 뽑아버린것이였다.

한참만에야 《대일본제국》의 주인이라는 자기 체면을 세워보려고 미친듯이 초인종을 눌러댔다. 그로부터 30분이내에 일본각지에는 《비상계엄령》이 하달되였다.

경찰과 헌병, 특무들은 거리와 골목 심지어는 뒤골목의 쓰러져가는 하루밤려관까지도 샅샅이 뒤졌다. 눈에 걸리는것, 색다르게 보이는것은 닥치는대로 잡아들였지만 백두산에서 온 투사는 하늘로 올랐는지 땅으로 잦아들었는지 종무소식이였다.

그러다가 불쑥 도꾜의 한복판 제국호텔접수에서 통지가 왔는데 한 고급호실의 탁우에서 《조선인민혁명군 대표 최아무

개》라고 쓴 명함장을 발견했다는것이였다.

도쬬는 그 말을 듣고는 급소를 맞은 사람처럼 결상채로 나가넘어졌다. 이번에는 거품까지 물고 늘어졌는데 여느때보다 쇼크시간이 퍽 늘어났다. 증상이 험악한 세번째로 되는 신경발작이였다. …

그는 대본영의 자리를 지켜낼 힘이 없다는것을 깨닫고《주인》의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사람들이 전하는 말에 의하면 도쬬가 특사소동이 있은 후로 병세가 급속도로 악화되여 피해망상증환자와 같이 되였는데 그 증상이 대낮에도 해빛을 저어하는것으로, 지어 제 녀편네까지도 방안으로 못들어오게 하는 발광적인 지랄로 나타났다고 한다. 그러다가도 정신이 들면 또 전쟁전쟁하며 미친개처럼 짖어댔다는것이였다.

결국 조선인민혁명군의 최후통첩을 받아들이지 않은 도쬬는 조선인민을 비롯한 아시아인민을 전쟁의 대참화속에 몰아넣은 책임을 지고 8.15해방과 함께 력사의 교수대에 매달리는 신세가 되고말았다.

신기한 금방울

백두산이 바라보이는 어느 한 마을에 순호라는 어린 머슴총각이 살고있었다.

그는 왜놈들이 이리떼처럼 달려들어 조선사람들을 마구 죽이던 경신년 대《토벌》때 량부모를 잃고 빚값에 지주집 머슴살이를 하는 소년이였다.

그에게 남은것이란 이제 겨우 열살잡힌 누이동생 분이뿐이였다.

그런데 악착스러운 지주놈이 어린 분이를 하루아침에 그 어딘가에 있다는 왜놈순사의 집 부엌데기로 팔아버렸다.

머슴살이 고역이 웬걸 편하랴마는 그래도 떨어지지 않고 얼굴을 보기라도 한다면 그이상 소원이 없을것 같은 그리움을 안고 그들 오누이는 그날만을 손꼽아 기다려오고있었다. 순호는 지주집에서, 분이는 왜놈순사의 집에서…

고된 일에 지쳐 쓰러져 어설픈 잠에 들 때면 한밤중에 우는 소쩍새의 소리가 꼭 오빠를 찾는 분이의 울음소리로 여겨져 울고울던 순호였다.

순호는 늘 작은 어깨에 자기보다 더 크고 무거운 나무짐을 져야 했다. 그러나 그는 나무짐이 작다고 지주녀편네가 행악질을 해대며 때리고 굶겨도 얼마든지 참을수 있었다. 하지만

생사를 알길 없는 어린 누이동생이 이런 추운 겨울날에 언손을 호호 불며 큰 물독에 물을 채우다가 물동이를 깨고 매를 맞는 모습이 하루에도 열두번 눈앞에 어려와 마음속으로 애타게 동생을 찾고부르군했다. 그러다가 너무도 절통하여 《아버지- 어머니- 이런 세상에 왜 우리를 남겨두고 가셨나요!》하며 목놓아울군하였다.

그때마다 순호의 부르짖음은 무정한 절벽에 부딪쳐 메아리되여올뿐이였다.

해뜨기전인 어뜩새벽부터 자정이 되여오는 밤늦게까지 순호는 팽이처럼 돌아가며 일을 했다. 그러나 갈수록 더해지는 것은 지주년놈들의 욕설과 매질뿐이였다. 다만 작은 기쁨이나마 있다면 나무짐을 지고 오다가 길녘의 김로인네 집에 들리는 때였다. 김로인은 부모님들이 살아있을적에 순호네와 이웃에 살던 마음 좋은분이였다. 그 로인은 아는것도 많고 이야기도 구수하게 할줄 알았다.

순호는 김로인에게서 백두산대장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제일 좋았다. 축지법으로 땅을 주름잡으며 왜놈들을 삼대베듯하신다는 백두산대장수님!

그분이 우리 마을에도 오셨으면…

그런 이야기를 듣는 날이면 순호는 나무짐도 감감 잊군하였다.

어느날이였다. 산에 나무하러 갔던 순호는 대낮에 절반도 차지 않은 지게를 지고 허둥지둥 김로인의 집을 찾아왔다.

김로인이 웬일인가고 묻기도전에 순호는 급한 숨을 내쉬면서 자기가 방금 백두산대장수님을 만나뵈왔다고 말하는것이였다.

《네가 그분을 뵙다니?! 그게 참말이냐? 덤비지 말고 차근차근 말해라.》

김로인의 놀라움은 이만저만 크지 않았다. 그 역시 날마다 그분의 이야기로 밤을 새우고 그분을 뵈옵는 꿈으로 일구월심 살아오는 로인이였다.

순호는 마른침을 꿀떡 삼키고나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했다.

… 깊은 산속에 들어가 나무를 하던 순호는 해가 중천에 떠오를 때까지 나무짐을 절반도 채우지 못했다. 허리가 부러지도록 삭정이를 줏고 키낮은 나무가지를 찍었으나 종내는 허기지고 지쳐서 어느 너럭바위곁에 쓰러지고말았다.

마가을의 선들바람이 토스레옷을 꿰고 스며들었으나 순호는 그것을 느끼지 못했다. …

이때 별안간 어디선가 쿵 쿵 발밑을 울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순호는 사방을 둘러보았다. 이게 무슨 소리일가?

그런데 저쪽의 우뚝우뚝 솟은 령마루들마다에서 구름같은 안개가 하얗게 뭉치며 일어나는것이 아닌가.

쿵쿵거리는 소리는 분명 그쪽에서 들려오는 소리였다. 그 소리가 가까와왔다.

순호는 더욱 놀라 눈을 비볐다. 그리고 다시 앞을 보았다. 점차 눈앞이 선명해지더니 웬 거인들이 령마루를 성큼성큼 짚으며 걸어오는것이 보였다. 장수들이 분명했다.

맨 앞장에는 대장수가 섰는데 그 높은 령마루들이 대장수의 발길아래 병풍접히듯 한폭씩 접혀드는것이였다. 그 한걸음이 10리나 20리는 잘될것 같았다.

순간 순호는 무엇인가 짚이는데가 있어 무릎을 탁 쳤다.

(아! 축지법 쓰시는 대장수님이시다!)

순호는 있는 힘을 다해 불렀다.

《백두산대장수님!… 대장수님!》

이윽고 대장수님께서 순호를 알아보시였다.

《너는 웬 아이인데 이런 무인지경에 홀로 있느냐?》

순호는 왈칵 울음을 터뜨렸다. 대장수님의 부드러운 그 음성이 그만 작은 가슴에 옹이졌던 설음을 터뜨려놓은것이였다.

그의 속마음을 꿰뚫어보신듯 대장수님께서는 한동안 순호의 머리를 쓰다듬고계실뿐 아무 말씀도 없으시였다.

《어서 말해라. 넌 어째서 울고있느냐?…》

그 자애로움에 이끌려 순호는 눈물을 흘리며 자기가 살아온 이야기를 빠짐없이 말씀드렸다.

분이와 헤여진 사실까지도…

《오누이가 헤여졌단말이지. …》

대장수님의 목소리는 퍼그나 갈리였다.

《순호라고 했지. 순호야, 이 땅에는 너희들처럼 불쌍한 아이들이 많다. 그애들이 다 학교에도 가고 마음껏 웃으며 뛰놀 날이 멀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가고있단다. 자, 이걸 받아라. 넌 누이동생을 꼭 만나게 될게다. 지금은 내가 너에게 이것밖에 줄게 없구나.》

순호는 너무도 고마와 머리를 깊이 숙여 절을 드렸다. 그런데 머리를 드니 눈앞의 백두산장수들이 간곳없이 사라졌다. …

순호는 한참동안 눈을 비비고나서야 방금전의 일이 꿈이였음을 깨달았다. 꿈이라도 참으로 아쉬웠다. 그러나 아쉬운 마음은 한순간이였다. 그의 손에 정말로 자그마한 방울이 꼭 쥐여져있기때문이였다. 반짝! 방울이 금빛을 뿌렸다.

손바닥을 펴보니 솔방울만한 크기의 작은 금방울이 놓여있

었다.

《야! 금방울, 대장수님께서 주신 금방울!…》

순호는 금방울을 가슴에 품고 산을 내리는 길로 김로인을 찾아온것이였다.

그날저녁 순호는 나무짐을 적게 했다고 지주놈에게서 또 매를 맞았다.

《요놈, 어디 가서 늦잠을 잤어? 건달뱅이놈…》

지주놈은 개화장을 쳐들어 순호의 머리며 잔등이며 사정을 두지 않고 조겨댔다.

그때 딸랑! 소리를 내며 순호의 품안에서 금방울이 떨어졌다.

금방울은 눈이 부시게 반짝거렸다.

《엉, 이게 뭐야?…》

《이건… 이건 내거예요.》

지주놈은 순호의 손잔등을 발로 꾹 밟았다. 그리고는 입이 헤벌쭉하여 금방울을 집으려 했다. 그랬으나 기겁을 하며 물러섰다.

《이크… 뜨거워…》

아닌게아니라 방금전까지 반짝이던 금방울이 빨갛게 달아있었다. 이상한 일이였다.

지주놈은 약이 올라 금방울을 철퇴를 휘둘러 깨여도 보고 불속에 집어던지기도 했다. 그러나 금방울은 깨여지지도 않고 불속에 넣어도 녹지 않았다.

지주놈이 온종일 금방울과 역사를 벌렸지만 금방울은 딸랑 소리를 내며 마루에도 뛰여오르고 방안에도 굴러다녔다.

저녁때가 다 되여서야 금방울을 잡아 가마에 넣은 지주놈

은 비지땀을 훔치며 소리를 질렀다.

《애들아! 이제부터 3일동안 가마에 불을 때거라. 기어이 금방울을 녹여버리고말테다!》

이리하여 련 3일동안 가마엔 불이 지펴졌으며 가마는 점점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그랬으나 지주놈은 련속 불을 때라고 고함을 질렀다. 드디여 3일째 되는 날이였다.

지주놈은 이젠 금방울이 다 녹아버렸겠지 하고 가마뚜껑을 열어보았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뚜껑을 열자마자 금방울은 용수철에 튕긴듯 탕 튀여올라 지주놈의 방안으로 굴러갔다.

《저… 저… 금방울 잡아라!》

그러나 금방울은 벌써 지주놈의 집재산을 태우고있었다.

그날밤 《불이야!》하는 소리와 함께 지주놈의 고래등같은 기와집은 깨끗이 타버리고말았다.

그런데 이상한것은 순호가 마을사람들과 함께 타버린 재무지를 아무리 헤치고헤쳐도 금방울이 보이지 않는것이였다.

《금방울아! 너 어데 있니?-》 순호는 목이 쉬도록 금방울을 찾고 또 찾았다.

다른 한편 왜놈순사의 집에 부엌데기로 끌려간 누이동생 분이도 오빠를 그리며 눈물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있었다.

왜놈계집년은 어린 분이에게 제 키보다 더 큰 물독 세개를 매일 채우라고 심술을 썼고 엄동설한에 강가에 나가 빨래를 해오지 않는다고 앙탈을 부리군했다.

어느날인가는 분이의 고운 얼굴이 시샘이 나 화로불을 들씌우기도 했다.

그날밤 온통 화상을 입은 분이는 얼굴을 거적때기에 묻고 서럽게 울고울었다. 이때 반쯤 열려진 문틈으로 《딸랑》하며 금방울이 굴러들어왔다.

《야! 금방울… 넌 어디서 왔니?》

분이가 너무 깜찍스럽고 귀여워 금방울을 품에 안으니 얼굴의 아픔이 순간에 멎고 다시 고운 얼굴로 되돌아왔다.

분이는 그것이 너무도 희한스럽고 믿어지지 않아 금방울을 꼭 쥔채 잠에 들었다.

이튿날이였다. 분이가 부엌으로 들어서자 왜년이 깜짝 놀라 부엉이눈이 되였다. 어제 분명 불이 펄펄 이는 화로불을 뒤집어씌워 얼굴이 온통 물집투성이고 덴 자리가 부어올랐었는데 하루밤사이에 그것이 말짱 없어지고 본래의 얼굴보다 더 고와졌으니 이게 무슨 조화인가.

계집년은 화증이 나서 미칠지경이였다. 분이더러 어서 연자방아를 돌리라고 머리끄뎅이를 잡아흔들었다. 이 집에서 연자방아는 늘 부림소가 돌리군했는데 이날따라 계집년이 소 대신 분이에게 연자방아를 돌리게 한것이였다.

짐승도 힘에 겨워 안깐힘을 써가며 하는 그 일을 사람이, 그것도 연약한 분이가 해야 한다니 오죽이나 힘이 들랴.

분이가 얼굴을 들고 보니 찧어야 할 벼가마니는 산더미처럼 쌓여있었다.

분이는 죽을 힘을 다했으나 연자방아를 열바퀴도 못돌리고 쓰러졌다.

다음날 새벽 분이가 새우잠에서 깨여났을 때였다.

눈을 떠보니 연자방아가 저절로 돌고있는것이 아닌가.

《히야! 연자방아가 저절로 돈다!》

분이는 너무 희한하여 어쩔바를 모르고 기뻐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연자방아의 채우에 금방울이 올라가있는것이였다.

《그러니 금방울 네가?…》

결국 금방울이 저절로 연자방아를 돌게 하여 산더미같은 벼를 모두 찧어놓은것이였다.

하루만에 벼를 다 찧었다는 분이의 말에 왜놈순사와 왜년은 눈이 화등잔만큼 커졌다.

제놈들의 눈으로 이 모든것을 보았지만 선뜻 믿어지지 않았다.

다음날 또 일감을 그만큼 주었으나 다음날도 역시 그런 일이 벌어졌다. 더욱 놀라운것은 간밤에 눈이 강산같이 내렸는데 분이가 있는 연자방아간주변의 눈만은 다 녹아버리고 더운 김이 문문 나는것이였다.

심보가 바르지 않은 왜놈계집년은 분이를 불러다 생트집을 잡았다.

《누가 연자방아를 돌렸지? 바른대로 말해! 네년이 말 안하고 배길줄 알아?…》

분이가 대답이 없자 이년 죽어라 죽어 하고 그의 머리칼을 쥐여뜯었다.

그 찰나 분이의 저고리앞섶에서 《딸랑》하고 금방울이 떨어졌다.

이게 금방울이 아닌가?

《어디서 훔쳤지?》

왜년의 눈은 탐욕으로 반짝거렸다.

《그건 제거예요. 난 훔치지 않았어요.》

《요년아, 네 주제에 금방울이 어떻게 생겨? 도적년아!》

왜년은 분이를 마구 두들겨패고 금방울을 잽싸게 손에 거머쥐였다. 그런데 왜년의 눈이 휘딱 뒤집어지며 그자리에 나자빠졌다.

금방울이 갑자기 딸랑소리를 내면서 왜년의 이마를 딱 치고 굴러가는것이였다.

《여보- 어서 이리 좀 와요!》

왜년이 안방에 대고 제 남편을 불러냈다.

왜놈순사는 제 녀편네의 말을 듣고 메를 들고나와 젖먹은 힘을 다 내여 금방울을 내리쳤다. 그런데 금방울은 그때마다 딸랑소리를 내며 메를 피해 요리조리 돌아갔다.

이게 귀신의 조화가 붙은 물건이라고 생각한 왜년은 금방울을 쇠통안에 집어넣고 무거운 돌을 매달아 우물속에 던져버렸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 왜놈순사의 집 부엌에서 《꾸르륵 꿀럭 꾸르륵》 하는 물소리가 나더니 하루아침에 그 집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자리에는 큰 호수가 생겼다.

순호와 분이가 얼싸안고 울고웃을 때 그 신기한 금방울이 다시 나타났다.

금방울은 반짝반짝 금빛을 뿌리며 그들 주위를 돌아갔다. 사람들은 그제야 그 금방울이 백두산대장수님께서 순호네를 위해 주신 신기한 물건임을 알게 되였다. 그 사연을 알게 된 사람들은 백두산대장수님께서 그러한 금방울을 수십개나 가지고계시는데 순호네처럼 불쌍한 아이들을 보시면 아낌없이 주시여 그 금방울이 조화를 부려 악착하고 간악한 지주놈들과 왜놈들을 쳐없애게 하신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였다.

이마에 붙은 《훈장》

대마록구전투가 있은 직후 왜놈병졸 요시무라는 유별난 《훈장》을 달고다녔다.

훈장이라면 전투에서 세운 공로나 무훈을 표창하여주는것이니 그것은 대개 앞가슴에 다는것이 상례이다. 그러나 유독 요시무라만은 이마에다 《훈장》을 붙이고 다니였다.

요시무라는 관등급상으로 보면 아침저녁 고참들의 발길질에 코밑언저리에 늘 피가 마르지 않는 일개 병졸이요, 말뼈다귀처럼 생긴 긴 상판에 마마자국이 숭숭하여 볼데라고는 조금도 없는 허접쓰레기같은 작자였다.

그에게 좀 남다른것이 있다면 중처럼 머리를 빡빡 깎아내린 되박이마의 오른쪽에 보기에도 끔찍스러운 흉터가 있는것이였다.

이제는 상처가 거의 아물어 붕대도 풀어버리고 열십자로 붙였던 반창고도 떼내여 다소 끔찍스러운것이 그만해졌다고 위안을 가질수도 있겠지만 씹다뱉은 대추씨같은 흉터는 사람들의 눈에 인차 띄웠다.

바로 이 흉터가 병졸 요시무라에게는 하루아침에 《대일본제국》의 《영웅남아》로 되게 해준 영광의 표적이며 이제 말하려고 하는 유격대의 《훈장》이라는것이였다.

바로 며칠전의 일이였다. 대마록구가 유격대에 의해 녹아

났다는 정보를 받고 즉시에 총출동한 왜놈《토벌》대는 어느 한 산골짜기에서 눈우에 난 발자국을 발견했다.

《유격대 발자국이다!》

《토벌》대장놈의 자신만만한 소리에 《토벌》대놈들은 갑자기 긴장해져서 팔다리를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다.

요시무라는 수차의 《토벌》경험에 의하여 신출귀몰하는 유격대가 일부러 눈우에 발자국을 내고 사라졌음을 간파했다. 사위를 두리번거리니 밀림속에 빽빽이 들어선 나무들이 이리저리 움직이는것 같았고 난데없는 바람이 터지는걸로 보아 이것도 유격대가 조화를 부리는것이라고 생각했다.

겁기를 먹고 사지를 와들거리던 요시무라는 서너걸음앞의 큰 바위를 발견하자 급기야 《유격대다!》하고 소리치고는 바위밑에 납작 엎드렸다.

아닐세라 때를 같이하여 산중턱에서 불벼락이 쏟아져내렸다. 뚜루룩 뚜루룩… 유격대의 기관총이 불을 토할 때마다 《토벌》대놈들은 밑둥잘린 나무토막처럼 쿵쿵 뻐드러졌다.

《토벌》대장을 비롯한 숱한 자기 동료들이 자기처럼 《명석》한 두뇌를 가지지 못한탓에 저승으로 가버렸다.

《맙소사!》

요시무라는 결정적인 운명의 순간에 자기앞에 큰 바위를 세워준 운명의 신에게 감사라도 드리고싶었다.

그런데 전투가 끝나갈무렵 요시무라는 그만 하지 말아야할 실수를 저질렀다. 까투리모양으로 무작정 머리를 처박고 있다가 사위가 너무도 조용한게 이상스러워 빠끔히 되박이마를 내밀었다.

순간 《펑!》하고 눈달린 유격대의 총알이 되박이마가죽을

궤고 빠져나갔다. 하여 요시무라는 기절한채로 마대짝에 둘둘 말려서 제놈들의 병원으로 실려오게 되였다.

륙군병원침대에서 깨여나보니 이마는 되게 터졌어도 큰 치명상은 아니였다. 그는 발가락을 놀려보고 손가락도 펴보았다. 몸도 뒤채겨보았다.

분명 팔다리가 몸뚱이에 붙어있는것이 알리였다.

《맙소사!…》

요시무라의 입에서는 거의 환희에 가깝게 이 말이 흘러나왔다.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함께 갔던 동료들이 모두 목없는 귀신이 되였거나 살았대도 팔다리가 부서지고 목대가 부러져 만신창이 되였는데 자기만은 요행 이마를 조금 다쳤을뿐이였다.

이게 운명의 신이 그 어디선가에서 자기를 보살펴주고있다는 《계시》가 아닐가.

물론 머리의 동통이 멎지 않고 빠개질듯 쑤셔났고 이마며 눈두덩이가 주먹만큼 부어오르기도 했다. 어떤 날은 너무도 고통스러워 헛소리를 질러댔다.

요시무라는 이것 역시 신의 의사에 따르는것이라고 생각했다. 신이 자기에게 고통을 주는 이런 장난을 끝장내고 오래지 않아 행운을 가져다주리라는것도 믿어의심치 않았다.

요시무라의 믿음은 헛되지 않았다.

첫 행운은 요시무라에게 너무도 슬그머니 찾아들었다.

그가 병원으로 실려와 3일째 되는 날이였다. 기자들이 그를 찾아 한무리 달려들었다.

김일성장군유격대와 접전이 있었다는 소식을 어디서 얻어들었는지 면회허가를 받아내여 요시무라를 찾아온것이였다.

《토벌》사령부의 우두머리들은 찰거마리처럼 달라붙어

《토벌》대 전멸이요, 뭐요 시끄럽게 구는 기자들에게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며 그 전투에서 《용맹하게 싸우다》부상을 입은 한 황군병사를 직접 만나보라고 했다.

그 용사가 바로 요시무라로 되였다.

기자들은 머리에 온통 붕대를 감은 요시무라를 사진기의 렌즈에 담으며 질문을 소낙비처럼 퍼부었다.

《당신이 무적의 용사 요시무라군인가요?》

《당신의 눈으로 직접 **김일성**장군유격대를 보았습니까?》

《그들은 몇명이나 되던가요? 무섭지 않던가요?》

별의별 질문이 다 있었다. 이것만으로도 요시무라는 일약 《영웅》으로 되였다.

다음날 일본의 여러 신문들에는 《지옥에서 살아돌아온 야마도의 용사》라는 큰 표제아래 붕대를 칭칭 둘러감은 요시무라의 말상판이 나타났다.

한 신문은 이렇게 썼다.

《요시무라군의 이마에는 **김일성**장군유격대가 기념으로 준 <훈장>이 붙어있다. …》

야유를 섞어 쓴 이 기사로 하여 요시무라는 정말로 유격대 《훈장》을 탄 일본남아로 소문이 났다. 한호실의 병졸놈들도 그가 부러워 눈길을 다시 돌리였고 옆방과 지어는 병원의 군의들, 어깨에 무겁게 별을 단 관동군 고급장교들까지도 그를 보려고 찾아왔다.

어쨌든 요시무라는 신의 덕분인지 유격대의 덕분인지 그 되박이마에 보배스러운 《훈장》을 붙인셈이였다.

다행히도 그와 함께 《토벌》에 참가했던놈들은 모두 뒈져버려서 그 전투내용을 아는것은 요시무라 혼자뿐이였다.

요시무라의 이마에 붙인 유격대《훈장》의 힘은 대단하였다. 그것으로 하여 그는 고급료정들에서 열리는 축하연에도 참가하였다. 매일같이 《초청장》들이 날아왔다.

사실 기름진 음식과 아름다운 녀인들이 있는 호화로운 좌석은 일반적으로 《토벌》대장들도 넘겨다보기 어려운 자리였다.

일본 천황폐하가 하사한 《훈장》들을 앞가슴이 모자라게 패용한 고급장교들과 제노라 하는 유지들이 거룩하게 앉은 그런 자리에서도 유격대《훈장》이 제일 눈길을 끌었고 이로 하여 요시무라는 더욱 《불멸의 영웅》으로 떠받들렸다.

요시무라는 그들앞에서 즐겨 《무훈담》을 이야기하군했다. 가슴치는 생눈길을 헤치며 《토벌》에 나갔던 일, 눈우에 난 유격대의 발자국, 비발치는 불벼락…

처음 한두번은 그때의 전투정황을 사실 그대로 이야기했으나 《토벌》사령부의 한 우두머리가 되도록이면 유격대를 《무찌른》 이야기를 하라고 충고를 주는통에 조금씩 내용을 고쳐말하기 시작했다. 하여 모든것을 거꾸로 말해버렸다.

유격대가 신출귀몰한것이 아니라 《토벌》대가 신출귀몰했고 《토벌》대가 유격대를 《소멸》했고 《토벌》대가 《불벼락을 퍼부었다.》고.

마감에는 돼지멱따는 소리로 군가를 부르군했다.

그런 일이 잦아질수록 요시무라에게는 이상한 변화가 생겼다.

그것은 이마의 상처가 겉으로는 다 아물어가는데도 못견디게 쑤셔나고 골통이 빠개질듯 아픔이 더해가는것이였다. 밤마다 그 아픔으로 하여 몸부림을 치다못해 눈에 보이는대로 깨고 부시고 소동을 일으키기까지 했다.

군의들과 간호원들도 그의 상처자리를 보고는 영문을 알수

없어했다.

요시무라는 돌처럼 무거운 머리를 싸쥐고 고통에 시달릴 때면 신이 자기에게 너무 장난을 친다고 생각을 했다. 운명의 신은 행복과 불행을 능사로 한다고 한다. 그런데 하필이면 전장에서 나에게 구원의 손을 뻗쳐 행운을 주고서도 다시 이런 고통을 준단말인가.

그러다가 어느결에 피끗 떠오르는 생각으로 깜짝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이마에 붙은 유격대《훈장》이 조화를 부리는것이 아닐가 하는 그것이였다.

유격대와 맞다들면 자기는 매번 총을 버리고 꽁무니를 빼지 않았으면 머리를 땅속에 처박고있었었다.

이번 전투에서도 요행 바위덕분에 총 한방 쏘지 않고 살아남을수 있었다. 그래서 유격대가 정말로 《훈장》을 준것이나 아닌지…

그 유격대《훈장》으로 하여 자기에게는 온갖 영화가 차례졌고 《영웅》으로 떠받들렸다. 그런데 그 은혜를 잊고 요즘에 와서는 유격대를 헐뜯고 모든것을 거꾸로 력설했으니 유격대가 가만둘리 있겠는가. 그래서 이마에 붙인 《훈장》이 조화를 부리게 해서 이 고통을 주는것 같았다.

땅을 주름잡고 승천입지하는 유격대가 이쯤한 조화를 부리는것쯤은 사실 놀라운것이 못되였다.

《요시무라 이놈! 어떻게 네놈이 감히 그런 말을 할수 있느냐. 네놈이야말로 조선인민혁명군이 내리는 천벌을 받아 마땅하다.》

밤마다 추상같이 꾸짖는 그 소리는 분명 백두산쪽에서 들려왔다. 문뜩문뜩 서리발장검이 자기 목을 향해 떨어지는 꿈을

꾸기도 했다. 어느 하루도 악몽에 시달리지 않는 날이 없었다.

자기에게 차례지는 고통이 신의 장난이 아니라 대노한 백두산이 내리는 벌이라는것을 요시무라는 확고히 깨달았다.

그의 눈은 점점 흐리멍텅해지고 기세충천했던 《영웅남아》의 용맹은 언젠가싶게 사라져버렸다.

그의 입에서는 더이상 혁혁한 《토벌》대의 무훈담이 나오지 못했다. 그러자 이상하게도 아픔이 멎었다.

군부의 그 어떤 설복이나 위협에도 그의 입에서는 그전날의 《자랑스러운》 전과를 들을수 없었다.

하여 요시무라는 본국으로 쫓겨가지 않으면 안되였다. 《토벌》대의 무훈을 위해 요시무라가 필요했고 그는 《영웅남아》가 되여야 했던것이다.

의사들이 그가 쫓겨가기 앞서 《훈장》을 붙였던 이마에 자그마한 파편이 있다는것을 감정해냈다. 그 파편이 조화를 부려 유격대를 헐뜯고 거짓말을 늘어놓은 요시무라를 벌했다는 말이 수군수군 돌아갔다.

여하튼 본국으로 쫓겨가는 날 요시무라는 자기가 받은 유격대《훈장》을 자랑스럽게 만져보았다고 한다. 그리고 비로소 처음으로 자기는 진짜 《영웅남아》라는 생각을 가졌다고 실토했다는것이였다.

그 《훈장》, 《영웅남아》의 기질(그것이 공포와 비겁성으로 나타났지만)로 하여 목숨이나마 부지해가는게 아닌가.

그때로부터 관동군내의 상층부는 물론 병졸들속에서는 유격대《훈장》이야기가 전설로 되여 급속히 퍼졌다.

다듬이질소리

고향을 떠난 사람에게는 누구나 애향병이 질병처럼 몸에 배여있다.

해방전 나라를 왜놈들에게 빼앗기고 인간이하의 천대와 학대를 받으며 길가의 조약돌처럼 이국땅에 뿌려져야 했던 우리 인민의 수난의 력사를 헤쳐보면 떠나온 조국, 두고온 고향에 대한 그리움의 향기가 짙게 풍긴다.

꿈속에서도 그려보는 고향산천, 죽어 뼈라도 묻히고싶은 애수가 가슴마다에 응어리되는 비참한 생활속에서도 언제부터인가 한줄기 빛이 비쳤으니 그것은 백두산에 대장수가 났다는 이야기였다.

… 돌이네가 정든 고향을 떠나 일본땅에서도 머나먼 한쪽 북해도의 탄광으로 끌려온지 어언 10년이 되였다. 그 모진 세월의 하루하루를 돌이네는 말그대로 죽지 못해 살아오고있었다.

돌이의 아버지는 북해도탄광에서 칠성판을 지고 탄을 캤고 어머니는 삯빨래, 삯바느질로 겨우 목숨이나 부지했다.

사람들은 돌이네를 《빨래집》이라고 불렀다.

돌이는 자기가 태여난 고향을 몰랐다. 그는 갓 태여나서 이곳에 왔기때문이다. 가끔 아버지가 눈물이 글썽해서 네 고

향은 리순신장군이 왜놈들을 바다물속에 처박은 남해가 통영이라고 말해주군했었다.

《집앞에는 키높은 참대숲이 울창하고 노란 감들이 주렁주렁 열리는 살기좋은곳이란다.》

저녁이면 집집마다에서 다듬이질소리가 기분좋게 울려나온다고 했다.

아름답고 살기좋은 그 고향을 왜놈들에게 빼앗기고 돌이네는 징용에 끌려간 아버지를 찾아 산설고 물설은 이국땅에 흘러들었다.

북해도는 일본땅에서도 제일 춥고 척박하여 옛날에는 사람이 살지 않던곳이였다. 그러던것을 왜놈들이 수많은 조선사람들을 끌어다 이곳에서 탄을 캔다, 부두를 건설한다 하면서 마소와 같이 기름을 짜내고있었다.

나라잃은 망국노가 되여 제 나라의 말과 글, 성과 이름마저 빼앗긴 사람들이 다른 나라의 머나먼 한끝에 끌려와 낮이면 고혈을 빨리우고 밤이면 떠나온 고향을 그려보며 한탄과 비애에 차서 가슴을 두드렸다.

돌이의 아버지도 술만 조금 들어가면 《꿈에라도 가고픈 고향 언제 가노.》하며 넉두리를 했다.

돌이의 집에는 가난이 언제나 사나운 악어처럼 이발을 갈며 덤벼들었다.

날이 가고 달이 가던 어느날 돌이의 아버지가 피투성이로 된채 들것에 실려 집으로 왔다. 탄광굴이 무너지는통에 다리를 크게 상하고 겨우 목숨이 붙어있는 정도였다.

그날부터 돌이의 아버지는 영영 운신을 못하는 불구가 되고말았다.

《하늘두 무심하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벌을 내린단말이요!》

돌이 어머니는 자기 운명을 한탄하며 때없이 눈물을 흘리군했다. 그러나 그런 눈물과 한탄으로는 목숨을 연명해갈수 없는 세상이였다.

돌이 어머니는 아무 일이나 닥치는대로 해나가지 않으면 안되였다. 세 식구의 운명이 그의 손에 달려있었다.

어떻게 하나 살아보려고 무진애를 썼다. 그 하많은 일감중에서도 《빨래집》이라고 소문이 날만치 빨래감이 많이 들어왔다.

밤늦도록 그의 집에서는 다듬이질소리가 그칠줄 몰랐다.

돌이의 어머니는 삯빨래를 한 다음에는 꼭 다듬이질을 깨끗이 하였다. 맞은켠 일본인의 《빨래집》들에서는 전기다리미를 쓴다, 인두를 지진다 했어도 돌이 어머니는 늘 다듬이질을 했었다. 그것은 예로부터 물려오는 조선녀성들의 고유한 관습이기도 했다.

돌이와 아버지도 늘 어머니를 돕군했다. 풀을 먹여 잘 말리운 빨래감들을 어머니가 물을 한입 물고 푸푸- 소리내여 뿌리면 돌이와 아버지는 빨래감의 네귀를 잡아당기고 놓아주면서 구김살을 펴군했다.

돌이는 네모반듯이 포개인 빨래감들을 차곡차곡 무져놓고 하나씩 다듬이돌우에 올려놓아주기도 했다. 그러면 어머니는 방치를 량손에 갈라쥐고 다듬이질을 해나갔다. 때로는 이웃집녀인들이 와서 다듬이질을 하며 밤을 새우기도 했다.

돌이는 아버지의 푸념속에 울리던 고향산천의 다듬이질소리를 여기 이국의 낯설은 고장에서 자장가소리로 들으며 잠

들군했다.

어느해 여름밤이였다. 그날따라 돌이는 잠들지 못하고 눈빛이 초롱초롱해졌다.

《어머니, 왜놈들이 멀지 않아 망한대요!》

《그건 어디서 들은 말이냐?》

어머니는 귀가 번쩍 트이는 말을 들으면서도 어지간히 놀란 기색이였다.

못된 왜놈들이 망하라고 온 조선사람들이 아침저녁으로 빌고빌었지만 왜놈경관이며 군대며 특무들이 개싸다니듯하는 이 왜땅에서 저런 말을 함부로 하다니.

기쁜 말이면서도 그만큼 불안도 커지는 돌이의 어머니였다.

《우리 나라의 백두산에 나라를 구해주실 대장수님이 내렸는데 그 대장수님은 축지법으로 왜놈들을 삼대베듯하신대요.》

앓아누워있던 돌이의 아버지조차 《그것참, 병이 다 낫는것 같구나.》하며 몸을 일으키는것이였다.

《야! 그 대장수님이 이 북해도에도 오셨으면…》

돌이가 한 이 말은 오래동안 방안에서 맴돌았다.

하지만 백두산이 예서 어디냐, 아득한 수만리길이지. 아무리 날개달린 대장수라 한들 어떻게 사나운 만리창파를 헤쳐올수 있으랴. 그것도 우리 사는 북해도에까지…

돌이 어머니는 하루에도 수십번 이런 생각을 하며 부지런히 다듬이질을 해나갔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다나니 다듬이방치는 모지라지고 그 소리도 전같지 않았다. 어느날 밤이 퍽 깊어서 다듬이질을 맞잡아 거들어주던 돌이가 《어머니, 저기?!…》하고 입을 다물지 못한채 굳어졌다.

멀리 하늘에서 하나의 불덩어리가 땅으로 떨어지고있었다.

별찌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크고 이상스러운 불덩어리였다.

돌이는 그쪽을 하염없이 바라보다가 이렇게 물었다.

《어머니, 저쪽에 백두산이 있다지?》

돌이는 방금 불덩어리가 떨어져 내리는쪽을 가리키고있었다.

《그렇단다. 백두산이…》

대답을 해주는 돌이 어머니의 가슴이 뭉클 젖어들었다.

백두산, 그 이름은 여기 북해도로동자들의 희망의 등대이고 별이였다.

김일성장군님께서 무장을 드시고 왜적의 백만대군을 벌벌 떨게 하신다는 백두산이야기.

오늘 듣고 래일에 들어도 매번 새롭게만 들리는 백두산대장수님의 이야기는 어린 돌이의 가슴에도 고향에 대한 애틋한 향수처럼 심어지는것이였다.

돌이는 하늘에서 점점 가까이로 떨어져내리는 불덩이를 보고 가벼운 탄성을 내질렀다. 꿈인가 생시인가.

그 불덩어리가 분명 자기 집 마당에 떨어져내리는것이 아닌가.

돌이는 신도 발에 꿰지 못한채 마당으로 뛰여나갔다. 그의 어머니도 따라나왔다.

불덩어리가 채 사그라지지 않은곳에 웬 젊은이가 서있었다. 더욱 놀라운것은 그의 어깨며 머리며 발치에 절기와는 엄청나게 대조되는 흰눈이 가득 쌓여있는것이였다.

그는 이렇게 말을 했다.

《밤중에 안됐습니다. 지나가던 길에 다듬이질소리가 들려서… 나서자란 고향을 그릴 때면 다듬이질소리가 제일먼저

떠오르군합니다. 어쩐지… 조국을 떠나 이곳에서 그 소리를 들으니…》

그 젊은이는 무척 자기의 감정을 다잡기 어려워하는 표정이였다. 그리고는 한참이나 어머니가 다듬이질을 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 방치가 모지라졌으니 소리가 전같질 않겠군요. …》

그는 보통사람이 아닌듯했다. 돌이네가 살아온 지난날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는 멀지 않아 그것을 옛말처럼 이야기할것이라면서 침상에 누워 앓고있는 돌이의 아버지의 상처입은 다리를 만져보며 이제 얼마 안있어 일어서게 될거라는 믿기 어려운 말을 하였다.

《귀인은 뉘신지요?》

돌이 아버지는 이렇게 의아함을 감추지 못해했다.

그가 떠나간 날 이런 글쪽지가 땅바닥에 있었다.

《저는 백두산의 **김일성**장군님을 모시고 싸우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그분의 령을 받들고 여기에 왔다가 그 다듬이질소리에 끌려 들렸댔습니다. 나의 어머니 그리고 이 땅의 선량하고 아름다운 조선의 어머니들이 즐겨 사랑하던 그 소리는 나에게 정말로 큰힘을 주고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나는 **김일성**장군님께 보고드리렵니다. 그이께서 무척 기뻐하실것입니다. 왜놈들이 멸망할 그날은 멀지 않았습니다. 꼭 기다려주십시오!》

그가 떠나간 방안구석에는 아버지의 병치료를 위해 남기고간 약봉지가 놓여있었다.

《이게 꿈이요 생시요?!…》

어머니가 하는 이 말에도 아버지는 방금전의 일이 믿어지

지 않는듯 바깥쪽만 바라보고있었다.

며칠후 돌이네 집 토방에는 난데없이 다듬이방치가 가지런히 놓여있었다.

이것 역시 백두산대장수님의 부하가 놓은것이 분명할텐데 사람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돌이 아버지는 다듬이방치를 눈여겨보며 이건 백두산의 박달나무로 만든 방치라고 했다.

그 이후 돌이네 집에는 이상스러운 변화가 생기였다.

그 젊은이가 놓고간 약을 먹었더니 움직일수 없던 아버지의 다리에 절로 힘이 뻗치고 닷새만에는 제발로 땅을 밟을수 있게 되였다. 또 돌이네 《빨래집》에서 그 방치로 다듬이질한 빨래들은 별스레 눈처럼 희고 눈부시여 속에 있든 없든 칭찬을 하지 않고서는 지나치기 힘들어했다.

《빨래집》일이 잘되니 앞뒤집의 녀인들이 그 비결을 알고싶어 매일같이 마실을 왔다.

돌이 어머니는 소곤소곤 그날에 있은 신기한 일을 들려주었다.

그 이야기는 날개가 돋힌듯 녀인들의 입을 통해서, 그들의 남정네들과 아이들의 입을 통해서 북해도땅에 퍼져갔다.

《돌이 엄마의 다듬이질소리를 듣고 백두산대장수님의 부하가 들려갔다우!》

《글쎄 백두산풀로 지은 약을 썼더니 돌이 아버지의 다리가 나았다질 않소. …》

《그 부하가 하는 말이 다듬이질소리에 고향생각이 나구 하루빨리 조선을 독립해야겠다는 큰힘을 얻었다고 했대요.》

《돌이네 집에 신기한 다듬이방치가 생겼는데 그건 백두산

대장수님이 보내주신거래요.》

《우리도 오늘밤부터 다듬이질소릴 울려보자구요. 왜놈들이 휘딱 망하게!…》

녀인들은 모여앉기만하면 《빨래집》이야기로 시간가는줄 몰랐다.

이후부터 북해도의 조선사람들이 사는 마을들에서는 다듬이질소리가 힘차게 울려나왔다. 처음은 가난과 천대, 멸시의 한숨처럼 들려오던 그 다듬이질소리가 점차 씩씩하고 우렁찬 노래소리처럼 들리여왔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겨났다. 간밤에 조선녀인들의 다듬이질소리가 울리면 영낙없이 왜놈들의 집에서는 복닥소동이 일어나는것이였다.

한 악질감독놈이 잠을 자다가 온밤 방망이에 얻어맞는 꿈을 꾸었는데 아침에 깨고보니 놀랍게도 얼굴이 피투성이가 되고 몸에는 시퍼런 멍이 들었다. 그놈은 병원에 실려간채 죽고말았다.

이러한 일은 그 다듬이질소리와 함께 매일이다싶이 일어났다.

하여 북해도땅은 정사복경찰들과 밀정들이 그 원인을 밝힌다고 장독에 구데기 끓듯했다. 그러나 아무리 눈에 쌍심지를 켜고 살펴도 별다른 단서 하나 걷어쥐지 못했다.

다른것이 있다면 조선인 빈민굴의 오막살이들에서 밤마다 다듬이질소리가 가락맞게 울려나오는것뿐이였다. 그 소리는 이전에도 종종 들을수 있던 소리였다.

하지만 그 소리를 귀기울여 듣느라면 왜서인지 이전과는 달리 오싹오싹 전률감을 느끼게 되는것이였다. 그 어떤 이상

한 힘이 그 소리에서 생기는듯했다.

그 다듬이질소리에 피멍이 들어 병원으로 실려오는 악질왜놈들의 수가 부지기수였다.

그 소리와 무슨 관련이 있다고 본 왜놈경찰들은 일체 이 의심스러운 다듬이질소리를 내지 못한다는 통고장을 돌렸다.

그러나 밤이 되면 다듬이질소리는 또 들려왔다. 경찰들을 내몰아 다듬이질소리가 나는 집앞에 이르러 《네놈이!》하고 벌컥 문을 열고 들어서면 다듬이는 통 보이지도 않았다. 그런가 하면 다듬이질소리는 그 옆집에서 들려왔다.

온밤 집집을 뒤져내고 맥을 뽑던 왜놈들은 아예 빈민굴의 오막살이를 몽땅 헐어버리고말았다.

그런데 다듬이질소리는 신기하게도 땅속에서 계속 울려나오는것이 아닌가.

왜놈들이 있는곳에서는 다듬이질소리에 따라 땅이 움씰움씰하면서 꺼져내리고있었다.

왜놈들은 너무도 혼쭐이 나서 다시는 그 다듬이질소리를 멈추어볼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리고 그 소리가 힘차질수록 자기들의 멸망이 눈앞에 가까와온다는것을 깨닫고 공포에 떨었다.

후에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땅속에서 울린 그 다듬이질소리는 백두산대장수님께서 돌이 엄마에게 보내주신 그 다듬이방치가 내는 소리라는것이였다.

산들이 접혀 들어오다

부모들의 원쑤를 갚고 조선독립을 위한 싸움군이 되려는 열망으로 가슴불태우던 오순돌에게 뜻밖에도 백두산대장수님이 거느리신 친솔부대에 입대하는 행운이 차례졌다.

(내가 대장수님의 친솔부대에서 싸우게 되다니?…)

오순돌은 너무도 기뻐 어쩔줄을 몰라하였다.

칠보산이 고향인 오순돌은 어려서 부모를 따라 북간도로 옮겨갔다. 그러나 그의 집은 이사짐을 풀기 바쁘게 왜놈들의 대《토벌》로 불타버리고말았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왜놈의 총창에 찔려죽었다. 순돌의 할아버지가 어린 그를 업고 백두산기슭으로 들어왔으니망정이지 하마트면 오순돌이네는 산설고 물설은 이국광야의 무주고혼이 되고말았을것이였다.

그때부터 오순돌에겐 살길이 열렸고 백두산공기를 마시면서 자라 이제는 당당한 백두산대장수님의 친솔부하로까지 될수 있었다. 이 손자가 백두산대장수님의 친솔부하가 되였다는것을 알면 할아버지가 제일 기뻐하실것이다.

그러지 않아도 할아버지는 백두산으로 들어가는 손자에게 꼭 백두산대장수님의 슬하에서 싸워야 한다고 신신당부를 하였었다.

《가거든 꼭 대장수님께 축지법을 배워달래거라. …》

할아버지는 이렇게 손자를 떠나보냈다.

그런데 평생소원이 이렇게도 빨리 성취되였으니 오순돌의 기쁨은 한량없었다.

《할아버지, 나도 축지법을 배우게 되였어요!》

그는 먼곳에 있는 할아버지를 향해 이렇게 웨쳤다.

그가 친솔부대에 도착하자마자 구대원들은 축하를 해주었고 오순돌은 새 군복을 받아입었다. 이제 어깨에 번쩍거리는 총까지 메면 자기도 당당한 싸움군이 되는것이였다.

그러나 외모가 같다고 다 꼭같은 싸움군일가?

오순돌은 자기에게 들꽃묶음을 안겨준 구대원인 덕삼아바이나 작식대일을 하는 녀대원들도 남다른데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구대원들은 모두 대장수님으로부터 축지법을 배웠겠지. …》

욕심같아서는 이제라도 당장 대장수님께로 달려가 《대장수님, 저에게도 신기한 축지법을 배워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싶었다. 보람찬 백두산생활은 흘러갔다.

처음은 힘들기도 하고 배도 고팠으나 이 고비를 넘겨야 펄펄나는 싸움군이 되여 대장수님께 축지법을 배워달라고 할 자격이 생긴다고 열심히 훈련에 참가하였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전투는 없이 그저 제식동작이나 하고 사격훈련이나 하는것이 마음에 성차지 않았다.

이런게 무슨 필요가 있을가.

축지법만 배우면 힘들게 훈련을 하지 않고서도 새처럼 벼랑을 날아오를수 있고 한달음에 큰 강도 건너뛸텐데… 오순돌은 이런 생각을 하며 옆동무들을 슬금슬금 바라보기도 했다.

놀라운것은 자기처럼 갓 입대한 신입대원들뿐아니라 축지법을 다 배웠다고 생각되는 구대원들까지 땀을 흘리며 훈련에 열중하는것이였다.

훈련이래야 고작 진대나무를 타고넘는 방법이라든가 앞사람의 발자욱을 따르며 걷는 방법, 칠칠야밤에 별을 보고 방위를 측정하는 방법 등 그러루한것들이였다.

(언제면 나도 대장수님의 축지법을 배울수 있을가?)

그는 자나깨나 이 생각뿐이였다.

어느날이였다.

모엿나팔소리가 밀림속에 랑랑히 울려퍼졌다.

오순돌은 장구류들을 몸에 지니고 번개처럼 대오에 들어섰다. 이때 덕삼아바이가 순돌에게 슬쩍 귀뗌을 했다.

《순돌인 늘 축지법을 배우고싶어했지.… 그 소원이 풀려서 기쁘겠구만.》

《예? 그럼 오늘은 백두산대장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축지법을 배워주시는 훈련을 합니까?》

《허… 훈련이 아니라 대장수님과 함께 성시로 가서 왜놈들을 족쳐버린단다.》

《그게 정말이나요, 야!》

순돌은 날듯이 기뻤다.

지금껏 훈련, 훈련을 거듭했어도 실지 전투는 한번도 해보지 못했다. 그런데 첫 전투를 대장수님을 직접 모시고 진행하게 됐으니 왜 기쁘지 않으랴. 그는 마냥 행복감에 젖어 가슴이 설레였다.

《아바이, 오늘은 대장수님의 축지법을 내눈으로 직접 볼수 있겠군요!》

《그래. 그저 우린 대장수님이 찍으신 발자욱을 꽉꽉 그대로 짚고가면 다 되는거야. 그걸 잊지 않는게 중요해!》

순돌은 덕삼아바이의 말에 긍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섭섭했다. 대장수님의 발자욱만 꽉꽉 따라다니면 된다니 이 무슨 말인가.

자기같은 신입대원이면 몰라라 축지법을 다 배운 구대원이 대장수님의 뒤만 줄곧 따라다니겠다니 어디 말이 되는가. 그쯤하면 응당 가시덤불길을 헤치며 앞장에 나서서 대장수님을 보위하며 번개처럼 달려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모엿!》

이윽고 대오가 정렬하고 백두산대장수님께서 앞에 나서시였다.

그이께서는 매 대원들의 전투준비상태를 료해하시다가 순돌의 앞에 이르시여 백두산생활이 힘들지 않는가 물어보셨고 오늘 싸움에서 큰 공을 세우라고 고무격려도 해주시였다.

밤이 깊어 대오는 소리없이 떠났다.

출전을 알리는 힘찬 나팔소리도 없었고 우뢰가 운다거나 풍운조화를 일으키는 조짐도 역시 보이지 않았다.

떠나기에 앞서 대장수님께서는 대원들을 한줄로 세우시고 자신께서 밟으신 발자욱을 꽉꽉 밟고오라고 하시였다. 그 말씀이 온 대오에 전달되였고 모두가 대장수님의 발자욱을 꽉꽉 밟고가는데만 신경을 쓰고있었다.

《이제 대장수님께서 풍운조화를 일으키시거나 아니면 축지법을 써서 깜짝 놀라게 하실테지…》 순돌은 생각했다.

그러나 대오는 어둠속에서 한걸음한걸음 전진할뿐 그 어떤 기적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저 이상한것은 귀전에서 뭔가 앵

앵거리는 소리가 들려오는것이였다.

이게 무슨 소릴가? 바람소리같은데…

순돌은 귀속을 우벼보았으나 그 소리가 계속 들려왔다.

이때 대오의 앞장에서 나가시는 대장수님께서 뒤를 돌아보시며 발자욱을 헛짚으면 안된다고 다시 말씀하시였다. 대오는 오직 대장수님의 발자욱 하나만을 따라짚고 전진하였다.

이 시각 순돌은 자기가 지금 어떤 신비한 조화속에 있는지 감감 모르고있었다.

… 대장수님께서 앞장에 서시여 천천히 발길을 옮겨놓으시면 눈앞에 있는 령마루가 얼른 접혀서 들어오고 그 령마루를 디디고서면 그다음 령마루가 또 얼른 접혀서 들어왔다.

이렇게 첩첩이 늘어선 령마루가 대장수님의 발길아래 병풍이 접히듯 한폭씩한폭씩 접혀들어오고있었다.

그 한걸음이 십리가 될지 오십리가 될지 가늠조차 할수 없었다. 순돌이 조금 이상스레 느낀것은 대장수님께서 찍으신 발자욱을 따라짚으며 보니 어떤 때는 산머리에 안개가 자욱히 끼고 어떤 때는 이마가 선뜻하며 시린것이였다.

지금은 분명 무더운 한여름인데 이마가 시리고 찬서리까지 맞게 되는것은 무엇때문일가. 하지만 사위는 자욱한 안개와 실구름이 감돌고있어 도저히 이산, 저산을 분간할수 없었다. 더우기 지금은 재밤중이니 더욱 그러하였다.

다만 이따금 구름속에서 둥근달이 얼굴을 내밀 때마다 산마루에서 창끝이 번쩍거리고 어마어마하고 기골이 장대한 장수들의 대렬이 언듯언듯 지나는 모습이 보일뿐이였다.…

순돌은 아직 이 모든것을 모르고있었다.

백두산대장수님께서 자기가 그처럼 배우고싶어하는 축지법을

쓰시여 지금 산마루를 주름잡고 높은 령에서 낮은 령으로, 큰 산에서 야산으로 대원들을 이끌고 가신다는것을 알수 없었다.

땅을 주름잡는 이 축지법은 그이께서 지니신 99가지 축지법의 가장 평범한것이였으나 순돌에게는 감감 리해가 될수 없었다. 이리하여 순돌은 행군을 할 때 꼭 백두산대장수님의 발자욱만 짚고 따라야 한다는것을 깜빡 잊고 발을 헛짚은 다음에야 비로소 깨닫게 되였다.

그때 오순돌은 행군길에 갑자기 찬서리가 내리는것을 알고 덕삼아바이더러 빨리 걸음을 다그쳐가서 부대의 척후가 되는것이 어떠냐고 물었다.

그러자 덕삼아바이는 어이없어하며 딴생각말고 꼭 대장수님의 발자욱만 따라 밟아야 한다는것이였다.

《그럼 아바인 언제까지나 대장수님께서 열어주신 길로 꼭 꼭 따라가겠어요? 이제는 응당 우리가 행군의 앞길을 열어 대장수님을 편히 모셔야지 않나요?》

그러나 덕삼아바이는 굳이 도리머리를 했다.

《어림두 없는 소리다! 너나 나같은건 감히 상상두 못할 일이야. 그런 생각은 싹 집어치우구 그저 대장수님의 발자욱만 잊지 말고 짚도록 해라.》

오순돌은 구대원앞이라 다른말을 못했어도 덕삼아바이의 처사가 잘 리해되지 않았다.

(우리가 척후에 서서 가시덤불을 헤치고서 대장수님을 그 길에 모시면 좋지 않은가?

그런데 덕삼아바이도 다른 구대원들도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 에익 그만둘테면 그만두라지. 나 혼자서라도 앞장에서 달려갈테다!)

이런 생각을 잠간 굴리던 오순돌은 그만에야 대장수님의 발자욱을 꼭 따라짚어야 한다는것을 잊고말았다.

그래서 대장수님의 발자욱을 짚지 못하고 그뒤를 밟게 되였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갑자기 앞산 령마루가 썩 물러나버리고 다시는 주름이 잡히지 않았다.

《아!- 덕삼아바이-》

오순돌은 자기도모르게 소리쳤으나 대오는 벌써 나는듯이 앞서나갔다. 이게 무슨 일인가.

그는 절대로 대오에서 떨어져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비지땀을 철철 흘리며 앞으로 내달리고 또 내달렸다. 하지만 아무리 달리고달려도 그저 그 걸음일뿐 길은 도무지 축나지 않았다.

대오를 놓쳤으니 천산만악중에 어디로 가야 할지 갈피를 잡을수도 없었다.

그는 결국 오도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고말았다.

그때에야 비로소 백두산대장수님께서 왜 자신의 발자욱을 꼭 그대로 밟고오라고 하시였는지, 왜 한여름에 제 이마에 찬서리가 부딪쳤는지 그리고 덕삼아바이를 비롯한 구대원들이 왜 자기의 생각을 어이없어했는지를 알수 있었다.

《그러니 백두산대장수님께서 옮기시는 그 발걸음들은 다 천지조화를 일으키는 축지법이였구나! 아, 내가 그런것도 모르고…》

그는 대장수님의 말씀을 어긴것이 천만번 후회되였다.

자기의 이런 꼴을 할아버지가 보았다면 뭐라고 하셨을가 하는 생각도 갈마들었다.

대오는 지금 얼마나 멀리로 갔는지 그리고 시간은 얼마나

흘렀는지…

그가 이런 생각에 잠긴사이 어느새 앞산마루에서 실구름이 뻗어오더니 뒤이어 땅이 한번 움칠하였다.

《아! 대장수님…》

오순돌은 제꺽 이 풍운조화가 백두산대장수님의 축지법으로 생겨난다는것을 짐작하였다.

그가 다른 생각을 할새도 없이 령마루에선 쩌렁쩌렁한 음성이 들려왔다.

《어서 이 손을 잡거라.》

그는 번쩍 눈을 뜨고 일어섰다.

자기앞에 백두산대장수님께서 환히 웃으시며 서계시는것이 아닌가!

대장수님께서는 오순돌을 번쩍 들어 대렬에 세워주시였다. 덕삼아바이와 구대원들이 오순돌에게 어디 갔댔느냐고 물으면서 축지법을 쓰시는 대장수님의 발걸음은 한번에 백리도 되고 천리도 된다고 했다.

그러니 자기가 이 산중에서 대오를 혼자 찾아간다는것은 어림도 없는 일이였음을 깊이 깨달았다.

《덕삼아바이! 이젠 나도 뭔가 알것 같애요. 백두산대장수님의 보통 걸음걸음이 그대로 축지법이였어요. 그래서 대장수님께서 우리더러 자신의 발자욱을 꼭 밟으라고 하셨는데…》

오순돌은 감동어린 눈으로 대장수님을 우러러보았다.

이어 다시 행군이 시작되였다. 그러나 이 행군은 벌써 왜놈들을 치고 돌아가는 행군이였다. 그날 자기 실수로 통쾌한 첫 전투에는 참가 못하였지만 백두산대장수님의 신비한 축지법을 제눈으로 직접 보고 배운 오순돌의 기쁨과 자랑은 끝이 없었다.

귀없는 지장

일본 농촌의 길가들에서 흔히 보게 되던 지장보살은 원래부터 인자하고 대바른 보살이라는 찬양을 받아왔다.

그를 찬양하는 노래구절이 있다.

낳지 않는것이란 없네 땅의 덕
오늘 더 한층 돋보게 되네

여기서 낳는다는것은 품어 기른다는것이다. 어떤 더럽고 추악한것이라도 한번 흙의 품속에 안기면 깨끗한 물이 되고 비옥한 토양이 되여 만물을 키우게 되기때문이다.

예로부터 인간의 어지러운 번뇌와 더러운 죄까지도 지장보살의 품에 안기고 그 뜻을 접하게 되면 모두 정화되였다고 전해지고있는것이다.

지장보살은 항상 화려한 절간의 법당이 아니라 길가의 교차점에 서있었다.

그런데 어느때부터인지 이 지장들속에서 귀없는 지장이 하나 생겨 으슥한 절간으로 자리를 옮겨앉았다고 한다.

그 지장도 원래는 귀가 있었다.

그런데 아사기지라는 지장과 싸우다가 그만에야 두귀를 잘

리웠다.

귀가 없는 부끄러움과 불편을 참고 견디기란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었다.

그럴수록 이 지장은 자기의 잘못을 깊이 속죄하였다. 그와 함께 인간세상에서 귀를 먹었거나 앓는 사람들에 대한 동정심으로 가슴을 끓였다.

그때로부터 10년세월 귀없는 지장은 초라한 절간에서 학문에 힘쓰며 도를 닦았다. 한편 자기의 재주와 성의를 다하여 사람들의 귀를 고쳐주기 시작했다.

주지는 시미즈라고 부르는 늙은 승려였다.

사실인지는 모르나 시미즈는 원래 큰 절에서 대선사를 지냈는데 어떠어떠한 일로 하여 작고 보잘것 없는 이 절로 옮겨왔다고 했다.

랑설에 의하면 세상사람들에게 아무리 살생을 금하라는 부처님의 참뜻을 깨우쳐주어도 일본이라는 나라전체가 전쟁마차를 미친듯이 몰아가고있어 그에 실망하여 대선사직을 벗어던졌다고 한다. 그리고 인간들의 귀를 고쳐주려고 애쓰는 한 지장의 뜻에 감복하여 쇠락한 이 절을 지키고있다는것이였다.

한낮에도 밤접동새 울음소리가 들리는 심산오지의 이곳으로는 일년열두달이 가도록 어느 시주도 오지 않았다.

큰 절같으면 사월초파일이요, 뭐요 하면서 수백개의 등롱이 켜지고 불공을 드리러오는 불자들로 길이 메여지련만 그것은 한낱 지난날의 꿈일뿐… 귀없는 지장이 외롭게 있는 이 절에는 언제나 피피한 정적이 차넘치였다.

사람들은 귀없는 지장이 귀를 고쳐준다는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늙은 중이 자기 절에 많은 사람들을 오

게 하여 공양미를 받아내자는 속심에서 그런 달콤한 말을 꾸며낸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달이 바뀌고 해가 가면서 귀없는 지장이 귀를 고쳐준다는 소문은 계속 났다.

이제는 아주 먼곳에서까지 이 지장을 찾아온다는 말도 들려왔다.

어느날 귀가 먹어버렸던 한 목동이 절에 와서 말끔히 귀를 고쳐가지고 돌아갔다는 말이 떠돌았다.

《지장보살님은 참으로 령험하셔요!》

목동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자기가 시미즈승려를 산속에서 만나고 지장보살에게로 가서 귀를 고치게 되였는가에 대한 경위를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자랑을 했다.

듣고보니 승려는 엄격한 《계률》로써 귀를 치료하고있었다.

귀를 고치려는 환자인 시주가 오면 우선 마음과 육체를 깨끗이 하도록 요구한다.

다음에 제를 올린 후 지장보살님에게 송곳을 봉납한다.

길고 가는 송곳은 대개 향나무, 백송나무로 만들며 송곳에는 환자의 주소, 성명, 성별, 나이 등을 기록하여 정히 드려야 한다.

다음순서로 환자는 지장앞에 귀를 앓게 된 사연을 정직하게 참회한다. 만일 거짓참회를 하거나 지장이 알아들을수 없게 말을 하면 효험이 떨어지거나 귀가 열리지 않는다고 한다.

마감에 환자는 이미 봉납되여 지장의 신기가 듬뿍 배인 송곳을 다시 받게 되며 그 끝에 솜을 말아 귀에 대고 가볍게 비빈다.

이때에 승려가 백팔념주를 차례로 넘기며 념불을 외운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절벽같이 막혔던 귀가 열리고 온갖 귀병이 물로 씻은듯이 낫는 기적이 일어난다는것이였다.

과학과 기술의 발전으로 도시에는 큰 병원들이 비온 뒤의 참대순처럼 일어서고 거기 귀를 전문치료하는 의사들이 많고 의료설비들이 현대화되는 때에도 승려는 자기의 엄한 《치료계률》을 지켜오고있었다.

목동의 이야기는 신기했다.

얼마후에는 앓는 어머니를 위해 지주집의 참외밭김을 매다가 그 한알을 감춘탓에 매를 맞아 귀청이 떨어진 어린 머슴기이찌가 귀를 고치고 갔다는 소문, 어느 주인아씨의 목욕탕에 버릇없이 들어갔다고 물속에 머리를 마구 틀어박는통에 생긴 하나에라는 소녀애의 삼년 묵은 귀병도 뚝 떼주었다는 소문이 전해졌다.

절에는 먼곳의 환자들도 오군했다.

그들은 대개 돈냥이나 있고 벼슬살이를 하는 사람들이였다.

그들은 처음 귀가 미미하게 들릴 때에는 큰 병원들과 이름있는 명의를 찾아다녔다고 한다.

병세가 악화되고 차도가 여전하면 더 좋은 명의를 찾아 이곳저곳으로 방황했다.

다른 나라의 병원까지 찾아가보았다.

그렇게 가볼곳은 다 가보고 해볼것은 다해본 다음에야 이절로 온다고 했다.

현대의학이 못고치는 병을 어떻게 보살이 고치랴 하면서도 행여나 하는 미련을 버릴수가 없어 고적한 이 절을 찾아온다.

귀없는 지장은 이런 사람들의 귀도 기적적으로 고쳐주었다.
그러면 그들은 너무도 고맙고 황송하여 승려와 지장보살에게

머리가 땅에 닿도록 절을 했다. 시미즈는 그 모든것이 지장보살님의 공덕과 령험이라고 념불을 외웠다.

그러나 세상에 귀를 앓는 사람이 그리 많은것도 아니요, 또 그런 환자라 해도 심산오지까지 찾아오기가 쉬운 일이 아니여서 절은 사람들의 래왕이 별로 없었다.

그럭저럭 세월은 흘렀다.

일본의 해외침략이 한창 기승을 부릴무렵이였다.

어제는 만주를 삼키였고 오늘은 중국대륙도 거의나 먹게 되였다고, 오래지 않아 《대동아공영권》의 꿈이 실현된다는 소리가 탕탕 울려나오는 시기였다.

그런데 전쟁통에 생겨나는것은 죽은자들과 머리가 깨지고 고막이 터지고 팔다리가 부러진 부상자들이여서 이 깊은 절에도 귀병을 고치려고 찾아드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났다.

절은 지장보살을 모신 불당이자 시미즈의 거처지여서 환자가 찾아오면 자기의 잠자리를 좁혀주군했다.

갑자기 환자들이 많이 밀려드는통에 제일 걸린것은 잠자리였다.

시미즈승려가 아무리 사정을 이야기하고 돌려보내려 해도 귀가 절벽인 본인당자들은 말할것도 없고 환자를 시중들러 따라온 사람들이 더욱 막무가내였다.

그들은 대부분 전쟁터에 나갔다가 귀를 먹은 사람들이였다.

이런 사람들이 절주변에 하나둘 풀막을 치고 자취생활을 시작하여 늘 괴괴하기 짝이 없던 골안이 사람들로 벅적거렸다. 심지어 군복을 입은 군대들까지 무리를 지어 절을 찾아왔다.

시미즈승려는 처음은 환자들의 숙식문제에 관심을 돌리다

가 하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도무지 그를 해결해줄 길이 막연해지자 아예 손을 털고 나앉고말았다.

락엽지는 어느 가을날이였다.

며칠전부터 여러명의 병졸들이 절근처에 네모번듯한 군용천막을 치더니 어깨우에 금줄을 늘인 장교가 절에 나타났다. 량어깨에 큰 별을 두개씩이나 얹고 부관까지 거느린자였다.

젊은 부관이 나서서 자기 상관의 치적과 귀가 멀게 된 사연을 대충 이야기한 후 뒤말에 그루를 박았다.

《우리 사령관님은 백두산대장수로 알려진 **김일성**장군과 대적하여 싸운 관동군의 <원로>이시다.

당신이 이번에 사령관님의 귀를 고쳐주면 상을 후하게 줄것이나 그렇지 못할 때엔 이 절을 짓뭉개버릴것이다. 알아들었는가?》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시미즈승려는 절을 찾아온 이상에는 그가 누구든 매일반이라는 태도였다.

다음날부터 사령관놈은 적극적으로 달라붙었다.

시미즈승려가 요구하는 《계률》대로 목욕재계를 했고 불문에서는 술과 고기를 금한다는 말을 듣고는 그것도 실천에 옮기였다.

귀없는 지장보살에게 봉납하는 송곳들도 병졸들을 산판에 내몰아 정히 깎아오게 했다.

부처를 믿지 않는 그가 이렇게까지 극성을 다하는데는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그러나 이곳으로 오기전까지 제국의 한다하는 병원은 다 가보고도 종내 못고친 병이여서 물에 빠진자 지푸래기라도 잡는다는 격이였다.

어느날 저녁무렵이였다.

노을빛이 산정을 곱게 물들이는 때에 시미즈승려는 무뚝뚝한 어조로 사령관놈에게 한마디 했다.

《거짓참회를 하면 도리여 보살님이 벌을 내리십니다.》

부판이 재빠르게 손바닥에 글을 써서 사령관놈에게 《통역》을 했다.

사령관놈은 깜짝 놀랐다. 아닌게아니라 지장보살에게 귀가 멀게 된 사연을 거짓말로 늘어놓은것이였다.

자기는 일찌기 일본의 사무라이후예로서 《야마도다마시이》가 누구보다도 투철하다는것, 세계를 제패하라는 천황페하의 칙령을 받들고 용약 만주전선에 출정하여 혁혁한 공을 세웠다는것, 그래서 조선 백두산가까이의 《토벌》사령관이 되여 무공을 떨치다가 가벼운 부상을 입고 귀가 멀었다고 했다.

무공은커녕 백만관동군이 **김일성**장군의 존함만 들어도 사시나무떨듯했으며 《토벌》을 한다고는 했으나 산속에 들어가 헛총질을 해대고 돌아오군하였었다.

《토벌》사령관놈이 귀가 멀게 된것은 대마록구전투에서 참패를 당하던 때였다.

여기저기서 관동군이 전멸되였다는 비참한 소식들이 전해져 겁에 질리고 공포에 떨며 발편잠을 자지 못하던 사령관놈은 유격대가 나타났다는 정보를 받고 《토벌》대를 출동시키지 않을수 없었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다는 피해의식과 함께 제발 이번의《토벌》이 조용하게 끝났으면 하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그러나 직분이 어마어마한 사령관이고 수하졸개들앞이라 제법 배를 내밀고 용맹스러운 남아의 모습을 지어보려고 애

쐈다.

깊은 수림속으로 들어갈수록 무시무시한 정적과 함께 공포의 전률은 더해만 갔다.

일부러 큰소리로 호통을 치군하던 사령관놈은 눈알을 희번득거리며 언제 어디서 자기 목을 겨눈 총알이 날아들지 몰라 부들부들 떨었다. 말도 나가지 않았고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끝없는 정적, 정적…

누가 바스락소리만 내도 깜짝 놀라 그자리에 펄썩 주저앉는놈들이 있었다.

그때였다. 누구인가 깊고 무시무시한 정적을 깨치며 《**김일성**유격대다!》하고 소리쳤다.

사령관놈은 그 순간 눈앞에서 우뢰가 치는듯 말에서 허양 나가떨어졌다. 그다음 웬일인지 귀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김일성장군님의 존함만 듣고도 기가 질려 귀가 먼것이다. 그러니 이 사실을 남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는가.

어쨌든 사령관놈은 귀가 먹은탓에 부대를 인계하고 관동군병원으로 갔다. 거기에서도 신통한 치료대책이 없어 곧 제국륙군병원에 입원하게 되였다.

병원에서 한생을 늙어온다는 늙수그레한 군의가 밥사발만한 반사경을 끼고 그의 귀안을 한참동안 들여다보고 절레절레 머리를 흔들었다.

그가 하는 말이 대포소리에 고막이 너덜너덜 찢어졌다고 했다.

《환자는 아마 포병장교인가보군요? 주의를 하지 않으면

간혹 그렇게 되는 때가 있군합니다. 그런데 이 환자의 귀는 너무도 험창스레 되였군요.》

군의가 하는 말이였다. 부관이 귀먹은 사령관에게 손바닥에 글을 써보이며 열심히 《통역》을 했다.

사령관놈은 서글프게 웃었다. 자기 체면에 귀먹은 사실여부를 차마 말할수 없었다.

대본영에서는 사령관의 귀를 고쳐내라고 병원에 매일같이 독촉을 내리고 관동군과 그의 가족들도 병원으로 찾아와 애걸복걸했다.

그러나 아무리 애를 쓰고 좋다는 약은 다 써보아도 사령관놈의 귀는 고쳐낼수 없었다.

이후 도꾜로 와서 다른 병원의 명의란 명의는 다 보였는데도 종시 어쩔수 없었다.

사령관놈은 칼을 뽑아 할복자살이라도 하고싶은 심정이였다.

사람이 어떻게 아무런 말도 듣지 못하고 눈만 뜨고 산단 말인가.

귀머거리로 석삼년을 살고있을 때 그놈에게 귀없는 지장에 대한 소문이 들려왔다.

설마… 하는 생각이 앞섰다. 현대의학도 못고친 자기 귀를 한갖 보살이 고쳐내랴?

하지만 소문이 여기저기서 또다시 들려왔다.

이번에는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실오리같은 한가닥의 희망이 그의 걸음을 이곳으로 움직여놓았다.

이리하여 승려의 말이라면 무조건 따랐지만 차마 귀먹은 사실은 그대로 말할수 없어 거짓참회를 했었다.

그런데 령험한 보살님이 자기의 속통을 환히 들여다보고있는것이 아닌가.

그제서야 이 보살님만은 속여서도 안되며 속일수도 없다는것을 깨달았다.

그는 승려에게 비밀을 지켜준다는 조건부로 모든 사실을 숨김없이 이실직고하였다.

시미즈승려는 사령관의 참회를 끝까지 들어주고 그에 맞게 치료를 더 적극적으로 해줄것을 약속하였다.

그때로부터 가을이 가고 추운 겨울이 지날 때까지 사령관놈은 천막에 들어박혀 매일 치료에 전념했다.

추위가 닥쳐오자 많은 사람들이 하나둘 풀막에서 떠나가고 적지 않은 환자들이 귀가 열리여 웃고 떠들며 산을 내려갔다. 그러나 사령관의 귀는 차도가 전혀 없었다.

시미즈승려는 이 환자를 위해 특별치료를 조직하고 따로 귀없는 지장보살에게 여러차례 주문을 외워주기도 했다.

그러나 백가지 처방이 무효이고 만가지 약이 모두 효험이 없으니 기가 막히는노릇이 아닐수 없었다.

어째서 지장보살님의 령험이 이 환자에게만은 백해무익한 것인가.

별의별 처방을 다 해보고 특별치료를 조직했어도 그의 귀는 도무지 열리지 않았다.

이제는 시미즈승려도 어지간히 지쳐 맥을 놓게 되였다.

백날이 되여오는 어느날.

시미즈승려는 귀머거리사령관의 귀를 유심히 살펴보다가 끝내는 절망에 잠겨 큰소리로 부르짖고말았다.

《더는… 더는 딴 방도가 없소! 지장보살님의 공덕과 령험

으로도 이 환자의 귀만은 고쳐낼수 없는게 분명하오. 혹 저 백두산에 계신다는 **김일성**장군님께서만이 고쳐주시겠는지…》

《**김일성**… 장군…》

《으응?!》

시미즈승려는 자기의 귀를 의심했다.

분명히 환자는 제입으로 《**김일성**장군》이라고 말한것이다.

그렇다면?!…

곁에 섰던 사령관의 부관도 꿈을 꾸는것 같아서인지 승려와 제 상관을 멀뚱멀뚱 쳐다보기만했다.

시미즈승려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이자 한말을 다시 해보라고 했다.

《**김일성**장군!》

귀머거리사령관의 귀가 열린것이였다.

석삼년을 귀머거리로 지내고 귀없는 지장의 령험에도 억척으로 열리지 않던 절벽같은 귀가 **김일성**장군님의 존함을 듣고 번쩍 열린것이 아닌가.

그러니 그의 귀는 **김일성**장군님의 존함을 듣고 캄캄 막혔다가 다시 그분의 존함에 의해 신비스럽게 열린셈이다.

귀머거리사령관은 자기의 귀가 열린것이 너무도 꿈만 같고 믿어지지 않아 한동안 못박힌듯 자리에 앉아 조용히 귀를 기울이군했다.

그러면 심산속의 바람소리와 유정한 새소리, 물소리가 들려왔다.

머리를 들고보면 하늘중천에 떠있는 수리개의 날개젓는 소리까지 들리는것 같았다.

《환자의 귀는 **김일성**장군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사령관은 시미즈승려의 이 말을 한마디도 흘리지 않고 귀담아들었다. 마치 이 세상에 태여나 처음으로 듣는 소리처럼…

그는 **김일성**장군님이시야말로 자기의 생명의 은인이시라고 생각했다. 지난날의 그분앞에 저지른 죄가 돌이켜졌다.

다시는 그런 큰죄를 짓지 않으리라. 그는 시미즈승려앞에서 진심으로 되는 참회를 하고나서 산을 내렸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그는 산에서 내려오는길로 스스로 군복을 벗어던지고는 고향으로 갔다는것이였다.

또 누구의 말에 의하면 사령관이 백두산쪽에 가있는 자기 동료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자기의 귀를 고치게 된 경위를 쓰고나서 《군도 하루빨리 나처럼 군복을 벗어던지게! 백두산대장수님의 노염을 사서 귀머거리가 되기전에…》라고 썼다고 한다.

그때로부터 귀없는 지장이 있는 절은 더욱 유명짜해졌으며 일본의 패망을 전후하여 이 절에는 귀를 고치기 위해 오는 사람들로 골안이 차넘쳤다고 한다.

오늘도 일본에서는 귀머거리를 가리켜 속칭 《귀없는 지장》이라고 부른다 한다.

칠보산의 책바위

이름난 칠보산의 기암괴석들은 보기에도 황홀하지만 자못 신비한 전설들을 전하고있어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있다.

그중에서 내칠보의 책바위는 마치 수많은 책들을 차곡차곡 쌓아놓은것 같아 보는 사람들의 놀라움과 경탄을 자아낸다.

그 책바위에는 옛날 신선들이 천궁의 책을 읽다가 그냥 두고 갔다는 신기한 전설과 함께 칠보산의 중이 백두산에 가서 도를 닦고 이 바위에 글을 새겼다는 두가지의 흥미있는 이야기가 깃들어있어 더욱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

지금으로부터 반세기 썩 이전의 일이라 한다. 칠보산의 개심사에는 지담스님이라고 불리우는 고명한 중이 있었다.

지담스님은 일찌기 속세를 떠나 불도가 된 후 열심히 학문을 닦아 그 명성을 떨쳤다. 그가 얼마나 많은 책을 읽었는지 책무지가 자그마한 봉을 이루었다고 한다.

그는 매일 이른새벽에 일어나 한번 손에 책을 쥔 다음에는 그것을 다 읽을 때까지 자지도 먹지도 않으며 지어 밤이면 달빛아래서도 책을 읽었다.

그가 늘 책을 쌓아두던 바위를 책바위라고 불렀다.

풍문에 의하면 지담스님이 많은 책을 읽게 된데는 남다른

사연이 있다고 한다.

스님의 고향은 칠보산의 해칠보마을이였다. 한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운 칠보산에서 마음껏 뛰놀며 한창 소년시절을 보내고있는 때에 왜놈들이 달려들어 국권을 강탈하고 나라를 빼앗았다.

나라를 빼앗기고나니 산도 바다도 고향도 자기의것이 아닌 《남의것》이 되고말았다.

그때 설상가상으로 가난한 어부였던 그의 아버지는 바다에 고기잡이를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했다. 어머니는 땅을 치며 곡성을 터뜨렸다.

남편없이 험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며 한두애도 아닌 네 자식을 무슨 수로 키워낸단말인가. 지나가던 한 동냥중이 이 광경을 보다못해 올망졸망한 네 자식중에 똑똑해보이는 한 아이를 절로 데려갔다고 한다.

살길이 막막한 어머니가 어쩔수 없어 응하고만것이다. 어머니의 품에서 떨어지지 않겠다고 발버둥치며 동냥중의 등에 업혀온 10살 소년이 바로 지담스님이였다.

절에 들어와 불목하니로, 사미승으로 된 그는 점차 부처님이 어지러운 세상을 구해준다는 념불을 믿게 되였다.

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불공을 드리러 왔다. 아이를 낳게 해달라는 녀인, 팔자를 고쳐달라는 사람, 가난을 면하게 해달라는 사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었다.

부처님께 매일과 같이 극성스레 빌고비는 그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불행속에서 저들을 건져낼수 있겠는가 하고 그는 생각했다.

아수라같은 왜놈들은 점점 더 기승을 부리고 백성은 아비

규환에 들었으니 이 어찌 통탄할 일이 아니겠는가.

왜적이 침노했을 때 중도 이 나라의 백성이라며 목숨걸고 일떠섰던 애국승려들인 사명대사와 서산대사의 가르침도 새겨보았다.

그날부터 지담스님은 세상구할 방도를 찾기 위해 옛 성현들의 가르침이며 이름난 고승들의 설법을 적은 책들을 열심히 탐독했다.

그러다가 불경만 읽으려던 당초의 생각을 버리고 이 세상의 책들을 모두 읽어볼 각오를 새롭게 다지였다.

그는 해와 달이 바뀌는줄도 모르고 꼬박 30년세월을 책속에 파묻혀 살았다.

단풍이 지는 어느 가을날이였다. 한잎두잎 떨어지는 나무잎을 보느라니 흘러가버린 자기의 인생을 보는것 같아 쓸쓸해졌다. 젊음은 아득히 흘러가버리고말았다.

이 세상의 책이란 책은 다 뒤져내여 만권서적을 읽었어도 아직 뜻을 이루지 못한 서글픔이 마음을 몹시 괴롭히고있었다.

만권서적에는 별별 책이 다 있었다.

석가모니가 쓴 《교서》를 비롯하여 옛 성현들과 명인재사들의 글도 있었고 《팔만대장경》을 비롯한 불경들, 세상리치를 적은 실록들…

한밤중에 불상을 마주하고 쟁쟁한 목소리로 념불을 외울때면 밤새마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이는듯했다.

유명한 중이며 예언가들이였던 도선 무학, 묘청의 주장이 적힌 글도 보았다. 그리고 운수를 점지한 민간신서인 《정감록》까지도 보았다.

실로 지담스님이 보지 못한 책이란 이 세상에 거의나 없었다.

그랬으나 지담스님은 자기의 초지를 이루지 못한 괴로움에 늘 가슴을 썩이였다. 한것은 그가 학문을 닦고 책을 많이 읽은 스님이라고 멀고 가까운곳에서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와 가지가지의 일을 물었지만 그에 신통한 대답을 줄수 없기 때문이였다.

《스님! 악귀같은 왜놈들이 언제면 망하리까?》

《조선의 독립일을 알으켜주십시오!》

도탄에 든 백성들은 왜놈들의 포악이 극도에 달할수록 원쑤 왜놈이 망할 날만을 애타게 기다렸다.

《허… 민족의 밝은 앞날을 예측코자 오늘까지 만권서적을 읽었으나 그 날자를 밝히기 어려우니 시주를 대하기가 부끄럽소이다!》

지담스님은 탄식과 허무감으로 세월을 보냈다.

허나 이 세상에 자기를 가르쳐줄 스승이 없고 읽어볼 책이 없는데야. …

그무렵 칠보산에 백두산대장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왔다.

백두산에 나라를 구할 대장수가 내려 머지 않아 악귀같은 왜놈들을 싹 쓸어버린다는것이였다.

백두산대장수님은 어떤분이실가?!

지담스님은 그 백두산대장수님이 지금껏 자기가 오매불망 찾고찾은 스승이 아닐가 하는 생각이 갈마들었다. 얼마후 지담스님은 간다온다 말이 없이 자취를 감추었다.

개심사의 자랑인 지담스님이 없어지자 여러 중들은 칠보산

을 벌컥 뒤지며 찾아다녔다.

혹시 호환을 입지 않았을가?

암자에서 바리대와 가사가 없어진것으로 보아 스님이 명산대천을 찾아갔으리라는 생각도 해보았다. 열흘이 지나고 반년이 지나도 지담스님의 행적은 묘연하기만할뿐이였다.

그가 칠보산을 떠난지 꼭 1년이 되여오던 어느날이였다.

암자쪽에서 이상한 불빛이 반짝거렸다.

《지담스님이 돌아오신게 아니요!…》

중들은 한달음에 암자로 달려갔다. 그런데 스님은 보이지 않았다.

안팎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스님은 없었다.

다만 평퍼짐한 책바위우에서 이상스러운 글을 발견하였다. 며칠전까지도 볼수 없던 글이 언제 여기에 새겨졌단말인가.

아무리 뜯어보고 음미해보아도 쉬이 알수 없는 글들이였다. 그런데 신비하게도 날을 따라 글자수가 많아지는것이였다.

여기저기에서 고명한 중들이 찾아오고 고을에서 학식자라는 사람들은 모두 찾아와보았지만 그 누구도 글뜻을 풀이해내지 못했다.

《지담스님이 계셨다면 이런 글쯤은 제꺽 풀이하실텐데…》

《스님은 어디 가계시는지…》

누군가는 이런 희망도 가져보았다.

《혹시 이 글을 쓰신분이 스님이 아닐가. 이 바위야 스님이 30년동안 앉아서 책을 보시던곳이 아니요?》

일이 이렇게 되자 사람들은 더욱더 스님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그러던 어느날 암자로 들어서던 중들은 너무도 기겁하여

그자리에 풀썩풀썩 주저앉고말았다.

시누런 금빛바탕에 흰 줄이 쭉쭉 간 큼직한 호랑이 한마리가 마당에 웅크리고있었던것이다.

호랑이의 두눈은 시퍼런 불이 펄펄 이는듯했고 쩍 벌린 시뻘건 입은 금시라도 따웅— 포효를 지를듯싶었다.

중들은 온몸에 소름이 끼쳐 오도가도 못하고 식은땀을 철철 흘렸다.

암자안에서 지담스님의 말소리가 울렸다.

《너무 그러지 말아, 호랑아!》

호랑이는 스님의 그 말 한마디에 길들인 짐승처럼 공손히 그자리에 주저앉았다.

《스님! 이게 어찌된 일이오이까?》

《허허허… 그간 무고들 했는가?》

《나무아미타불!》

그밤 암자에서는 지담스님의 이야기로 밤새는줄 몰랐다.

칠보산을 떠난 지담스님은 백두산대장수님을 만나뵙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으리라는 남다른 결심을 품고 며칠낮 며칠밤을 로상에서 헤매였다.

그러던 어느날이였다.

백두산마루인 천지봉에 올라 물 한모금을 마시고있는데 난데없이 돌풍이 들이닥치더니 지담스님을 어느 골짜기로 몰아갔다.

그런데 골짜기입구에 인적은 없고 흰줄무늬호랑이 한마리가 태평스레 걸어왔다.

호랑이라면 제먼저 삼십륙계 줄행랑을 생각할것이나 어찌된 일인지 지담스님은 호랑이가 무섭다는 생각은 조금도 들

지 않았다.

더욱 이상한것은 그 호랑이가 슬며시 지담의 앞에 다가와 무릎을 꿇고 어서 등에 타기를 기다리는것이였다.

지담은 반정신이 나간 상태이나 그래도 호랑이의 뜻을 따라 그 잔등에 올라탔다.

휙— 그가 호랑이등에 오르자마자 호랑이는 몇개의 산등성이를 바람처럼 날아갔다.

《허, 이런걸 두고 비호같다고 하는군!》

호랑이는 지담을 제꺽 백두산대장수님앞에 데리고갔다.

지담스님은 세상에 그처럼 유명한 백두산대장수님을 만나뵙고 그간 자기가 살아온 일을 자초지종 말씀올렸다.

왜적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도탄에 허덕이는 백성들에게 제나름의 힘을 주고 앞날을 펼쳐보이고싶어 만권서적의 글을 읽으며 도를 닦아온 이야기와 그랬으나 시주들의 물음에는 똑똑한 예언을 줄수 없은 자기의 안타까움을 사실그대로 털어놓았다.

백두산대장수님은 그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시고는 여기 백두산바람을 쏘이면서 얼마간 지내보라고, 그러면 앞이 훤히 트일것이라고 일깨워주셨다.

하여 지담스님은 백두산에 머무르면서 그분에게서 왜놈들을 골탕먹이는 여러가지 술법들을 터득하게 되였고 왜놈들이 백두산에서 어떻게 녹아나고있는가를 제눈으로 직접 목격할수 있었다.

스님이 칠보산으로 돌아오는 날 백두산대장수님께서는 백두산호랑이를 타고가라고 하시였다. 하여 지담스님은 눈깜짝할새에 칠보산으로 올수 있었다.

그리고 책바위에 나타난 글은 산에서 배워온 술법들이라고 했다.

그후 사람들은 이 동네, 저 동네로 자주 나다니는 지담스님을 보게 되였다. 그를 한번 만나보면 앞이 탁 트이고 속이 시원한 말을 듣게 되여 모두들 좋아했다.

가령 스님에게 언제면 나라가 독립되는가요 라고 물으면 말없이 백지 한장을 꺼내여 무슨 그림같은것을 그려주고는 떠나갔다.

《이게 뭔가요？》사람들은 눈이 둥그래졌다.

《분명 뜻이 있는 그림일텐데…》

그것인즉 밥을 먹던 왜놈이 밥상을 안은채로 나자빠지고 그우에서 소 세마리가 내려다보고 껄껄 웃는 그림이였다.

사람들은 그 그림우에 머리를 맞대고 저마끔 그림풀이를 했다. 구수공론끝에 이런 결론이 나왔다.

《아하! 이게 왜놈세상이 3년후면 뒤집힌다는 소리구만! 소 세마리가 껄껄 웃으니 소화 천황의 세상이 이젠 3년밖에 안남았다는 소릴세.》

어떤 마을에 가서는 소 세마리가 밭을 가는 그림을 그려주기도 했다. 그것 역시 소 세마리의 그림이였다. 그가 다녀온 마을의 아이들은 모두 《소화죽을년의 노래》를 불렀다.

이런 풍문은 점차 왜놈들의 귀에도 들어갔다.

왜놈경찰들은 즉시 개심사로 와서 지담스님을 잡아갔다.

그때 암자에서 글을 쓰고있던 지담스님은 웬일인지 그놈들의 요구에 선선히 응하며 산을 내렸다.

왜놈들은 지담스님이 백두산에 가서 무슨 술법들을 배워왔다는 말을 들은지라 한편으로는 무서워하며 그를 가두어놓고

2중3중의 감시를 했다.

그리고 자기 상부에다는 굉장한놈을 잡았으니 빨리 데려가 달라고 독촉을 했다.

다음날 아침 서장놈이 출근을 하니 간수가 이상한 말을 했다.

지담스님이 밤새 자지 않고 무슨 글을 쓰더라는것이였다.

《뭐라구? 종이와 붓은 누가 주었는가?》

《글쎄올시다.》

《빠가!》

서장놈은 간수의 따귀를 불이 번쩍나게 후려갈기고 감방안으로 들어섰다. 그런데 웬걸 지담스님은 천연스레 앉아있고 주위엔 종이와 붓은커녕 아무것도 없었다.

서장놈은 간수를 불러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고 단단히 신칙을 하였다. 그리고 저 중놈을 아예 몸을 움직일수 없게 바줄로 꽁꽁 묶어놓으라고 지시했다.

그 다음날 아침이였다. 따귀를 얻어맞았던 간수가 허겁지겁 서장방으로 뛰여들었다.

《저 중놈이… 무슨… 도술을 쓰는게 분명합니다.》

《뭐? 도술?… 그건 또 무슨 얼빠진 소린가?》

《서장님, 글쎄 제 말을 좀 들어보십시오. …》

간수는 이상한 말을 늘어놓았다.

이날 간수놈은 한잠도 자지 않고 감방안을 지켜보았다.

그런데 자정이 가까와올무렵 감방안에 안개가 자욱히 서리더니 잠시후에는 지담스님이 앉은뱅이책상을 척 마주하고 글을 쓰고있었다.

간수가 그 광경을 목격하고 그리로 가려 했으나 이상스레

제 몸을 옴짝달싹할수 없었다.

간수는 온밤 그렇게 신고하다가 방금전에야 그 도술에서 풀려나왔다고 했다.

《무슨 정신빠진 소린가!…》

서장놈은 겁에 질려 부들부들 떠는 간수를 밀쳐버리고 감방으로 달려갔다.

감방문을 있는 힘껏 걷어찼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다. 두번, 세번…

제풀에 맥을 다 뽑고 펄짝 주저앉는 그때였다. 스르르 문이 저절로 열리는것이 아닌가.

서장놈은 처음엔 믿어지지 않아 눈을 크게 떴고 다음엔 이게 백두산에서 배워왔다던 그 무슨 도술의 힘인가 하는 깨달음에 스스로 놀랐다.

그런데 감방안에는 지담스님을 결박했던 바줄만이 보일뿐 그는 바람처럼 사라져버린것이였다.

이게 귀신의 조화인가?!…

다음날 지담스님이 개심사 책바위에 나타나 책을 읽고있다는 정보를 받고 서장놈은 총출동하여 포위망을 좁혀들어갔다.

그러나 지담스님이 있는것을 보고 접어들었으나 방금전까지 앉아있던 흔적만 있을뿐 잡아낼수 없었다. 이런 일은 거의 열흘동안이나 계속되였다.

놈들이 단념하고 물러간후 개심사의 중들은 지담스님이 앉아있던 책바위에서 이런 글을 보게 되였다.

《경세참언(세상을 깨우치는 글)》

《참언이란 무엇이뇨. 하늘과 사람의 마음이 함께 깃들어있는 말이로다. 사람의 마음이 하늘을 흔들면 능히 만인의

힘을 움직이고 하늘의 마음이 사람에게 들면 천지의 리치를 이루어나가리라. 그 참뜻을 얻으면 백년 앞일을 미리 알고 그 근본에 따르면 만물을 움직이는 리치를 알리니 이에 정신을 쏟아야 할지로다. 그러나 리치가 리치로 된탓에 형용으로 볼수도 빛으로 알수도 없어 자세히 살피지 않으면 앞을 거슬러볼수 없는것이 이것이라, 하늘리치를 따르고 사람의 일을 다하려고 하는자는 이 글을 받아 갈고 다듬듯 공부하면 아마 다가올 일을 밝게 알며 백성들을 만전의 땅에 살게 할수 있으리로다.》

지담스님은 이렇게 서두를 뗀 다음 쉬이 알지 못할 글들을 수많이 적어넣었다.

《칠보산 머리에 우물이 있느니라. 하루는 그 우물이 말랐는데 만그루 숲속에서 울려오는 소리 있어 산이 울리고 골이 응답하니 그 소리 하였으되.

리롭지 못한 때를 만나
피가 흘러 방아고가 떠내려가도다
우리를 죽일자 누구인가
벼짚을 인 녀자사람이로다
그 소리 호곡같으며
사흘밤을 연해 일다가 그쳤니라》

《흰나무아래 글월 있어
백두산기슭에 풀이 돋았으니
소 세마리로 밭을 갈리라
이것은 단서의 기록이니라》

등등… 이러루한 글들이 바위우에 가득 씌여있었다.

사람들은 처음 그 글들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몰랐다. 그러나 개심사의 중들은 지담스님이 쓴 《참언》즉 《벼짚을 인녀자사람》이란 바로 왜놈(왜나라 왜(倭))를 가리키며 백두산에 풀이 돋았음은 유격대의 기치창검이 수풀처럼 덮였으니 《소 세마리》 즉 3년이면 왜놈세상이 뒤집힌다는것을 예언했음을 알수 있었다.

왜놈들도 그 뜻을 알아채고 책바위에 달려들어 그 글들을 지워버린다고 야단법석을 떨었다. 그러나 그것을 지우면 글이 다시 새겨지고 또 새겨지군해서 종내는 손을 털고말았다.

지금도 책바위에 가면 그때의 글이 희미하게 남아있다고 전해지고있다.

일설에는 그 글이 지담스님의 글이 아니라 스님이 백두산에 가 도를 닦을 때 백두산대장수님에게서 들은 말을 은유적 방법으로 에둘러 적은것이라고 한다.

말하자면 백두산대장수님께서 조국광복을 일일천추로 고대하는 겨레에게 이런 글로써 왜놈들이 멸망하는 날을 알려주셨다는것이다.

장 기 바 위

왜놈들의 《동기대토벌》이 시작되자 어느 한 중국인 구국군부대에서는 동요가 일고 탈주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왜놈들의 허장성세에 지레 겁을 먹은것이였다.

항일의 기치를 들고 부모처자와 헤여져 산으로 들어오긴 했으나 놈들과 변변히 싸워보지도 못하고 겨우겨우 력량만 보존해오던 구국군부대였다.

(이젠 어쩌면 좋은가?)

구국군부대의 사령은 며칠째 끙끙대며 골머리를 앓고있었다.

사면팔방으로 왜놈들이 달려들지, 대오안에서 도주자들이 생기지 그렇다고 왜놈들의 대병력에 맞서싸울 힘은 없지 하니 눈앞이 캄캄하기만했다.

그는 이때처럼 자기가 구국군부대의 사령이 된것을 뼈저리게 후회한적이 없었다. 홀몸도 아닌 수백명의 운명이 자기에게 달린것이였다.

이런 식으로 있다가는 얼마 안있어 부대는 사분오렬되여 뿔뿔이 흩어지리라는것은 불을 보듯 명백했다.

그런데 왜놈들은 구국군부대라면 기를 쓰고 뒤쫓아 달려드는판이였다.

과연 부대를 살릴 길이 없단말인가?

《사령님, 우린 이대로 죽어야 한단말입니까?》

《우린 왜 이렇게 쫓겨다녀야만 합니까?…》

병사들이 가슴을 치며 묻는 말에 사령은 대답을 줄수 없어 피가 나게 어금이를 깨물군했다.

(병사들, 무맥한 이놈을 용서해주시오. 난 당신들을 이끌 재목이 못되는가보오.)

사령은 때로 자총을 해서라도 왜놈들에게 굽어들지 않는 자기를 보여주고싶었다. 그렇게 해서 병사들의 용서를 받을 수만 있다면…

그러나 그는 일개 병사가 아니였다.

사령은 쉬이 죽을수도 없는 자기의 처지를 한탄했다. 구국군병사들의 처지는 날을 따라 처참해졌다. 먹을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추위에 떨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

일제가 《9.18사변》을 일으키고 동북을 강점하자 많은 병사들이 그를 구국군사령으로 받들고 항일의 기치아래 모여들었었다.

한때는 이 만주땅에 우후죽순처럼 솟은것이 구국군부대들이여서 왜놈치기에 신바람이 났었다.

게다가 늘 이웃에 축지법대장수인 **김일성**장군님께서 계시여 기세는 더욱 충천하였다.

그런데 왜놈군대가 중국대륙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서 구국군부대들이 하나둘 괴멸되여갔다.

(우리 부대도 결국은 풍전등화의 신세를 면할수 없단말인가?)

사령은 절망에 잠겨있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김일성**장군유격대》만은 여전히 기세충천하여 왜놈부대들을 족쳐대고있다는것이였다.

《그게 정말인가?》

사령은 한발 나서며 물었다.

소문을 날라온 병사는 머리를 끄덕이였다.

사령은 이미 **김일성**장군님은 온 조선민족이 태양으로 받드는분이심을 알고있었다.

사령은 언제든 한번 그분을 만나 축지법을 배워주십사 하고 절절한 청을 드릴 생각이였었다.

《너희들은 어서 가서 **김일성**장군이 계신곳을 알아오라.》

사령은 그 길로 몇명의 병사들을 파견하였다.

그러나 한달이 지나도록 종무소식이였다.

사령은 기다리다못해 부대를 거느리고 백두산이 바라보이는곳으로 갔다.

그러던 어느날 한 병사가 수상쩍은 포수로인을 사령에게 데려왔다.

병사의 말이 매우 이상한 령감이라는것이였다. 겉보기와는 달리 말소리도 컸고 몸가짐에서도 범상치 않은 기품이 느껴졌다.

《로인장은 어디 사시오?》

《백두산의 포수올시다.》

《왜놈들이 산림속에 한벌 쭉 덮여 닥치는대로 죽이고 매달고 하는 이 사지판에서 무엇을 하는거요?》

《짐승을 잡지 뭘하겠소. …》

로인의 대답은 거침없었다.

사령은 그가 포수이니 그럴만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러

나 왜놈들이 포수라고 살려두는 법이 없었다.

동정심이 갔다.

《왜놈들이 무섭지 않으시오?》

《…》

그 물음에 로인은 대답을 안했다. 몹시 못마땅한듯 눈을 올리뜨고 내리뜨고 했다. 그의 눈길이 사령의 발끝에서 머리를 거쳐 다시 병사들의 처참해보이는 주제들에 가닿았다.

로인은 종잡을수 없는 질문을 했다.

《중국어른은 어느 편이요?》

《?…》

이번에는 사령의 말문이 막혀버렸다. 그의 물음이 대번에 사령의 자존심을 찌른것이다.

제눈으로 보고 구국군이라는 말을 들었는데도 그런 말을 한단말인가?

머리가 좀 잘못된 로인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갔다.

로인은 부시럭부시럭하며 담배쌈지를 꺼내서는 담배를 말았다. 그리고나서 또 한번 사령의 얼굴을 쳐다보며 말하였다.

《이보시우, 중국어른! 마음놓수다. 저 백두산에 **김일성**장군님께서 계시는데 우리 백성들이 뭐가 무서울게 있겠소?… 오히려 왜놈들이 벌벌 떨고있소.》

《로인장, 이자 그 말이… 사실이요?》

사령은 귀가 번쩍 열리여 로인의 손을 잡았다.

《사실이요. 지금 백두산에 계시는 **김일성**장군님께서 동에 번쩍, 서에 번쩍 하시며 왜놈들을 족치신다오. 며칠전에도 왜놈들이 쫄딱 녹아나는걸 내눈으로 봤수다.》

사령은 그 로인을 귀인으로 대접했다.

그리고 며칠밤을 새워가며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또 들었다. 들을수록 한시바삐 그분을 만나뵙고싶은 소망이 커졌다.

이번 기회에 그분에게서 왜놈들을 골탕먹이는 축지법이나 하늘로 오르고 땅으로 잦아드는 술법들을 모두 배워오리라 생각했다.

구국군병사들도 사령의 이 결심을 듣고는 한결같이 호응해 나섰다.

그 길로 사령은 몇명의 호위성원을 거느리고 **김일성**장군님을 찾아 떠났다.

며칠이 지나고 또 며칠이 지났다.

하루이틀이면 오겠다던 사령은 돌아오지 않았다.

구국군병사들은 기다리다못해 혹시 잘못되지 않았는가 하는 불안도 가지였다.

그러던차에 구국군부대는 왜놈들의 대병력과 맞다들게 되였다.

왜놈들은 대뜸 그들이 구국군부대라는것을 알아보고는 겸질기게 포위망을 좁혀들었다.

벌써 투항하면 살려준다고 고아대는놈들도 있었다.

이제는 꼼짝 못하고 죽었구나 했는데 창창 개인 하늘에서 쫘르릉— 쫘르릉 하는 우뢰가 터졌다. 우뢰소리에 기절초풍한 왜놈들이 줄행랑을 쳤다.

그런데 어디서 나타났는지 흰 안개가 자욱한 언덕우에 사령이 느물느물 웃으면서 쫓겨가는 왜놈들을 보며 서있는것이 아닌가.

《사령님!…》

병사들은 우르르 사령을 둘러싸고 눈물을 흘렸다. 때아닌 우뢰소리에 왜놈들이 혼비백산해서 도망쳐버린것이였다.

《사령님! **김일성**장군님을 만나뵈웠습니까?》

《배워오신다던 축지법은 어떻게 되였습니까?》

《그분은 어떤분이시오이까? 들리는 말엔 그분의 키는 하늘에 닿고 백발수염이 구름이 되여 휘날린다는데…》

질문의 소나기에 사령은 벌씬벌씬 웃음으로 대하며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 사령일행이 천신만고끝에 **김일성**장군님을 만나뵙게 된것은 불과 며칠전의 일이였다.

장군님께서는 구국군부대의 사령이 찾아왔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못내 기뻐하시면서 반갑게 맞아주시였다.

사령은 온 만주땅에 전설처럼 명망이 높으신 **김일성**장군님께서 매우 젊으신분인데 놀랐다. 마치도 청청한 푸른 하늘을 보는듯 온몸에 피가 끓고 힘이 우쩍우쩍 커지는듯했다.

장군님께서는 구국군의 실태며 사령이 직접 불원천리하고 찾아온 사연을 들으시고는 백두산이 쩌렁쩌렁 울리게 웃으시였다.

기꺼이 왜놈들을 족치는 신비한 지략과 술법들을 배워주시겠다고 약속까지 하시였다.

장군님께서는 그가 장기를 좋아한다는것을 아시고 그를 너럭바위에로 이끄시였다. 둥근 밥상모양의 바위우에 장기판이 그려져있었고 옥돌처럼 빛갈이 파르스름한 주먹만한 크기의 장기쪽들이 놓여있었다.

바로 그때 적정이 생겼다.

장기라면 만사불구하고 끝장이 날 때까지 결판을 보고야마

는 사령이였지만 대적이 덤벼드는 어마어마한 정황인지라 몹시 급해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런데 장군님께서는 《그놈들이 손님도 알아못보는군.》하시며 사령의 손을 잡아 장기판앞으로 이끄시는것이였다.

장기판에서 말과 상이 뛰여가고 포가 넘나들고 차가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장기에 들어서서는 첫 자리를 양보하라면 도리머리를 홰홰 젓는 사령인지라 어느덧 장기에 심취되여 술수를 넘겨짚기에 여념이 없었다.

그러나 왜놈들이 밀영을 포위하고 무척 가까이 접근했다는 적정이 두번세번 알려오자 조급해나서 장기수가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

《작은것에 골몰하면 큰것을 잃게 됩니다.》

장군님께서는 가끔 의미있는 말씀으로 그의 장기수를 튕겨주시였다.

이때 전령병이 왜놈들이 밀영을 향해 《돌격》해올 태세라고 보고드리였다. 그러나 장군님께서는 낯색 한번 달리하지 않으시고 장기판에서 눈길을 떼지 않으신채 쪽을 드시여 《장훈이요!》하고 큰 소리로 웨치시였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장군님께서 장기쪽을 들어 《딱!》하고 내려치실 때마다 그 소리가 어찌도 요란스레 울리는지 골안이 쩡쩡 울리는것이였다. 장기판을 마주한 구국군사령도 깜짝깜짝 놀랐다. 분명 장군님께서는 자기와 꼭같은 장기쪽을 옮겨놓으시는데 그때마다 벼락치는것처럼 그 소리가 공명되는것이 아닌가.

더욱 놀라운것은 밀영근처로 기여들던 왜놈들이 그 소리에

얼이 빠져 경황없이 빽소니를 치는것이였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총 한방 쏘지 않고 왜놈들을 쫓아버리시다니…

그의 이런 의문은 기절해 나자빠졌다가 유격대원들에게 끌려온 왜놈들에 의해서 풀리였다.

그날 놈들이 유격대밀영을 은밀히 탐지하여 포위망을 한발자국, 두발자국 좁혀들었는데 난데없이 골안이 깨여지는듯한 벽력소리가 울리더라는것이였다.

그 벽력소리에 왜놈들의 귀청이 터져나갔다.

이어 무서운 굉음이 울리면서 절벽이 와그르르 무너져 팔다리가 부서지고 머리가 터져 정신을 잃고 쓰러지게 되였다는것이였다.

구국군사령은 그제서야 **김일성**장군님께서 자기를 불러 단순히 장기를 두신것이 아니라 신출귀몰하는 축지법을 배워주신것임을 깨닫게 되였다.

그래서 자기도 그분에게서 배운 축지법으로 우뢰소리를 타고 자기 부대에 돌아올수 있은것이였다.…

그로부터 얼마후 구국군부대와 항일유격대가 련합하여 왜놈들이 둥지를 틀고있는 한 성시를 들이쳤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나갔다고 한다.

오늘도 백두산기슭의 울울창창한 그 골안에 가보면 그날의 장기바위가 있다고 한다.

백두산의 쌀나무

신출귀몰하는 **김일성**장군님의 유격대가 국내진출을 개시하였다는 소식이 퍼지자 백두산을 가까이한 장백땅은 발칵 뒤집혔다. 자그마한 현에 관동군의 수많은 병력이 밀려들고 산등성이와 골짜기에는 《토벌》대의 누런 군복이 가랑잎처럼 쭉 깔렸다.

며칠후에는 일본 대본영에서 《작전의 두뇌》라고 으시대는 하또야마대좌가 비행기로 날아왔다.

그날따라 바람이 몹시 불어 눈을 뜰수가 없었다.

하또야마는 외투자락을 펄럭이며 한계단한계단 승강대를 힘겹게 걸어내려왔다.

비행장에는 그를 마중하기 위해 어깨에 시누런 금줄을 늘인자들이 줄레줄레 나와섰는데 모두가 추위에 꽁꽁 얼어 눈사람들같아보였다. 하또야마는 그러한 꼴들을 비양기어린 눈길로 대충 훑어보고는 차에 올랐다.

이날 대본영의 손님은 고급료정에 잠시 들려 연방 허리를 갑삭이며 교태어린 눈길로 그의 품에 들고싶어하는 해반주그레한 일본계집들도 본체만체하며 곧장 회의실로 향했다.

마중나왔던 현지의 《토벌》대우두머리들은 내려오는 파견관들마다 의례행사처럼 되여온 연회석과 료정안내까지 마다

한 하또야마를 의아쩍은 눈으로 쳐다보았다.

어느 한 장교는 하또야마가 안경을 벗었을 때 보니 그의 눈이 꼭 삵의 눈과 같더라고 무서워하기까지 했다.

하또야마는 회의장에서도 확실히 노는 품이 달랐다.

여느놈들처럼 들어서자마자 《토벌》정황을 보고하라느니 왜 아무런 전과도 없느냐 하는 닥달질도 없이 그저 한놈한놈 얼굴에 눈자국이 나도록 쏘아볼뿐이였다.

그와 눈길이 마주치는놈마다 등골이 오싹오싹하여 자라목이 되였다. 눈이 저렇게 강산같이 쌓이고 박달나무마저 얼어터지는 이 강추위에 또 《토벌》대들을 산판으르 내몰가봐 몹시도 두려워서였다. 그러나 한동안 창밖을 유심히 바라보고 섰던 하또야마의 입에서는 전혀 다른 말이 새여나왔다.

《위생장교가 왔는가?》

갑자기 쥐죽은듯 고요해진 좌석의 맨끝에서 어리둥절해진 장교가 꾸어온 보리짝처럼 앉아있다가 일어섰다. 이러한 작전회의에 난생처음으로 참가하는 위생장교였다.

《사람이 이런 강추위에 즉 령하 40도를 오르내리는 혹한속에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면 며칠을 견디여내는가?》

뜻밖의 물음에 아직 제정신을 못차린 위생장교는 얼음판에 자빠진 소처럼 뻥해서 눈알만 디룩거리다가 겨우 말을 떠듬거렸다.

《인체에 물질대사과정이 중단되면… 인차 허탈증세가 생기고 단백소모가 촉진되는바 더우기 추위를 막는데 많은 영양소가 요구되는데… 그걸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 기껏해서 3일을 넘기기가 생리구조상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3일?…》

하또야마가 이번에는 유격대《토벌》에서 좀 년한이 있다는 맨 앞자리의 털보를 일으켜세웠다.

《군의 생각은?》

《얼마전 백두산쪽으로 출동하였던 저의 부대에서는 눈사태에 5일간이나 보급로가 막히는통에 아사자 열두명, 동상자 일곱명이 났습니다.》

안경알속에서 하또야마의 눈알이 의미있게 번뜩이였다.

《음… 무적황군이 고작 닷새란말이지. 그건 아무래도 좋아. 그러면 이번엔 이렇게도 생각해보라. 그야말로 산속에서 단련될대로 단련된 유격대인 경우 먹지 않고 과연 며칠이나 견딜수 있겠는가? 닷새는 너무도 식은죽 먹기일것이고 열흘도 능히 웃으며 견딜것이다. 그러나… 길게 잡아서 보름? 아니, 한달로 보자. 과연 제아무리 신출귀몰하며 날고뛴다는 유격대라 해도 령하 40도를 오르내리는 혹한속에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어떻게 한달이상을 견디여내겠는가?》

그의 얼굴엔 자신만만한 웃음이 퍼져있었다. 그러나 모든 장교들은 꿀먹은 벙어리마냥 입을 다물었다.

하또야마는 이상하여 주위를 둘러보았다. 어떤놈은 아직도 저놈이 대체 무슨 말을 지껄이는가 하는 태도였고 또 어떤놈은 백두산의 강추위에 귀쪽 한번 얼구어보지도 못한 네놈이 돼먹지 않게 무슨 희떠운 수작이냐 하는 자세였다.

하또야마는 밸이 울컥 뒤집혀 자제력을 잃고 책상을 탕 내리쳤다.

《천황폐하앞에 칼을 들어 맹세한 제국의 남아들로서 야마도다마시이를 발휘할 시각은 왔다!

본관은 대본영을 떠나오면서 천황폐하앞에 **김일성**빨찌산을

소멸하지 않고서는 돌아오지 않겠다는것을 혈서로써 맹세했다. 제군들도 천황폐하와 대일본제국을 위해 멸사봉공할 각오를 가져야 한다. 이번 새 작전에서 실패하는 경우 나와 제군들모두가 배를 갈라야 한다는것을 명심하라!》

하또야마는 이렇게 한바탕 을러멘 다음 각 지구헌병대와 경찰대우두머리들을 일으켜세워 이제부터 한달간 백성놈들이 집단부락에서 한발자국도 나오지 못하게 엄중단속하라고 명령했다.

관동군과 위만군의 우두머리들에게는 빨리 유격대의 행처를 찾아내여 3중4중의 포위망을 치라고 했다.

《이번 작전은 황송하옵게도 천황폐하께서와 대본영이 지켜보는 속에서 진행하게 될 특수작전이다. 이제 한달후면 제군들은 모두 대일본제국의 앞길에 가로놓인 **김일성**빨찌산이라는 커다란 암초를 제거한 시대의 영웅들로 떠받들리우게 될것이다.》

하또야마는 일장 훈시를 끝마친 다음 이른바 《특수작전》을 직접 지휘했다.

이틀째 되는 날에 벌써 흐뭇한 보고가 올라왔다.

우선 헌병대장으로부터 백성들을 모조리 집단부락에 가두어넣었다는것과 성문들에는 쥐새끼 한마리 얼씬 못하게 아예 못을 치고 빗장을 질러놓았다는것이였다.

《종거시! 절대로 산으로 쌀 한줌, 소금 한알도 새나가지 못하게 해야 한다.》

《핫!》

전화가 끝나기 바쁘게 문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토벌》대의 련락장교가 쇠똥바가지를 쓴채 들어섰다.

《보고! 우리 부대가 **김일성**빨찌산의 행처를 찾아냈습니다.》

《뭣이?!…》

하또야마는 너무 기뻐 입이 귀밑까지 올라갔다. 행운이라고 해야 할 그것이 이렇게도 빨리 찾아올줄은 미처 생각지 못한 일이였다.

《력사적인 작전이 드디여 막을 열었구나!…》

그는 즉시로 각 지구《토벌》대의 우두머리들을 불러들여 너는 어디를 포위하고 너는 어디를 막으라 하는 상세한 지시를 주었다. 그만하면 세겹네겹의 포위망을 형성했다고 한시름을 놓는데 정보가 또 들어왔다.

유격대의 동향을 보니 숙영지를 꾸리고 그 무슨 공부들을 하는것으로 보아 어디로 빠져나갈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것 그리고 식량은 이미 떨어진것으로 추측되는바 오늘래일중에 밥짓는 연기가 전혀 오르지 못할것이라는것이였다.

《좋거시! 좋거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밀영근처에 개미 한마리 얼씬 못하게 하라!》

그날로부터 하또야마대좌는 연 사흘간을 초조와 긴장속에 전화통곁에서 밤을 새우다싶이 했다. 나흘째 되는 새벽에 전화종소리가 설핀잠에 든 하또야마를 깨웠다.

《그래 오늘도 밥짓는 연기가 오르던가?》

《하! 세끼 밥을 지어먹고 춤까지 추고있습니다.》

《이상한 일이다!》

벌써 사흘이 지나고 나흘째 되는 오늘까지도 유격대밀영에서 밥짓는 연기가 계속 오르고있다니 이상한 일이 아닐수 없었다.

백성들을 모두 집단부락에 가두었고 유격대의 밀영은 세겹네겹으로 에워쌌는데 어디서 밥지을 쌀이 계속 생겨나는가?

정말 귀신이 곡할노릇이다.

《쌀이 생겨나는 출처를 밝히라!》

하또야마는 자못 부아가 치밀어올랐으나 아래놈앞이라 체면에 못이겨 이렇게 소리치고말았다.

그런데 다른 부대에서는 더욱 놀라운 보고가 들어왔다.

《대좌님, 빨찌산에 쌀이 열리는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뭐이? 쌀이 열리는 나무?!… 빠가! 세상에 그런 나무가 어디 있단말인가?》

하또야마는 꽥 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련락장교의 말을 믿지 않을래야 않을수 없었다.

자기 부대가 있는곳에서는 유격대의 밀영이 한눈에 잘 보인다면서 분명 오늘 새벽에도 작식대원들이 쌀나무를 털어 밥을 짓는것을 제눈으로 보았다는것이였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김일성**장군이 이른새벽에 산책을 하시다가 손을 높이 들어 가리키면 쌀나무가 생겨난다는것이였다.

김일성장군?!… 그게 사실이란말인가?!

그분의 존함은 본토의 대본영에도 알려져있어 하또야마자신도 감히 아니라고 부정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다.

(이놈들이 모두 빨찌산에 겁을 집어먹고 반정신이 나간게 아니야?…)

하또야마는 들어오는 보고마다 너무나도 놀랍고 이상한 말뿐이여서 직접 제눈으로 확인하려고 급히 말을 타고 현지로 달려갔다. 《토벌》대가 진을 친곳에 당도하니 털보대장이 그에게 쌍안경을 내밀며 말했다.

《저도 처음엔 믿어지지 않아 련 사흘을 이곳에서 지켜보았습니다. 하긴 빨찌산이 쌀나무를 털어서 밥을 지어먹고 산다

는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걸 유독 우리들만 몰랐던것 같습니다.
저 나무를 좀 보십시오. 생기긴 잣나무 비슷한데 백두산나무가 돼서 그런지 쌀이 달려있습니다.》
하또야마는 의아함을 감추지 못한채 쌍안경을 눈에 가져갔다. 그러자 깜짝 놀랐다.
아니 저건?!… 쌀나무가 눈앞에 바투 다가왔다.
유격대원들이 쌀나무의 쌀을 털어내고있었다.
한명의 유격대원이 바닥에 모포같은것을 펴놓으니 다른 한명은 장대기로 가지를 툭툭 두드려 쌀을 털어냈다.
우수수… 우수수… 흰쌀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것만 같았다.
하또야마는 너무도 놀랍고 신비한 광경에 눈을 비비고 다시 보고 또 들여다보았다. 분명 그것은 쌀이 열리는 나무였다.
이때 하또야마는 대본영에서 온 작전가답게 (저 나무를 빼앗기만한다면…) 하는 약삭바른 생각을 했다.
이어 긴급명령을 하달했다.
《총출동하여 저 나무를 빼앗을것!》
왜놈《토벌》대의 대부대가 물샐틈없는 포위진을 치고 은밀히 쌀나무를 향해 기여들었다.
《도쯔께끼!(돌격)》
하또야마는 높뛰는 가슴으로 직접 구령을 질렀으며 《용감》한 사무라이의 후예들은 한달음에 나무를 점령했다.
그런데 정작 나무를 차지하고보니 웬일인지 쌀이란 한알도 보이지 않았다. 그 나무는 보통잣나무가 분명했다.
(어찌된 일인가?! 이 나무에서 빨찌산이 쌀을 털어내는것을 내 눈으로 보지 않았는가.)

하또야마는 영문을 알수 없어 두리번거렸다.

《대좌님, 저걸 보십시오. 빨찌산이 또 쌀을 털어내고있습니다.》

《으응?!…》

털보대장이 가리키는곳을 보니 유격대가 이번에는 또 다른 나무에서 쌀을 털고있는것이였다.

얼굴의 피기가 싹 가셔진 하또야마는 큰 칼을 쑥 빼들고 눈앞의 잣나무를 짓이겨놓았다. 그런데 신비한 일이 생겼다.

다음날 털보대장의 부대에서 들어온 보고에 의하면 하또야마가 짓이겨버린 그 잣나무에서 또 쌀을 털어내고있다는것이 아닌가!

(아! 이것이야말로 하늘이 냈다는 **김일성**장군의 귀신같은 재간이로다. 아흔아홉가지 술법을 가졌다더니 헛소문이 아니였구나.… 쌀이 열리는 신비한 나무를 가졌은즉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굶겨죽일수 있단말인가. 보름, 한달은커녕 백날을 포위하고있은들 안될 일이로다.)

하또야마대좌는 비명을 지르며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고말았다. 물론 일본대본영이 품들여 고안해낸 《특수작전》도 이것으로 막을 내린것이다.

이 이야기는 일제가 유격대와 인민들간의 련계를 끊어보려고 곳곳에 집단부락을 만들어놓고 악착스레 날뛰던 시기 생겨난 전설이다.

그때 인민들은 놈들의 2중3중의 감시와 통제속에서도 조국광복을 위해 싸우는 유격대를 물심량면으로 도왔다.

쌀과 소금, 피복같은것을 지고 산으로 올라 유격대가 지나게 될 길목이나 나무들에 그것들을 매달아놓기도 했다고 한다.

태평양을 잠재우다

철썩, 처절썩—

태평양은 세계의 5대양가운데서도 가장 넓은 대양으로 알려져있다. 또한 수심이 깊고 바다밑 모양새가 험하며 해풍이 세차기로 유명하다.

바다가 격노할 때면 산악같은 파도가 일어서고 하늘땅을 집어삼킬듯한 격랑이 호호탕탕 바위를 들부시며 광포한 자연의 힘을 과시한다.

인간과 세계를 공포속에 몰아넣는 그 거대한 힘의 원천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오늘도 쉼없이 출렁이는 태평양의 거센 물결은 지난 시기 강도 일제에 의하여 우리 인민과 아시아인민들의 피와 눈물을 많이도 삼키여왔다. 그로 하여 더욱 몸부림치고 더욱 흐느끼고 그렇게도 광란하였으리라.

생각컨대 그윽히 맑고 푸른 물결우에 《대동아공영권》이라는 검은 연기를 꾸역꾸역 토해내는 일제침략자의 철선이 지나간 때로부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슬에 묶이여 십자성흐르는 거친 이역으로 사무치는 분노와 애간장을 찢는 울부짖음과 꺼질길 없는 한숨소리로 배전을 두드리며 정처없이 흘러가고 또 흘러갔던가.

그때마다 대양은 노호하며 세찬 격랑으로 잠들지 못하고 몸부림쳤다.

이러한 태평양의 거친 물결을 일시에 잠재우는 기적과도 같은 일이 있었으니 삼가 출렁이는 물결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자.

1945년 8월 15일.

일본천황 히로히도는 마침내 죄많은 머리를 숙이고 일본의 패전을 선언하였다.

인류에게 헤아릴수 없는 재난을 들씌운 세계대전의 포성도 멎었다.

《전쟁이 끝났대요!》

《일본이 항복했대요!》

《조선이 해방됐대요!》

남태평양상의 크고작은 군도들에 해빛 한점 스며들지 않는 어둑침침한 막사안에서 이런 조선말웨침이 터져나왔다.

해방! 조선이 해방되였다.

막사안에는 한창나이의 처녀들과 젊은 녀인들이 있었다. 그들의 꺼칠해진 두볼로는 눈물이 쭈르륵쭈르륵 떨어졌다.

이제는 다 마르고말라 막힌줄 알았던 눈물줄기가 다시 열리고 눈물이 분수처럼 하염없이 뿜어져나오는것이였다. 그리고 그 젖어든 눈섭사이로 아예 생각지도 말자고, 잊고말자고 그처럼 가슴속을 누르고 또 덮어버렸던 그리운 얼굴들, 어머니와 아버지, 가족들의 모습과 고향산천이 우렷이 떠올랐다.

《아, 어—머니!…》

울며불며 찾고 부르는 그들의 어깨는 세차게 들먹거렸고

짜고도 쓰디쓴 절망의 눈물이 끝없이 쏟아져내렸다.

그때에야 비로소 자기들은 왜놈들에게 몸을 더럽힌 일본군 《위안부》들임을 소스라치며 깨우치게 되는것이였다.

《아이고 어머니!… 난 어쩌면 좋아요?》

올해 15살의 애어린 처녀 분이가 언니벌이 되는 숙향의 무릎에 어푸라지며 목놓아 곡성을 터뜨렸다.

아, 이 원한을 어떻게 푼단말인가?

일제는 침략전쟁에 환장이 되여 어떻게 하나 파멸에 처한 제놈들의 운명에서 벗어나보려고 조선에서 빼앗을수 있는 모든것, 인적, 물적자원을 깡그리 긁어가다 못해 나중에는 애어린 처녀들과 갓 시집을 온 새각시들까지 《정신대》라는 이름으로 강제로 랍치해갔다.

20세기의 참혹한 인간도살장인 전쟁터에 끌려간 그들은 포악한 일본사무라이들에게 던져져 천황페하의 하사물인 성노리개로, 일본군《위안부》로 된것이였다.

그러한 조선녀성의 수가 20만을 헤아리였다.

함경북도의 길주가 고향인 숙향은 머슴군총각에게 시집간 첫날밤에 악귀같은 왜놈들에게 붙잡혀왔고 애어린 분이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책보를 멘채 백주에 랍치당하였다.

그날부터 그들은 인간이 아니였고 녀성이 아니였다.

일찌기 인류가 겪어온 수많은 전쟁의 재난속에 보지도 듣지도 못한 이 아비규환의 생지옥! 그속에서 녀인들이 바라는 소원은 하나뿐이였다.

인간의 존엄과 녀성으로서의 권리를 무참히 짓밟히고 더럽혀질대로 더럽혀진 생명을 깨끗이 끊어버리자.

죽음으로 항거하여 혼이나마 그리운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자.

그러나 원쑤들의 엄격한 감시와 통제속에서 그들에게는 목숨을 버릴 자유까지도 차례지지 않았다.

《아아! 이런 몸으로 어떻게 집으로 간단말이요? 무슨 낯으로 부모님들을 마주한단말이요?》

숙향은 몸부림쳤다.

그러다가 문득 자리를 차고일어났다. 그렇게 울고만 있을 경황이 못되였기때문이였다.

지긋지긋한 이 왜놈의 마굴에서 벗어나자!

무엇보다도 왜놈들의 탐욕스러운 눈길에서 몸을 피해야 했다.

미친듯이 진군나팔소리를 울리며 남태평양에까지 질주한 왜놈들은 보급선이 끊어져 무서운 기근상태에서 허덕이고있었다.

무인도나 다름없는 섬에서 오도가도 못하게 된 왜놈들은 그야말로 순간에 미쳐버렸다. 서로 빼앗고 찔러죽이고 쏘아죽이는판이였다.

그놈들은 산속에서 다른 부대를 만나면 권총의 안전장치부터 풀었다. 그로 하여 산길과 모래터의 곳곳에는 왜놈들의 시체가 나딩굴었는데 짐승이 물어뜯은 자리와는 달리 엉치부위의 살점을 도려내고 그옆에서 불에 구워먹은 흔적이 뚜렷했다.

제놈들끼리 서로 으르렁거리며 총부리를 겨누고 제비뽑기를 하던 왜놈들속에서 어느놈인가가 이렇게 소리쳤다.

《조센삐들을 그냥둘수 없다.》

조센삐란 왜놈병사들이 일본군《위안부》인 조선녀성들을 가리키는 말이였다.

식인종의 야욕이 골수에 박힌 왜놈들은 막사를 뛰쳐나오기 시작했다.

순간도 지체할수 없는 위험이 각일각 조선녀성들에게로 다가오고있었다.

숙향을 비롯한 녀성들은 소굴에서 뛰쳐나왔다.

그러나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리운 고국으로 가는 길은 어디인지 알수 없었다. 다만 잡혀서는 안된다는 하나의 생각으로 허리치는 진펄과 끝없는 쟝글속을 헤쳐갔다.

인차 왜놈들이 뒤쫓아왔다.

먹이감을 본 굶주린 이리떼마냥 왜놈들은 검질기게 뒤따라왔다.

녀인들은 있는 힘을 다해 산등성이로 치달아오르기 시작했다.

한발자국 또 한발자국…

지칠대로 지친 그들은 마지막기력을 모아 필사적으로 걸음을 떼였다.

앞에는 아찔한 낭떠러지, 그밑으로 시퍼런 바다가 룽트림하고있었다.

숙향은 분연히 머리를 풀어헤쳤다.

《저 바다에 몸을 던져버리자요! 죽을래야 마음대로 죽을수도 없어 몸부림치던 우리가 아니였나요.… 그러면 신령님도 불쌍히 여겨 우리들의 혼을 고향으로 보내줄거예요.》

그들은 고국의 하늘쪽을 향해 깊이 머리를 숙여 하직인사를 했다.

《부디 죄많은 이 딸들을 불쌍히 여겨 혼백이라도 어머니앞에 돌아가게 보살펴주옵소서!》

바다는 더 세차게 광란하며 몸부림을 쳤다.

그들은 다 해진 신발을 벗고 벼랑우에 주런이 올라섰다.

숙향은 마지막으로 고향생각을 했다.

어린 시절 모기쑥타는 토방에서 어머니의 무릎을 베고 누우면 또글또글 익은 별들이 손에 잡힐듯 눈앞으로 다가왔었다.

그런 밤이면 어머니는 백두산의 장수별이야기를 들려주군했다.

《…백두산대장수님께서 불쌍한 우리 겨레를 구원해주시려고 하늘에서 내려오셨단다. 백두산의 깊은 산속에는 수만군사가 칼을 갈고 조련을 하는데 머지 않아 왜놈들을 내쫓고 나라를 해방시켜주신단다.》

마침내 그날이 온것이였다.

그런데 백두산대장수님께서 왜놈들을 쳐부시고 해방을 이룩해주셨건만 우리는 그 땅을 밟아보지도 못한채 타향에서 이렇게 죽어야 하니… 원통하고도 분했다.

이제라도 백두산대장수님께 우리들의 불행을 알릴수만 있다면… 그러면 대장수님께서는 꼭 우리를 구원해주실거라고 생각되였다.

아, 백두산대장수님, 어디 계시옵니까?…

허나 고국은 예서 아득한 수륙만리길, 그것은 도저히 바랄수 없는 일이였다.

그들의 앞에는 죽음의 바다, 절망의 심연만이 놓여있었다. 누구도 이들을 알리 없었다.

바다는 광광 태질을 했다.

이때 어지러운 왜말이 퍼그나 가까이에서 들려왔다.

《아!— 백두산대장수님!》

녀인들은 힘을 모아 목청껏 이 한마디를 웨치고 치마폭으로 얼굴을 뒤집어썼다.

이때였다. 꽝— 꽈르릉, 꽝꽝— 하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뒤집어지는듯한 요란한 천둥소리가 울렸다. 이어 꺼먼 하늘을 쭉쭉 가르며 시퍼런 불채찍이 펑끗거렸다. 갑자기 사위가 대낮같이 밝아지며 벼랑가의 주변이 환하게 드러났다.

세번, 네번… 그런데 이상한것은 번개불채찍이 휘둘러질때마다 벼랑을 향해 엉금엉금 기여들던 왜병들이 순식간에 타버려 재가루가 되는것이였다.

너무도 갑작스러운 일이여서 녀인들은 이 모든것을 그저 자연의 광란으로 여기였다.

그들이 푸른 바다에 몸을 던지려는 순간이였다.

하늘의 먹구름이 두쪽으로 갈라지며 그들의 머리우에 유난히도 밝은 빛발이 쏟아져내렸다.

《아서라! 어서들 물러섰거라!》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하늘의 음성》이 거룩하게 들려왔다.

그들은 깜짝 놀라며 하늘을 우러렀다.

그런데 웬일인가. 채운이 서린 밤하늘에서 금빛룡마를 탄 장수가 자기들을 내려다보고있었다.

그 장수는 가슴노리까지 드리운 흰수염을 내리쓸며 이렇게 묻는것이였다.

《어찌하여 귀한 목숨을 버리려 하느뇨?》

《저희들의 목숨이 귀하다고요? 아니, 아니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처럼 귀하고 소중한것이 목숨이라 하건

만 짓밟힐대로 짓밟히고 더럽혀질대로 더럽혀진 우리에게 제일로 귀찮고 쓸모없는것이 바로 이 목숨이랍니다. 그러니 죽어 혼이나마 고스란히 고향으로 가도록 부디 보살펴주옵소서!》

녀인들의 오열에 떠는 통곡이 하늘공중으로 퍼져갔다.

《그러지 말아. 조선의 딸들아! 악귀에게 짓밟힌 그 원한과 슬픔이 어찌 너희들에게만이랴.

춘하추동 딸을 잃은 어머니의 곡성이 어느 하루인들 그친적 있었으며 기다리고기다리다 돌로 굳어진 어머니들이 그얼마인지 너희들은 모르리라. 자, 해방의 기쁨으로 울고웃는 고국으로 어서들 떠나오거라!》

그들이 미처 대답을 올리기도전에 장수는 룡마를 타고 구름속으로 훨훨 날아갔다.

숙향이를 비롯한 녀인들은 꼭 자기들이 꿈을 꾸는것만 같았다.

사람이 너무 절망에 빠지면 이런 꿈을 꾸는것은 아닌지.

그러나 분명 자기들은 방금전까지도 몸을 던지려 했던 아찔한 벼랑우에 서있었다.

다른것이 있다면 검질기게 따라오던 왜병들이 모두 너부러진것이고 그처럼 태질하며 광란하던 바다가 잠든듯 고요한것이였다.

《숙향언니!》

《분이야!》

그들은 서로 얼싸 부둥켜안았다.

《언니, 이게 꿈은 아닐테지요? 심청이가 보았다는 룡궁에 들어온게 아닐가요?》

《글쎄, 꿈이라면 깨지 말아달라고 빌고싶구나.》

그러나 그것은 꿈아닌 현실이였다.

얼마후 그들을 찾아 많은 사람들이 달려왔다.

녀인들은 그때에야 비로소 자기들을 천길나락에서 구원해준 장수가 다름아닌 백두산대장수님이심을 알게 되였다. 그리고 불행한 자기들을 모두 데려오라고 백두산대장수님께서 보내주신 부하들이 왔다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되였다.

아, 백두산대장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신다!

많고많은 가슴속 말마디들이 눈물로 되여 그들의 얼굴을 적셨다.

그들은 수륙만리 머나먼 태평양의 한복판에서 해방된 조국의 품에 안긴것이다. 숙향이와 녀인들이 자나깨나 꿈속에서 그려보던 백두산장수별의 빛발이 거친 땅 이역만리까지 비쳐온것이였다.

그들이 조국으로 떠나오는 날은 기적과도 같이 태평양의 물결이 잠을 자듯 조용했다.

당시 남태평양의 부두들에서는 패망한 일본군대들을 실은 배들이 세찬 파도에 삼키워 파산되고 침몰되군했다.

길길이 뛰여오르는 산악같은 파도는 가랑잎같은 배들을 단번에 삼켜버렸고 그러고도 성차지 않은듯 태질을 하며 무섭게 광란하고있었다.

그런데 그처럼 광란하던 대양이 하루아침에 잠에라도 든듯 조용히 출렁거리고있는것이 아닌가.

조국을 향해 닻을 올린 배에는 눈처럼 흰 조선치마저고리를 차려입은 녀인들이 그린듯이 앉아있었다.

가리마를 곱게 탄 숙향과 녀인들은 백두산장수별이 빛을 뿌리는 사랑하는 어머니조국이 있는 하늘쪽을 보고 또 보

왔다.

태평양의 거대한 바다는 그들이 탄 배가 무사히 조국으로 가닿을 때까지도 조용히 잠들어있었다고 한다.

오늘도 남태평양주변의 주민들과 이 사실을 알고있는 많은 사람들은 태평양의 그러한 기적은 애족애민의 최고화신이신 백두산대장수님께서 가져오신것이라고 한결같이 전하고있다고 한다.

그후 오랜 세월이 흘러서 일본작가 센다가꼬는 1978년 도꾜의 《3.1서방》에서 발행한 저서에 이런 내용의 글을 썼다.

…어디서 어떻게 련락이 되였던지 중경에 조선 **김일성**장군의 부하인 항일군의 간부가 와서 조선녀인들을 전원 데려갔다 한다.…

무릇 전설이란 기적과 같은 일들이 사람들의 입으로 옮겨지면서 깎이거나 보태여지는 법이니 이 이야기도 연원은 여기에서 찾아야 할것 같다.

아니땐 굴뚝에 연기날리 없다는 조선속담의 구절을 되새기면서…

마술을 쓰는 대장수

김일성장군유격대가 대마록구를 습격했다는 급보를 받은 적들은 눈이 뒤집혀 돌아갔다.

안도와 화룡지구의 《토벌》사령관놈은 수많은 병력을 걷어모아가지고 부리나케 대마록구로 와닿았다.

그런데 때는 이미 늦었다.

유격대는 감쪽같이 쳐들어와서 총 한방 쏘지 않고 순식간에 《토벌》대본부와 병실, 경찰서 그리고 포대들을 제압한후 목재소창고에 있는 식량과 천, 의복들을 로동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나누어주며 정치사업까지 벌리고 유유히 사라졌다는것이였다.

대병력을 휘몰아가지고 왔으나 행차후 나발격이 된 사령관놈은 버럭 소리를 질렀다.

《빠가! 그따위 소린 걷어치우고 유격대가 얼마만한 짐을 가지고 떠났는가를 말하라.》

불이 번쩍나게 귀쌈을 서너번 얻어맞은 왜놈순사놈은 붕어눈을 디룩거리며 떠듬떠듬 그 수량을 말하였다.

《그러니 유격대가 그 많은 짐을 지고 떠났단말이지!》

순사놈은 그제서야 조금 활기를 띠였다.

그놈의 말에 의하면 유격대는 숱한 식량을 지고 떠났으며

그밖에도 목재소로동자들이 너도나도 하며 한짐씩 짊어지고 떠나더라는것이였다.

사령관놈은 뾰족한 턱을 살살 문질렀다.

《음— 그러니 네 말대로 계산하면 유격대는 기관총을 포함한 수십정의 총과 10여상자의 탄알, 100여벌의 군복과 700여포대의 밀가루를 지고 떠났다는 말이 아니냐?》

《옳습니다요, 사령관님!》

《그렇다!…》

사령관놈은 잠시 눈길을 수림속에 두고 무슨 생각에 잠기는듯하였다. 재빛승냥이처럼 번뜩이는 그 눈길은 어딘가 깊은 눈에 덮인 먼곳을 바라보고있었다.

(과시 하늘이 나를 돕는구나. 유격대는 무거운 짐을 지였는데 갈길은 가파로운 올리막 외통길뿐이다. 그러니 아무리 축지법을 쓰는 백두산대장수라도 이번엔 어쩔수가 없을것이다.)

사령관놈은 이런 생각을 머리속에 굴린 후 빨리 대병력을 출동하여 유격대를 뒤따르라고 호통쳤다.

사령관놈은 직접 말에 올라타고 박차를 가했다.

《야, 이 굼벵이같은놈들아, 빨리빨리 발을 옮기지 못해? 이제 조금만 달려가면 유격대가 나타난다. 어서 걸음을 다그치라!—》

사령관놈은 유격대를 놓칠가보아 말채찍으로 졸병들의 상판이며 등줄기를 가림없이 휘둘러댔다.

그런데 아무리 달리고달려도 유격대는 보이지 않았다. 시간적으로 보나 달려온 거리로 보나 지금쯤이면 유격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였다.

《조금 더… 조금만 더 가보자!…》

하지만 짐을 지고 가는 유격대는 통 그림자도 볼수 없으니 대관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란말인가?

사령관놈은 분통이 터질노릇이였다.

하지만 중도에서 물러설수도 없어 온밤 눈길을 따라 달리고 또 달렸다.

그런데 날이 훤히 밝을 때 보니 제놈들이 떠났던 대마록구목재소가 바로 코앞에서 나타났다.

《토벌》대는 온밤 눈길은 수림속을 헤매다가 결국은 제자리로 되돌아왔던것이였다.

졸병놈들은 맥없이 눈우에 털썩털썩 주저앉으며 저마끔 한마디씩 하였다.

《우린 백두산대장수의 마술에 걸렸구나.》

《길이 메게 떠났다는 유격대는 다 하늘로 올라갔는가, 등이 휘게 지고갔다던 밀가루포대는 땅속에 잦아들었는가?》

《유격대가 승천입지한다더니 사실은 사실이야!》

사령관놈은 졸병들의 이런 푸념소리를 들으면서도 뻐꾹소리 하나 내지 못했다.

자기스스로서도 리해가 안되는 일이였다.

마치 여우귀신에게 홀려서 온밤 그짓을 하지 않았는가 하고 의심할 정도였다.

(유격대는 분명 무거운 짐을 지고 떠났다. 길은 눈속에 묻혀있었고 가파롭고 미끄러운 외통길이다. 그런데 유격대는 어디로 갔단말인가?)

사령관놈이 아무리 머리칼을 쥐여뜯으며 생각을 굴려보고 쥐여짜봤으나 풀수 없는 수수께끼였다.

그로부터 몇달후 사령관놈은 이 지방에서 사람들의 입으로

전해지고 전해지는 한토막의 이야기에서 그 수수께끼를 풀게 되였다.

그것인즉 이러했다.

대마록구목재소가 습격받은 날 많은 목재소로동자들이 혁명군을 도와 한짐씩 짊어지고 나섰다.

그러다보니 대오가 무려 수백명에 달하고 선두는 벌써 멀리에 갔으나 끝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다.

지휘관들은 인민들의 지성어린 그 원호에 감동을 금치 못하면서도 이를 어떻게 할지 몰라 걱정하였다.

인민들의 성의를 마다하자니 인민들이 떨어지겠다고 하지 않지, 그렇다고 많은 식량과 피복들을 떨굴수도 없었다. 분명 왜놈《토벌》대가 달려들것은 불보듯 뻔한 일인데… 지휘관들은 좀처럼 좋은 생각이 떠오르지 않아 골을 앓았다.

이때 백두산대장수님께서는 지휘관들의 《걱정》을 들으시고 호탕하게 웃으시였다.

《동무들은 별걱정을 다하고있소. 그런 걱정은 아예 말고 내가 시키는대로 행동하시오. 그 걱정보따리는 조금 있다가 속시원히 풀어주겠소.》

그러시면서 대장수님께서는 각 부대의 지휘관들에게 집결지점에 도착하면 멈추지 말고 행군을 계속하라는 지시를 주시였다.

하여 행군대오는 수림속 외통길로 모두 들어서게 되였다. 길은 가파롭고 눈까지 펑펑 내려 수많은 사람들이 짐을 지고 간다는것은 어려운 일이였다.

그런데 어느 한 지점에서 부대지휘관들은 대장수님께서 보내신 전령병을 만났다.

전령병은 즉시 대장수님의 명령문을 전달하였다.

명령문은 간단하게 세 글자로 되여있었는데 지휘관들은 그자리에서 옳지, 그렇지 하고 무릎을 탁 치며 춤을 추듯 뛰여가는것이였다.

잠시후 매 부대들에는 등에 지였던 무거운 짐들이 감쪽같이 없어졌고 유격대원들도 인민들도 날개가 돋힌듯 어디론가 사라져버리였다.

《백두산대장수님께서 축지법으로 그 많은 짐들을 순간에 없애버리셨다우. 이런 일이야 옛날 마술사들의 채찍에서나 생겨났다는것 같은데 대장수님께서 진짜 마술을 부리신게 분명하우.》

전설을 전하는 인민들은 그때 거의나 다 유격대의 짐을 지고 따라갔던 사람들이라 백두산대장수님께서 명령문에 써주신 세 글자를 모두 알고있었다. 그 세 글자인즉 《눈속에》였다. 다시말하여 짐들을 모두 눈속에 파묻으라는 간단명료하신 명령이였던것이다.

백두산대장수님의 명령을 받은 부대마다 일정한 장소에 눈을 깊숙이 파헤치고 밀가루와 쌀, 무기를 묻은 다음 눈을 두텁게 덮어버렸다. 그리고는 그우로 길을 내며 지나갔다. 뒤따르는 수백명의 대오가 계속 밟고 지나가니 눈이 다져져서 큰길이 되고말았다. 여기에 유격대원들이 로획품을 묻었으리라고는 누구도 생각할수 없었다.

결국 사령관놈은 밤새껏 유격대가 묻어놓은 짐들을 밟고다니면서 다람쥐가 채바퀴돌듯 제 소굴을 돌고돈것이였다. 후날 사령관놈은 대마록구에서 이 전설이 계속 퍼져가는통에 그 책임을 지고 파면되였다.

사연깊은 황구렝이술

동해의 명승 염분진은 원래 소금을 굽던 자리라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지금은 많은것이 변모되고 바뀌였지만 이전에는 도래굽이에 크지 않은 소금밭이 펼쳐져있었고 거기에 명줄을 건 사람도 여러명이였다.

그들은 대개가 어부출신들이거나 땅없는 농부들로서 땡볕에 잔등을 오디처럼 끄슬리며 종일 물판에서 사는 사람들이였다.

흔히 소금생산은 바다물을 끌어들이고 해볕에 찌워내며 무거운 소금섬을 만들고 나르는 고된 일로 알려져있다. 때문에 이 일은 혼자서는 어림없는 일이여서 여럿이 힘과 마음을 합쳐야 했다. 그로 하여 소금생산을 업으로 하는 오붓한 염분진마을사람들은 하나같이 화목하였다.

이 소금밭에 덕삼이라는 로총각이 있었다.

그는 어렸을적에 독립군에 있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 집이 풍지박산되여 이리저리 부평초처럼 떠돌아다녔다. 이러한 그를 소금팔러 나갔던 한 사람이 이곳으로 데리고왔다.

그때로부터 덕삼이는 소금무지에서 자라며 어른들의 잔심부름도 해주고 때이르게 물일과 소금일을 익히게 되였다.

부모없고 의지가지할데 없는 아이라 눈치가 말짱하여 이 일저 일에 덕삼이, 덕삼이 하고 불러대도 쓰다달다 소리 한마디 없이 수걱수걱 해나갔다.

덕삼은 열서너살 잡히는 해에는 벌써 여린 어깨에 무거운 소금바를 얹고 이웃동네와 그 주변, 멀리로는 오랑캐령을 넘어 만주에까지 들락날락하는 상일군이 되였다.

왜놈들의 국경초소를 피해 밀수소금을 지고 가파로운 산벼랑을 톺아오르고 총성이 울리는곳을 피해 온밤 캄캄한 무인산중에서 헤매인적도 한두번이 아니였다.

그런속에 세월은 또 흐르고흘러 덕삼은 허우대가 늘씬하고 끼끗한 청년으로 자랐다.

그러나 부모형제가 없으니 곁에서 따끔하게 혼사를 정해주고 보살펴주는 사람이 없어 어쩔수없이 서른고개를 넘긴 로총각이 되고말았다.

덕삼이가 서른고개를 넘었다는 소리에 동리늙은이들은 끔쩍 놀라며 이구동성으로 걱정을 했다.

《덕삼이가 벌써 그리됐단말이냐? 참, 세월두… 그런데두 난 여적 아이로만 보아왔으니…》

《제 부모가 살아있다면 그렇게 두었겠소. 우린 덕삼아재를 일시켜먹을줄만 알았지 통 무관심했지비.》

그 소리를 정 듣기가 싫었던지 덕삼은 되려 태평한체 휘파람으로 《아리랑》곡조를 듣기좋게 뽑아넘기며 매번 소금장사길을 떠나갔다.

한번은 염분진사람들이 마음을 도사려먹고 덕삼이가 돌아올 때까지 어떻게든 색시감을 물색해보자고 달라붙었다.

그렇게 되여 덕삼이는 소금을 팔고 돌아오는 길로 입심센

아낙네들의 닥달을 받게 되였다.

어느 아낙네는 제가 보고온 처녀의 귀방울이 재물이 많이 생길상으로 축 처졌다느니 얼굴이 함박꽃같고 허리가 늘씬하여 생남은 문제없겠다거니 하고 너스레를 떨었다.

누구는 덕삼의 신수를 무당에게 점쳐보았더니 점패에 물수자가 나왔다며 수련이, 수옥이, 수선이 등등 이름을 꼽아대면서 어부딸이 안성맞춤이라고 고집을 썼다.

동리어른들은 흰 수염발을 쓰다듬으며 짐짓 모르쇠를 했다. 그러다가 곰방대를 툭툭 털며 《내인들의 말도 들어두는게 좋으이.》 하고 슬쩍 부추기는판이였다.

《허 참, 나같이 못생긴 소금장수에게 어느 알뜰한 가시내가 오자 하겠수. 이놈은 한평생 총각놈소리를 듣다가 요모양 요꼴로 죽을팔자인걸요. 요즘 세월에 달린것 없으니 좀 좋아서요.》

《저런 오라질놈 봤나!》

당자가 너무 태평이니 저 덕삼이가 만주땅을 메주밟듯하는데 어디에 녀자 하나 못건사해두었을라구, 우리가 괜한 걱정들이지 하고 시까스르는 말도 생겨났다.

그러던 어느해 가을이였다. 아닌게아니라 덕삼이가 관모봉너머 깊은 산골에서 꽃같이 예쁜 처녀를 데려왔다. 인물로 친다면 왜놈들이 득실거리는 도회지의 미인들이 무색해할 천하절색이요, 이름 또한 선녀라 안팎이 정말로 하늘에서 금방 선녀가 내리지 않았을가 하고 눈을 비벼댈 정도였다.

선녀가 마을에 들어서니 온 마을이 환해지고 소금밭으로 가니 소금밭이 더욱 환해졌다.

《덕삼아재가 어디서 저런 예쁜 색시를 데려왔다오?》

《늦장가에 호박이라더니 고운 처녀만 데려온줄 아우? 귀한 보물을 한고리짝되게 얻어왔다우.》

《그게 정말이유?!》

《글쎄 내 말을 들어보라니까. …》

우물가에서 지난밤 새색시의 거처지로 제 집 웃방을 내여준 녀인이 귀가 번쩍 트이는 말을 한바탕 늘어놓았다.

그건 그렇고 사실은 남모르는 사연이 있었다.

… 덕삼은 해마다 서너번은 소금짐을 지고 판모봉너머 깊은 골안으로 들어가군했다. 하늘아래 첫 동네인 그곳엔 처서판들이 많고 산을 뜯어먹고 사는 호적없는 화전민들이 가을날의 가랑잎처럼 널려있었다.

인적드문 산골일수록 낟알보다 소금이 더 귀한 법이여서 간혹 소금장수들이 나타나면 귀하게 맞아들였고 인정 또한 후하여 대접을 잘하였다.

그날도 덕삼은 여러 산들을 넘으며 단풍골을 찾아갔다. 해가 기우는 저녁까지 《포사자》네가 사는 단풍골에 가닿기 위해 걸음을 다그쳤다.

일전에 소금장수총각이 오면 제 집에 꼭 들려달라고 그 집 령감이 신신당부를 하고갔다는것이였다.

북관땅에는 예로부터 뱀을 잡아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었다. 그들을 일명 《포사자》로 불렀다.

심산유곡에 《포사자》가 생긴것은 자못 오래된 일이라 한다.

리조의 어느 왕대엔가 북관뱀이 만병통치약이라며 어느 고을에서 진상품에 뱀술을 넣어 올려보내였다. 이것이 험한 산중에 뱀잡는 사람들이 들어오게 된 유래라고 한다.

높고 험한 바위츠렁을 잰내비처럼 톺아오르고 자칫 잘못하면 독사에게 물려 죽는것이 《포사자》의 신세라, 이후 많은 사람들은 그 일에서 스스로 손을 뗐다. 그랬지만 관모봉마루에는 대대로 《포사자》로 사는 집이 한두채 남아있었다.

덕삼은 어느 그믐밤에 길을 잘못들어 아찔한 벼랑에서 허궁 떨어진적이 있었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채 이튿날 중낮에야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고보니 자기가 어느 오두막에 와 누워있었다. 눈앞에는 맑은 눈동자로 자기를 하염없이 내려다보고있는 처녀가 있었다.

처녀는 덕삼이가 피여난것이 그리도 기쁜지 얼굴에 인상깊은 볼우물을 짓고 그린듯이 앉아있었다.

《대체 여기가 어디요?》

《아직은 일어나면 안돼요. 그냥 누워계셔요.》

처녀의 이름은 선녀, 덕삼이와 선녀는 이렇게 첫 인연을 맺었다. 그런데 이 기이한 인연은 불과 하루도 가지 못했다.

덕삼이가 조금 정신이 들어 그 집 웃목쪽에 얼굴을 돌렸을 때였다. 방안 한가운데 무엇인가 구불구불한것들이 눈에 띄였다. 자세히 보니 팔뚝같은 뱀들이 또아리를 틀고 욱실거리는것이였다.

뱀이라면 어려서부터 질겁하는 덕삼인지라 《악!》소리를 지르며 까무러치고말았다.

잠시후 다시 눈을 떠보니 방금전의 그 아름다운 처녀가 뱀들을 마음대로 주무르고있지 않는가.

덕삼은 기겁하여 그곳을 뛰쳐나왔다. 그후 석달이 지나도록 덕삼은 한번도 《포사자》의 집을 찾아가지 않았다. 그렇지만 자기 목숨을 구해준 사람들을 전혀 못본척할수 없어 한

번두번 찾아간것이 마침내 인연이 되고만것이였다.

덕삼은 어느날 선녀에게 주자고 갑사댕기까지 마련해가지고 떠났다.

해저무는 고개길을 천방지축으로 오르고 내리며 《포사자》 집에 당도하고보니 이게 웬일인가? 오두막은 간곳 없고 불탄 집자리엔 칼에 맞아 토막난 뱀들이 무수히 흩어져있었다.

《선—녀!》

《선녀!》

덕삼은 사방에 대고 목이 터지라 불렀다. 땅거미가 깃든 봉우리는 우수수 찬바람소리뿐 인기척이라고는 그 어디에도 없었다.

온밤 산벼랑을 톺고 산중을 헤매던 덕삼은 마침내 어느 골짜기에서 흰 연기가 모록모록 오르는것을 발견하고 그리로 달려내려갔다.

아닐세라 선녀와 그의 아버지가 있었다. 그런데 두사람의 모습은 차마 마주보지 못할 정도였다. 선녀의 옷고름은 다 너덜너덜 찢어졌고 아버지는 한팔이 없어졌다.

《이게 무슨 일인가요?!》

선녀 아버지는 덕삼의 물음에 가쁜숨을 몰아쉬며 조용히 말했다.

《소금장수, 손을 내밀게. 그리고 내 말을 듣게. 우리 선녀와 함께 이 늙은이의 뜻을 따르겠다고 다짐을 두게.》

림종을 맞는 《포사자》의 얼굴은 근엄한 빛이 떠돌았다.

《우린 5대째 이 판모봉에서 <포사자>로 살아왔다네. 조상 누군가가 희한한 구렝이를 잡아 왕실에 바친 후 가문대대로 <포사자>로 살라는 어명을 받았지.… 그때로부터 우린 바깥

세상을 보지 못하고 한뉘를 산짐승처럼 살아왔네. 뱀을 잡아먹는 짐승처럼… 사람들은 뱀이라면 펄쩍 뛰고 끔찍하게 여기지만 이보게 소금장수, 예로부터 뱀은 만병통치약으로 앉은뱅이도 일어서게 하는 신통력을 가졌다네. 그래서 뱀술은 호골주나 록용주보다도 앞에 놓고 임금님들만이 마셔온거구… 내가 죽은 후 선녀와 함께 불타버린 저 오두막밑을 파보게. 거기에 우리 가문 5대가 목숨으로 지켜온 귀물이 묻혀있다네. 그걸로 하여 우리 집이 이런 참사를 당한것이지만…》

로인은 끝내 뒤말을 더 잇지 못하고말았다.

덕삼은 그날밤 운명하는 《포사자》의 곁을 지키면서 선녀에게서 그 기막힌 이야기를 듣게 되였다.

오랜 세월 뱀을 잡아 바치기만 해오던 《포사자》들도 차츰 세상일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 그들이 뱀을 잡고 그것을 술에 넣어 진상품으로 바쳐온것은 애오라지 나라님들이 무병하여 백성들을 잘 보살펴달라는 념원에서였다.

어련히 임금님들이 나라정사를 잘해주리라고도 믿어왔었다. 그런데 백성들은 도탄에 빠져 허우적이고 나라는 점점 기울어지고있으니 이 어인 일인가.

철종, 고종, 순종 세 임금을 섬기여왔지만 나라에서는 기막힌 일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어느날에는 끝내 그 나라마저 송두리채 빼앗겼다는 슬픈 소식이 관모봉을 넘어왔다.

《아! 나라잃은 망국노가 되다니…》

그때에야 비로소 그들은 대를 이어오며 바쳐온 자기들의 지성이 한갖 부패무능한 임금들의 질탕스러운 주연에 쓸모없이 쏟아져버렸음을 깨달았다.

이후 선녀의 아버지는 가문의 귀물을 반드시 백성을 구하고 나라를 독립시켜주실분에게 올리리라 다짐하며 깊은 땅속에 묻어버렸다.

그런데 얼마전 왜놈들이 선녀의 아버지에게 백년묵은 황구렝이술이 있다는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달려들었다.

왜놈들은 다짜고짜로 그것을 내놓으라며 온갖 행패를 다 부렸다.

《령감이나 그 술을 우리 천황페하께 바치면 팔자가 늘어진다.》

처음에는 살살 얼려보기도 하고 꾀여보기도 하다가 나중엔 선녀 아버지를 나무에 꽁꽁 묶어놓고 매질을 해댔다. 딸을 죽여버린다고 위협도 했다.

그래도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왜놈들은 그 분풀이로 선녀 아버지의 팔을 자르고 《포사자》집을 불태워버렸다. …

《백두산에 대장수가 났다던데…》

그밤 선녀의 아버지는 이 한마디를 유언으로 남기였다.

이튿날 덕삼은 선녀와 함께 불타버린 오두막의 집터자리를 파보았다. 빨건 흙을 얼마쯤 파내고보니 몇백년전 어느 도자공이 특별히 정성다해 구운 청자빛 고려자기가 드러났다.

유지에 싸고싼 그속에는 애오라지 독립의 념원을 안고 일구월심 백두산대장수를 기다려 목숨까지 바쳐 지켜낸 황구렝이술이 들어있었다.

그 소중하고 뜻이 깊은 귀물을 정히 등에 지고 덕삼은 밤중으로 선녀와 함께 산을 내렸다.

이리하여 로총각인 덕삼은 깊은 산골에서 산삼을 캐오듯

달덩이같은 선녀를 안해로 맞은것이였다.

마을사람들은 덕삼과 선녀가 소금팔러 다니는 길에 우연히 만난줄로 알고있었다. 덕삼은 마을사람들에게 그 깊은 사연까지는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는 깊은 밤 집앞의 큰 복숭아나무밑을 깊숙이 파고 소중한 귀물을 정히 묻었다. 그다음 산사람들식으로 간단히 제를 지내고 선녀 아버지의 유언을 지킬것을 굳게 다짐했다.

그때로부터 덕삼은 소금짐을 지고 자주 집을 떠나갔다. 그가 다녀오는곳은 유격대가 왜놈들과 싸우는 백두산부근이였다.

덕삼은 어디서 유격대가 왜놈들을 족쳤다는 소식들을 얻어들으면 그곳으로 달려가군했다.

덕삼은 늘 입을 봉하고있었지만 하루빨리 조국광복을 위해 싸우시는 **김일성**장군님을 만나뵙고 제 집에 고이 묻어둔 그 귀물을 올리고저 분주하게 다니고 또 다니였다.

그 일은 선녀만이 알뿐 누구도 알지 못했다.

그렇게 날이 가고 달이 가고 세월은 흘렀다.

덕삼은 어디어디에 장군님부대가 나타났다는 말을 듣고 불원천리 달려갔으나 매번 아쉽게도 장군님을 만나뵈올수 없는것이 안타까왔다.

한 가문의 사연많고 곡절많은 귀물을 영영 땅속에 묻어버리는것이 아닐가.

덕삼이네가 판모봉에서 내려와 염분진에 그 귀물을 묻은지도 퍼그나 많은 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밤낮으로 그의 생각은 거기에만 가있었다.

그러던 염분진땅에 해방만세의 환성이 터져올랐다.

얼마나 기다리고기다려온 날이였던가. 덕삼과 선녀는 아이

들과 함께 세상에 나서 처음 춤이라는것을 추어보았다.

(이제는 됐다! 백두산야에서 강도 일제와 싸우시는 장군님께 몸보신에 쓰시라고 그렇게 찾아다녔어도 이루지 못한 그 소원, 이제는 건국사업에 제일로 분망하신 그이께 삼가 드려야겠다.)

덕삼이가 이런 생각으로 오늘래일 하고 준비를 갖추던차에 어느날 염분진에 오매에도 그리던 **김일성**장군님께서 오셨다는 희소식이 날아들었다.

그때의 그의 나이는 쉰살이 훨씬 넘었었다. 머리에는 흰서리가 내렸다. 수염발도 희여진 로인이였다.

덕삼로인은 의관을 정히 갖추고 허연 수염발을 날리며 손수 삽을 잡고 복숭아나무밑을 팠다. 그리고는 그 귀물을 가슴에 정히 안고 영명하신 **김일성**장군님께서 계시는곳으로 찾아갔다.

이날 선녀는 눈물이 비오듯 하는 얼굴을 닦을념도 않고 넋빠진 사람처럼 하염없이 판모봉쪽만을 바라보고있었다.…

1991년 8월 어느날 염분진을 찾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해방후 이곳에서 전설처럼 전해오는 그 이야기를 감회깊이 회고하시면서 내가 염분진에 왔을 때 수염이 허옇고 키가 큰 한 로인이 조선옷을 입고 나를 찾아왔댔습니다, 그 로인은 구렝이를 잡아넣은 시퍼런 큰 술병을 가지고와서 나에게 인사를 하고 이 술을 장군님께서 마시고 장수하시라고 하면서 그 술병을 주고갔습니다, 그 로인의 말에 의하면 그 술은 18년동안 땅에 묻어두었던것이라고 합니다라고 말씀하시였다.

전설이란 바로 이러하여 인민들속에서 나날이 창조되고 세상에 전승되는것이다.

로흑산의 새 전설

무변광대한 북만주의 첫 입구에 고슴도치처럼 웅크리고앉은 거대하고 음산하게 생긴 로흑산은 자못 전설이 많은 산으로 알려져있다.

로흑산이란 이름자체가 늙고 검다고 하여 붙여진것이라 한다.

산이 늙고 거매진 리유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설이 있다.

일설에 의하면 원래의 산은 퍼그나 아름다왔다 한다.

그래서 무지개가 비끼는 날이면 하늘의 선녀들이 이곳에 내려와 놀군했다. 사방 백리근처에 안개가 자오룩이 끼면 사람들은 누구도 폭포가 있는곳으로는 가지 않았다. 선녀들이 내려와 목욕을 하기때문이였다.

그러던 어느날 이곳에 살고있던 한 늙은 도사가 불측한 마음을 가지고 선녀들이 있는곳으로 발볌발볌 다가갔다.

그는 인차 도술을 부려 승냥이로 변장하였다.

그런데 하늘의 옥황상제가 이 모든것을 내려다보고 대노하여 늙은 도사에게 벼락을 내리게 했다.

하늘땅이 흔들리는 요란한 천둥소리가 짜르릉거리고 시뻘건 불채찍이 펑끗펑끗거렸다. 그러자 승냥이로 변한 늙은 도사도 그리고 그처럼 아름답던 산도 일시에 꺼멓게 죽어버

렸다.

이후로는 이 죽음의 산에는 나무도 풀도 자라지 못했고 새들도 깃을 들이지 못했다. 이 불모의 산에 의외로 성한것은 승냥이무리들이였다.

처음은 어느곳에서 한두마리의 승냥이가 나타났는가싶더니 차츰 무리를 짓고 대낮에도 어슬렁거렸다. 골마다 승냥이무리들이 짝 차있어 그 피해는 이루 말할수 없을 정도였다.

사람들은 제 집앞도 마음대로 나다니지 못했다.

그후 인가가 늘고 골안으로 소로길이 닦아지면서 승냥이무리는 깊은 골안으로 들어가버렸다. 하지만 그로 인한 피해는 여전했다.

그러던것이 어느 하루에 승냥이무리들이 감쪽같이 자취를 감추는 일이 생겨났다.

승냥이무리가 어디로 사라졌단말인가?

그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말들이 있다. 자동차가 들어온 이후 그에 놀라 없어졌다는 말도 있고 먹이를 찾아 어디론가 무리지어 옮겨갔다는 말도 있다.

이러나저러나간에 이 지방에 가장 신빙성을 가지고 널리 퍼져있는것은 백두산대장수님과 관련된 전설이다.

로흑산에 백두산대장수님이 나타나신것은 이 산에 둥지를 틀고앉아 갖은 악행을 일삼고있는 《홍수툴》을 몰아내기 위해서였다.

《홍수툴》이란 괴뢰만주국의 악질《정안군》놈들을 가리키는말인데 그놈들이 팔에 붉은 완장을 붙이고있어 그렇게 불렀다.

그런데 이 무리들이 어떻게나 사람들을 못살게 굴었던지 《<홍수툴> 이 온다》하면 울던 아이도 울음을 딱 그치는판이였다.

어떤 사람들은 승냥이의 피해를 받으며 사는게 낫지 승냥이보다도 열배나 더 악착한 《홍수툴》놈들의 밑에서는 살지 못하겠다며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기도 했다.

이 《홍수툴》의 우두머리는 조폭하고 잔인하기가 이를데 없는 왜놈지도관놈이였다.

그놈은 가는곳마다 불을 지르고 사람들을 죽이고 물건을 빼앗는것을 도락으로 삼는 악한이였다.

그놈의 옆구리에 차고있는 큰 칼은 늘 피에 젖어있었다.

하여 이즈음에 와서 《로흑산의 승냥이》라 하면 《홍수툴》을 가리키고 왜놈지도관놈을 가리키는 말로 바뀌여지고말았다.

왜놈지도관놈은 난쟁이에 세모눈이 길게 째진 그야말로 흡사 한마리의 승냥이를 련상케 했다.

그놈은 단 하루도 사람의 피를 보지 않고서는 살지 못했다.

사실 그놈이 《홍수툴》을 로흑산으로 끌고온것은 이 산에 사람을 잡아먹는 승냥이가 있다는 말을 들어서라고 한다. 그런데 승냥이를 없앤다고 하는놈들이 승냥이로 된것이다.

놈은 이곳에 온 첫날에 큼직한 승냥이를 산채로 잡아놓고 졸병들에게 눈요기를 시켰다.

《저 승냥이의 살기띤 눈빛과 금시라도 덤벼들듯한 사나운 이발을 똑똑히 보라!

승냥이는 하루도 피를 보지 못하고서는 살지 못하는것이다. 천황페하의 군대인 우리도 저걸 따라배워야 한다. 승냥이의

잔인성, 포악성, 이것은 곧 너희들의 첫째가는 기질로 되여야 한다.

가차없이 죽이라! 불사르라! 조선놈은 다 죽여도 좋다.》

다음날부터 《홍수툴》놈들은 승냥이는 잡지 못하고 사람잡이에 미쳐날뛰였다.

한 소년이 산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것을 붙잡아 유격대에 련락을 다닌다고 차고 때리다 칼을 뽑아 목을 쳐 처참하게 죽였다.

하루는 사도하자라는 마을에 《통비》분자가 있다고 달려들어 집들을 모조리 불사르고 아이어른 할것없이 닥치는대로 쏘고 찌르고 불태워죽이는 귀축같은 만행을 꺼리낌없이 감행하였다.

그리고는 화광이 충천하는 그앞에서 술을 처마시고 춤까지 추어댔다.

왜놈지도관놈은 이날 피가 뚝뚝 떨어지는 긴 칼을 자랑삼아 어깨우에 추켜들고 《천황폐하 만세!》를 부르짖으며 춤판에 뛰여들었다.

《천하에 악독하기 그지없는 짐승들아!》

《아, 구천에 사무친 이 원한을 어떻게 하면 푼단말인가!》

하루아침에 집잃고 부모잃고 처자를 빼앗긴 사람들의 원한에 사무친 곡성은 련 사흘 산골짜기를 울리였다.

하나 아무리 통곡을 해도 그 원한 풀길 없고 맨주먹으로는 포악한 무리들을 당할수 없는 그들이라 서러움은 하늘에 닿았다.

이때 마을을 지나가던 한 로인이 이 광경을 지켜보다가 그들의 정상이 하도 가슴에 맺혀 쉬이 걸음을 옮기지 못했다.

《이 로흑산이 재변을 당한 때로부터 얼마나 많은 횡액을 불러오는고. 인피쓴 승냥이를 잡아야 그 화를 면하련만…》

마을의 참변을 두고 먼 옛적일을 돌이키는 로인이 범상해 보이질 않아 울고있던 사람들이 그의 팔을 붙잡고 《보아하니 필시 뒤말을 다하지 않으신가본데 속시원히 펼쳐보이소.》 하였다.

그러자 로인은 불쌍한 그들을 한참이나 지켜보다가 못내 정중한 어조로 말했다.

《백두산에 대장수가 내렸소. 그 대장수님은 가난한 백성들의 억울한 일을 제일선참 풀어주시는분이시오. 어서 사람을 백두산으로 띄우시오.》

다음날 마을에서 그중 날파람있다는 두 청년이 신들메를 든든히 하고 백두산을 향해 떠났다. 그런데 동구밖을 채 벗어나기도전에 웬 사람들이 그들을 멈춰세웠다.

등에 배낭을 진 세사람은 청년들에게 어디로 가는 길인가고 물었다. 보매 《홍수톨》은 아니고 그렇다고 보통이상의 사람들같지도 않아 그저 심드렁하니 《로흑산의 승냥이성화에 못견디여 〈사냥군〉을 찾아가지요!》하고 대답했다.

그러자 세사람은 그런 일이라면 사냥군들을 멀리에서 찾을게 있느냐며 빙그레 웃는것이였다.

그제서야 로흑산의 두 청년에게는 그들이 옷차림은 수수해도 보통사람들이 아니라는 생각이 펄쩍 들었다.

아닌게아니라 그들 세사람은 마을청년들에게 자기들은 백두산대장수님의 부하들인데 로흑산에 둥지를 틀고있는 승냥이들을 모조리 때려잡으라는 그분의 령을 받고오는 길이라고 말하는것이였다.

《미련한 저희들이 백두산대장수님의 부하들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하며 마을청년들은 마을이 당한 참변을 그대로 다 이야기했다. 그리고 《홍수툴》은 수백명이나 되는데 보통 악질놈들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세 장수들의 눈에서는 불이 펄펄 일었고 틀어쥔 두주먹은 떨고있었다.

《당신들은 잠간 저 앞산 중턱에 올라가있으시오.》

세 장수는 그길로 《홍수툴》놈들이 있는 병영으로 다가갔다. 보초막에 이르러서는 왜놈지도관을 당장 불러오라고 소리치는것이였다.

보초놈은 영문을 몰라 두릿두릿거리다가 그들의 위세에 눌려 왜놈지도관에게 급히 이 사실을 알렸다.

《그래 유격대복장을 했는가?》

《저… 옷차림은 분명 <산림대>같은데…》

《요시, 산림대!》

지도관놈은 유격대가 아니라는 말에 안도의 숨을 내쉬였다.

《산림대》라면 당장이라도 달려가 요정을 낼 자신이 있었다.

《홍수툴》놈들은 박격포와 중기관총까지 끌어내여 《산림대》를 뒤쫓았다.

《빨리빨리 추격!》

왜놈지도관놈은 직접 말을 타고 선두에서 달렸다. 그뒤로 《홍수툴》놈들이 까마귀무리들처럼 새까맣게 쫓아왔다.

그런데 웬일인지 《산림대》로 가장한 장수들은 조급해하는 기색이 하나도 없이 놈들을 달고 자꾸만 골짜기쪽으로 들어갔다.

놈들은 눈앞에 빤히 보이는 《산림대》를 잡으려고 기를 쓰고 따라갔다. 하지만 아무리 쫓아가도 그들과의 거리는 더 좁혀지지 않았다.

놈들은 여전히 상대를 얕잡고 기세등등하여 헛총질을 해댔다.

그때였다. 마른 하늘에서 갑자기 꽝 꽈다당—하는 천둥소리가 울렸다. 그 소리와 함께 세 장수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문득 골짜기에 큰 산만한 절벽이 일어섰다.

왜놈지도관놈은 너무도 갑작스레 당한 일이여서 한동안 멀뚱해있다가 곧 정신을 차려 부대를 되돌려세웠다. 그러나 방금 놈들이 지나온 그 길에도 큰 산이 턱 막혀있었다.

순간 그놈은 눈앞이 아찔해졌다.

아이쿠, 신출귀몰하는 유격대의 축지법에 걸렸구나!…

사면팔방 그 어디에도 빠질 길이 없었다.

《홍수툴》놈들은 독안에 든 쥐신세가 되여 이리뛰고 저리뛰며 저저마다 살겠다고 아우성을 쳤다.

이때 머리우에서 쩌렁쩌렁한 호령소리가 벼락치듯 들려왔다.

《이놈들!》

그 소리에 놀라 하늘을 쳐다보니 앞산마루에 백두산대장수님께서 큰 칼을 짚고서서 불길이 황황 이는 눈길로 놈들을 쏘아보고 계셨다.

《죄없는 백성들을 무참히 살해하고도 무사할줄 알았느냐? 이 인간백정놈들!…》

백두산대장수님께서 노하여 발을 쿵하고 구르시자 산이 와르르 무너져내렸다. 그통에 돌소나기가 쏟아지며 집채같은

바위돌들이 놈들의 대갈통을 박살냈다.

까마귀떼마냥 골안에 차있던 《홍수틀》놈들은 불벼락에 돌벼락을 들쓰고 모두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 왜놈지도관도 황천객이 되고말았다.

사도하자마을인민들의 원한을 풀어주신 백두산대장수님께서는 뽑았던 큰 칼을 높이 들어 소리높이 웨치시였다.

《앞으로도 백성들을 괴롭히는놈이 있다면 가차없이 요정내리라!》

그 불호령소리는 온 골안을 드렁드렁 울리며 이 산 저 산으로 끝없이 메아리쳤다.

그후 로흑산에는 어찌된 일인지 승냥이무리들이 깨끗이 자취를 감추었다고 한다.

사람들은 처음 며칠동안은 승냥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것을 이상하고 신기하게 생각했다.

그러나 한달두달이 지나도 승냥이는 그림자도 볼수 없었다.

《홍수틀》놈들을 쳐부신 이후 그렇게도 많고많던 승냥이무리들이 감쪽같이 사라진것을 두고 사람들속에서는 이런 말이 돌아갔다.

《백두산대장수님께서 백성들을 못살게 구는놈이면 어떤 놈이든 용서치 않겠다고 호령하셨으니 승냥이들도 그 소리에 혼비백산하여 다 사라져버렸다오.》

《아무렴, 그게 어느분의 호령이라고!》

그때로부터 로흑산에는 승냥이무리가 쫓겨간 새 전설이 생겼다고 한다.

백두산이 비를 내리다

일본 도요우라마을의 좌상인 하세다로인은 또다시 《후—》하고 긴 한숨을 내뿜었다.

벌써 여러번 거듭하는것이지만 가슴속 답답증은 조금도 가셔지지 않았다.

(어떻게 하면 좋단말인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비신의 노여움을 풀수 있단말인가?)

크지 않은 촌민이지만 기쁜 일, 슬픈 일 가림없이 먼저 몸을 내대고 막아주고 이끌어주면서 사람들의 존대를 받으며 살아온 로인이였다.

뉘집에서 새 아기가 태여나거나 누렁소가 쌍둥이를 낳아도 하세다로인을 찾아왔고 혹은 급한 병자가 생기거나 불길한 일이 있어도 하세다로인부터 찾아왔다.

이밖에도 마을좌상인 그가 해야 할 일은 허다했다.

해마다 토지신과 산천신에게 드리는 제사를 주관해야 하고 이웃마을과 관계되는 크고작은 일에도 결음을 해야 했다.

이즈음에 하세다로인은 늘 심기가 좋지 못했다.

어쩐지 마을일이 꼬여들고 불행은 련이어 겹쳐들었다.

태평양전쟁이 터진 후 숱한 젊은이들이 전쟁터로 끌려갔다.
그때부터 마을은 온통 아비규환의 곡성으로 넘쳐났다.

《비상시국》, 《비국민》이란 말 한마디로 농군들은 밥가마, 숟가락까지 빼앗겨야 했고 부림소마저 잃어야 했다. 게다가 무서운 왕가물이 들이닥쳐 농군들의 정상은 말이 아니였다.

하늘이 무슨 원한을 품었는지 보리고개에 이르도록 비 한꼬치 주지 않아 논에 물을 대지 못했다.

처음 꼬챙이로 구멍을 내고 모를 박을 때까지는 그래도 인차 비가 내리겠지 하는 위안이 남아있었다.

그런데 웬걸 스무날이 가고 연 두달이 가까와와도 해무리가 풀리지 않으니 이 무슨 일이란말인가.

도회지에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백년래의 처음보는 왕가물이라고 한다.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물초롱을 지고 개울가나 시궁창을 드나들며 바가지물을 퍼담더니 이후로는 그 물마저 말라버렸다.

논바닥은 벌써 거북등처럼 쩍쩍 갈라터졌다. 노랗다 못해 말라 타들어가는 벼포기를 속수무책으로 바라보며 사람들은 몸부림을 쳤다.

《하늘도 무심하지. 무삼일로 이토록 가혹한 벌을 내린단 말이요.》

하세다로인의 집에 모여든 사람들은 땅을 치며 설분을 터치였다.

이렇게 되여 좌상인 하세다로인의 발기로 기우제가 시작되였다.

마을에서는 오늘도 밤이 되면 모두가 손에 홰불을 들고 높고 가파로운 벼랑산으로 올라간다. 거기서 여섯개의 북을 둥둥 치며 비를 불러 안타까운 기도를 올린다.

…
못을 청소하고 기다립니다
비를 주세요 비를 주세요

…
등불을 피워들고 언덕오르니
비를 주세요 비를 주세요

비를 청하는 노래에 비많이 오라는 춤판을 며칠씩이나 벌리고있었다.

옛시절에 굿판을 두루 돌아다닌 하세다로인은 직심으로 춤판을 지휘하고 마을부로들과 내인들도 어깨죽지가 떨어질 정도이고 일어설 기력조차 없건만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안깐힘을 다해 억척스레 춤을 추었다.

이날의 기우제는 그야말로 온 마을이 생사를 걸고 준비해온것이였다.

바로 이날을 위해 하세다로인은 나니와못에 가득찬 물을 모두 뽑아내고 새물을 갈아넣도록 했다.

못밑에는 사철 물이 솟아나는 우물이 있는데 그속에 큰 룡이 숨어산다고 했다. 가물이 몹시 들면 새물을 갈아넣고 우물을 덮은 돌을 철봉으로 두드려준다. 그러면 놀란 룡이 하늘로 날아올라 비를 내린다는 풍습이 이 지방에 오래동안 전해오고있었다.

벌써 여러날째 이어지는 제사여서 소, 말, 돼지 할것없이 제물로 쓰인것만도 헤아릴수 없었다.

어찌 그뿐이랴.

엊그제는 멀리 아스까절에 찾아가서 고명한 스님들을 모셔다가 대승경전을 전독시켜 회과를 진행하며 비오기를 하염없이 기다렸다.

《스리 스리마하…》

사흘, 나흘동안 념불 외우는 소리와 목탁 두드리는 소리가 그친 날이 없건만 여전히 비는 오지 않고있다.

하세다로인은 옛적 어느때인가 아스까강 대홍수때 우뢰언덕에서 굴러내려왔다는 팔왕자 미륵불앞에 향불을 피우고 심경을 제창해보기도 했다. 그랬어도 불볕을 퍼붓는 하늘에서는 마른기침소리 한번 들리지 않았다.

일이 이쯤되자 무당판수며 점쟁이들이 떼거리로 달려들어 푸닥거리를 한다, 점패를 골라낸다 하며 야단법석을 치며 돌아갔다.

그래도 하늘에는 구름 한점 없다.

되는 일이란 하나도 없고 만가지가 코코에 모두 허사였다.

하세다로인은 또 저도모르게 긴 한숨을 내그었다.

이러기를 그 며칠, 언제 보나 곰방대를 입에 문 하세다로인의 정상은 가긍해보였다.

마을사람들은 로인의 그 모습을 보면서도 위로의 말 한마디 고르지 못했다. 하루하루 지나는 세월에 대한 야속함과 미구에 닥쳐올 재난을 머리속에 그려보며 몸을 떨었다.

누구도 아직은 입밖에 감히 내비치지 못하는 말, 왕가물이 백날동안 풀리지 않으면 어차피 마지막수단으로 룡신제를 지내야 하는것이였다.

룡신제는 보통제사가 아니라 꽃같은 처녀를 룡신에게 제물로 바쳐야 하는 슬프디슬픈 의식중의 하나였다.

이 지방에서 대대로 전해오는 그 풍습은 근래에는 한번도 진행하여본적 없는 일이였다.

룡신제이야기는 아스까절의 스님들이 마을을 떠나가며 한마디 내비친것이였다.

그렇지만 도요우라마을은 일시에 그날부터 웃음을 잃었고 숨죽은듯 고요해졌다. 딸가진 집의 부모들은 심장이 터지는 아픔을 가까스로 참고견디며 하루빨리 이 가물이 그쳐주기만을 주야로 빌뿐이였다.

그리도 극성을 다하고 백날치성을 다했어도 끝내 비는 오지 않았다.

하늘의 해는 더욱 뜨겁게 달아올라 곡식과 짐승만이 아니라 사람까지도 다 태워버릴 잡도리였다.

백날! 그 백날을 사흘 앞둔 저녁에 하세다로인은 동서남북 네 방위에 절을 하고 조용히 그러나 자기의 목소리에 저도 놀라며 손녀를 불러들이였다.

《미찌꼬야!》

아직은 열여섯살의 애어린 손녀에게 차마 무서운 말을 어떻게 하나 하고 골백번을 망설여온 그 말을 하세다로인은 어차피 해야 하는것이다.

몇날밤을 모대기며 끙끙 갑자르고 꿈속에서조차 입에 담기 저어했던 그 말을 이제 해야 한다는 생각에 오싹 몸이 떨려왔다.

그러나 어찌하랴. 온 마을이 재난을 입어 무리주검이 나고 땅도 곡식도 집도 모두 페허가 된다면 그때 가선 더 큰 불행이 생겨날것이니 도대체 그 불행은 어디서 오는것인가?

손녀인 미찌꼬는 그에게 있어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염둥이였고 장중보옥과도 같은 존재였다. 어려서는 제 부모와 이 늙은이들의 사랑을 독차지해왔고 커서는 집안의 궂은일 마른일 가림없이 해나가는 처녀였다.

로인의 아들은 일찌기 전쟁터에 끌려가 무주고혼이 되고 며느리도 병에 걸려서 저세상사람이 되였다.

그러니 하세다로인의 곁에 살붙이라고는 일점혈육뿐인 어린 손녀 미찌꼬뿐이였다.

아, 어쩌자고 너에게?!…

하세다로인의 눈에서는 열탕같이 매운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렸다.

이윽고 방문이 바시시 열리며 미찌꼬가 토방으로 나왔다.

《?!…》

하세다로인은 눈이 화등잔만큼 뎅그래져 넋을 잃고 서있었다.

푸른 달빛아래 나타난 미찌꼬는 소복단장한 모습이였다.

미찌꼬는 로인의 앞에 조용히 꿇어앉았다.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아요. 전…》

《으응? 미찌꼬?!》

로인은 손녀를 와락 그러안았다.

《미찌꼬야, 난 너를… 너를… 이렇게 보낼수 없다!》

《할아버지!》

로인의 눈에서도 미찌꼬의 눈에서도 눈물이 좌락좌락 흘러내렸다.

바로 이때였다.

갑자기 뒤산쪽에서 이상한 바람소리가 나더니 삽짝문앞에 나그네차림의 웬 젊은이가 나타났다.

《그대는 어디로 가는 길손이시오?》

젊은이는 하세다로인에게로 다가와 인사를 했다. 그리고는 방금 밖에서 자기도 이 마을의 사정을 듣게 되였노라는것이였다.

《꽃같은 처녀를 제물로 바쳐 왕가물을 물리친다니 그게 어찌 사람이 할짓이란말입니까? 더구나 량부모를 다 잃은 제 집 손녀를…》

《이보시오 나그네, 그대의 말이 백천번 지당하다는것을 내 모르는바가 아니며 후일에 이 몸이 죽어 류황가마에 던져지리라는것도 각오한바요. 그렇지만 사세부득하여 이 길 아니면 딴 방도가 더는 없소그려.》

순간 나그네의 눈동자에서는 번쩍 정기가 내뿜어지며 비상한 인간임을 짐작케 했다.

《살인, 방화, 략탈이 이제는 극도에 달하여 제 민족의 목숨마저 보존치 못하게 되였구나.》

어딘가 먼곳을 바라보며 탄식하는 나그네의 말에 깊은 뜻이 담겨졌음을 깨달은 하세다로인은 제꺽 그의 팔을 부여잡았다.

《내 아직 천만다행으로 기인을 보는 눈은 어둡지 않아 말속에서 말을 짚고있으니 부디 그대는 우리 촌민들의 목숨을 살려줄 방도를 가르쳐주옵소서!》

비상한 기인은 분명 하늘땅사이를 종횡으로 무진하고 고금의 력사를 달통한 사람으로 어렵지 않게 그 방도를 찾아주었다.

《무릇 해와 달, 산과 강, 구름과 비, 이 세상만물에는 다 신이 있고 그 신들의 소임은 각각이라 태양신은 무한정 뜨겁

고 밝으며 땅신은 너그러우며 고지식하나이다. 그중 때없이 변덕스러운것은 비신의 성격이라 해야 할것입니다.

본시 인간은 아는것이 적어 하늘이 얼굴을 찡그림과 기분이 언짢음을 조석으로 보고서도 잘못을 깨우치지 못하고있으니 어찌 한갖 제물따위로써 만물을 소생시키는 비를 불러올수 있으리오.

근래에 닥쳐든 왕가물로 말하면 이른새벽 땅나라에서 올라오는 맑은 이슬이 피비린내가 나고 백날천날이 지나도록 아우성이 그치지 않아 하느님이 노하고 비신의 노여움을 사게되여 생겨난것이요. 분명 이 아근에서 그 조짐을 살펴보아야 할것이오.

옛말에 아녀자가 한을 품으면 오뉴월에도 서리가 내린다 했거늘 피가 홍수를 이루고있으니 어찌 하늘이 인간의 뜻을 따르리오.

미상불 이 지방에서 비를 내리게 할 사람은 조선옷을 입은 천사들인줄 아오.》

나그네의 모습은 그 말이 끝나는것과 함께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그러나 하세다로인과 미찌꼬손녀는 금시 그 모습을 눈으로 보고 그 목소리를 귀로 들은지라 꿈이라 할수 없고 허황타할수 없는 일이였다.

하세다로인은 이윽토록 말이 없다가 움쭉 일어나 어디론가 길을 떠났다.

조선옷을 입은 사람들, 그것은 분명 오끼산너머 광산마을의 조선사람들이였다.

그들은 왜놈들이 총칼로 끌어다 징용살이를 시키는 불행한

조선사람들이였다.

하세다로인은 그전에도 광산옆을 지나친 일이 있어 조선사람들의 마을을 쉬이 찾을수 있었다.

그러나 막상 마을어구에서 게딱지같은 집아닌 집들을 바라보고나니 마을에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로인은 한참 망설였다.

내가 무슨 체면에 이곳까지 왔던고. 제 나라, 제 고향에서 못살게 하고 이역만리 낯선곳에 끌어다가 강제로동을 시키는 것이 바로 이들의 원쑤인 우리 일본인데… 내가 무슨 낯짝에 이들에게 구원을 청하러 왔는가.

그보다는 이들 역시 죽지 못해 살아갈것인즉 도리여 마을에 들어갔다가 눈뜨고 보지 못할 참혹한 광경들이나 보게 되리라는 우려가 더 컸다.

그러다나니 어느덧 사위에 땅거미가 깃들기 시작했다.

자기 마을에 왔던 기인의 말대로 하자면 조선사람들을 만나야 했고 그렇다고 들어갈 용기는 나지 않고…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억지로 돌려세우던 하세다로인은 문뜩 가까운곳에서 울려오는 웅성이는 소리에 걸음을 멈추었다.

그쪽을 바라보니 저녁어스름이 깃든 마을의 어느 집 사랑방앞에서 모닥불이 활활 타오르고 그 주위에는 사람들이 가득 모여있었다.

로인의 발걸음은 저도모르게 그곳으로 쏠렸다.

얼핏 보기에도 토방과 마당 그리고 집안에도 사람들이 많았다.

젊은이, 늙은이, 남정네, 아낙네, 어린이 할것없이 숱한

사람들이 모여있었다.

(이 사람들이 웬일로 이리 모였담.)

어두운곳에서 남을 엿보는것은 죄되는 일이지만 하세다로인은 부쩍 동하는 호기심을 누를길 없었다.

《학산어른이 아직 안오셨소?》

새로 마당에 들어오는 젊은이가 묻는 말이였다.

《그 신명나는 이야기나 또 한번 들었으면…》

《그저 학산어른의 이야기를 들어야 막혔던 속이 확 내려간다니까.》

《암 그렇지 않구.》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을 들어보니 이들은 학산이라고 하는 어느 로인에게서 무엇인가 신명나는 이야기를 듣고저 기다리는 사람들이였다.

여느때같으면 하세다로인은 이쯤하고 돌아섰겠으나 여기 모인 사람들이 하도 학산어른을 목마르게 기다리고있어 내친걸음에 무슨 소리가 나오는가 들어보고 갈 생각이였다.

이윽고 또 웅성이는 소리가 났다.

보매 기다리던 학산어른이 나타난 모양이였다.

흰수염발에 기골이 장대하고 얼굴빛은 모닥불을 마주하고있어 불깃불깃한 로인이였다.

척 보기에도 그가 이 마을 좌상임이 알렸다.

사람들은 그가 담배 한대 피울사이도 없이 졸라댔다.

《학산어른, 어제 말씀하시던 그 얘기를 마저 들려주오. 백두산대장수님이 가랑잎들에 군사들을 태우시고 허공중으로 날게도 하시고 큰강도 건네주셨다는 그 이야기말이우다.》

《참, 솔방울이 폭탄으로 되였다는 그 얘기를 마저 들려줘

요. 어서요.》

로인은 허허 웃음을 지었다.

《허허, 어느 얘기부터 먼저 할가. 가랑잎얘기, 아니면 솔방울이 작란된 얘기? 백두산대장수님의 이야기는 열백가지가 다 신통하고 신비하기가 끝이 없은즉 내 오늘은 이런 얘기를 들려주지…》

이렇게 서두를 뗀 로인은 백두산대장수님께서 천기조화를 부리시여 가난한 사람들을 못살게 굴던 나쁜놈들을 속시원히 족치신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하세다로인도 처음은 사람들틈에 끼여 몇마디 듣기시작했는데 학산로인의 이야기가 하도 재미있고 신기하여 온밤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백두산대장수님의 신출귀몰하는 축지법이야기, 승천입지, 하늘과 땅사이를 마음대로 오가는 신비한 조화, 백성들의 소원이면 무엇이나 풀어주시고 왜놈들에게 천벌을 내리시는 천변만화의 조화… 들으면들을수록 신비하였다.

아뿔싸, 이 사람들이 제 나라, 제 땅을 빼앗기고 여기 남의 나라 땅에 와서도 저렇게 떳떳이 사는것이 바로 백두산대장수님을 하늘처럼 믿기때문이였구나. 아, 대장수님께서 우리 마을의 사정도 들어주시고 풀어주신다면 얼마나 좋으랴.

하세다로인은 그날로 학산로인을 만나 전후사연을 털어놓고 진지하게 이야기를 펴나갔다.

흰수염을 풍채있게 드리운 조선마을의 좌상로인은 한동안 하세다로인의 말을 듣고나서 반신반의하는 태도를 보였다.

《우리 조선민족의 하늘님은 저 백두산의 대장수님이신데 어찌 이 왜땅에 비를 주실수 있겠소. 당신네는 우리 조선사

람들에게 너무도 많은 죄를 지은 민족이 아니요?》

《사무라이족속들의 죄는 천벌을 받아 마땅하오. 하지만 우리같은 농사군들이야… 부디 우리 미찌꼬와 촌민들을 생각해서 좌상어른이 나서주길 바랄뿐이옵니다.》

《헛—참…》

이리하여 다음날 히우라산정에서는 기우제가 벌어졌다. 곳곳에 홰불이 타오르고 높은 산정에는 흙제단이 쌓아졌다.

기우제는 순 조선식으로 진행되였다.

제물로 오른 돼지도 조선종으로 마련되였고 조선도라지, 조선고사리, 건명태, 수수떡, 강낭국수, 녹두지짐, 콩나물 등 모두가 조선음식들이였다.

비취색나는 대접에는 참쌀기름이 동동 뜬 막걸리가 부어졌다.

신기한것은 제사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같이 조선옷차림이였다.

옳거니, 옳아. 기인이 바로 조선사람들을 념두에 두고 한 말이 분명해 !

하세다로인은 이날에 비신의 노여움을 꺼리여 도요우라마을과 마유미, 히라다, 다찌바나마을의 일본사람들은 모두 집안에 숨어있도록 했다.

유독 일본사람들을 대표하여 미찌꼬가 조선옷을 차려입고 이 제사에 참가했다.

《둥 둥 둥—》

북소리가 련이어 울렸다.

조선마을의 좌상인 학산로인이 멀리 백두산쪽을 향하여 향불을 피워올리고 조선절을 했다. 이어 미찌꼬가 조선절을 세

번 하고 그 자리에 엎드리였다.

《조선국의 백두산대장수님께 삼가 비나이다. …》

고요한 산정에 념불을 외우는 소리가 랑랑히 퍼졌다. 가물을 겪게 된 만단사연을 아뢰이는 좌상로인의 모습은 장엄하다 못해 웅건하였다.

하세다로인과 미찌꼬는 백두산의 성스런 모습을 상상속에 그려보았다.

조선사람들이 일구월심으로 섬기는 산은 이 일본땅의 부사산이나 히우라산이 아니라 마음속의 산, 조종의 백두산이였다.

백두산은 대대로 조선민족의 산이요, 그 백두산에는 천하를 호령하는 대장수가 있어 그 이름만 들어도 《대일본제국》의 간담이 서늘해지고 쩔쩔매고있음을 하세다는 너무도 잘 알고있었다.

《백두산대장수님이시여!

부디 헐벗고 굶주리는 일본의 농군들을 보살피시와 대지에 생명수를 부어주옵소서 !》

하세다로인도 이런 마음속 기도를 올리고 또 올리였다.

저녁어스름이 산정에 깃들자 북소리는 더욱 고조에 이르고 비를 청하는 노래춤이 불빛아래 펼쳐졌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저기 저 산이 백두산이라지
…

곡조도 춤도 난생처음 보고듣는것이였으나 어쩐지 하세다로인은 절로 마음속에서 신명이 남을 느꼈다.

자고로 문명하고 자랑스러운 5천년력사국의 자손들이 틀림없었다.

저네들의 피속에, 노래속에 맥맥히 흐르는것은 조선민족이라는 긍지, 백두산대장수님께서 머지 않아 조선민족을 다시 재생시켜주시리라는 기대가 담뿍 어려있었다.

조선옷을 입은 사람들속에 한떨기 나리꽃인양 곱게 핀 미찌꼬가 우아한 춤을 추고있었다. 언제 저렇듯 마음껏 웃는 미찌꼬의 모습을 본적이 있었던가. …

《비바람이 분다!》

누군가의 웨침이 울려오고 군중은 삽시에 와하고 끓어번졌다.

《그처럼 기다리던 비가 오려는가?…》

《백두산대장수님께 빌어 비가 온다!》

동틀무렵에는 그렇게도 기다리던 단비가 내리여 사람들의 온몸을 후련히 적셔주었다.

비는 연 3일동안 대지를 흠뻑 적시여 마르고 탄 곡식들을 일궈세웠다.

그후부터 도요우라마을을 비롯한 이 지방에서는 《조선옷을 입고 백두산대장수님께 빌면 꼭 비가 온다.》는 전설이 생겨났다고 한다.

불사약이야기

사람이 병없이 오래 살기를 원하는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이다.

옛날사람들은 늘 장생불로의 꿈을 꿀 때면 《삼천갑자 동방삭》을 제일로 꼽았다.

전설에 의하면 동방삭은 서왕모의 복숭아를 훔쳐먹고 오래오래 장수하였는데 그 수명이 무려 삼천갑자나 되였다는것이였다.

진시황은 중국천하를 통일한 후 황제가 되여 부귀영화를 끝없이 누리면서 동방삭처럼 오래도록 살기 위해 동남동녀 100여명에게 불사약을 찾아오라는 령을 내려 삼신산으로 떠나보냈다.

그러나 떠나간 동남동녀들은 불사약을 찾지 못했고 그들마저 돌아오지 않았다. 결국 그처럼 오래 살기를 바라던 진시황이 죽어버리여 후세에 《진시황도 죽었는데…》라는 웃음거리일화를 남겨놓았다.

이러한 옛이야기들은 사람들이 매우 오래전부터 무병장수하기를 소원하였음을 말해주고있다. 또한 세상에는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기적도 장생불로하는 불사약도 없다는것을 보여준다.

하다면 이 세상에는 진짜로 불사약이 없는것인가?

이 이야기는 1940년 봄 어느 유격대밀영지에서 있은 일이라 한다.

식량공작을 나갔던 유격대원들이 여느때없이 검정닭을 한마리 사가지고 돌아왔다.

식량공작책임자는 그 닭을 사령부의 꼬마전사 순남에게 넘겨주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이 검정닭은 친히 백두산대장수님께서 부탁하신거요. 그런데 대장수님께 갖다드렸더니 이걸 순남이에게 맡겨두라고 말씀하셨소. 자, 어서 받소.》

이리하여 순남은 살이 찌고 윤기가 자르르 도는 까만 검정닭을 받아두게 되였다.

(야! 이젠 됐구나.)

책임자와 헤여진후 순남은 무릎을 탁 쳤다.

식량공작책임자에게는 말을 안했지만 백두산대장수님께서 이 순남이에게 검정닭을 받아두라고 하셨다는 말씀을 전달받는 순간 그의 머리에는 펀뜻 떠오르는것이 있었다.

2년전 소부대활동을 하던 한 대원이 뜻밖에도 산속에서 수십년 묵은 산삼을 캐게 되였는데 그는 백두산대장수님의 건강을 바라며 그 산삼을 사령부에 올려보냈다.

그때 산삼을 받아드신 대장수님께서는 《이건 아주 보기드문 보물이요!》라고 하시며 여간만 기뻐하지 않으시였다.

그러시고는 그때 그 산삼을 순남이에게 주시며 잘 보관해두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때로부터 순남은 줄곧 그 산삼을 배낭 깊숙한곳에

넣고다니며 언제면 이 산삼을 보약이 되게 잘 만들어 백두산대장수님께 드릴수 있을가 하는 생각만 해오고있었다.

그런데 오늘 검정닭을 구해오도록 하시고 그것을 또 이 순남이에게 맡겨두시는걸 보니 이번엔 보약을 쓰시려는가부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

백두산대장수님께서는 대부대선회작전을 진두에서 지휘하시며 온겨울 치렬한 전투와 무서운 눈보라속에서 왜놈들을 때려부시였다.

그럴수록 유격대원모두가 바라는것은 백두산대장수님의 건강과 안녕이였다.

그때문에 산삼을 캔 유격대원도 그것을 삼가 백두산대장수님께 드리였던것이다. 그런데 아직 대장수님께 보약을 해드리지 못하였으니 그 유격대원이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섭섭해 하랴.

순남이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우등불도 피우고 오지단지도 깨끗이 가시고있을 때 그의 곁으로 백두산대장수님께서 걸어나오시였다.

《순남이가 벌써 이 사령관의 뜻을 알고 닭곰을 만들 준비를 미리 다 해놓았구나.》

대장수님께서는 가마속에서 펄펄 끓는 물을 바라보시면서 순남이는 닭곰을 어떻게 하는지 아는가고 물으시였다.

순남은 입대전에 어머니가 닭곰을 하는것은 몇번 보았지만 제손으로 해본 일은 없다고 솔직히 말씀올렸다. 그러자 대장수님께서는 머리를 끄덕이시며 《그래? 그럼 오늘은 나와 함께 닭곰을 만들어보자.》라고 하시는것이였다.

순남은 바쁘신 대장수님께서 어찌 이런 일에 손을 적시시

겠는가고, 이 길로 사령부작식대에 달려가서 녀성대원들에게 부탁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다.

그러자 대장수님께서는 순남이를 멈춰세우시며 《아니, 이 닭곰은 내가 직접 만들어야 해.》라고 하시였다.

《조용히 순남이와 둘이서만 만들자구.》

순남은 대장수님의 그 말씀에 너무 좋아 《예!》하고 큰소리로 대답을 올렸다.

이렇게 되여 순남은 불을 지폈고 대장수님께서는 직접 소매를 걷으시고 닭을 튀기시였다.

어린 순남은 닭곰 만드는 법을 몰라 대장수님께서 어떻게 끓는 물에 닭을 튀기시고 털을 뽑으시는가를 구경할뿐이였다.

어느새 검정닭은 털까지 깨끗이 뽑은 말쑥한 닭으로 되였다.

대장수님께서는 순남이가 지금껏 보관해온 산삼뿌리를 씻어 찹쌀과 함께 닭의 배안에 넣으신후 그것을 또 오지단지에 조심히 넣으시였다.

닭곰을 넣은 오지단지가 큼직한 가마안에 다 들어갈 때까지 멍청히 서있기만하던 순남은 대장수님의 바쁘신 시간을 더 앗을수 없어 용기를 내여 말씀드렸다.

《저… 이젠 불때는 일만 남았으니 그건 저에게 맡기시고 어서 들어가보십시오. 불은 제가 잘 때겠습니다.》

그러자 대장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허, 순남이가 영 닭곰을 할줄 모르는구나. 닭곰은 어떻게 불을 때고 잘 익히는가가 더 중요한거란다. 자, 그러지 말고 넌 저기 가서 장작이나 더 가져오너라.》

순남은 이번에도 대장수님께서 친히 불을 때시는것을 보면

서도 말려드릴수가 없는것이 안타까왔다.

그래 하는수없이 장작을 가지러 갔다.

순남이가 장작을 한아름 안고 대장수님께서 계시는곳으로 돌아올 때였다.

갑자기 장작을 안은 순남은 그 자리에 떡 서버리고말았다.

방금전에 길을 따라 장작을 가져가기 위해 나왔는데 되돌아가자니 눈앞에 뽀얀 안개가 서리여 어디가 어딘지 통 가늠을 할수 없었다.

이게 웬일인가.

지금껏 해빛이 쨍쨍 내려쪼였는데 어디서 이런 안개가?

사방좌우를 둘러봐도 안개뿐이였다.

순남은 하는수 없어 백두산대장수님을 큰 소리로 찾았다.

내가 지금 무슨 꿈을 꾸는가.

두리번거리며 몇걸음 내여짚던 순남은 뒤에서 울리는 대장수님의 목소리를 들었다.

《순남아, 나무를 들고 왜 거기 있는거냐? 어서 그 장작을 이리 가져오너라.》

뒤로 돌아서던 순남은 깜짝 놀랐다.

방금전의 안개는 말끔히 사라지고 바로 몇걸음앞에 백두산대장수님께서 서계시는것이 아닌가.

너무도 놀랍고 놀라운 일이여서 순남은 한동안 그러고 서있었다.

그는 대장수님께서 부르시여서야 다시 우등불이 있는곳으로 갈수 있었다.

(참 조환데… 분명 방금전까지 눈에 안개가 보였댔는데.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으니.)

순남은 이 사실을 대장수님께 말씀드리려 했으나 자기가 착각을 일으킨것 같아 그만두었다.

그러는사이 닭곰은 훌륭하게 만들어졌다.

우등불가에는 산삼을 넣어 고아낸 닭곰의 구수한 냄새가 퍼졌다.

순남은 빨리 이 닭곰을 대장수님께서 드셔야 할텐데 하고 생각하며 장작을 불에 더 올려놓았다.

그런데 백두산대장수님께서는 순남에게 이젠 불을 더 때지 않아도 된다시며 닭곰이 푹 익었을테니 식기전에 그것을 얼른 밀영병원에 가져다주라고 하시는것이였다.

순남은 갑자기 제귀를 의심했다.

그리고는 대장수님께 말씀을 드리였다.

《장군님, 안됩니다. 이것만은 꼭 장군님께서 드셔야 합니다.》

순남의 간청은 절절했으나 대장수님께서는 닭곰단지를 정히 싸서 순남의 손에 안겨주시는것이였다.

순남은 울먹이며 닭곰단지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아무리 순남이가 울먹이며 간청을 했어도 대장수님께서는 끝내 순남이에게 닭곰단지를 들려 밀영병원으로 가게 하시였다.

결국 2년동안 고이 보관해온 산삼이 든 닭곰단지는 눈물을 흘리는 순남의 손에 들리워져 병원으로 내려가고말았다.

그런데 일은 그다음에 일어났다.

며칠후 순남은 백두산대장수님으로부터 잠간 밀영병원에 다녀오라는 명령을 받게 되였다.

명령은 병원환자들의 상태를 알아보고 오라는 내용이였다.

대장수님의 명령을 받은 순남은 한달음에 병원으로 달려갔다.

그런데 깜짝 놀라운 일이 순남을 기다리고있었다.

그가 병원어구에 들어서자마자 안경을 낀 유격대 군의아바이가 순남을 멈춰세웠다. 그리고는 다짜고짜 물었다.

《순남이가 요며칠전에 무슨 보약을 가지고 우리 병원에 온 일이 있지?》

《예, 닭곰단지를 가져왔어요.》

순남의 어리벙벙한 말에 또 군의가 다우쳐물었다.

《그렇지. 그 보약이 닭곰이였지! 산삼까지 넣은 닭곰.

그런데 순남인 그 닭곰단지를 어디서 나서 가져왔나?》

순남은 아직 어리둥절했다.

《왜요? 그걸 먹은 동무가 뭐 어떻게 됐습니까?》

사실 순남은 그 닭곰단지를 가져갈 때 대장수님께서 닭곰에 깃든 사연을 말하지 말라고 하시여 아무 말없이 밀영병원에 가져다주고 돌아갔었다.

그런데 군의아바이가 이렇게 꼬치꼬치 캐물으니 은근히 부아가 났다. 그래 순남은 한마디 했다.

《그 닭곰이 어떤 닭곰인지 알고나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바로 그래서 묻는거네!》

순남은 긴장해졌다.

그 약이 바로 백두산대장수님께서 손수 지으신 보약이니 별일은 없겠지만 군의아바이가 펄쩍 놀라는것을 보면 뭔가 다른게 있는것 같기때문이였다.

《내 평생 많은 의서를 뒤져보고 수많은 환자도 치료해보았건만 이런 기적은 처음 보아 그러네!

사실 순남이가 들고온 보약단지를 받은 중환자는 거의나 앞날을 기약할수 없는 사람이였네.

물론 겉보기에는 음식도 들수 있고 걸음걸이도 조금은 할수는 있으나 그에게는 현대의학계가 죽음을 선고한 불치의 병이 자라고있었거든!

그런데… 그런데 바로 그 중환자가 그 닭곰 한마리를 먹고 툭툭 자리를 털고 일어났단말일세.

그뿐인줄 아나.

그 보약에 어떤 신비가 깃들었는지 그날 보약을 먹은 사람은 물론 닭곰냄새를 맡은 한병동의 환자들까지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네.

이건 정말 의학계에 기적과 같은 일이라네!》

순남은 그제서야 저도 격정에 넘쳐 유격대군의에게 닭곰단지에 깃든 사연을 처음부터 끝까지 일일이 알려주었다.

그러면서 약을 지을 때 백두산대장수님의 주위에 하얀 안개가 서리였던 그 이야기까지 다 들려주었다.

군의는 감동을 금치 못하며 순남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지금껏 나는 세상에 장생불로하는 불사약이 있다는 말을 부정해왔네.

그러나 장군님께서 손수 지어주신 보약을 받고 불치의 병도 사라지고 대지를 다시 활보하는 저들을 보며 어찌 불사약이 없다 하겠나!》

순남이 역시 백두산대장수이신 **김일성**장군님께서 손수 불사약을 짓는것을 본 사람으로서 유격대군의의 감동어린 그 말을 깊이깊이 리해하고있었다.

관이 일어서다

일제의 패망을 앞둔 1940년대 왜놈들속에서는 이 핑게, 저 핑게로 자기 직무를 태만하고 앓아눕는놈이 있는가 하면 어떻게 하나 그럴듯한 구실을 꾸며 본국으로 솔가도주하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렇게도 승승장구하며 거들먹거리던놈들이 **김일성**장군님 부대란 말만 들어도 쥐구멍에 찾아들고 벌벌 떨다못해 아예 제 나라로 도망치는 꼴을 목격한 우리 인민들속에서 전해지던 일어선 관에 대한 이야기도 그러한 사실을 보여주는 한 실례로 된다.

백두산이 바라보이는 국경대안의 한 경찰관주재소에 마에다라는 신임소장놈이 부임되여왔다.

출세와 부귀영화! 그것이 마에다의 유일한 삶의 목적이였고 생활의 좌우명이였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불속에라도 섶을 지고 뛰여들 남다른 야심가였다. 하여 대륙침략의 허황한 꿈이 일본땅을 휩쓰는 시기에 자진하여 관동군에 입대하여 백두산지구의 국경수비대에 배속되였다.

칼부림밖에 모르던 애비에게서 사무라이기질을 익혀온 마에다는 《공비토벌》에서도 두각을 나타냈고 조선인들에 대

한 무자비성으로 해서 상관놈들의 눈에 들었다. 그로 하여 동료들보다 먼저 사관으로 되였다.

어느 조선인부락에서 유격대와 잠시 조우전이 벌어졌을 때였다.

마에다가 전투가 진행되는 기간 감자움에 숨어 겨우 목숨을 보존한것이 《공로》가 되여 표창으로 이어졌다.

마에다가 유격대 《토벌》에 끌려 어느 수림속 골짜기에 들어갔을 때였다.

눈알을 디룩디룩하며 총소리가 나면 숨어버릴곳을 찾고있는데 별안간 하늘이 무너지는듯한 요란한 폭음이 가까이에서 일어났다. 유명한 연길폭탄이였다.

마에다는 무작정 홈타기로 뛰여들어 머리를 구겨박아 그날에도 목숨을 건질수 있었다. 그런데 폭음의 후과로 귀가 잘 들리지 않았다. 가는귀를 먹은 정도로 회복되자 그것을 구실삼아 제꺽 군복을 벗고 국경지구의 한 면주재소 경관자리를 땄다.

그후 세월은 꿈처럼, 노래처럼 즐거웠다.

일본에서 고운 처녀를 데려다 안해로 맞았고 아이들도 생겼으며 재산도 불어났다.

5년후에는 이곳 주재소소장으로 승진되였다.

마에다는 이곳에서 자기의 야심을 실현할 무지개꿈을 꾸었다.

수하경관들을 닥달질해서 번번이 뢰물보따리를 들고 오게 했고 백성들을 《통비》분자로 만들어 재물을 빼고 잔인하게 죽이는것을 서슴지 않아 상관들의 《치하》도 받았다.

어느날 마에다는 백성들속에 박아넣은 밀정으로부터 뜻밖의 정보를 받았다.

며칠전에 유격대공작원으로 짐작되는 젊은이가 로동자들속에 나타나 불온선동을 했다는것이였다.

선동내용인즉 **김일성**장군님께서 곧 조국해방을 위한 최후결전을 선포하시게 된다, 그러니 이 일대에서도 그 준비를 면밀히 갖추어야 한다는것이다. 그리고는 대사변이 도래하게 되면 즉시 처단해야 할 악질경관, 친일파들이 누구누구인가를 적어갔는데 거기에 마에다소장의 이름이 첫자리에 올랐다고 했다.

유격대가 내 이름을 적어가다니…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단말인가?

마에다는 눈앞이 캄캄했다. 유격대가 문을 벌컥 열고 자기에게 시커먼 총구를 들이댈것만 같았다.

유격대의 총알을 피하기에는 자기의 지은 죄가 너무도 크다는 때늦은 후회가 들었다.

군복대신 바꾸어입은 경찰제복도 결코 유격대의 총알을 피하게는 해주지 못하는구나. 아, 내가 미련했지.

그러고보면 몸이 황소같은 이곳 주재소의 전 소장이 갑자기 신병을 핑게대고 본국으로 급히 달아난것도 얼마전에 주재소의 한 경관이 불시에 가족과 함께 솔가도주해버린것도 이러한 조짐때문이 아니겠는가.

마에다의 눈앞에는 몇해전 **김일성**장군유격대에 의해 불벼락을 맞은 보천보주재소의 정경이 되살아났다.

소장이하 전원이 즉사, 주재소 벽에 뚫린 탄알자리와 박산이 난 주재소소장방의 유리창…

그 몸서리쳐지는 광경이 왜 이제야 다시 떠오른단말인가. 좀 더 일찌기…

하기는 자기의 무분별과 출세욕이 그때의 일을 뒤전에 밀어놓은것이 아닌가.

어느날 밤 마에다의 침실로는 한장의 종이쪽지가 바람을 타고온듯 날아들었다.

《마에다, 똑똑히 듣거라. 우리 유격대는 네놈이 목숨을 건질 길을 열어주었는데 그것을 잊고 백성들을 괴롭힌다니 이 어찌 배은망덕한 죄가 아니될수 있는가. 네놈이 어디에 가있든 결코 우리의 총알을 피하지 못할것이다.

백두산》

마에다는 눈알이 뒤집어졌으나 그 일을 일체 비밀에 붙였다. 그러나 밤잠을 제대로 잘수 없었다.

그랬다. 유격대의 심판을 면하기는 어려웠다. 하루빨리 본국으로 도망치는 길뿐이라고 생각하며 골을 썩였다.

무슨 수가 없을것인가.

이제 와서 몸이 아프다고 핑게를 대기는 늦었다.

어느 경관처럼 가족을 데리고 뺑소니를 칠가 하는 생각도 했으나 그것은 별로 신통한 수가 못될것 같았다.

목숨이나마 건질수 있다면…

이렇게 밤새 개처럼 끙끙거리며 머리칼을 쥐여뜯던 마에다는 새벽녘에 이르러 《그렇지!… 그길뿐이다!》하고 무릎을 탁 치며 미친듯이 웃어댔다.

다음날부터 마에다소장은 곁에서 보기에도 아연해질만큼 극성을 부렸다.

주재소안에 권투장을 꾸려놓고 권투훈련을 맹렬히 하는가

하면 경찰들에게 유격대와 내통하는자들을 모조리 잡아들이라고 호통을 치기도 했다.

어떤 날에는 억수로 비가 쏟아지는것도 아랑곳 않고 국경순찰에 직접 나서기도 했다.

상부에서는 마에다의 《모범》을 따라배우라고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했다.

그러던 어느날 마에다가 고열이 나서 근무를 서다 쓰러지는 일이 벌어졌다. 그길로 집으로 옮겨졌고 그의 병세는 차도가 없이 헛소리를 치는데까지 이르렀다.

녀편네가 울고불고 주재소며 상부에까지 찾아다니며 제 남편이 며칠 못갈것 같다면서 뛰여다녔다.

마에다는 결국 앓아누운지 닷새째 되는 날 벼락죽음을 당했다.

마에다가 갑작스레 죽자 우두머리들은 그를 《천황폐하에게 충실한 경찰관》이니 장례를 크게 잘해주라고 왼심을 썼다. 그리하여 주재소의 경찰들이 모두 떨쳐나 관을 짜오고 먼 절간에까지 가서 유명한 일본중을 자동차로 데려오는 소동이 벌어졌다.

어느사이 마에다네 집 마당은 조객들로 차고넘쳤다.

마에다의 시체는 순 일본식으로 입관되였는데 사자(죽은자)는 북으로 향한 베개를 베게 하고 얼굴에는 흰 수건을 씌웠으며 머리맡에 한가치의 꽃을 꽂고 그우에 관뚜껑을 덮어주었다.

사자밥도 지어 사자의 머리맡에 놓아주었으며 저가락까지 꽂아주었다.

중이 장례를 직접 주관하여 마에다의 출생지와 날자, 현직

등을 렬거하며 독경을 시작했다.

향불이 타는 속에 중은 사자가 속세에서 부처님의 뜻을 받들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떠한 죄를 지었으며 래세에 차례질 운명은 어떤것인가를 념불속에 이야기했다.

이어 조객으로 온 동료들과 자기 부하들이 마에다의 관앞에서 고인을 추모하여 모두 차렷자세를 취했다.

《고 마에다군은 천황폐하에게 충성다한 제국의 용감한 경찰관으로서… 일찌기 야마도다마시이를 지니고…》

그때 관속에서는 사의(죽은 사람에게 입히는 옷)를 입은 마에다, 산《송장》이 다음 순서를 안타까이 기다리며 그 소리를 듣고있었다.

이제 중의 념불이 그치고 장례식이 거행되여 관이 집밖으로 나갈 때 한줌의 짚에 불을 달고 침상에 놓였던 차잔을 깨버린다. 그리고 거기에 담겼던 밥을 참대껍질에 싸서 산소로 가져간다.

등롱과 기발, 꽃에 휩싸여 관이 들려서 산소로 가면 그곳의 둥실하게 파진 구멍속에 관이 안치된다. 그렇게만 되면 오늘밤 어둠이 깊을 때 녀편네가 보낸 잡부들이 남모르게 달려와서 관뚜껑을 열어줄것이다.

그러면 마에다는 죽고 래일부터 나는 변성명을 하고 가족과 함께 이곳을 떠나 될수록 멀고 먼곳으로 가서 남은 생을 편안히 보내게 될것이다.

어느 귀신인들 이 마에다가 살아있다고 생각이나 할손가. 그래서 《사망》직전에 의심을 가지지 않도록 거짓《충성》으로 자기를 혹사했고 녀편네더러 되도록이면 애고소리를 크게 내라고 짜고들었다.

지금까지는 이 모든 일이 각본대로 되는셈이다. 조금만 더 참자!

저 지껄이는 놀음이 빨리 끝나야겠는데…

그런데 막상 관속에 누워 제 동료들이 지껄이는 소리를 듣고보니 괘씸하기 짝이 없었다.

주재소의 어떤 수석순사놈은 마에다소장이 어느 마을의 촌민들을 어떻게 닥치는대로 죽였고 불살랐으며 재물들을 어떻게 모조리 빼앗아왔는가를 이야기했다.

(저놈이 무슨 끔찍한 소릴 지껄이는가. 그러다 유격대의 귀에 들어간다면…)

그놈의 말이 끝나자 또 다른놈이 맞장구를 치는것이였다.

언제 어디서 백성들을 몇명 학살하고 누구누구를 징용터에 보냈으며 처녀들을 잡아 《위안부》로 섬겨바쳤다는 등…

《그러니 마에다소장님은 제 명을 못살았습죠.》

끝없이 쏟아져나오는 자기의 죄악을 듣고만 있으려니 마에다는 울컥 분통이 치밀었다.

(괘씸한놈들, 모든 죄를 나에게 넘겨씌워?… 유격대가 나타나면 자기들은 마지못해 시켜서 한 일이고 마에다가 악마이고 야수라고 할테지.… 찢어죽일놈들!)

중의 목소리가 마에다의 마지막자제력을 앗아갔다.

《…사자의 죄가 너무도 크고 무거워 자비로우신 부처님은 물론 보살님들에게도 용서를 못빌겠소이다. 필시 지옥의 류황가마가 차례지려니… 나무아미타불!》

그때였다. 별안간 눕혀있던 관이 수직으로 일어서는것이

아닌가.

방안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며 그것을 귀신의 조화로 여겨 정신을 못차리고있는데 관뚜껑이 저절로 제껴졌다.

이 무슨 조화인가? 《시신》이 두눈을 딱 부릅뜨고있는것이 아닌가.

방안에 둘러선 조객들을 둘러보고난 《시신》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이놈들! 씹어먹어도 성차지 않을놈들! 내가 죽었다고 몽땅 죄를 나한테 뒤집어씌워? 부처님의 극락세계에는 못가도 **김일성**장군유격대의 총알은 피해야겠다! 네놈들의 죄를 내가 다 뒤집어쓰라구? 안돼! 안된다.-

이놈들!》

고래고래 분통을 누르지 못해 소리를 지르고난 마에다는 갑자기 입에 거품을 내불며 나자빠졌다.

그렇게도 살기를 바랐던 죄많은 마에다의 숨이 진짜로 끊기우고만것이였다. …

하바롭스크이야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고록에서 하바롭스크는 조선인민혁명군과 동북항일련군이 쏘련원동군부대들과 함께 국제련합군을 편성하고 일제를 격멸하기 위한 공동투쟁을 벌리던 잊지 못할 고장이라고 감회깊이 회고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해방의 대사변을 앞둔 시기 쏘련군대와의 련합작전을 토의하시기 위해 자주 하바롭스크로 가시였다.

당시 하바롭스크에는 와씰렙스끼를 사령관으로 하는 쏘련군 원동사령부가 있었고 거기에서 여러 전선사령관들이 전선군들을 지휘하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하바롭스크에서 쏘련군대의 지휘성원들과 친교를 맺으시고 전투적우의를 두터이 하시였다. 그이께서 하바롭스크에 오시면 쏘련군사령부는 명절처럼 흥성거렸다.

그 시기 쏘련군장령들과 평범한 군인들속에서도 수령님의 명성은 자자해 가지가지의 전설들이 생겼다고 한다.

… 어느날 원동지구사령관 와씰렙스끼는 하바롭스크에 오신 장군님을 숙소로 안내하며 자기 생각에 잠겨있었다.

여러차례 만나뵈올수록 전설적영웅으로 만주광야의 백만대적을 전률케 한 장군의 엄엄한 그 위엄보다도 마치 친지를

만난듯 스스럼이 없어지고 그분의 인간적미에 마음이 끌리는 것을 어쩔수 없었다.

며칠전 와씰렙스끼는 전선군단에서 돌아오는 길에 원인모를 병을 만나 앓아누운적이 있었다. 열이 나고 밤이 되면 머리가 지끈거려 도무지 잠을 잘수가 없었다.

그밤, 자정이 훨씬 지나서였다. 밖에서 말울음소리가 들리더니 **김일성**장군님께서 방으로 들어서시는것이였다.

그분의 어깨며 앞섶이 땀으로 화락하니 젖어든것을 보고 와씰렙스끼는 무슨 급한 정황이 생긴것이로다 하고 생각했다.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그런데 **김일성**장군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뜻밖이였다.

《훈련기지에 나갔다가 늦게야 련락을 받았습니다. 병세는 어떻습니까?》

《그럼 저때문에요?! 이 밤중에…》

와씰렙스끼는 목이 꽉 메여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

그밤 그는 **김일성**장군님과 마주앉아 날이 새는줄도 모르고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그분과 마주앉아 이야기를 할수록 아픔이 멎고 마음이 편해지는것이였다.

다음날 아침 와씰렙스끼는 언제 앓아누웠던가싶게 남들보다 먼저 사령부로 나갔다. 그리고는 병문안을 하는 장령들에게 자기의 병을 **김일성**장군님께서 고쳐주셨다고 말하였다.

젊으신 백두산장군님께서 자기 사령관의 병을 손쉽게 고쳐주셨다는 말이 퍼지자 쏘련군장령들은 너도나도 한마디씩 했다.

《과시 축지법장군이 다르군!…》

《난 벌써 우리 작전부장을 **김일성**장군께 보내고 오는 길이네. 빨리 가서 그 비범한 축지법을 배워오라고말일세!》

《허참, 난 왜 그런 생각을 못했는가. …》

그런 일이 있은 후부터 와씰렙스끼와 쏘련군장령들은 그분의 축지법을 한번 보았으면 하는 희망이 커져 기회가 있을때마다 그이께 청을 드리군했다.

그러던 어느날 **김일성**장군님께서 백마를 타시고 하바롭스크에 가셨을 때였다.

마침 하늘에 구름 한점 없는 가을날이였다. 푸른 초원이 눈앞에 펼쳐져있고 말들이 살이 찌니 사람들의 마음도 절로 들뜨고있었다.

저 무연한 씨비리초원으로 말을 타고 가슴후련하게 달려보았으면!

이런 생각은 쏘련군병사들만이 아니라 나이지숙한 장령들도 다를바 없었다. 젊은 군관들은 오금이 저려나 늘 말채찍으로 정갱이를 툭툭 쳐갈기며 다녔고 동료들과 상관들을 만나면 먼저 어떤 말을 탔는가부터 살폈다. 또 만나서도 대부분의 화제가 경마에 관한것들이였다.

이날도 회의를 마친후 돈까자크태생의 한 장령이 금빛으로 번쩍이는 박차에 발을 걸며 여기 모인 장령들중에 다른건 몰라도 경마에서만은 자기를 따를 사람이 없을것이라고 큰 소리를 쳤다.

그러자 붉은색 만또를 걸친 다른 장령이 얄타이초원에서 뾜스까까지 기병사단을 거느리고 달려간 자기를 뭘로 아느냐고 을러멨다.

와씰렙스끼는 문뜩 **김일성**장군님을 생각했다. 그분이 타시는 백마가 늘 그의 눈에 범상치 않게 보였는데 한번 이 광대한 초원을 누비시면 어떤 신비한 현상이 일어날는지 어이 알랴.

이러한 때 **김일성**장군님께서 백마를 타시고 하바롭스크에 오셨으니 때맞춤이라 아니 할수 있겠는가.

와씰렙스끼는 그분께 거듭 경마경기에 참가해주실것을 청원하였다.

장군님께서는 가벼운 웃음으로 사양의 뜻을 나타내시다가 그의 소청이 하도 절절하여 《하, 이걸 어쩐다. … 말은 타보았어도 그리 잘 타는축은 못되는데…》하시며 승낙을 하시였다.

백두산장군님을 모시고 경마경기가 진행된다는 소식은 일시에 온 하바롭스크에 쫙 퍼졌다.

쏘련군장령들은 은근히 자기 부하들을 시켜 말손질을 다시 하게 했고 경마에 출전하는 사람들의 동정도 살폈다.

경마구간은 하바롭스크에서 출발하여 무연한 초원을 달리다가 한 지점에서 꽃묶음을 받아가지고 귀환점을 돌아오는것이였다.

경기시작전에 **김일성**장군님께서는 백마를 타시고 경마장에 들어서시였다.

보기만해도 허리가 늘씬하고 발통이 억세고 믿음이 가는 백마가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갈기로부터 온몸에 잡털이라고는 한오리도 섞이지 않아 백마는 희다못해 은백색으로 눈부시였다.

잠시후 출발을 알리는 한방의 총소리가 났다. 수십마리의 말이 먼지구름을 뽀얗게 일으키며 달려나갔다.

《오호홍-》하는 여무진 말울음소리를 크게 낸 장군님의 백마도 첫발을 크게 내디디며 뽀얀 구름속으로 달려갔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가?! 장군님의 백마가 갑자기 시야에서 사라져버린것이였다.

누구도 영문을 알수 없어 머리를 기웃거렸다.

한편 경마수들을 떠나보낸 사령부성원들은 풀판에서 한담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있었다. 경마수들이 귀환점을 돌아오자면 두시간은 잘 걸리기때문이였다. 그래서 구경나왔던 군관들과 병사들은 제 할 일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와씰렙스끼는 사령부창문가에 버티고 서있었다. 생각같아선 말을 타고 함께 내달려보고싶었으나 어째선지 오늘은 경마경기에 참가하신 **김일성**장군님을 자기가 직접 맞아들여 축하해드리고싶었다.

그분께서 제일 선참 들어오셨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나 상대들도 만만치 않은 기마수들이다. 말을 타고 적진으로 뛰여들면 총탄마저도 뒤에 떨군다는 그들이다.

기마수들이 떠난지 조금 지나 머리우에서 갑자기 말울음소리가 들린듯했다.

머리를 쳐드니 구름속으로 흰 백마가 날아오고있었다.

구름모양이 신통히도 장군님이 타신 백마와 같아 그는 눈을 비비며 두번세번 하늘을 쳐다보았다. 잠시후 구름은 간데없고 하늘은 아득히 높았다.

두시간이 지나 경마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역시 큰소릴 쳤던 기병사단장의 얼룩말이 맨앞장에서 호기있게 들어왔다. 이어 수많은 말들이 바람처럼 달려왔다.

그들은 한결같이 들국화묶음을 안고왔다.

와씰렙스끼는 눈아프게 경마수들의 뒤쪽을 지켜보다가 기병사단장의 옷자락을 잡아당겼다.

《여보, **김일성**장군님께서 타신 말이 안보이니 어찌된거요?》

《안보이다니?!… 나보다 먼저 달렸는데…》

오히려 그쪽에서 의아해했다. 그러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던지 와씰렙스끼에게 귀속말로 말했다.

《여기 있으면서 말이 들어오는걸 보지 못했소? 아마 그분은 벌써 들어와계실거요! 그 백마가 달리는줄 아오? 훨훨 구름처럼 날아다닌단말이요.》

와씰렙스끼는 뭔가 짚이는 생각이 있어 급히 사령부쪽으로 가보았다. 숙소쪽에 백마 한필이 매여져있었다.

《저 말은 분명 아까부터 있었는데?!…》

《가만, **김일성**장군님께서 타셨던 그 백마가 아닌가요?》

《옳소! 저 말이마에 꽂힌 꽃묶음을 보오. 틀림없는 **김일성**장군님의 말이요!》

와씰렙스끼는 아까의 그 말울음소리가 착각이 아니였음을 깨달았다.

구름과 함께 백마를 본듯했던 그 일도 착각이 아니였다.

와씰렙스끼와 쏘련군장령들은 너무도 놀랍고 희한하게 여겨져 숙소에서 나오시는 **김일성**장군님을 우러러 오래도록 굳어져있었다. …

그날 기병사단장과 돈까자크태생의 장령은 이런 이야기를 주고 받았다.

《나는 지금까지 파시스트들을 쳐부시는 전쟁에 참가하여 기병사단을 이끌고 와르샤와에 들어간것을 큰 자랑으로 여겨왔다.

얄타이초원에서 와르샤와까지 우리는 말을 타고 낮에 밤을 이어 달려갔다. 그런데 백두산대장수이신 **김일성**장군님은 땅을 주름잡는 비상한 축지법으로 우리를 놀라게 했다.》

《두고보라. **김일성**장군님은 그 축지법으로 왜놈들을 쳐부시고 눈깜박할사이에 평양으로 입성하실것이다.》

덕수골의 감자

백두산을 시원으로 하여 거세차게 흘러내리는 압록강줄기를 따라가느라면 장백현 16도구라는 마을이 있다. 일명 덕수골이라고도 부르는 이 마을의 사람들은 대개 서간도의 화전민마을들이 그러하듯이 왜놈들에게 제 나라, 제 땅을 빼앗기고 살길이 막히여 이곳으로 류랑온 조선사람들이였다.

경상도에서 살다가 이 마을에 새로 온 장로인도 하루아침에 왜놈에게 땅마지기를 떼우고 살길 찾아 들어온 농민이였다.

만주가 살기 좋다는 뜬소문을 듣고 남부녀대하여 압록강을 건넜지만 그래도 고국땅을 멀리 떠나고싶지 않아 여기에 보따리를 풀고말았다.

척박한 등판과 계곡들에 화전뙈기를 일구고 감자농사를 하느라니 고향생각이 났고 흰쌀을 내던 논이 그리웠다. 그러나 왜놈과 지주놈에게 빼앗긴 그것이 어찌 제 땅이랴.

여기서는 아직 왜놈이 보이지 않으니 감자만 먹고 살아도 살로 가는것 같았다.

덕수골은 백두산과 가까운 마을이였다.

백두산에 우리 겨레를 구원할 장수별이 솟았다는 이야기를 수없이 들어온지라 아침저녁 백두산을 바라보고 백두산의 물과 공기를 마시며 살고싶은것이 그가 이곳에 정착하게 된 또

하나의 리유였다.

세월이 갈수록 장로인은 이곳에 자리를 잡은것이 잘한 일이라고 생각되였다.

그도 그럴것이 백두산으로 드나드는 사람들속에서 장수별이 칼가는 소리를 들었다고도 하고 왜놈들을 삼대베듯 쓸어눕히는것을 보았다고도 하더니 얼마전에는 백두산대장수님께서 수만군사를 거느리시고 조국으로 진군할 준비를 하고계신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아, 고향으로 돌아갈 날도 멀지 않았는가부다.

어느날 장로인은 화전이나 일굴가 하여 이른아침에 도끼와 괭이를 들고 집을 나섰다.

여기저기를 헤맸으나 맞춤한곳은 찾기 어려웠다. 웬간한 땅은 다 뚜져먹었고 어떤 땅은 습지여서 발이 푹푹 빠졌다.

장로인은 할수없이 골짜기를 따라 계속 들어가다가 어느 잠풍한곳에서 꽤 널직한 땅뙈기를 보게 되였다.

이게 웬 떡이냐싶어 괭이질을 몇번 하고보니 아쉽게도 전부 돌천지였다.

아뿔싸… 이러니 사람들이 버리고갔군. …

장로인은 손맥이 풀려 그냥 돌아서려다 그래도 이랑을 지어놓으면 얼마간의 감자는 거둘수 있을것 같아 괭이질을 하기 시작했다.

그때 가까이에서 말울음소리가 들리더니 어디서 나타났는지 세 사람이 말고삐를 손에 쥐고 서있었다.

《로인님을 놀라게 해서 안됐습니다.》

수수한 농민복차림을 한 사람들이였다. 그러나 영채가 도는 눈빛들이며 젊고 씩씩한 기상이 범상한 사람들같지 않

왔다.

그들중의 한 사람이 장로인에게 절을 하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였다.

《백두산대장수님께서 로인님의 일손을 도와드리라고 하시여 왔습니다.》

《?!》

장로인은 너무도 놀라와 아무 말도 못했다.

그가 말하기를 자기들은 백두산대장수이신 **김일성**장군님의 부하들로서 여기서 아주 가까운곳에서 조국해방을 앞당기기 위한 군사훈련을 하고있다는것, 그런데 장군님께서 로인님이 이곳에서 힘겹게 돌밭을 뚜지고있다는것을 아시고 자기들을 불러 쉴참에 도와주고 오라고 하시여 이렇게 왔다는것이였다.

(대장수님께서 이 늙은이가 여기 있는것을 어떻게 아셨단 말인가?!…)

세 사람은 장로인이 어쩔새없이 팔을 썩썩 걷어붙이고 일손을 잡았다.

《오래간만에 호미를 잡으니 고향생각이 절로 나는군.…》

《우리 고향에서도 감자를 심었지.…크고 달고 참 맛있는 감자였지.》

그들 세 사람은 일하는품도 달랐다. 한 사람이 먼저 괭이로 네모난 금을 그으면 다른 사람은 무슨 작대기같은것으로 쭉쭉 줄을 그어갔다. 마지막사람은 호미로 그 줄을 따라 별로 힘들이지 않고도 척척 이랑을 짓는것이였다.

그들이 일하는 방법이 이상하고 신기해서 로인은 경탄을 금치 못했다.

그들은 장로인더러 담배나 한대 태우며 구경을 하라고 했

다. 그런데 담배 한대를 피우는사이에 벌써 일을 끝내고 그들 세 사람은 나타날 때와 같이 바람처럼 사라졌다.

《아! 고맙다는 인사도 못드렸는데…》

밭이랑이며 고랑들이 얼마나 알뜰하게 정리되고 돌까지 말끔히 없어졌는지 이게 분명 자기의 화전뙈기가 옳은가 하고 의심할 정도였다.

《참말로 기인들이로다!》

장로인은 너무도 희한한 일이여서 산을 내리는 길로 마을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전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장로인의 이야기를 그리 신기하게 여기는것이 아니였다.

알고본즉 그들도 그런 일을 겪었으며 백두산대장수님께서 자주 군사들을 보내시여 자기들의 일손을 도와주도록 하신다는것이였다.

그해 장로인의 화전에는 베개통만한 감자들이 주렁주렁 달렸다.

장로인은 이 밭이야 백두산대장수님의 부하들이 일궈준 밭인데 어떻게 저 혼자만 먹으랴싶어 두어줄만 캐고는 그들이 다시 올 때까지 캐지 않기로 했다.

그랬으나 가을이 다 가고 겨울이 지나도 밭을 일구어준 그 고마운분들은 나타나지 않았다.

장로인은 이듬해에도 그 화전뙈기를 더 크게 일구고 많은 감자를 심었다. 그리고는 고마운분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날이였다.

왜놈《토벌》대가 마을에 달려들었다. 이 마을에서 유격대에 원호물자들을 보내준다는것을 눈치챈 왜놈들은 마을어구에 기관총을 걸어놓고 사람들을 전부 총구앞으로 끌어냈다.

《우리는 너희들이 〈공비〉에게 식량과 금품을 보냈다는 통보를 받고왔다. 누가 〈공비〉와 내통하고있는가? 순순히 나서지 않으면 너희들을 모두 〈통비분자〉로 인정하고 총살하겠다. 자, 나서라! 10분간 여유를 준다.》

《토벌》대장놈은 권총을 빼들고 시간을 보았다. 한초한초 …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다.

그놈의 털부숭이상통이 이그러지고 총구에서 불이 쏟아져나오려는 그 순간 휘파람소리를 내며 돌개바람이 일었다.

잠시후 《토벌》대장놈앞에 웬 농군차림의 젊은이가 땅우에서 솟아난듯 서있었다.

《토벌》대장놈은 뜻밖의 일에 눈만 데룩데룩거리다가 겁질린 소리로 가까스로 호통을 쳤다.

《당… 당신… 은… 누구요?》

농군차림의 젊은이는 한발자국 더 가까이 그놈에게로 다가서며 말했다.

《당신이 찾는다기에 이렇게 왔소!》

《그… 그럼 당신은?!》

《그렇소. 유격대요!》

《유-격대?!》

《토벌》대장놈은 이 한마디 비명을 지르고는 부들부들 떨고만 있었다. 다른놈들도 어찌할바를 모르고 와들거렸다.

금시 량쪽에서 신출귀몰한다는 유격대의 총알이 제놈들의 골통을 꿰지를것만 같은 공포에 질려 사방을 두리번거리는 놈들도 있었다.

유격대라는 그 젊은이는 놈들을 향해 추상같이 꾸짖었다.

《내 이자 이곳을 지나다 네놈들이 하는 말을 듣고 그냥

지나갈수 없어 이렇게 왔다. 네놈들이 저 선량한 백성들이 우리에게 감자를 보낸다고 못살게 구는데 참으로 네놈들은 눈깔이 멀었도다. 이놈들, 내 다시한번 똑똑히 말해준다. 우린 아무때나 마음만 먹으면 저 밭들에서 감자를 캘수 있다.》

《감자를요?!》

《토벌》대장놈이 믿어지질 않아 놀란 소리를 했다.

《믿어지지 않는단말이지. …》

유격대원은 잠시 가까운 감자밭을 보고나서 한놈을 불러 감자 몇알을 캐오라고 했다.

그 밭은 놈들의 눈으로 보기에도 이미 감자를 캐먹은 밭이였다.

《어서!》

한놈이 마지못해 감자밭으로 가서 총창으로 밭을 뚜졌다.

그런데 정말로 감자알들이 나타났다. 왜놈들은 이 신비한 광경에 데룩데룩 눈만 마주쳤다.

어떻게 가을한 감자밭에서 감자알들이 생겨날수 있는가? 저 유격대가 도술을 부리는것이 아닐가?

《토벌》대장놈은 체면도 잊고 감자를 쥐고 깨물어보기까지 했다. 진짜감자임이 틀림없었다.

장로인도 영문을 알수 없었다. 저 밭들에서 저렇게 감자가 나온단말인가?!

유격대원은 왜놈들에게 《오늘은 네놈들을 그냥 살려보내지만 다시 무고한 백성들에게 행패질을 한다면 그때에는 저승으로 보내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왜놈들은 허리가 꺾어지라 굽신거리며 제발 이번만은 용서해달라고 빌었다.

유격대원은 나타날 때처럼 휘 돌개바람을 타고 시야에서 사라졌다.

덕수골에 유격대가 나타나 가을을 한 감자밭에서 감자알들을 캤다는 소문은 빨리도 퍼져나갔다.

누구나 처음 그 소식을 들을 때면 기이해하였고 장로인처럼 어리둥절해지기도 했다.

세상에 이미 가을한 밭에서 어떻게 감자알이 생기는가?

불가사의한 일이라고 믿기 어려워들 했다.

그러나 세상에 불가사의한 일이란 없는것이다.

덕수골의 장로인은 왜놈들이 기절초풍해 달아난 그날 저녁 마을사람들에게서 그 사연을 전해듣고 철썩 무릎을 치며 감동을 표시했다고 한다.

《그러니 이 아근의 밭들은 모두 유격대원호를 위해 우정 가을을 하지 않은 밭들이구려. 글쎄 그런줄 여적 내 모르고 살았으니… 아무렴, 아니땐 굴뚝에 연기날리 없다는 속담이 참으로 명담일세. 허허…》

그때로부터 장로인은 깊은 골안에 더 많은 화전을 일구어 감자를 심었다. 그리고는 가을이 오면 우정 두어줄의 고랑만 캐고는 유격대원호량식으로 그대로 남겨두었다고 한다.

이것은 항일무장투쟁시기 장백지구에서 류행되였던 독특한 유격대원호방법의 일종이였다고도 한다.

마께르새

바야호로 만물이 소생하는 양춘가절에 화려하게 가꾸어진 궁성안의 정원에는 갖가지 꽃들이 피여나고 온갖 새들이 날아들었다.

한들거리는 꽃송이, 기묘한 바위들과 갖가지 나무들, 그 사이사이를 누비며 우짖고 노래하는 새들… 봄바람에 꽃잎들이 흩날려 온 궁성을 덮고있었다.

사꾸라꽃잎들이 발에 밟히는 정원길로 일본천황이 신하들을 거느리고 꽃구경을 하고있었다.

국화로 일컫는 사꾸라꽃이 피는 계절이면 꽃구경과 꽃놀이를 하는것이 이 나라의 오랜 풍속이지만 천황은 류다르게 이해의 봄꽃놀이를 성대하게 벌렸다.

온 궁성이 가득하게 대신들과 군부의 요인들을 불러들였고 조선, 중국, 필리핀 등 각지에 가있는 주둔군사령관들과 총독들도 모두 참석하게 했다.

한껏 무르녹은 봄의 정취에 온몸을 푹 잠그고 꽃잎을 바라보던 천황의 흐릿한 눈빛이 문득 번뜩이였다.

《짐은 저 사꾸라꽃을 <대일본제국>의 상징으로 몹시 사랑하고있으나 요즘에 생각되는바가 실로 많다.》

《황송하옵니다.》

꽃향기에 취했던 뭇신하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머리부터 조아렸다.

《너무나도 속절없이 피였다가 순간에 지고마는것이 사꾸라꽃인것이다. 짐은 그것을 늘 섭섭하게 생각해왔다. 그러나 지금에 와보니 그게 다 부질없는 잔근심이였음을 알게 되였노라.

우리 <대일본제국>으로 말하면 조선과 만주는 물론 광활한 중국대륙과 나아가서 동남아의 모든 섬나라들까지도 줌안에 거머쥐였은즉 오늘에 저 꽃은 비단 우리 일본만의 꽃이 아니라 대동아의 국화로 되였노라.》

《천만번 지당한 말씀이옵니다. 폐하의 넓으신 도량과 령활하신 지략으로 하여 오늘의 이 영광이 이룩된것임을 아뢰나이다.》

《영원히 지지 않는 <대일본제국>의 사꾸라꽃 만세, 만만세!》

전 수상 고노에의 아첨기어린 말을 받아 신임수상 도죠가 당돌하면서도 약삭바르게 천황의 심금을 울려주었다.

도죠의 선창에 따라 만세의 합창이 터져나왔다.

천황은 의기양양한 눈길로 주런이 대령한 중신들과 특별히 불러들인 군부우두머리들, 각 전선의 주둔군사령관들을 둘러보았다.

그들은 하나같이 가슴마다 크고 눈부신 훈장들을 번쩍이고 있었다.

그것은 천황인 자기가 그들이 가져온 《승전》보고의 대가로 달아준 《영광》의 표창들이였다.

오늘도 그들은 요란한 《승전》보고와 함께 점령지들에서

로획한 값진 선물들을 정중히 안고왔다. 천황은 회심의 미소를 나타냈다.

때마침 은은하게 울려오는 《팔굉일우》의 찬가가 한껏 그의 마음을 부풀게 했다.

《팔굉일우》! 여덟개의 민족이 한지붕아래서 산다는 말로서 즉 온 세계를 《대일본제국》의 한지붕안에 걷어넣고 지배와 전횡을 일삼자는 탐욕스러운 야망이 그대로 넘쳐흐르는 노래였다.

천황은 귀전에 울리는 찬가를 들으며 눈을 스르르 내리감는다.

거치른 바다의 한복판에 외로운 섬나라로 솟아난 일본, 사면팔방을 둘러보아도 철썩철썩 절벽을 때리는 파도소리만이 들려오는 고독한 섬에서 우리 선조들이 꿈꾸어온것은 무엇이던가.

아득한 수평선너머 멀리 보이는 《대륙에로의 꿈》이 아니였던가.

도요도미 히데요시가 《훈도시》를 차고 칼부림과 도적질밖에 모르는 사무라이들을 조선으로 내몬것도 그 꿈을 이루기 위함이요, 무서운 고독과 적막에서 벗어나기 위함이라 할것이다.

하긴 돌투성이뿐인 섬나라에서 도적질 말고 살아가는 방법이 또 무엇이란말인가, 날알 한알을 놓고도 부자간에 칼을 빼들어야 하는것이 섬족속들의 타고난 팔자이다.

얼마전까지도 세상은 여기에 일본이라는 나라가 있는줄을 모르고 《왜구》 즉 떼도적들이 득실거리는 《도적섬》으로 알았다니 이 어찌 통탄할 일이 아닌가.

《대륙으로 가자!》

골백번을 웨치고 부르짖으며 떠나간 수천수만의 군사들과 전함들, 이국의 광야에 백골로 흩어지고 깨여진 배조각들만이 기슭으로 밀려와도 다시 또다시 가야만하는 대륙침략의 길!

섬나라 일본이 생긴이래 얼마나 많고많은 천황들과 관백, 막부들이 그 꿈을 이루고저 했고 이루지 못한 그 꿈을 두고 몸부림치고 오열에 북받쳐 할복자살의 길을 택했던가.

조상대대의 그 숙원, 그 성스러운 대업이 바로 자기의 대에 와서 비로소 이루어진다는 생각에 천황의 눈빛은 기쁨에 떨렸다.

이때였다. 천황의 귀전에 귀에 설은 새소리가 들렸다.

《마께르! 마께르!…》

이상한 새소리이다. 듣는 사람마다 가슴을 섬찍섬찍하게 하는 그 무엇이 있었다.

《이게 무슨 소린고?》

천황의 목소리는 자못 불쾌하게 울렸다. 아름다움과 경건함만이 가득차야 할 이 궁성에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음침하고 날카로운 새소리였기때문이였다.

눈치빠른 내시 하나가 쪼르르 천황의 턱밑에 가붙었다.

《페하, 불안감을 거두옵소서. 저 새는 꾀꼴새이온데 지금 <께꼬 께꼬 호께꼬> 하고 우는줄로 아뢰옵니다.》

그러나 천황의 머리우에 드리워진 늙은 나무가지에 앉아 음충스럽게 울고있는 그 새는 분명 꾀꼴새가 아니였다. 생김부터가 다른 새였다.

한쪽에서는 학자풍의 사나이와 내시가 이상한 새를 두고 말씨름을 계속하고있었다.

《황송하옵게도 소신은 일본제국대학의 생물학교수로서 우

리 섬나라의 천수백종의 새들을 연구하고있사옵니다. 그런데 저 새는 생김새와 색갈이 꾀꼴새와 비슷하옵니다만 눈빛이 침울하고 천을 째는듯한 목소리는 분명 꾀꼴새와는 다른 종류임을 말씀올리는바올시다.》

《무슨 당치 않은 소리요? 저 새는 분명 꾀꼴새요. 저 <호께꼬> 소릴 듣지 못하오?》

《<호께꼬>가 아니라 <마께르>라고 울고있소. 우리 조류학계에는…》

《그만들 하오!》

천황의 기분은 콱 뒤집혀지고말았다.

《마께르, 마께르라니?! 발칙하다. 그래 다른 경들은 이 새를 모르는가?!》

새는 푸드득 또다시 자리를 옮겨가며 날카로운 소리를 질렀다.

순간 천황의 머리에 떠오르는것이 있었다.

다시 그 새를 유심히 살펴보았다.

저 새가 그렇다면 께르새?!… 그런데 저렇게 <마께르>라고 울지는 않았었는데…

그 새는 분명 께르새였다. 몇해전 궁성안에 나타났던 께르새.

그 새의 울음이 하도 사람들의 마음속을 찌르는데가 있어 극비로 붙여왔는데 언제인가는 날아가서 나타나지 않았다.

아무리 뜯어봐야 께르새가 분명했다. 그런데 어떻게 저 새가 마께르라고 울수 있단말인가.

《각하, 황송하옵게도 소신이 저 새를 알고있사옵니다.》

천황의 가까이로 다가온것은 동기《토벌》작전총화차로 올라와있는 우메즈관동군사령관이였다.

(당신이?…)

천황은 내심을 감추고 고개를 끄덕였다.

《저 새는 소신이 주둔하고있는 압록강연안과 백두산지대에서 흔히 보게 되는 새이온데 황군병졸들속에서 마께르새로 불리우고있사옵니다. 그런데 저 새가 감히 여기 궁성에까지 날아올줄은…》

우메즈사령관은 다음말을 할것인지 말것인지를 생각하듯 우물쭈물하다가 용기를 내여 이렇게 말을 이었다.

《황송한 말씀이오나 저 새는 백두산에 거처지를 둔 새로서 **김일성**빨찌산의 사령부귀틀집에 둥지를 틀고 산다고 하였습니다. 저도 몇번 저 새를 보았었는데 이상한것은 그때에는 저 새의 울음소리가 <마께르>라고 듣지 않았다는것입니다. 사령부가까이에서 저 새가 우짖는 소리는 그야말로 맑고 청아해서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기분이 상쾌하게 하여주는… 그런데…》

우메즈사령관은 여기서 말을 끊고 주저했다.

천황은 그를 보지 않고 《계속하라, 숨김없이.》하고 재촉했다.

《본관은 지난 겨울 제국의 암으로 되는 **김일성**빨찌산을 <박멸>하라는 천황폐하의 어명을 받들고 <동남부치안숙정공작>을 벌렸습니다.

그 특수작전으로 노조에<토벌>사령부를 조직하고 도합 20여만명의 일만군병력을 투입하였으나 매번 토벌작전에서 **김일성**빨찌산의 신출귀몰하는 전법과 유인기만전술에 걸려 도리여 녹아난것은 우리 관동군뿐이였습니다.

김일성장군의 가지가지의 전법앞에 혼비백산하여 유격대란 말만 들어도 황군병사들속에 무기를 버리고 도주하는자가 부지기수라 노조에<토벌>사령관이 그 한놈을 잡아 목을 친 일이 있사옵니다. 그때 노조에가 죽이기전에 마지막말을 하게

하였더니 <축지법을 쓰는 **김일성**장군과 맞서야 일본은 진다.> 고 하는것이였습니다.

화가 치민 노조에가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전에 일본도로 목을 쳤는데 땅바닥에 떨어진 목밑에서 피는 한방울도 나오지 않고 작은 새 한마리가 포르릉 날아올랐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 새는 백두산에서 사는 새였습니다. 그런데 그 새가 노조에<토벌>대장의 머리우에서 계속 맴돌며 마께르, 마께르 하고 울어대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새는 분명 죽은자의 마지막말을 외우는것이였습니다.

그날부터 마께르새는 우리 황군이 가는 길에 나타나서 <마께르> 하고 울군하는데 병사들은 그 새소리만 들어도 무섬증에 밤잠을 못자고 지어 히스테리발작도 일으킨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판이 <마께르새를 발견하는 즉시 쏘아죽일것. 쏘지 않는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명령했사온데 사방에서 그 새를 쏘는 총소리는 요란했지만 어찌된 조화인지 한마리가 죽으면 두마리가, 두마리가 죽으면 네마리가 생겨나서 <마께르>, <마께르> 하니…그 새는 분명 **김일성**장군이 도술을 부려 만들어 우리 황군에게 보낸…》

《빠가!》

극도로 흥분한 천황은 궁성의 엄격한 규률을 어기고 호위병의 권총을 뽑아 마께르새를 향해 요란한 총성을 울렸다.

이렇게 되여 한마리의 작은 새로 하여 천황이 품들여 준비한 성대한 꽃구경놀이는 파탄되고말았다.

그런데 이후에도 천황이 그렇듯 싫어하는 마께르새의 울음소리는 궁성안에서 멎을줄 몰랐다.

어찌도 천황의 머리우에서 떠나지 않는지… 천황이 저녁산책을 나가면 나무가지우에 올라 울고 홀로 깊은 안방에 들면

어느사이에 방안에 슴새여들어와 《마께르!》 하고 울군했다.

천황은 이로 하여 신경발작이 생겨 당장 저 새를 쏘아잡으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가 하면 궁성안의 나무들을 모두 베여버리라고 하기도 했다.

어떤 날은 궁성을 몰래 빠져나가 별궁에 은신처를 정해보기도 하였으나 마께르새는 그곳에도 나타났다.

《저 새가 나를 죽게 하는구나!》

천황은 이따금 제정신으로 돌아올 때면 이렇게 생각했다.

조선과 중국대륙, 동남아시아의 드넓은 땅이 우리의 줌안에 든 이때 감히 백만관동군과 맞서고 《대일본제국》과 힘을 정면에서 겨루는 백두산대장수는 과연 어떤 장수인가.

제국의 한다하는 장군들을 다 들이밀고 옹근 한 전쟁을 치르고도 남을 막대한 병력과 무기, 군수물자들을 투입했어도 결국 우리 제국의 앞으로 백두산빨찌산은 남아있지 않는가.

지난 20여년세월 장군들의 가슴이 벌게 달아준 수많은 훈장과 상금들이 나를 속인것들이란말인가.

《마께르!》

천황의 그 모든 생각을 단마디로 결론짓듯 마께르새가 다시 나타나 울어댔다.

마께르란 일본말로 《진다》는 뜻이였다.

천황은 비로소 언제인가 궁성에 나타났던 께르새가 지금은 마께르새로 변하여 자기의 종말을, 제국의 앞날을 예언하고있음을 알았다. 이로 하여 천황은 패망을 훨씬 앞둔 몇해전에 마께르새의 예언으로 일본의 패망을 감득하고있었다고 한다.

결국 1945년 8월 15일 패전국의 천황은 세계앞에 가련한 몰골을 보이고야 말았다.

가야산의 백두마을

가야산은 소백산줄기가 뻗어내린 대소군봉속에 비교적 우뚝 솟아있다. 해발고가 1,470메터로서 령이 높고 골이 깊으며 사철 맑은 물이 소리치며 계곡을 흘러내린다.

해방전 이 깊은 산골에 《백두》성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 크지 않은 마을이 있었다고 한다.

옛문헌들인 《동국여지승람》이나 《신찬성씨록》을 보면 우리 나라에는 간혹 《을지》, 《제갈》, 《황보》와 같은 두자 성이 있지만 《백두》성이라는 성씨는 없는것으로 되여있다. 그런데 어떻게 가야산의 깊은 골안에 이런 희성의 마을이 생겨난것인가. …

울긋불긋 단청을 입힌 가야산너머의 한 골짜기에는 뙈기밭과 사냥업에 명줄을 건 30여호의 마을이 있었다고 한다.

험한 이 산골에 언제부터 사람이 들어와 살았는지는 알수 없으나 봄이 오면 씨를 뿌리고 여름이면 산삼캐기, 짐승잡이로 근근히 목숨을 이어가는 인생들이였다.

이 마을의 좌상은 김로인이였다.

그는 3.1인민봉기때 이 골에 들어온 대바른 사람이였다.

몸집이 우람하고 억대우같아 젊었을적에는 장사로 불리웠

다. 그러한 늙은이가 요즘은 두어깨가 축 처져내렸으니 그러지 않아도 한적한 마을의 공기는 더 숨막힐듯했다.

바로 3일전 면호적계의 왜놈계장이 나타나 마을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지껄여댔었다.

《황송하게도 천황폐하께서는 너희들, 반도인들에게 우리 일본사람과 꼭같이 은총을 베풀어주시였다. 말하자면 <동조동근>, <내선일체>란말이다. 그러니 누구나 천황폐하의 적자로 되는 이번 <창씨개명>사업에 빠짐없이 참가해야겠다.》

그러나 그놈이 온종일 목에 피대를 돋구어 소래기를 쳤으나 《창씨개명》에 응한 사람은 단 한명도 없었다.

목숨을 버리면 버렸지 부모가 붙여준 성과 이름만은 고치지 못하겠다는 태도였다.

왜놈계장은 그에 대한 분풀이로 순사들을 불러 한동안 닥달질을 해대고 마을좌상인 김로인에게 으름장을 놓았다.

《좋다!…만일 3일내에 이 마을이 〈창씨개명〉을 하지 않으면 집기둥들을 몽땅 뽑아버리고 불지를줄 알라!》

마을의 크고작은 일을 주관하는 김로인은 그날부터 무거워진 어깨를 쳐들지 못하고 다녔다.

왜놈들이 어떤 악한들이라는것을 체험해본 그였다.

이 마을은 장차 어찌될고.…

매일같이 동리어른들이 무릎을 마주하고 걱정을 했지만 그 누구도 어찌할 방도를 내놓지 못했다.

김로인은 너무도 기가 막혀 말조차 나가지 않았다.

고현놈들, 강도질도 류만부동이지 백주에 남의 나라를 타고앉아 땅을 빼앗고 5천년 력사국을 송두리채 삼키더니 이제는 말과 글, 지어는 조상이 붙여준 성까지 빼앗겠다니… 이

런 억울할데가 어디 또 있단말인가. 하늘도 무심하지. 이런 놈들에게 왜 천벌이 내리지 않는고…

사람들은 모여앉으면 중구난방으로 떠들어댔다.

《어이쿠! 조선사람이 조선말을 못한다니 이게 웬일인가? 어머니 배속에서부터 들어온 말을… 하늘을 하늘이라 부르지 못한다면 뭐라 해야 하는가요?》

《쳇… 벙어리들도 살아가는 세상인데 아예 입을 벌리지 않으면 되는거지. 문제는 그보다 〈창씨개명〉이요! 그걸 안하면 호적등록도 안해주고 기차표, 배표도 안주고 저 읍거리의 다리마저 건늘수 없다니 이게 야단이 아닌가? 좌상어른, 어쩌면 좋아요?》

김로인은 그 말에도 땅이 꺼지게 한숨만 내쉴뿐 묵묵부답이였다.

그날밤을 김로인은 뜬눈으로 꼬박 밝히였다. 낮에 마을사람들이 주고받던 말이 귀전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제 3일후면 찰거마리같은 왜놈들이 와서 마을을 란탕칠것이다.

얼마나 왜놈들의 성화가 심했으면 고을의 한 선비는 면호적계에다 《견자웅손(개자식이 된 단군의 자손)》이란 성과 이름을 제출하고 경찰에게 매질을 당했고 또 어떤이는 《견분식형(개같은놈, 똥이나 먹어라)》이라고 제출하여 크게 욕을 보았다 하겠는가.

왜놈들이 달려들어 마을을 불지를건 뻔한 일이니 이를 어쩌면 좋단말인가.

이날밤 이런저런 생각에 자리에 누워서도 궁싯거리던 김로인이 별안간 두루마기를 껴입고 밖으로 나가버렸다. 그리고는 날이 밝아서도 돌아오지 않았다.

무슨 일인가? 좌상로인은 어디로 갔는가?…

가족들도 로인의 행처를 알수 없었다.

단지 마을앞산이 가야산이니 그곳에 가지 않았는가 하는 막연한 추측밖에 할수 없었다.

한밤중에 온다간다는 소리없이 집을 나간 로인은 다음날 정오가 지나도록 감감 무소식이였다.

사람들은 혹 산에서 호환이라도 입지 않았는가 하여 걱정을 했다.

어슬녘 마을의 젊은이들이 로인을 찾아 떠나자던참에 김로인이 불쑥 땅에서 솟아나듯 나타났다. 그것도 어디서 난것인지 가라말까지 척 타고서.

김로인은 자기를 반기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난 성을 갈기로 했소!》

사람들은 깜짝 놀랐다. 성을 갈다니?! 왜놈의 요구대로 《창씨개명》을 한다는 소리가 아닌가.

《좌상어른, 그게 무슨 당치 않은 말씀이시오?…》

《분명 성을 갈겠다는 말이웨까?…》

김로인은 의혹을 풀지 못해하는 사람들을 진정시키고나서 풍채좋은 흰수염을 내리쓸었다.

《방금 나는 가야산에 올라 하늘의 계시를 받고오는 길이요!》

좌상로인의 말마디들이 하도 놀랍고 이상스러운것이여서 모두들 의아함을 감추지 못했다.

그들에게 김로인은 자초지종을 이야기했다.

… 지난밤 자정이 넘도록 잠들지 못하던 로인은 문득 창호지를 바른 문틈으로 밖이 훤해옴을 느꼈다. 벌써 날이 밝았

는가 하여 무심히 방문을 열던 로인은 눈을 크게 떴다.

저게 뭔고? 산마루에 웬 불기둥인가?…

김로인은 산불인가싶어 황망히 옷을 주어입고 밖으로 달려 나갔다.

그 산마루에 마을의 수호신인 성황터가 있으니 거기에 불이라도 달렸다면, 그랬는데 자세히 보니 불기둥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쏟아져내리는 별비같았다.

지금껏 별찌가 떨어지는것은 흔히 보아왔어도 이러한것은 난생처음이라 김로인은 주저없이 산마루로 치달아올랐다.

숨이 턱에 닿아 산마루에 오른 김로인은 그자리에 떡 굳어지고말았다.

밑에서 올려다본 휘황한 별비는 다름아닌 금빛 번쩍이는 말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모습이였다.

금빛안장을 얹은 하나같이 끼끗하고 날랜 말들이 분명 하늘로부터 내려오고있었다.

그런데 이상한것은 말우에 주인이 한 사람도 타지 않은것이였다.

《참 이상한 일이군. 웬일로 주인없는 말들이 이렇게!…》 이런 생각으로 두루 주위를 살피던 로인은 두런두런 울리는 말소리를 들었다.

인기척이 나는쪽을 보니 성황터쪽에 귀틀집이 한채 지어져 있고 말소리는 그안에서 새여나오고있었다.

이런 희한할데라구야. 이곳은 자기가 한해에도 여러차례 오르는곳인데 전에없던 귀틀집이 생겨난것을 내가 왜 여직 몰랐을가? 이때 호탕한 웃음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며 총을 멘 군사들이 귀틀집에서 나왔다.

그들중 한사람이 김로인을 알아보고 다가왔다.

《로인님, 이 밤중에 어떻게 여기에 오셨습니까?》

로인은 그의 첫 물음에 벌써 젊은이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것을 대뜸 알아차렸다. 그래서 이곳으로 오게 된 경위를 대충 말해주었다.

그의 말을 듣고난 젊은이는 자기들은 백두산대장수이신 **김일성**장군님의 군사들로서 그분의 령을 받들기 위해 잠시 이 가야산에 머무는중이라고 소개했다.

《백두산대장수님!…》

백두산대장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하많이 퍼져있어 김로인도 잘 알고있었다. 그러나 그분의 군사들을 이렇게 직접 만날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젊은이는 김로인이 이곳 마을의 좌상로인이라는것을 알고는 이것저것 자세히 캐물었다.

김로인은 요즘 왜놈들의 《창씨개명》바람이 더 우심해지고있다는것과 그때문에 자기가 골머리를 썩인다는것까지 다 털어놓았다.

그때 귀틀집문이 열리며 젊은 사람이 또 나왔다. 그런데 그 젊은 사람의 주위는 어둠이 가셔지고 밝은빛으로 둘러싸여있었다.

보매 보통분이 아닌듯했다. 김로인과 이야기를 하던 사람이 그분에게로 가서 무엇인가 말씀드렸다.

그러자 그 젊으신분이 어둠을 휘휘 몰아내며 김로인에게로 와서 두손을 꽉 잡아주시였다.

《로인님, 이 험한 세상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로인님의 아들들인 우리가 왜놈들

을 몰아내고 꼭 나라를 되찾겠습니다.》

《…》

김로인은 자기가 꼭 무슨 꿈을 꾸고있는것만 같아 아무 대답도 드리지 못하였다.

그저 그 젊으신분의 말씀을 들으며 따라걷기만했다.

샘터앞에 이르자 그 젊으신분은 샘물을 달게 드셨다. 그리고는 이렇게 의미있는 말씀을 하시는것이였다.

《역시 백두산천지에서 흘러온 물이여서 샘물이 이처럼 달고 시원하군요.》

김로인은 저도모르게 눈이 휘둥그래졌다.

《이 물은 가야산에서 흘러나오는 샘이올시다.》

그러자 젊으신분은 얼굴에 미소를 지으시며 《가야산도 근본을 따지고보면 백두산의 지맥인즉 어찌 이 물이 천지의 물이 아니라 할수 있겠습니까?》라고 겸손히 말씀하시였다.

순간 김로인의 머리속에서 무엇인가 번쩍 떠오르는것이 있었다.

자기가 며칠째 고심하고있는 두통거리를 이런 말로 깨우쳐주시는것이 아닌가싶었다.

젊으신분은 갈 길이 바빠 떠나야겠다면서 멀지 않아 왜놈들이 꼭 망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분과 헤여지자 날이 훤히 밝았는데 눈앞에 있던 귀틀집이랑 군사들이랑 모두 보이지 않았다.

그때에야 로인은 아뿔싸 하고 자기 무릎을 쳤다. 그 젊은분이 백두산대장수님이 아니실가 하는 생각이 뒤늦게야 들었던것이다.

틀림없는 백두산대장수님이시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분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자자구구 음미해보니 자기의 결심이 새롭게 섰다. 그길로 로인은 가야산을 내렸다.…

여기까지 단숨에 이야기하고난 김로인은 정기가 도는 눈에 갑자기 젊음을 되찾은듯 청청한 목소리로 기본문제를 꺼내였다.

《그러니 우리 조선사람들의 성씨의 본은 무엇이겠소? 두말할것없이 그것은 삼천리금수강산의 모든 산줄기와 물줄기가 근원을 두고있고 혈맥의 원뿌리가 있는 조종의 산 백두산이 아니겠소! 저 백두산에는 우리 겨레가 우러러 받드는 장군별이 솟아빛나고있소. 그래서 나는 뻐젓이 왜놈들앞에서 이 자랑스러운 〈백두〉로 성을 고치자고 하오. 또 우리 마을전체가 이 한성, 한본으로 등록을 하자고 하는데 여러분네들의 궁량은 어떠한지?》

로인의 이 말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다. 너도나도 로인의 제기를 따르겠다고 했다.

약속된 3일후 아침.

호적계원이 산골길로 자전거를 끌고 비지땀을 흘리며 나타났다. 그놈은 다짜고짜로 마을좌상인 김로인의 집으로 들이닥쳤다.

《령감, 어떻게 되였는가? 자, 이 용지에다 황송하옵게도 천황폐하의 적자가 되겠다는 맹세와 〈창씨개명〉할 새 성명을 써넣으라! 내가 제꺽 호적계에 제출할것이다.》

가시돋친 그 목소리는 조그마한 홍정도 없다는 암시를 풍겼다.

김로인은 머리를 크게 끄덕거리고나서 백설같은 흰 두루마기를 입고 머리에는 정자관까지 정히 쓰고 마당으로 나섰다.

그리고는 진한 먹물을 듬뿍 묻혀 그놈이 내민 용지우에 힘주어 붓을 움직였다.

《백두창민.》

그러자 마을사람들도 그아래에 자기들의 성과 이름을 써넣었다.

온 마을이 하나같이 《백두》성으로 갈고 자기의 이름자들을 붙였다. 30호가 모두 새 이름들을 써넣었을 때 호적계원은 입이 귀밑까지 째지게 웃음을 지었다.

이날 의기양양해서 호적계장앞에 신청서뭉테기를 쏟아놓았던 호적계원은 뜻밖의 호령소리에 심장이 덜컥 멎는듯했다.

《고랏! 이건 뭔가? 〈백두창생〉! 뭐뭐. 한마을이 몽땅 〈백두〉성이라구? 백두라면 **김일성**장군유격대가 있는 백두산을 가리키는것이 아닌가?… 결국 자기네들은 천황폐하의 적자가 아니라 **김일성**장군의 적자라는 말이다!》

노발대발하던 호적계장놈은 호적계원의 뺨을 후려치고나서 그길로 경찰서장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고해바쳤다.

경찰놈들이 가야산마을로 달려왔다. 그러나 마을은 이미 텅 비여있었다.

놈들은 오막살이 추녀밑에 불질을 해대는것으로 맥을 뽑고 돌아갔다.

후날 이 지방 사람들속에서는 《가야산의 백두마을사람들이 자기들의 본적지인 백두산을 찾아떠났다.》는 말과 《가야산의 더 깊은 골짜기에 들어가서 백두마을을 다시 꾸리고 왜놈없는 세상에서 살고있다더라.》하는 말이 전해졌다고 한다.

윤 구 렝 이

백두산아래 부전고원에 가면 구렝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다고 한다.

추운 북쪽지방에서 무슨 구렝이소리냐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은 모르고 하는 소리이다. 그고장 사람들에게는 아니꼬운자를 보거나 욕을 할 때면 황구렝이, 쑥구렝이, 능구렝이, 이런 식으로 구렝이앞에 글자 하나씩 덧붙이는 습관이 있다. 왜 그럴가?

… 부전령산줄기가 굽이쳐간 옥련산기슭에 게딱지같은 동기와집들을 거만하게 눌러보며 고래등같은 기와집이 한채 덩실하게 앉아있었다.

그 집 주인이라는자가 사방 100리 아근의 토지와 산림을 몽땅 거머쥔 윤지주였는데 사람들은 그를 구렝이라는 별명으로 불렀다.

그놈은 젊었을적에 어느 금전판에서 십장노릇을 해먹다가 왜놈의 밀정노릇을 잘해준 덕에 많은 목돈과 재물을 그러모으고 늘그막에 이 일대의 토지를 사서 《땅임자》로 둔갑한 악질친일주구였다.

왜놈순사들을 끼고 별의별 못된짓을 다 골라하는 그놈은

소작인들에게 장리쌀을 놓아먹는데는 천하 제일가는 고약한 놈이였다.

가을이면 그놈의 고간에는 쌀이 수백섬이나 쌓여지는데 춘궁이 들어 마을마다 량식이 떨어지면 그러면그럴테지 하고 농민들에게 장리쌀을 꾸어주기 시작하는것이였다.

그것이 어떤 쌀인지 모르는 사람이 없건만 그것이나마 가져가지 않으면 당장 온 식솔들을 굶겨죽여야 하는판이니 어찌할 방도가 없었다.

가을이 되면 한말이 곱으로 불어나 두말을 바쳐야 한다. 그것을 갚지 못하는 날엔 어떤 화가 미칠지 모를 일이였다.

그래서 《씨아굴대에 손가락은 넣고 견디여도 윤구렝이네 장리쌀 안갚고는 못견딘다》는 말이 생겨났다.

그 장리쌀때문에 소를 떼우고 집을 떼우고 심지어 딸까지 빼앗긴 집이 수두룩했다.

이 마을에 세해전 이곳으로 온 서분이네가 살았다.

경상도 진주에서 살던 서분이네는 농사를 망치고 땅까지 떼우는통에 살길이 막혀 정든 고향을 떠났었다.

간도가 살기좋다는 말을 듣고 다섯식솔이 천신만고하여 이곳까지 왔으나 로자도 먹을것도 다 떨어지고 어린 서분이까지 앓는통에 그의 아버지는 무작정 이 마을로 접어들었다. 그때 윤구렝이한테서 감자 몇알을 가져다먹은것이 풀어던질수 없는 올가미가 될줄이야…

윤지주는 서분이네 정상을 보고 금이발을 드러내며 무척 《동정》해주었다.

《앓는 애를 데리고 어딜 간다고 그러나?… 어린것이 불쌍하지. 마침 우리 집에 소작줄 땅이 몇평 있는데 그걸 부치라

구. 여긴 제가 손만 놀리면 얼마든지 잘 살수 있는곳일세.》

이렇게 되여 서분이네는 결국 오랑캐령을 넘지 못했고 윤지주의 땅을 부치는 소작살이를 하게 되였다.

서분이 아버지는 원체 착실한 실농군이라 그의 손이 가닿기만하면 돌각담도 옥토로 변하고 기장이며 조이삭이 머리를 무겁게 숙이였다.

교활한 윤구렝이의 입가엔 늘 서분이 아버지에 대한 칭찬이 떠돌았다.

그러나 이것은 구렝이같은 윤지주가 순박한 농군들을 부려먹는 상투적인 수법이였다.

그해 가을.

서분이네가 며칠동안 꼬박 밤을 밝혀가며 타작을 끝낸 날이였다.

윤지주가 어험 하고 헛기침을 깇으며 마당으로 들어섰다. 그놈은 알알이 여문 기장쌀을 줌안에 쥐여보더니 회계책을 펴들었다.

봄내 여름내 꾸어먹은 장리쌀에 또 무슨무슨 빚들을 빨래줄처럼 늘여놓더니 종당에는 검불만 남겨놓고 말끔히 실어가려 했다.

《여보시오. 이건 너무하지 않소? 일년내내 뼈빠지게 농사를 지었는데 겨울량식만이래두 남겨놓아야 할게 아니요.… 저 불쌍한것들은 무얼 먹고 산단말이요?》

서분이 아버지는 너무도 억이 막혀 가슴을 두드렸다.

윤지주는 세모진 눈에 파란 불꽃을 튕기며 제편에서 피대줄을 돋구었다.

《이놈, 뭐가 어째? 뭐가 너무하단말이냐. 내가 남의걸 도

적질해간단말이냐. … 이놈아, 그래 이런 일이 생길줄 몰라서 봄에는 장리쌀들을 넙적넙적 받아 배속에 처넣었단말이냐?》

서분이 아버지가 그래도 필사적으로 막아나서자 윤구렝이는 왜놈순사를 달고와서 그를 발로 차고때려 쓰러뜨린 후 낟알 한알 남기지 않고 몽땅 실어가버렸다.

그날 왜놈순사의 칼집에 머리를 맞고 땅에 쓰러진 서분이 아버지는 피를 쏟은채 영영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세상천지는 넓어도 우리 심정을 하소할곳조차 없으니 이제 우린 누굴 믿고 살아가라우?…》

서분이 어머니마저 드러누워 집안의 모든 짐이 서분이의 작은 어깨우에 지워지게 되였다.

그러던 어느날이였다.

산에 나무하러 갔던 서분이가 앓고있는 어머니에게 귀가 번쩍 트이는 소식을 가져왔다.

《어머니! 옥련산에 백두산대장수님이 오셨어요!》

《백두산대장수님께서?… 너 그게 무슨 말이냐?》

어머니는 선뜻 믿으려 하지 않았다. 백두산대장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전부터 들어왔었다. 쉬쉬하며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그분은 키가 하늘에 닿고 몸에 날개가 돋혔는데 하루에도 수백리길을 단숨에 훨훨 날아다닌다고 했다.

《야참, 어머니두! 내가 그분을 뵙고 오는데요 뭐.》

《네가?! 아니, 네가 어떻게 그분을?!…》

서분이는 가쁜숨을 몰아쉬며 어머니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서분이는 오늘도 어뜩새벽에 산으로 올라 삭정이를 줏고있었다. 어린 소녀의 여린 손으로 하는 나무짐이 얼마나 되랴.

그러나 그렇게라도 하지 않고서는 앓는 어머니에게 풀죽 한끼도 대접할수 없는 형편이다.

한낮이 되여오는데도 나무짐은 절반도 차지 않았다.

서분이는 몇번이고 땅바닥에 주저앉았다가는 앓고있는 어머니를 생각하며 가까스로 일어나 삭정이를 줏군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서분이는 허기진 몸을 가누지 못하고 바위등에 기대여 쓰러지고말았다.

갑자기 흰구름이 쫙 끼더니 옥련산주위가 한치앞도 보이지 않았다. 잠시후에야 구름이 싹 가시여졌는데 서분의 앞에는 키가 크고 름름한 총멘 군사들이 쭉 덮였다.

서분이는 그들이 방금전 구름을 타고내려온 군사들이라는 생각을 했다.

(혹시 백두산대장수님께서 내려오시지 않았을가?)

서분이는 무작정 한 군사의 군복자락에 매달렸다.

《아저씨, 백두산대장수님을 만나뵙게 해줘요, 네?》

《넌 어디 사는 애냐?》

서분이는 가슴에 쌓인 설음을 다 터쳐놓았다.

이야기를 듣고난 군사는 서분이를 이끌고 백두산대장수님께로 갔다.

백두산대장수님께서는 서분이네 가정형편과 마을사람들에 대하여 일일이 묻고나서 몹시 분개해하시였다.

《윤지주, 그놈이 정말 구렝이같은놈이구나.》

그분의 격노한 음성이 쩌렁쩌렁 옥련산을 흔들었다. 그바람에 나무잎이 우수수 떨어졌다.

《왜놈들에게는 살살 꼬리를 젓고 농민들에게는 독사처럼 구니 분명 제 명에 죽지 못할 짐승이다.》

백두산대장수님께서는 서분이의 머리를 오래도록 쓸어주시고나서 윤지주놈은 짐승의 오명을 벗지 못하고 죽을것이라시며 자신께서 서분이네와 마을사람들이 땔 나무를 해놓겠으니 앓는 어머니의 병구완을 잘해드리라고 거듭 이르시는것이였다.

그런데 갑자기 짜르릉- 꽝꽝- 하는 우뢰소리가 울렸다.

그바람에 서분이는 눈을 번쩍 떴다. 그제서야 방금전의 일이 꿈이였다는 아쉬운 생각에 두리번거리던 그는 깜짝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눈앞에 여기저기 더미를 이룬 집채같은 나무단들이 쌓여있었다.

그럼 꿈이 아니였단말인가?… 내가 백두산대장수님을 만나뵙다니…

서분이는 그 길로 옥련산을 내려 집으로 뛰여왔다.…

서분이의 이 말은 곧 동네안팎으로 퍼져나갔다. 처음에는 꿈만같은 그 이야기를 믿지 못해하다가 옥련산으로 올라 백두산대장수님께서 해놓고 가신 그 많고많은 나무더미를 보고는 제가 본듯이, 제가 겪은듯이 말들을 했다.

윤지주도 그 말을 들었다. 백두산대장수님께서 자기를 구렝이같은 짐승이라고 분노해하셨다는것을 알고는 며칠어간은 변소출입도 못하고 벌벌 떨었다.

백두산대장수님께서 보낸 군사가 당장 자기의 덜미를 잡아일굴것만 같았다. 밤마다 꿈자리도 사나왔다. 온밤을 군사들에게 쫓기워 이리뛰고 저리뛰다가 새벽녘이 되여 그릇 부딪치는 소리에 깜짝 놀라 깨군했다.

경찰서에 가서 그 말을 비쳤다가 정신나간놈이라고 뺨을

얻어맞고 되돌아왔다.

눈앞이 아뜩했다. 백두산대장수라면 총가진 일본어른들도 꼬리를 사리는판이니 이제는 어찌한단말인가?

윤지주는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다 자리에 눕고말았다. 읍에서 의사도 데려오고 무당, 점쟁이들을 불러왔으나 백가지 약이 필요없고 귀신을 쫓아버린다던 무당들의 점술도 맥을 추지 못했다. 그런데 이상한것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말하기를 윤지주의 몸에서 점점 사람냄새가 아니라 썩어 문드러지는 짐승냄새가 난다는것이였다.

이제는 머슴들까지도 자기를 보는 눈치가 이상해졌다.

《이놈들! 어서 썩 사라지지 못할가.》

윤지주는 매일과 같이 눈앞에 나타나는 작인들과 머슴들에게 호통을 쳤다.

그러던 어느날이였다.

엉치뼈가 근질거려 손을 대보던 윤지주는 저도모르게 화들짝 놀라 일어섰다.

무언지 모르게 손에 잡히는것이 있었다.

《이게 뭔가?》

분명 손에 쥐여진것은 뱀꼬랑지였다. 그것도 보통뱀이 아닌 구렝이의 꼬리였다.

《여보, 무슨 일이예요?…》

곁에서 자던 녀편네가 의심쩍은 눈길로 윤지주를 쳐다보았다.

《아무것도 아니야. …》

말은 그렇게 했지만 윤지주는 온밤 한잠도 잘수 없었다.

어쩐지 뱀꼬리가 이리저리 움직이는것 같고 조금씩 자라는

감을 감촉했다.

이틀 사흘… 점점 꼬리는 자라고 장딴지며 살가죽이 점점 비늘로 덮이기 시작하였다.

《아! 내가 백두산대장수님의 예언대로 구렝이가 되려는 모양인가부다.》

윤지주의 이 몰골을 보고 녀편네와 온 가족이 울고불고 하였으나 이제는 소용이 없었다. 하루가 다르게 뱀꼬리는 길게 자라났고 온몸은 비늘에 싸이였다. 결국 윤구렝이의 많은 가산과 돈도 그의 목숨을 지켜주지 못했다.

마을에서는 윤구렝이가 죽으면서 진짜로 구렝이가 되였다는 말이 파다하게 퍼졌다.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백두산대장수님께서 천벌을 내리신것이라고 말들을 했다.

그때로부터 이곳 사람들은 악착스럽기 그지없는놈들을 가리켜 구렝이같은놈이라고 욕을 하며 그놈들도 윤구렝이놈처럼 짐승이 되여 제 명을 살지 못할것이라고 한다는것이였다.

최근에 부전령 비밀근거지자리가 발굴되고 그곳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을 거느리시고 나오셨다는 자료가 고증되여 이 전설은 더욱 신빙성을 띠고 오늘도 전해지고있다.

《토벌》대가 받은 명령서

세상에는 나라마다 군대가 있고 군대는 자기 상부의 명령에만 절대복종하는것을 철칙으로 삼고있다.

어느 나라 력사에도 군대가 상대편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움직였다는 례는 없다.

그런데 일제의 한 비밀경찰자료에는 이런 내용의 글이 적혀있다.

《본년 벽두에 이르러 장백지구의 군대 경찰내부에 〈통비분자〉들이 생겨나…직무에 태공하고 심지어 〈공비〉의 요구에 복종하는 경향까지 우심하게 나타나고있다.》

적들의 내부에서 이러한 비명이 울려나오게 된데는 그럴만한 사연이 있었다.

조국해방을 앞둔 어느해, **김일성**장군님께서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를 거느리시고 잠시 장백지구로 나오신 때의 일이라 한다.

김일성장군님부대가 왔다는 소문은 순식간에 장백지구를 들었다놓았다.

그 소문은 관동군사령부안을 쑤셔놓은 벌둥지처럼 만들었다.

관동군사령관놈은 일체 병력을 총출동하여 **김일성**장군유격

대를 없애버리겠다고 미쳐날뛰였다.

하여 산이란 산은 황군의 누런 군복으로 한벌 쭉 덮이였고 길목과 도강장, 다리들에는 검열단속초소가 세워졌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자이거나 식량이나 소금과 같은 짐을 지고다니는자는 모조리 검거색출하라는 명령서까지 떨구었다.

그런데 유격대는 어찌된 영문인지 산속을 포위하면 도회지를 답새기고 성시를 지키고있으면 밀림속에서 학습을 하고 노래를 부르며 춤까지 추었다.

그야말로 동에 번쩍, 서에 번쩍 했다.

악에 받친 사령관놈은 검질기게 병력을 들이밀었다.

왜놈들이 아무리 많은 병력을 들이밀고 또 들이밀어도 결국 이래도 죽는놈은 왜놈이요, 저래도 죽는놈은 왜놈이라 그 모질고 독하던 왜놈들의 모가지가 추풍락엽으로 땅우에 떨어졌다.

일이 이쯤되니 인민들의 사기는 이를데 없고 반대로 왜놈들은 침맞은 공처럼 쭈그러들어 유격대란 말만 들어도 벌벌 떠는판이였다.

눈보라가 몹시도 이는 어느 추운 겨울이였다.

장백일대의 군대와 경찰들로 그러모은 한 지구《토벌》대에 뽀얀 눈발을 일으키며 군마 한필이 달려왔다.

해빛에 철갑모를 번뜩이며 말에서 뛰여내린 련락장교놈은 곧장《토벌》대의 대장방으로 들어섰다.

《보고! 17도구근방에 **김일성**장군유격대가 나타났으니 긴급출동하라는 <토벌>사령부의 명령서입니다.》

《뭣이?!》

대장놈은 **김일성**장군유격대라는 말에 불에 덴 소처럼 와뜰 놀랐다.

명령서에는 몇일 몇시까지 어디로 가서 **김일성**장군유격대를 《토벌》하라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음-》

대장놈은 상을 찌프렸다. 자기의 상관인 《토벌》사령관은 명령집행을 조금이라도 태공하거나 늦잡는 경우 군사재판에 넘기겠다고 단단히 그루를 박아 엄포를 놓고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도 출동해보았댔자 제놈들이나 개죽음을 당할건 뻔한 일이라 어쨌으면 좋을지 갈피를 잡을수 없었다.

《토벌》대장놈은 전번 《토벌》에서 졸병들을 거의다 잃고 눈속에 묻혀 얼어죽을번하다가 가까스로 살아온 일이 눈앞에 선히 떠올랐다.

이제는 졸병들속에서 유격대란 말만 들어도 미쳐버리는 일이 드문했다.

이때 책상우에 놓인 군용전화기가 깨여져나갈듯 요란스럽게 울어댔다.

지체말고 《토벌》에 진입하라는 《토벌》사령부의 독촉전화일것이다.

아닐세라 《토벌》대장놈의 수화기를 쥔 손이 후들거리고 얼굴은 혼맹이 빠진놈 모양으로 하얘졌다.

《명령서를 받았는가?》

《하! 방금…》

《천황폐하의 아들답게 이번 <토벌>에서 야마도정신을 발휘하라. 만일 출동을 늦잡거나 뒤걸음치는자, 불평하는 자, 동요하는 자들은 즉석에서 총살하라!》

《하. …》

하는수없이 크게 대답한 《토벌》대장놈은 또 헌병대며 경찰대, 《자위단》까지 총출동하라고 소래기를 질렀다.

이어 각 경찰분서들에서 순사들이 달려오고 《토벌》대를 실은 군용차들이 발동을 걸었다.

개털외투를 든든히 입고 옆구리에 긴 칼을 찬 《토벌》대장놈이 귀신상자인 《가미다나》앞에서 제발 이번 《토벌》에서 제놈의 목숨만이라도 붙어있게 해달라고 딱딱 박수를 치며 빌고있을 때였다.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면서 찬바람과 함께 온통 눈가루를 뒤집어쓴 지구경찰서장이 겁에 질려 들어왔다.

《대장님! 방금 이런것이…》

《그게 뭔가?》

경찰서장놈은 반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떨리는 손으로 종이 한장을 꺼내들었다.

거기에는 이런 글이 적혀있었다.

《우리는 일제를 반대하여 싸우는 조선인민혁명군이다. 우리 부대가 17도구에서 숙영하게 되니 다음과 같은 물품을 시급히 보낼것이다.

만일 이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곧 군사행동을 개시하여 네놈들을 전멸시키겠다.》

아래에 보내야 할 물품명세와 그것을 가져다놓을 장소가 기입되여있고 마감에는 《조선인민혁명군》이라는 글이 큼직하게 씌여있었다.

《토벌》대장놈은 다시한번 《명령서》라고 쓴 글을 읽고는 경련이 일듯 다리를 후들거리며 자리에 주저앉았다.

어떻게 할것인가?

필시 유격대가 사면팔방에서 자기들을 감시하고있을건 뻔한 노릇인데 《토벌》을 가자니 유격대가 무섭고 안가자니 어중이떠중이들속에 어떤놈들이 박혀있겠는지 알수 없었다.

이제는 수차 《토벌》에 참가하여 능구렝이로 변한놈이라 이번 일을 두고 서둘러 결심을 내리지 않았다.

우선 자동차의 발동을 끄게 하고 경찰, 헌병, 《자위단》의 우두머리 몇놈을 제 방으로 불러들였다.

책상우에는 《토벌》사령부의 명령서와 조선인민혁명군의 명령서가 가지런히 놓여있었다.

놈들의 눈길은 혁명군의 명령서에서 당장이라도 벼락치는 조화가 일어날것 같아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있다.

대장놈은 졸개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며 제법 위엄을 돋구느라 헛기침을 깇었다.

《다들 보는것처럼 꼭같은 시간에 우리 〈토벌〉대에는 두통의 긴급명령서가 도착하였다. 방금 군들의 눈으로 보았겠으니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제군들의 의향을 말해보라!》

그런 다음 돼지같은 경찰서장놈의 상통이며 팔자수염의 헌병대 장교, 늘 술을 처먹어 코에 주독이 빨갛게 올라있는 《자위단》장 순서로 한놈한놈을 뚫어져라 쏘아보았다.

모두 꿀먹은 벙어리모양으로 누구도 입을 열려고 안했다.

개같은놈들, 속은 뻔드름한데 입마다 빗장을 지르고있군, 《토벌》때에는 제발 자기를 빼달라고 애걸복걸하던놈들이 한자리에 모여놓으니 아닌보살을 해?…

《모두 벙어리가 되였는가?》

《토벌》대장놈이 꽝 책상을 치며 일어났다.

《본관은 지금껏 제군들을 친형제와 같이 여기며 사지동고를 해왔다. 그러니 지금과 같은 엄숙한 시각에 작전에서 실수가 없도록 본관을 도와나서야 할게 아닌가! 경찰서장! 군이 먼저 유격대의 명령서를 받게 된 경위를 말해주라.》

약삭바른 경찰서장이 상관의 속심을 저울질하며 비대한 몸을 풍선처럼 가볍게 일으켜세웠다.

그리고는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을 간단명료하게 이야기했다.

어제밤 자기들의 관할구역에서 유격대의 한 소부대가 류숙하고간 사건이 발생했다.

유격대는 백성들에게 이 지구의 《토벌》대장은 누구이며 경찰서장은 누구인가, 그중에서 어느놈들이 제일 악질인가를 묻고 수첩에 일일이 적더라는것이였다. 그리고 구장을 불러 이 명령서를 《토벌》대장에게 전하라고 했다 한다.…

유격대의 수첩에 자기 이름들이 올랐다는 소리에 우두머리놈들은 기겁하여 비지땀을 흘렸다.

《유격대가 우리의 일거일동을 낱낱이 알고 또 속속들이 보고있는것이 분명한데 감히 서뿔리 놀았다가는 안될줄로 압니다.》

경찰서장의 말이였다.

대장놈은 여전히 제 속심을 내비치지 않고 《그랬다가 <토벌>사령부에서 이 일을 알면 어떻게 되겠는가?》 하고 넌지시 물었다.

경찰서장놈은 그 물음에 거침없이 대답했다.

《전번 15도구의 일을 잊었습니까? 그때에도 유격대의 명령서가 내려졌는데 그대로 실행하지 않았다가 정말로 유격대

가 나타나 대장이하 몽땅 몰살시키고말았습니다.

유격대는 한번 한다면 하고야마는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껏 입을 꾹 다물고만 있던 헌병대의 장교가 도끼눈을 해가지고 뚜부럭거렸다.

《서장! 그래 당신은 어떻게 하자는거요? 결국 유격대의 명령을 따르자는 소리인데 <대일본제국>의 경찰관으로서 부끄럽지 않은가?》

경찰서장은 코웃음을 쳤다.

《범무서운줄 모르는 하루강아지같은게…》

《뭐라구?》

헌병장교는 권총을 쑥 뽑아들었다.

경찰서장도 네따위는 어림없다는듯 총구를 마주댔다.

서로가 승냥이처럼 으르렁대는 속에 대장놈은 갈피를 잡을수 없었다.

과연 어느 명령을 따라야 하는가?

두 총구가 자기를 지꾳게 겨누고있다고 생각하니 등골이 오싹하고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밤새도록 목에 피대를 돋구는놈들을 가까스로 떼말린후 대장놈은 일단 래일 아침 《토벌》에 나가보기로 락착을 지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대장놈은 눈이 뒤집힐 소식에 접했다. 간밤에 집으로 간 헌병장교가 시체가 되여 나타난것이다. 그자의 등때기에는 《무모하게 날뛰지 말라! 조선인민혁명군》이라고 쓴 경고장이 붙어있었다.

일이 이렇게까지 번져진 정황에서 《토벌》에 나간다는것은 섶단지고 불속에 뛰여드는 격이였다.

대장놈은 오래동안 생각을 굴리던끝에 《옳지!》하고 무릎을 탁 치며 일어섰다.

그 길로 부랴부랴 《토벌》대를 끌고 떠났다.

대장놈은 먼저 척후를 세우고 유격대가 있을만한곳이면 일부러 부대를 멈춰세웠고 돌따서서 딴 길로 접어들기도 했다.

이런 놀음으로 며칠을 보낸 어느날이였다.

《토벌》대가 어느 수림속에 들어서는 순간 골안이 깨질듯한 뢰성벽력이 울려왔다. 일시에 산이 와르르 무너져내리는듯했다.

우뢰소리, 바람소리가 골안을 들부실듯 울리는 속에 산마루에서 별안간 호령소리가 들려왔다.

《이놈들! 모두 머리를 들지 못할가?》

그 소리에 놀라 산마루쪽을 보니 체구가 우람한 백두산대장수님께서 불길이 펄펄 이는 눈으로 제놈들을 내려다보고계시였다.

놈들은 목을 움츠리고 무서워서 부들부들 떨기만했다.

이윽고 백두산대장수님께서는 《토벌》대장놈을 추상같이 꾸짖으시였다.

《어째서 우리의 명령서를 받고도 움직이지 않는가? 명령을 어기는 경우 어떠한 군법이 기다리고있는가를 알려주어야겠는가.… 하긴 아직 하루동안의 여유가 있으니 죄를 묻기는 이르다. 명령을 어기지 말라!》

《토벌》대장놈은 자기들의 목숨을 살려주는것이 너무도 고마와 허리를 접으며 백두산대장수님께 깍듯이 경례까지 붙이였다.

그 길로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황황히 되돌아온 《토벌》

대장놈은 다시 우두머리들을 모아놓고 명령을 하달했다.

《본관은 다음과 같이 명령한다.

오늘 <토벌>대는 모두 차에서 내려 17도구근방까지만 행군해갈것! 대신 군용차에는 유격대가 요구하는 물자들을 실어서 경찰대가 목적지까지 무사히 호송해갈것! 이상!》

《토벌》대장의 명령하달이 끝나자 방안에 모였던 경찰서장이며 《자위단》장 등이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통에 찬바람이 쓸어들어와 책상우에 놓여있던 다른 한장의 《명령서》를 땅바닥에 휴지장처럼 날려버렸다.

결국 《토벌》사령부의 《명령서》는 가랑잎처럼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그날도 《토벌》대장놈은 말을 타고 유격대를 《토벌》한답시고 이리저리 돌아치다가 해가 기울기도전에 되돌아왔다.

상부에는 유격대가 하도 신출귀몰하여 종내 그 행처를 찾지 못했다고 거짓보고를 했다.

한편 무기와 탄약, 식량, 피복물자를 실은 군용차들은 경찰대의 호위까지 받으며 지적된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했다.

조선인민혁명군의 명령을 제 날자에 어김없이 수행한셈이였다.

하늘에서 내려온 백마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전의 나날에 자신의 곁에 두셨던 사랑스럽고 믿음직스러웠던 백마를 두고두고 잊지 못해하시며 회고록에서 다시금 회고하시였다.

눈보라치는 장백과 만주벌을 생각할 때면 언제나 우리 수령님의 안광에 살아서 움직이는 모습으로 떠오르고 힘찬 말울음소리가 귀에 들려오는 사랑스러운 백마!

우리 수령님께서는 늘 위험이 뒤따르고 총탄이 비발치는 전장을 자신과 함께 달려온 믿음스럽고 충직스러운 그 백마를 두고 자신께서 《충견애마》라는 성구를 《충마애견》으로 고쳐부르고싶다고 하시였다.

당시 유격근거지와 장백지구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타고다니시던 그 백마에 대한 기이한 출생담이 여러가지로 돌았다고 한다. 그 백마가 위인을 알아보았고 위인에게 충직스러웠던 령리한 짐승이였기때문이였다.

여기서 하려는 이야기도 그때에 사람들속에 널리 전해졌던 하많은 이야기들중의 하나이다.

예로부터 조물주는 하늘나라의 모든것을 흰빛으로 만들었다. 그 리유를 지금에 와서 밝히기는 어렵지만 세상리치는

본시 밝음과 어둠으로 나뉘였는바 하늘나라에 밝음을 주는 해, 달, 별, 새벽, 노을 등이 있는 까닭이라고 한다.

아무튼 흰구름, 흰눈, 흰안개, 흰서리, 흰이슬… 하늘나라에서 떠가고 움직이며 내리는 모든것은 다 흰빛갈이다. 일설에는 무지개타고 땅우에 내리는 아름다운 선녀들이 살고있는 하늘궁전도 흰옥을 다듬어 기둥을 세웠다 하여 백옥경이라 부른다는것이다.

《리조실록》에는 500여년전 전라도 곡성현에 흰까치가 나타났는데 그때 사람들은 흰까치는 천조(하늘나라새)가 분명하며 나라가 홍할 징조라고 큰 경사가 난듯 법석 끓었다고 씌여있다. 옛 문호들도 백학이 나타나면 하늘나라의 신선을 태우고 다니는 선학이 왔다고 축시를 읊었다고 한다.

아마도 흰새처럼 깨끗하고 햇솜같이 부드러우며 옥같은 눈부심이 태초에 세상만물을 창조한 하늘의 아버지인 조물주의 바람이였으리라. …

지금으로부터 퍼그나 먼 어느날의 이야기라 한다.

보름달이 휘영청 밝은 백옥경의 밤이였다.

춘추가 어지간히 높아 이제는 머리에 흰서리가 내리고 이마엔 장미가 수북한 조물주가 무엇을 만드는지 극성을 부리며 며칠낮 며칠밤을 밝히고있었다.

여러 선관들이 물각유주라고 세상만물이 다 제자리에 차있는데 무엇을 그리 만드시는가고 물었다.

조물주는 싱글벙글할뿐 구태여 내막을 밝히려 하지 않았다.

《내 오랜 생각끝에 뜻을 세워 하는 일이니 그리들 알지어다.》

그후 백날이 지나 조물주는 드디여 일을 마치고 선관들을 모두 궁전앞뜰로 불러들였다.

《조물주께서 일을 끝내셨다는군. …우리들에게도 대주지 않고 백날동안 품을 들여 만드신것이니 아마 굉장할게요!》

《그게 어떤걸가요?…》

《글쎄…도무지 가늠이 가지 않는구려.》

선관들은 세상만물을 한순간에 척척 능사로 만들어내던 조물주가 귀한 보석재료들을 가지고 백날치성을 들여 정성껏 만든것이 어떤것일가 하는 호기심을 풀지 못해했다.

드디여 조물주가 말했다.

《저길 보아라!》

조물주가 가리키는 자그마한 단우에 백옥을 깎아 다듬은 귀엽고도 사랑스러운 어린 말이 있었다. 가벼운 탄성이 일었다.

《저건 백마가 아니오이까?》

《정말 볼수록 희한한 말이옵니다!》

선관들은 한결같이 감탄을 아끼지 않았다.

지금껏 조물주가 창조한 세상만물을 수없이 보아오는 그들이였지만 이렇듯 절로 눈부심이 나고 령험이 깃들어보이기는 어린 백마가 처음이였다. 그만큼 조물주가 뜻을 세우고 고심끝에 빚은 창조물이였다. 조물주는 선관들이 보는 앞에서 령험스럽고 귀엽기는 하나 아직은 까딱 움직이지 못하는 어린 백마에게 입김을 불어 생명을 주었다. 그러자 백마는 머리를 주억거리고나서 네다리를 움직이며 걸음을 뗐다.

조물주는 첫 걸음을 떼는 어린 백마에게 넌지시 말했다.

《네 이름은 말이다.》

《말이란 무슨 뜻이옵니까?》

어린 말은 제 이름에 담긴 뜻을 알고저 했다.

조물주는 가슴노리까지 드리운 흰수염발을 쓰다듬으며 가

벼운 웃음속에 대답을 주었다.

《허허허… 말이란 무엇이겠니. 말이란 주인을 태우고다녀야 하며 때로는 무거운 짐을 지고 먼길을 가야 하는 길짐승이다.》

어린 백마는 그래도 리해가 안된다는듯 눈만 크게 떴다.

《너는 장차 커서 이 세상의 모든 말과 수레들을 관리하는 별자리에 가게 된다. 저 하계의 땅세상에서는 그 별을 가리켜 방성이라고 부른다.》

조물주는 어린 말에게 땅세상에서 전해오는 말과 관련한 모든 미풍량속들에 대하여 차근차근 말해주었다.

《해마다 봄이 오면 사람들은 마조단(馬租壇)을 설치하고 너에게 제사를 지내게 된다. 왜냐하면 방성은 곧 말들의 수호신이기때문이란다. 또한 민간에서는 오(午)일은 길일이라고 하여 이날에 장을 담그면 맛이 잘 든다 하며 혼인날 신랑은 반드시 백마를 타야 하는데 그 말이 신부집에 이르러 크게 울면 첫 아들을 낳는다고 기뻐한다. 아무튼 말은 주인에 따라 장수를 태우면 전장을 달리는 군마가 되고 농부의 손에 들면 역마가 되며 초동에게 고삐를 잡히면 무거운 나무짐을 져야 한다.

그러나 이 모든것은 하계의 뭇말들에게 차례지는 운명이거늘 너는 하늘나라에서 태여났으니 마음껏 옥계수 흐르는 물가에서 향기론 풀을 뜯으며 생을 즐기여라.》

이날에 조물주는 특별히 어린 백마를 정히 쓰다듬어주며 너는 장차 세상의 가장 큰 위인을 태우게 하고저 자기가 온 심을 써서 만든 말이니 부디 인사범절을 바로하고 섭생에 절제하며 문과 무를 닦기 위해 힘쓰라고 일러주었다.

그때부터 어린 백마는 들판을 자유로이 다니며 향기론 풀을 뜯고 흰까치와 흰노루들과 함께 어울려 노니였다.

몇해가 지난 어느날 그 백마는 불쑥 조물주를 찾아왔다.

조물주가 보니 백마는 어느새 다 자라서 끼끗하고 억세며 름름한 기상이였다.

《저를 땅세상으로 내려보내주십시오.》

《뭐라구?》

조물주는 놀란 눈길을 들어 한동안 대견하게 변모한 백마를 주시해보았다. 백마는 조물주에게 자기가 땅세상으로 가고저 하는 리유를 이야기했다. 백마가 하늘땅사이를 오가는 선녀들의 말을 들으니 땅세상에 《맑은 아침의 나라》로 부르는 아름다운 나라가 있는데 얼마전 흉포한 도적무리가 이 나라에 기여들어 무고한 사람들을 마구 죽이고있다는것이였다.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장수가 내려가 지금 그놈들을 족치고 있는데 그 장수에게 명마가 없다고 한다는것이다.

《조물주께서는 저에게 생명을 주실 때 무어라고 하셨소이까. 장차 큰 위인을 태우라고 하지 않았나이까. 지금 하늘이 낸 장수가 명마가 없이 전장을 달리는데 저는 옥계수가에서 한가로이 지내고있사옵니다.》

조물주는 백마의 간절한 청을 듣고서도 이윽토록 말이 없다가 이렇게 타일렀다.

《아서라. 땅세상이란 네가 생각하듯 그렇게 쉬이 내려가는곳이 아니란다.》

그리고는 일어나 밖으로 나가는것이였다. 그러나 백마는 이미 결심이 굳어진듯 물러가지 않았다. 저녁때까지 움직임이 없는 백마를 보고서야 조물주는 이렇게 말했다.

《네 결심이 정 그러하다면 막고싶지는 않다. 하지만 너는 이제 내 말을 듣고나면 생각이 달라질것이다.》

《그게 무슨 말씀이오이까?》

《들어보아라. … 언제인가 나에게는 내가 특별히 사랑해온 말이 있었지. 천리마라고… 그 말도 크더니 너처럼 땅세상으로 내려가게 해달라고 졸랐다. 그래서 나는 하늘나라에서 자란 네가 어떻게 땅세상에 내려가 살겠는가고 그리고 지금은 네가 하늘나라에서는 말을 하지만 땅에 내려가면 말뜻도 몰라 말도 못하게 된다. 그러면 네가 다른 말들과는 다른 천리마라는것을 누가 알겠느냐 하였다. 그래도 천리마는 고집을 부리더구나. 하도 그의 부탁이 간절하여 금안장밑에 이 말이 어떠어떠하다는것을 적어 내려보내주었다.

그런데 마침 그 말의 첫 주인이 무던한 농부여서 하늘에서 내려온 말의 뜻을 알고 그대로 키웠더란다. 하지만 천리마는 언제나 살아있지만 농부의 생은 끝이 있는지라 그 농부가 죽고 말은 다른 주인의 손에 넘어가게 되였다.

그 말이 천리마라는것을 알리없는 새 주인은 말을 아무렇게나 대하여 늘 굶주려있었고 언제 한번 속시원히 울어볼수도 네굽을 치며 날아볼수도 없었다. 그러니 여느 뭇말보다도 못하게 여위였다. 그러자 주인이 채찍을 들고와서 하는 말이 <천하에 말이 없도다.> 하질 않았겠니. 참말로 슬픈 일이다. 천하에 말이 없는가, 말을 아는 사람이 없는것인가.》

여기까지 말하고난 조물주는 백마의 의향을 다시 물었다.

《그래도 너는 땅세상으로 갈수 있느냐?》

백마는 한발을 성큼 내짚으며 대답했다.

《그 말은 참으로 교훈이로소이다. 그러나 지금은 경우가 그때와는 다르오이다.

하늘이 낸 위인이 그곳에 내려가 싸우고있는데 어찌 그 위

인의 눈이 저를 몰라보겠나이까. 내려가게 해주옵소서!》

조물주는 백마의 간곡한 청을 이기지 못해 그가 땅세상으로 내려가는것을 승낙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너를 보내기 안심찮아한것은 그런 훌륭한 위인을 과연 잘 모시겠는가 하는 우려감이 앞섰기때문이니라. 자고로 명인이 있어 명마라 일렀거늘 너는 위인을 모시고 받드는 일에 만의 하나라도 실수가 없게 하며 위인의 뜻을 티끌만치라도 흘리거나 가벼이 대하지 말라. 자 그럼, 어서 떠나거라.》

백마가 처음 내린곳은 사시장철 머리에 흰눈을 떠이고있는 백두산이요, 백두산은 이 나라의 조종이라 이곳에서 천지의 맑은 물로 목을 추기고 다시 한걸음 내짚으니 관모봉과 칠보산의 그 중간이였다.

백마는 산천을 두루 살피며 하늘에서 내리신 위인을 찾아 다니던중 함경북도 경원군 부근에서 이른새벽 한 농부를 만나게 되였다.

그 농부는 백설같이 희고 눈부신 백마를 보는 순간 자기가 꿈속에 있는가싶어 슬며시 제살을 꼬집어보았다.

꿈은 아니였다. 농부는 속으로 환성을 올렸다.

(이 말은 분명 하늘이 내린 말이거니 내 기꺼이 이 말을 이끌고 백두산대장수님을 찾아가리라.)

농부는 백마를 정한 햇풀밭에서 풀을 뜯게 하고는 얼마 안되는 귀밀자루를 털어 존귀한 손님 대하듯 정성을 다했다.

그런데 이 외진 산골에도 왜놈들이 나타났다. 백마에 대한 소문을 듣고 달려들었다고 간파한 농부는 사생결단하고 백마를 구원하리라 결심했다. 그는 백마의 고삐를 단단히 잡고 으슥한 골짜기와 험한 벼랑을 톺아올랐다. 그때 자기가 떠나

온 마을에서는 왜놈들의 로략질과 행패질이 시작되고 농부의 집이 불타고있었다.

그렇게 골을 빠지고 막아서는 가파로운 벼랑도 톺아 드디여 백두산을 마주한 농부는 조종의 산을 향해 깊이깊이 머리숙여《장군님, 이 백마를 받아주소서.》하고 축수를 올리고는 다정히 백마의 등을 떠밀어 백두산으로 보냈다.

령리한 백마는 그의 간절한 소원을 알았다는듯 쏜살같이 내달려 자취를 감추었다. 왜놈들은 그 농부를 잡아다 백마를 내놓으라고 차고 때리며 며칠간을 가두어놓고 행패를 부렸다.

그 어혈로 이 세상을 하직하게 된 그 순간에도 농부는 백마를 생각하며 백두산을 보고 또 보았다.

백마는 이렇듯 한 농부가 목숨을 내건 길안내를 받아 곧장 백두산대장수님이 계시는곳으로 한달음에 달려갔던것이다.

백두산대장수님께서는 대번에 이 백마가 세상에 둘도 없는 명마임을 알아보시였다.

항일전의 그 나날 백두산대장수님께서는 백마를 친혈육처럼 사랑하시고 극진히 보살펴주시였으며 백마 또한 나라찾는 성전을 승리에로 이끄시는 조선인민의 태양이신 백두산위인을 모시고 전장속을 누빌 땐 온몸에 저도모를 백배의 힘이 솟아 인간세상엔 다시 없을 준마로, 사랑받는 충마로 자랑떨치게 되였다. 일설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백마를 자신의 곁에 두시고 축지법을 쓰실 때는 말도 함께 지맥을 주름잡아 달리도록 다정히 이끌어주시였다고 한다.

그리하여 위인의 손길에서 충마로 그 이름 세상에 알려질수 있어 백마에 대한 이야기가 더 보태여지고 가지를 쳐 더욱 풍부한 전설로 전해지고있는것이다.

동 귀 신

아시아의 《맹주》가 될 어리석은 망상에 고무풍선처럼 부풀어있던 일제는 광대한 중국대륙을 깡그리 삼켜보려고 마지막발악을 하고있었다. 그런데 만주의 **김일성**장군유격대에 번번이 발목을 잡혀 아우성을 쳤다.

김일성장군유격대를 《소멸》하지 않고서는 저들의 야망을 실현하기 어렵다는것을 깨달은 일제는 제놈들의 군대, 경찰들을 총동원하여 일격에 없애버릴 《동기대토벌》작전을 폈다.

그해 겨울은 수십년이래 처음보는 강설로 매일과 같이 눈보라가 기승을 부렸고 령하 40도를 오르내려 얼어죽은 짐승들의 시체가 발에 걸채였다.

왜놈들은 제놈들의 《토벌》작전으로 하여 유격대는 《얼어죽고말것》이라고 장담했다.

어느 한 지구《토벌》대를 책임진 하시모도사령관은 유격대소부대의 꼬리를 쥐자 내심 쾌재를 올렸다.

이 겨울은 우리 황군에게 행운의 겨울이 될것이다.

온몸을 눈만 내놓고는 털로 칭칭감은 왜놈들은 검질기게 유격대의 뒤를 쫓았다.

그렇게 쫓느라면 언젠가는 유격대가 허기지고 지쳐 쓰러져

얼어죽고말것이라고 하시모도는 생각했다.

유격대도 인간이다. 그럴진대 먹고 입어야 할것은 명백하다. 그런데 지금 유격대의 형편은 어떠한가. 저들의 형편에 비해볼 때 너무도 곤난한 처지에 놓여있다.

검질기게 꼬리를 쥐고 놓지 말라!

박달나무도 쩡쩡 얼어터지는 어느날의 깊은 밤 부관이 흐뭇한 보고를 가지고 들어왔다.

《보고! 또 한명의 유격대가 쓰러져 부축되는것을 척후대가 발견했습니다.》

《그래!…또 한명이라…》

어제도 그런 보고가 들어왔었다. 분명 유격대에 식량이 떨어진것이다. 먹지 못하고서야 몇날을 갈텐가.

《좋아, 좋아. 우등불을 피우고 몸들을 녹이게 하라.》

《핫!》

얼마 안있어 《토벌》대의 숙영지들에서 모닥불들이 여기저기 생겨났다. 온종일 몸들이 얼어든 졸병들이 짹짹 고아대며 서로 불을 쪼이겠다고 아귀다툼이다.

그런데 별안간 사방에서 콩볶듯하는 총소리가 터지더니 귀전으로 탄알이 쌩쌩 지나갔다.

《유격대다!》

그자리에 머리를 구겨박는놈, 산으로 들구뛰다 꼬꾸라지는놈, 공중에 대고 헛총질을 하는놈 아비규환이 일었다.

총소리가 멎은 뒤에도 어디서 또 유격대가 나타날지 몰라 온밤 불도 피우지 못하고 지내였다.

어찌된 일인지 밤이 되여 불만 피우면 어김없이 유격대가 나타나는것이였다.

불을 못피운지도 며칠이 잘되였다. 이제는 밤잠도 제대로 잘수가 없었다.

그러나 하시모도는 새벽이 되면 영낙없이 졸병들을 다시 일으켜세워 《토벌》에로 내몰았다. 이번에는 기어코 유격대를 전몰시키고말겠다는 야심이 가슴속에 홰불처럼 활활 타오르고있었다. 졸병들이 눈속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얼어죽는다고 우는 소리를 해도 하시모도는 검질긴 추격을 멈추지 않았다.

하시모도는 장교들에게 이렇게 지껄이군했다.

《조금만 더 참아내라. 우리 형편이 이러하니 유격대는 곱절이나 더 지쳤을것이다. 며칠째 난알구경도 못하였으니 이제 얼마 못가서 다 쓰러지고말것이다. 자, 행군속도를 높이라.》

하시모도사령관은 한편 척후대에 유격대의 꼬리를 바싹 따라서라고 명령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척후대에서 들어온 보고에 그는 아연해지지 않을수 없었다.

《보고! 유격대는 지금 오락회를 벌리고있습니다.》

《오락회?…》

하시모도는 머리를 흔들었다. 유격대가 며칠째 잠을 못자더니 정신착란이 온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는 다 쓰러질 때가 됐으리라 믿었는데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있다니… 아니, 저들이라고 무쇠로 만든 인간이 아닐진대 어떻게?

하시모도사령관은 그길로 척후대가 차지한 계선으로 나갔다. 제눈으로 직접 확인해보지 않고서는 믿기 어려웠던것이다.

그곳에서 유격대의 숙영지가 지척인듯 보였다. 우등불이 환하게 타오르는 속에서 하모니카소리가 울리고 그 박자에 맞춰 춤을 추고 돌아가는 유격대가 보였다. 이거야말로 귀신이 곡할 노릇이다.

하시모도는 자기가 꿈을 꾸고있는것이 아닌가 생각했다. 꼭 어떤 귀신에게 홀리운것 같은 미심쩍은 예감이 등골을 선뜩하게 했다.

자기들은 유격대가 무서워 불도 못피우고 추위에 떨며 이 밤을 새우고있는데 유격대는 태평스럽게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하시모도사령관은 겨우 자기 몸을 가다듬고 숙영지로 돌아왔다. 여기저기 되는대로 쪼그리고 앉거나 자빠져 떨고있는 졸병들이 발에 걸채였다.

가까이에서 소곤소곤 말소리가 들려왔다.

《하라다, 마사무네, 임자들 귀신이야기 아는가?》

《귀신?!》

《무슨 귀신이란말인가?》

《이 만주땅엔 귀신이나 아주 많다. 산에 가면 산귀신이 있고 물있는곳에 가면 물귀신이 있다. 모두 사람을 잡아먹고 산다. 우리 황군만을 잡아먹는단말이다.》

《재수없게스리 무슨 왕청같은 귀신소린가?…》

듣는놈도 무섭증이 나는지 불평했다. 그러나 귀신소리를 꺼낸놈은 계속 지껄여댄다.

《그러나 그쯤한건 념려할것 없다. 이런 밀림에서 제일로 무서운것은 동귀신이다. 우리 사령관님이 언제인가 수하병졸들을 동귀신에게 다 먹히우고 가까스로 살아남은걸 아는가?》

하시모도사령관은 저도모르게 손이 칼집에 갔다. 순식간에 여기에 모인놈들의 목을 뎅겅뎅겅 베여버리고싶었다. 그러나 그놈들이 하는 이야기가 가슴을 섬찍하게 하는 그 무엇이 있어 가까스로 참아냈다.

참으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때 하시모도는 《토벌》대를 이끌고 지금처럼 유격대를 찾아 헤매던중에 부후물등판에서 **김일성**장군부대의 발자국을 발견했다. 그것을 목표로 기를 쓰고 추격전을 벌렸다.

꼬박 사흘간을 잠도 못자고 먹지도 못하고 피오줌을 싸면서.

그런데 방금 지나간듯한 발자국은 있으나 유격대는 통 보이지 않았다. 어떻게나 정신없이 따라왔는지 자기들은 깊고 깊은 원시림속에 들어와있었고 향방도 가늠할수 없었다. 달빛도 별빛도 그밤에는 사라지고말았다.

마침내 그 발자국마저 없어졌다.

하시모도는 자기가 귀신에게 홀리웠다고 생각했다.

하늘로 올랐는가? 땅으로 잦아들었는가?

사방에선 우-우- 하는 승냥이울음소리만이 들려왔다.

이때였다. 갑자기 앞쪽에서 걸어가던 한 졸병이 윽 하며 외마디비명을 지르고 자빠지는것이였다.

《뭐야?》

하시모도가 졸병을 일으켜세웠다.

그런데 졸병놈은 반정신이 나갔는지 손가락으로 밀림속 한곳을 가리키며 《귀신이다! 동귀신이다!》하고 소리를 질러댔다. 하시모도는 무섬증에 오싹했으나 참고견디며 졸병놈의 따귀를 쳤다.

《귀신이나 무슨 귀신이 있다고 그러는가?》

《사… 사령관님! 저기 흰옷입은 귀신이…오락가락합니다요.》

《흰옷입은 귀신?》

하시모도는 사방을 깐깐히 둘러보았다.

분명 밀림속 나무들사이로 무엇인가가 어슬렁어슬렁 걸어다니는듯했다.

백곰인가? 하지만 곰같지도 않았고 사람같지도 않았다. 굳이 말해야 한다면 눈사람이라고 해야 옳을것인데 바람처럼 오락가락하는것이 이상했다.

이때 하시모도의 뇌리를 치는 생각이 갈마들었다.

언젠가 선임《토벌》사령관이 자기에게 들려준 말, 백두산대장수는 천변만화의 조화를 부리는데 눈덩이 하나를 창턱에 빚어놓고 능히 생명을 불어넣어 일본군대를 쓸어버리게 하신다는것이였다.

그러니 필경 저 눈사람들 아니 동귀신들은 백두산대장수가 조화를 부리는것들이다.

하시모도는 저도모르게 권총을 뽑아들었다.

《야, 저기 어슬렁대는것들은 모두 우릴 얼궈죽이려는 동귀신들이다. 모두다 일제사격!》

《토벌》대는 절망에 빠져 몸부림쳤다. 어떤자는 공중에 대고 총을 쏘는가 하면 또 어떤자는 신령님에게 살려주십사 빌고있었다.

그밤 아닌게아니라 동귀신이 덮쳐들었다. 하여 부대의 과반수가 얼어죽고만것이다.

하시모도는 죽은자들의 털외투를 벗기고 그것을 뒤집어쓴

채로 몇 안되는 살아남은자들과 함께 수림을 빠져나왔다. …

지금에 와서 생각만해도 소름이 끼치는 일이였다.

그 불쾌한 일을 되살려준 졸병놈들이 괘씸했다.

정말로 그때의 그 동귀신이 우리를 노려보고있는것이 아닐가. 하시모도는 다시 사위를 둘러보았다. 저 어둠에 덮인 장막의 한쪽에 그때의 동귀신이 웅크리고있는줄 누가 알랴.

생각할수록 머리칼이 쭈볏 일어서는것 같았다.

며칠낮 며칠밤을 유격대를 《추격》했다. 아니 끌려다녔다고 해야 옳을것이다.

혹 이것이 동귀신의 작간이 아닌지. …

이제는 유격대를 피해 돌아설래야 돌아설수도 없는 신세였고 우등불조차 피울수 없는 형편이였다.

불을 지필라 하면 어느새 유격대가 나타나 불벼락을 안기군했던것이다.

울며 겨자먹는다고 싫든좋든 공손하게 끌려다니는 신세가 되고만것이다.

유격대의 숙영지에선 우등불이 활활 타오르고 노래소리가 울리지만 하시모도의 《토벌》대에서는 동귀신에게 홀리워 얼어죽는 졸병들이 매일밤 생겨나기 시작했다.

하시모도는 자신도 이제는 기력이 매우 쇠잔해지고있음을 느꼈다.

아, 이렇게 죽고마는가. 부귀와 출세, 승진일로의 무지개꿈은 과연 어디로 사라져버렸는가?

어느날 밤 유격대가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공포에 질려 보고섰던 하시모도는 온몸이 땅속으로 잦아드는 환각에 스스로 주저앉았다. 그러다가 버쩍 눈을 떴다.

순간 보기에도 차디찬 얼음발수염에 얼음눈섭을 한 동귀신이 하시모도를 향해 히물히물 웃으며 다가오고있었다.

《다… 당신은 누구요?…》

하시모도는 입안이 얼어들어 겨우 이 말을 떠듬거렸다.

《난 이 땅에 사는 동장군이다. 너희들의 말로는 동귀신이고… 너희들은 왜적의 무리로서 신성한 이 땅에 더러운 자욱을 남겼은즉 살아서 돌아가길 바라지 말아라. 이것은 백두산대장수님께서 나에게 직접 주신 과업이다.》

하시모도는 동귀신의 손에서 몸을 빼려고 필사적으로 움직였지만 안타깝게도 손가락 하나 움직여지지 않았다.

아, 동귀신이라는게 무언가 했더니 이런것이구나. 우리 황군만을 데려간다는 동귀신…

하시모도는 종시 눈을 뜨지 못하고 《동귀신》의 손에 고스란히 운명을 맡기고말았다.

그후 왜놈들속에서는 동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한입 두입을 건느는 과정에 보태여지고 가지를 쳐서 누구나 제가 본듯이 말을 하고 제가 겪은듯이 말을 옮기군했다고 한다.

천벌받은 왜천황

백두산대장수님께서 동에 번쩍, 서에 번쩍하시며 신출귀몰의 전법으로 왜놈들을 족치시자 조선땅은 물론 장백땅과 멀리 섬나라(일본)에까지 그 명성이 퍼져나갔다.

농군들은 밭머리에서, 로동자들은 일터에서, 징용터에서 지어는 왜놈들에게 학도병으로 끌려간 병영에서도 이런 말이 새여나왔다.

《대장수님께서 천벌을 내리시면 그놈은 영낙없이 죽고만다. 길을 가면 길을 가다 죽게 하시고 밥을 먹으면 밥을 먹다가 죽게 하시고 잠을 자면 잠자리에다 피를 쏟고 죽게 하신다.》

《어제는 관동군의 한 대장놈이 비밀지하실에서 덜컥 숨졌는데 대장수님의 천벌을 받아 뒈졌다드라. 그놈은 천벌을 피하려고 제 집밑에 지하실을 파놓고 머리말엔 꼭 총을 베고 자댔는데 총끝에서 물이 줄줄 흐르고 목구멍에서 피가 흘러나와서 뻐드라져 죽었다드라.》

그런데 이런 말의 뒤끝에는 항상 왜놈천황에 대한 소리가 뒤따랐다. 그것인즉 백두산대장수님께서 아무날 아무시에 왜놈천황이 죽으리라고 예언하셨다는것이였다.

이 말은 곧 구중궁궐 깊은곳에 박혀있는 왜놈천황의 귀에

까지 전해졌다.

천황놈은 그 말을 듣자마자 게거품을 물고 썩은 통나무처럼 꽝 나자빠졌다. 그리고는 련 이틀간이나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였다.

갑자기 천황이 쓰러졌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막료대신들은 저저마다 궁성으로 찾아와 머리를 조아리였다.

온 하루 무릎을 꿇고 앉아있으려니 허리가 끊어지는것 같고 목이 뻣뻣해왔다.

그러나 누구 하나 피로한 기색을 보이지 않고 마치도 무릎꿇림경기에 나온것처럼 돌조각인듯 버티고있었다.

그러면서 남몰래 품어보는 생각들은 천황이 정말로 백두산대장수의 천벌을 받아 숨을 거두는것이 아닌지 모른다는것이였다.

그보다는 이제라도 천황이 벌떡 깨여나 자기를 륙군대신으로 임명하여 백두산으로 보내지 않겠는가 하는 위구심이였다.

아닌게아니라 조정에는 여러해째 륙군대신의 자리가 비여있었다. 나라에는 하루라도 군사를 거느린 장수가 비여서는 안되는 법인데 모두 그자리에만은 기를 쓰고 안앉겠다는것이였다.

(하루빨리 이 천황을 보위할 륙군대신을 골라야 한다.)

그리하여 이틀만에 정신을 차린 천황놈은 자리에서 일어나 신하들을 궁성에 불러들였다.

그러나 들어서는놈들마다 꿀먹은 벙어리가 되였는지 아니면 병신흉내를 내는지 백두산대장수의 이야기만 꺼내면 이상한 말과 행동들을 하군하였다.

천황놈은 대신들의 그러한 행동에 천둥같이 화가 나서 또

다시 소리를 질러댔다.

《이 밥병신같은놈들아, 그래 이 천황페하가 백두산대장수로부터 천벌을 받게 되였는데 네놈들은 한몸 나서서 싸워줄 생각은 하지 않고 멀뚱멀뚱해서 빤히 쳐다만 보고있느냐? 이 천하에 고약한놈들같으니라구. 보기 싫다! 썩 사라지지들 못할가.》

이리하여 궁성에 들어갔던 막료대신들은 우르르 밀려나갔다. 물론 궁성에서 쫓겨나오는 길로 벼슬감투들은 다 빼앗겨버렸다.

다음날부터 권력을 차지하려는놈들이 궁성으로 하나둘 모여들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다른 자리는 다 탐을 내며 머리를 조아리지만 륙군대신이 되게 해달라는놈은 하나도 없었다.

그것은 륙군대신이 되면 천황놈의 불같은 독촉을 받고 백두산대장수와 싸우려 조선으로 건너가야겠는데 그것은 대신자리가 아니라 목숨을 여벌로 하나쯤 더 주며 가라고 해도 질색할노릇이였다.

《그래 이 조정에는 륙군대신이 되여 천황을 받들어줄 충신이 하나도 없단말이냐?》

천황놈이 들어오는놈마다 한놈한놈 눈자국이 날만큼 쏘아보았으나 선뜻 《예-》하고 일어서는자가 없었다.

《정말 아무도 없느냐?》

다시 버럭 소리를 질렀으나 여전히 꿔온 보리짝들처럼 모두 등신같이 앉아있었다.

《좋다. 네놈들도 썩 나가라!》

천황놈은 대신들을 잡아먹을듯이 승냥이처럼 으르렁댔다.

그런데 며칠후 궁성앞에 40대초반의 한 장교가 나타났는데 천황페하께 청을 드릴게 있어 왔다는것이였다.

《그래 청이 뭐라더냐?》

천황놈은 시답지 않게 물었다.

그런데 시종무관의 말이 대문가에 서있는 장교가 자기를 륙군대신으로 임명하면 천황페하를 위해 《멸사봉공》하겠다는 청원서를 드리러 왔다는것이였다.

《뭐? 륙군대신을 시켜달라구, 어서, 어서 들어오라고 해라.》

이윽고 그 장교가 들어왔다. 그러자 천황놈은 죽은 제 애비라도 만난듯 벌떡 일어나앉았다.

《경이 스스로 륙군대신이 되기를 자청하였는가?》

《하!》

보매 얼뜨기나 비겁쟁이같지는 않았다.

그런데 어떻게 되여 이런 햇병아리가 누구나 다 마다하는 륙군대신자리를 스스로 넘겨다보며 불나비처럼 날아들었는가? 단순히 권력욕때문인가 아니면 백두산대장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도 못들은것인가?

아무튼 그런것들은 상관없었다.

모두가 자라목처럼 움츠리면서 외면하는 륙군대신자리를 스스로 자청해나선자가 생겼다는것이 기쁘기 그지없었다.

이리하여 그 사나이가 궁성을 나설 때에는 벌써 그의 어깨우에 륙군대신의 금패견장을 얹어주었고 천황이 제손으로 직접 《어주》까지 부어준것이였다.

《이젠 백두산대장수의 천벌을 피하게 되는가부다.》

이날 천황은 륙군대신을 임명한것이 너무도 좋아 침대에

누워 이런 생각을 여러번 굴리였다.

이어 신임륙군대신이 대병력을 거느리고 조선으로 건너갔고 백두산일대에 당도했다는 전보문이 속속 도착하였다.

《황군이 내도산일대를 수색》

《백두산지구 완전봉쇄》

《백두산대장수의 거처지를 련일 찾고있음》

천황놈은 매일같이 책상우에 수북이 쌓이는 전보용지들을 읽어보며 언제면 륙군대신이 백두산대장수와 싸워이겼다는 소식이 날아오겠는가를 애타게 기다렸다.

(백두산대장수와 싸워이기지 못하면 내 목숨은 끝장이다!)

천황은 요즘 웬일인지 잠자리에 들면 이상한 꿈이 나타났고 식은땀이 등골로 흐르는 악몽이 계속되였다.

그런 밤마다 시종들에게 륙군대신의 《승전보고》가 왔느냐고 물었다.

그러던 어느날 천황은 잠간 낮잠에 들었다가 이상한 꿈을 꾸게 되였다.

생시인지 꿈인지 알수 없으나 자기가 여름휴양차로 조선의 백두산에 가있는것이였다.

내가 어떻게 여기에 와있는가.

자기는 늘 여름휴양을 어느 온천이나 부사산에서 지내군하였는데 오늘은 어떻게 백두산으로 오게 되였는가.

《게 누구 없느냐?》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머리를 내미는놈이 하나도 없었다.

《이놈들, 천황폐하를 혼자 두고 다들 어디로 갔단말이냐?》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사방을 휘둘러보아도 좌우수림은 눈에 덮여 태고연할뿐 새소리, 바람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이상한 일이였다. 조선땅은 이미 오래전에 일본에 《합병》되여 이 산도 분명 천황의 땅일텐데 신하도 궁녀들도 없이 홀로 이 백두산에 제몸이 와있다는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그렇지만 분명 지금의 제몸은 백두산에 와있는것이 사실이였다.

풀수 없는 의문들이 련속 꼬리를 무는 속에 펀뜻 뇌리를 치는 생각이 있었다.

(아! 여긴 백두산대장수가 있는곳이 아닌가. 그렇지, 생각난다. 그러니 내가 백두산대장수의 천벌을 받기 위해 잡혀온 모양이다.)

그러고보니 어째서 자기몸이 이 백두산에 와있는지가 짐작되였다.

아, 내 꼴이야!

백두산대장수와 싸우라고 백만 관동군과 경찰대, 위만군까지 다 내주었는데 그 알량한 륙군대신놈은 어디로 가고 애매한 내가 그놈대신 이곳에 붙잡혀왔는가.

생각할수록 기가 막히고 억울하였다.

이런 생각을 하고있는사이 갑자기 백두산에서 천기조화가 일어났다. 그것은 천황이 살아오면서 처음 보는 광경이였다.

지동치듯 바람이 불고 폭설이 내리는가 하면 하늘땅이 뒤집힌듯 번개가 치고 우뢰가 울부짖었다.

그런데 이 무서운 자연의 광란을 피하려 해도 어찌된 일인지 도저히 몸을 움직여낼수가 없었다.

《아이쿠, 내가 정말 천벌을 받았구나!》

…

천황은 요즘 이런 꿈을 하루에도 두세번씩 꾸고있었다.

어떤 때는 잠자리에 들면 어제의 꿈이 련속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그때마다 천황은 륙군대신더러 빨리 《승전보고》를 올려보내라고 독촉을 하군했다.

하지만 매일같이 사로잡고 쏴죽이고 불태워죽였다는 륙군대신의 《전과》와는 달리 백두산장수들이 더 많이 생겨났으며 도처에서 황군을 무찌르고있다는 불길한 소식이 날아들었다.

이제는 자기의 운명을 륙군대신에게 맡길수 없다는것이 명백해졌다.

《밥통! 머저리! 그 륙군대신인지 뭔지하는놈을 당장 파직시키라!》

생각같아서는 당장 이런 말을 하고싶었으나 그나마 그런 놈도 없어 울며 겨자먹기로 그냥 둬두는길밖에 없었다.

《그러니 이젠… 백두산대장수의 천벌을 피할수 없단말인가. 도대체 천벌의 그날은 언제인가?》

그때부터 천황놈은 아예 바깥출입을 금하고 궁성안은 물론 궁성밖을 철통같이 대부대로 에워싸게 하였다.

하루하루가 불안속에 흘러가던 어느날이였다.

하루는 궁성대문에 놓인 우편통에 이상한 편지 한통이 날아들었다.

시종이 얼른 그것을 천황에게 가져갔다.

《그래 무슨 편지냐?》

시종은 눈알을 디룩거리며 느릿느릿 말을 이었다.

《폐하, 하도 이상한 편지여서 이렇게 가지고 들어왔소이다.》

《그게 뭔데 그러느냐?》

시종이 편지를 펼쳐들었다.

《페하, 이안에 글은 한자도 씌여있지 않고 무슨 그림이 그려져있는데 소가 스무마리이고 새가 세쌍 그려져있사옵니다.》

천황도 시종의 말에 대꾸가 없었다.

《허… 짐도 쉬이 알수 없는 그림이로구나. 어째서 하필이면 이 짐이 있는 궁성으로 이런 그림을 넣어보냈겠느냐. 필유곡절이 있을테니 나라안의 무당, 점쟁이들을 모두 불러들여 풀이하도록 하라.》

그리하여 온 일본땅의 무당, 점쟁이들이 인력거에 실려 궁성으로 모여들었다.

이렇게 하루낮동안을 점패를 흔들던 한 판수무당이 산통을 내려놓으며 《이건 어려운것이 아니옵니다. 이 그림은 어느 기인이 앞날을 예언하여 그린것인데 이걸 풀이하면 소화 20년에 새 세상이 온다는 뜻이옵니다.》하고 말하였다.

《뭐라구?》

천황은 판수무당의 말을 듣자마자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분명 백두산대장수임을 믿어의심치 않았다.

《이놈들아, 그건… 그건 백두산대장수가 나에게 내릴 천벌날자다.》

천황은 이 말 한마디를 남기고 기절해버렸다.

아닌게아니라 소화 20년은 백두산대장수님께서 왜놈을 치고 조국해방을 가져오신 1945년이니 일본천황에게는 천벌이 내린 날자가 틀림없었다.

물건도 《승천입지》한다

신출귀몰하는 **김일성**장군항일유격대한테 련속 된타격을 받고 악에 받친 왜놈들은 관동군과 조선주둔군은 물론 산림경찰과 위만군까지 유격대《토벌》에 총동원하였다.

그무렵 대마록구가 또 조선인민혁명군의 습격을 받고있다는 급보에 《토벌》사령부는 온통 벌컥 뒤집혔다.

《빨리빨리 출동하라!》

《토벌》대사령관은 화룡현과 안도현 그리고 조선주둔군 병력까지 대마록구로 총출동시켰다.

동만땅은 벌둥지를 쑤셔놓은것 같았다.

여러 현의 《토벌》대들이 대마록구에 계속 들이닥쳤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었다.

혁명군은 감쪽같이 쳐들어와서 총 한방 쏘지 않고 순식간에 《토벌》대본부와 병실, 경찰서 그리고 앞뒤산의 포대마저 완전히 제압한후 목재소창고에 있는 식량과 천, 의복들을 로동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나누어주며 정치사업까지 벌리고는 막대한 량의 로획물자를 가지고 유유히 사라졌다는것이였다.

《빨리 유격대를 추격하라!》

현지에까지 달려나온 《토벌》대사령관이 유격대를 또 놓

쳤다고 길길이 뛰며 소리소리 질렀다.

대마록구에 몰켜들었던 수많은 《토벌》대놈들은 부랴부랴 유격대를 뒤따르기 시작하였다. 유격대가 아무리 축지법을 쓴다고 하여도 숱한 식량과 무기들을 가지고 방금 떠났다고 하니 이 깊은 눈속에서 빨리 빠질수 없다고 타산한 《토벌》대사령관은 기를 쓰고 졸병들을 내몰았다.

유격대가 철수하였다는 눈길은 점점 깊은 수림속으로 들어갔다.

좁은 외통길은 가파로운 올리막을 오르기도 하고 급한 내리막을 내리기도 하면서 끝없이 이어져있었다.

날이 어두워 앞이 보이지 않았으나 놈들은 홰불을 켜들고 악착하게 추격하였다.

놈들은 시간적으로 보나 달려온 거리로 보나 얼마 안가면 유격대를 따라잡을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며 눈우에 난 발자국을 따라 허둥지둥 달렸다.

사실 이날 대마록구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한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는 기관총을 포함한 수십정의 총과 10여상자의 탄알 그리고 100여벌의 군복과 700여포대의 밀가루를 비롯한 막대한 량의 물자를 로획하여 가지고 떠났었다.

로획물자가 어찌나 많았던지 혁명군대원들과 자진하여 나선 로동자들이 한짐씩 짊어지고도 남아 목재소에서 자동차운전사로 일하는 백계로씨야인들에게까지 한짐씩 지워서 데리고갔었다.

그 인원이 무려 수백명에 달하여 대오가 끝에서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그러니 유격대가 아무리 빨리 간다고 하여도 얼마든지 따

라잡을수 있었다.

그런데 《토벌》대가 숨이 턱에 닿아 헐레벌떡거리며 죽을 힘을 다해 추격하였으나 유격대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도대체 이떻게 된 일인가. **김일성**장군유격대가 《축지법》을 쓴다고 하더니 정말 그 술법을 쓴게 아닐가?

그렇다면 무거운 짐을 벗어놓고 갔을텐데 그 물건들은 어떻게 했을가?

사방을 둘러봐도 그 물건들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짐을 지고 유격대를 따라갔다던 조선인로동자들과 백계로씨야인들은 또 어디로 갔을가? 그들까지 《축지법》을 썼을가?

련속 의문은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유격대를 빨리 추격하라고 졸병들을 다그어대는 《토벌》대사령관의 왜가리청이 밀림을 울리였다.

그러나 아무리 빨리 달려가도 짐을 지고갔다는 유격대를 도저히 따라잡을수가 없었다.

그러느라니 어느덧 날이 희붐히 밝아오기 시작하였다.

멀리 앞에 있는 고개너머에서 모락모락 연기가 피여오르는것이 보였다.

(옳지. 공산군이 아침식사를 준비하느라고 우등불을 피운게 분명하다.)

이렇게 생각한 《토벌》대사령관은 《내 명령을 들으라. 저 고개밑에 공산군이 있다. 쥐도 새도 모르게 감쪽같이 포위하라!》하고 소리쳤다.

산병진을 이룬 왜놈들은 도적고양이처럼 살금살금 고개너머에로 은밀히 접근하였다.

그런데 고개마루에 올라선놈들은 웬일인지 서로 마주보며 눈만 껌벅거렸다.

고개밑은 제놈들이 떠났던 바로 그 대마록구목재소였던것이였다.

어떻게 된 일인가? 참으로 기가 막힐노릇이였다. 밤새 유격대를 추격한다는것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으니 귀신에게 홀리운것만 같았다.

《**김일성**부대의 마술에 걸렸다!―》

《토벌》대사령관은 이렇게 비명을 지르더니 털썩 모로 나가 넘어졌다.

졸병들은 **김일성**장군유격대가 《승천입지》한다더니 그게 사실이로구나 하면서 하나, 둘 풀썩풀썩 눈우에 주저앉았다.

모두 어디로 갔을가? 하늘로 올랐는가 땅으로 잦았는가.

왜놈들은 아무리 궁리를 쥐여짜도 어떻게 된 일인지 도저히 알수가 없었다.

며칠이 지난 어느날 놈들은 짐을 지고 유격대를 따라갔다가 돌아온 로동자들을 통해서야 자세한 내용을 알게 되였다.

그들의 말에 의하면 순식간에 대마록구전투를 끝낸 혁명군은 숱한 로획물자들을 가지고 로동자들과 함께 마을에서 철수하였다고 한다.

맨앞에는 **김일성**장군님께서 혁명군대원들과 함께 숫눈길을 헤치시며 걸으시였고 그뒤로 로동자들이 따라섰다.

얼마나 갔는지 고개를 몇개 넘었는데 **김일성**장군님께서 행군대오에 휴식명령을 내리시였다.

로동자들은 지고온 짐들을 내려놓고 휴식을 하였다. 캄캄한 밤이여서 그들은 자기들이 쉬는곳이 어디인지 알수가 없

었다.

얼마간 앉아서 땀을 들이고있는데 로동자들이 있는곳으로 혁명군대원들이 찾아왔다.

《무거운 짐을 지고 오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인사를 하며 로동자들이 내려놓은 짐들을 지는것이였다.

《일없수다. 혁명군어른들이 진 짐도 많은데 어떻게 이것까지…》

로동자들은 자기들이 끝까지 짐을 지고 가겠다면서 굳이 사양을 하였다.

나라를 찾으려고 산에서 고생을 하는데 자기들이 하루밤 짐을 져다드리는것이 무슨 수고냐고 하면서 로동자들은 혁명군대원들에게서 짐을 다시 빼앗아지려고 싱갱이질을 하였다. 사실 대마록구를 출발할 때 혁명군대원들은 로동자들보다 곱절이나 더 많은 짐을 지고 떠났던것이다.

《저희들이 지고온 짐은 이미 다 처리했습니다. 그런 걱정 마시고 그저 따라오기만하십시오.》

《예?》

로동자들은 누구나없이 모두 놀랐다.

지고온 짐들을 다 어떻게 했단말인가? 그럼 벌써 혁명군들이 있는 군영에까지 날라다놓고 되돌아왔는가? 로동자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짐을 지고 어둠속으로 사라지는 혁명군대원들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이윽고 출발명령이 내려 로동자들은 혁명군을 따라 눈덮인 밀림속을 뚫고 행군을 계속하였다.

빈몸으로 혁명군을 따라 행군을 하자니 마음이 송구하기

그지없었다.

박달나무도 얼어터지는 이 추운 겨울날 하루밤도 편히 쉬지 못하고 벌써 여러해째 한지에서 고생을 하는 혁명군들이 자기들이 지고갈 짐까지 지고간다고 생각하니 로동자들은 그냥 빈몸으로 따라가는것이 죄를 짓는것만 같았다.

이때 어둠속에서 한 로동자의 목소리가 울리였다.

《여러분! 산에서 고생하며 왜놈들을 치는 혁명군들이 우리 짐까지 지고가는데 어떻게 빈몸으로 따라가겠습니까. 우리가 지고온 짐은 우리가 가지고갑시다!》

그러자 기다렸던듯 로동자들은 혁명군들이 행군하는 대오의 앞으로 우르르 달려나갔다.

그런데 혁명군들을 따라잡은 로동자들은 또 눈이 휑해졌다.

혁명군들의 등에도 짐이 지워져있지 않았기때문이였다.

그럼 그 많은 짐들은 잠간사이에 다 어디로 사라졌는가?

《아니, 방금 지고온 짐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놀라서 묻는 말에 한 혁명군대원이 웃으며 《모두 하늘로 올라갔습니다.》하고 대답하였다.

《**김일성**장군님께서 축지법을 쓰신다는 말은 들었지만 짐이 저절로 없어지게 마술을 쓰시는줄은 몰랐습니다.》

로동자들은 신비경에 사로잡혀 혁명군대원들의 손을 잡고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하였다.

그들은 혁명군대원들과 한데 어울려 행군을 계속하였다.

한동안 행군을 하던 대오에 또 휴식명령이 내리더니 로동자들을 한곳에 모두 모이게 하였다.

어둠속에서 **김일성**장군님의 우렁우렁한 목소리가 울리였다.

《여러분, 참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여기서 우

리와 헤여져야겠습니다. 이제 왜놈은 망하고 우리 나라가 광복될 날은 반드시 올것입니다. 그날까지 꿋꿋이 사십시오. 광복의 그날 우리 조국땅에서 다시 만납시다!》

로동자들은 혁명군과 헤여지기 아쉬워 오래동안 서로 얼싸안은채 놓을줄을 몰랐다. 그들은 몇명의 혁명군대원들의 길안내를 받아 대마록구로 돌아왔다.

집으로 돌아온 그들은 지난밤의 일들이 꿈을 꾼것만 같아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다.

《**김일성**장군님은 물건도 〈승천입지〉하게 하는 술법을 쓰신다!》

그날밤 혁명군을 따라갔던 목재소로동자들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자기들이 생전 처음 겪은 일이니 어떻게 이렇게 말하지 않을수 있겠는가.

그후에도 오래동안 만주땅에서는 이 이야기가 풀수 없는 수수께끼가 되여 신비한 전설로 전해졌다.

그후 조국이 해방되여 퍼그나 많은 세월이 흐른 뒤에야 그날밤의 수수께끼가 풀리였다.

해방후 한 항일혁명투사의 이야기를 통하여 그날밤의 이야기가 사실대로 전해졌기때문이다.

그날밤 혁명군대원들은 **김일성**장군님의 명령대로 대오를 훨씬 앞서나가다가 눈을 깊숙이 파헤치고 지고온 밀가루와 쌀, 무기를 거기에 묻은 다음 눈을 두텁게 덮어놓았다고 한다. 그리고는 그우로 길을 내며 지나갔다.

뒤따르는 수백명의 대오가 계속 밟고 지나가니 눈이 다져져서 큰길이 되고말았다. 여기에 로획품을 묻었으리라고는

누구도 생각할수 없었다.

이처럼 혁명군대원들이 자기가 지고오던 짐을 다 처리한 다음에는 로동자들의 짐을 받아지고 앞서나가다가 또 그런 방법으로 묻어놓았다.

이렇게 눈속에 짐을 묻어놓으니 지고오던것을 다 처리하고 모두 빈몸이 되였다.

짐을 지고오던 로동자들은 잠간사이에 그 많은 짐이 감쪽같이 없어진것을 보고 모두 신기하게 생각하였다.

그들은 짐을 묻어놓은 바로 그우로 자기들이 걸어가고있다는것을 모르고 못내 탄복하였다.

짐을 다 감추고나자 **김일성**장군님께서는 그들의 길안내로 한개 소부대를 붙여주시면서 오던 길로 가지 말고 다른 방향으로 새길을 내면서 돌아가라고 지시하시였다.

그리고 그들을 떠나보내신 다음 혁명군대오가 발자국을 메우면서 자취를 감추도록 하시였다.

그리하여 모든 일은 장군님께서 의도하신대로 되였다고 한다.

뒤따라오던 적들은 혁명군대오가 행군해오던 길을 졸졸 따라오다가 로동자들이 돌아간 그 길을 밟으며 고스란히 제 소굴로 돌아갔던것이다.

당시 경찰《토벌》대의 대장으로 이 추격전에 참가하였던 우나미는 그때를 다음과 같이 회상하였다.

《대마록구가 습격당했다는 급보를 받은 우리는 이튿날 즉 3월 12일 급히 눈우에 찍힌 빨찌산부대의 발자국을 따라 쫓아갔다. 대마록구에서 서북쪽으로 약 20리 지나 깊은 수림으로 들어가는 어귀에서 그 발자국은 씻은듯이 없어졌다. 그

러나 자세히 살펴보니 어덴가 발자취를 지워버린 흔적이 약간 보였다.

〈여기다!〉 이렇게 환성을 올리고 우리는 그 자취를 따라 정신없이 달려갔는데 결국 나중에 당도한곳은 천만뜻밖에도 처음 출발했던 대마록구지점이였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순간 나는 갈피를 잡을수 없었다. 이 수수께끼를 얼마후에야 겨우 풀게 되였을 때 나는 **김일성**장군님의 탁월한 전략전술에 거듭 경탄을 금치 못했다.… 우리는 이 신묘한 전술에 완전히 속아넘어갔던것이다.》

이처럼 대마록구전투는 조선인민혁명군의 대부대선회작전에 걸려들어 허덕이는 왜놈들을 또다시 큰 혼란속에 몰아넣고 조선인민혁명군의 불패의 위력을 과시한 의의가 매우 큰 전투였다.

그러니 이 이야기는 전설이 아니라 실지 있은 전투담이니 전투실화라고 해야 옳을것이다.

허지만 우리 인민들은 전설로 즐겨 전하고있으니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는 그대로 전설임을 웅변적으로 말해주는것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사다리

항일유격대가 창건되여 왜놈들에게 섬멸적타격을 안기며 혈전을 벌린지 거의 10년이 되여오던 어느해 여름이였다.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몇명의 대원들을 거느리시고 라자구의 밀림속을 행군해가고계시였다.

그런데 행군대오는 라자구분지를 지나 새벽녘에 밀림을 벗어나자마자 그만 놈들의 포위에 들게 되였다.

밀림속에 널려있던 특무놈들이 라자구분지를 지나가는 대오를 발견하고 《토벌》대를 끌고왔던것이였다.

정황은 매우 위급하였다.

《토벌》대놈들은 수천명을 헤아렸는데 《토벌》대장은 관동군사령부에서도 제노라고 하는 겡이찌라는자였다.

겡이찌는 원래 비겁하기 그지없는놈인데 항일유격대 《토벌》에서 이른바 《전과》를 거두었다고 하여 벼락승진을 한 자로서 민충이 쑥대에 올라간것처럼 우쭐렁대는놈이였다.

그러나 실은 산에서 투항하여 내려오는 반일부대 패잔병들을 잡아죽이고는 상급에 항일유격대원들이라고 거짓보고를 하였던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있는 동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있는터였다. 이놈은 이번엔 진짜 유격대를 잡아 한번 본때를 보이

리라고 앙심을 먹고 악착스럽게 달려들었다.

허지만 아직 유격대를 발견하지 못한 《토벌》대놈들은 여기저기 헛총질만 해댔다.

그러다가 놈들은 개활지대를 벗어나 수림속으로 들어가는 유격대를 발견하였다.

그러나 정작 유격대를 발견하자 지금까지 하루강아지 범무서운줄 모르고 날치던 겡이찌는 겁이 나서 손발을 부들부들 떨며 발을 한걸음도 앞으로 내짚지 못하였다.

놈은 기여들어가는 목소리로 《돌격하자! 돌격!》하며 목을 자라목처럼 움츠리고 졸병들만 몰아댔다.

총을 빼들고 위협하는바람에 졸병들은 할수없이 앞으로 우르르 몰려나갔다.

그런데 웬일인지 얼마쯤 달려나가던 《토벌》대놈들은 한자리에 뚝 멈춰선채 돌처럼 굳어지고말았다.

맨뒤에서 따라가던 겡이찌가 비실비실 가까이 다가가보니 졸병들은 발이 땅에 떡 들어붙은채 눈만 뚜부럭거리며 꼼짝 움직이지 못하고있었다.

목을 길게 빼들고 앞을 내다보니 이게 웬일인가?

수림속에서 유격대원들이 편안하게 앉아 태평스럽게 휴식을 하고있는것이였다.

제놈들이 포위하고있다는것을 유격대원들이 모르고있다고 생각한 겡이찌는 절호의 기회라고 여기고 다른 《토벌》대가 오기전에 자기네가 몽땅 생포하리라 마음먹었다.

놈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마음이 흡족해서 이런 복을 준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고싶은 심정이였다.

그런데 이 일을 어이하랴.

졸병들이 모두 땅에 발이 들어붙어 꼼짝 움직이지 못하는데 자기마저 발이 땅에 붙어 뗄수 없을뿐아니라 팔다리도 전혀 움직일수 없었던것이다.

유격대가 자리를 뜨기전에 빨리 추격해야겠는데 꼼짝 움직일수 없으니 겡이찌는 안달이나 죽을 지경이였다.

언제까지 이러고있어야 할지 참으로 기막힌 일이였다.

이때 또 숲속에서 난데없이 갈가마귀떼가 나타나《토벌》대놈들의 눈과 귀, 코에 날아들며 성화를 먹이였다.

눈이 쓰리고 재채기가 났으나 움직일수가 없으니 아무리 괴로와도 참는수밖에 없었다.

그저 입으로 《아이구—아이구—》하며 신음소리밖에 내지 못했다.

이렇게 소가 웃다가 꾸레미가 터질 괴상한 꼴을 하고 얼마쯤 있는데 숲속에서 휴식을 하던 유격대원들이 또다시 일어나 행군을 시작하였다.

그제서야 《토벌》대놈들의 발도 땅에서 떨어지고 강직됐던 몸도 점차 풀리여 움직일수 있었다.

그러나 왜놈들은 얼이 빠져 더는 유격대를 추격할 생각도 못하고 멍하니 서서 바라보기만하였다.

겡이찌는 생각할수록 분통이 터지고 억이 막히였다.

(저 몇명밖에 안되는 유격대를 몇천명이 눈을 편히 뜨고 놓친단말인가.)

우물거리다간 맞은편에서 포위환을 좁혀오는 《토벌》대에 《전공》을 떼울것만 같았다.

놈은 이를 사려물고 또다시 젖먹은 힘까지 다 내여 소리쳤다.

《뭣들 하는가? 빨리빨리 추격하라!》

아무리 소리쳐도 졸병들은 움직일념을 하지 않았다. 그러자 겡이찌는 또 총을 빼들고 《탕! 탕!》 졸병 몇을 쏘아눕혔다.

《이래도 못나가겠는가? 돌격!》

졸병들은 마지못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마냥 어슬렁어슬렁 앞으로 나갔다.

유격대원들은 《토벌》대놈들이 추격해오는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서로 말을 주고받으며 천천히 행군해갔다. 겡이찌 《토벌》대는 한껏이나 추격하였으나 유격대를 따라잡지 못했다.

유격대원들은 령을 몇개 넘더니 또 휴식을 하였다.

겡이찌는 다시 생긴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졸병들을 내몰았으나 《토벌》대놈들은 발이 또 땅에서 떨어지지 않고 온몸이 굳어져 눈만 멀뚱거리였다.

얼마나 있었는지 유격대원들이 실컷 휴식을 하고 다시 행군을 시작하자 그제서야 《토벌》대놈들도 사지를 움직일수 있었다.

이렇게 몇번 되게 곤경을 겪다나니 겡이찌와 왜놈들은 인젠 오히려 유격대원들이 또 휴식할가봐 겁이 더럭 날 지경이였다.

김일성장군유격대를 추격하던 《토벌》대놈들은 진종일 끌려다니다나니 지칠대로 지쳐 하나둘 쓰러지기 시작하였다.

나중에는 겡이찌마저 쓰러졌다. 풀밭에 쓰러진 이놈은 눈을 겨우 게슴츠레하게 뜨고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푸른 하늘 저끝에서 흰구름이 뭉게뭉게 피여나더니 라자구

쪽으로 날아왔다.

그 흰구름을 멍청히 올려다보던 겡이찌의 눈이 갑자기 커졌다.

흰구름에서 무엇인가 가물가물 보이더니 길다란것이 땅우로 쭉 내리뻗치는것이였다.

땅우로 점점 가까이 내려와 시야에 들어 자세히 보니 그것은 사다리였다.

(하늘에서 사다리가 내려오다니?)

하늘에서 내려보낸 바줄에 맨 바구니를 타고 오누이가 올라가 해와 달이 되였다는 조선옛말이 떠올랐다.

그 옛말이 눈앞에 현실로 펼쳐지는것 같았다.

(아니 저건 또 뭘가?)

겡이찌는 눈앞의 현실이 믿어지지 않아 눈을 꾹 감았다가 다시 떴다.

분명 그 사다리를 타고 웬 사람들이 하늘로 올라가고있었다.

저건 웬 사람들이야? 자세히 보니 그 사람들은 바로 항일유격대원들이였다.

너무도 놀라와 일어나앉은 겡이찌는 하늘에서 눈길을 떼지 못했다.

꿈인가? 생시인가? 도무지 뭐가 뭔지 알수가 없었다.

머리를 좌우로 흔들며 정신을 가다듬었으나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것이 사실이였다.

사다리를 타고 하늘로 오른 유격대원들은 구름우에 앉아 어디론가 둥실둥실 떠가고있었다.

《유격대가 구름을 타고간다!―》

누군가가 웨치는 소리에 사방을 둘러본 겡이찌는 자기만이 아니라 《토벌》대전체가 보고있음을 알게 되였다.

그러니 이것은 환각도 착각도 아니였다. 환각이나 착각이라면 어떻게 이처럼 모두가 같을수 있겠는가?

(내가 어리석었지. 어떻게 감히 하늘이 돕는 **김일성**장군과 맞선단말인가!)

겡이찌는 자리에서 일어나 항일유격대원들이 휴식하던 그 자리에 가보았다.

분명 휴식하고 간 흔적은 력력한데 유격대원들은 한명도 보이지 않았다. 어느쪽으로 사라졌는가 하여 살펴보았으나 아무런 흔적도 찾아볼수 없었다. 그저 한쪽에 진대나무들이 있을뿐이였다.

(그러니 유격대원들이 사다리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게 분명하다. 저 진대나무들은 그 사다리를 만들었던것이 아닐가?)

겡이찌는 아무리 봐도 그 진대나무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사다리를 만들었던 나무처럼 생각되였다.

그후 겡이찌는 정신이 돌아 온갖 치료를 다하였으나 백약이 무효여서 종시 제 나라로 돌아가고말았는데 거기 가서도 이놈은 하늘에서 내려온 사다리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였다고 한다.

로야령에서 만난 산신령

쏘만국경지대에 위치한 동녕현과 훈춘현사이에서 시작된 로야령산줄기는 녕안현과 왕청현 그리고 무송현과 안도현의 경계를 이루면서 백두산밑 내도산까지 수천리나 길게 뻗어있는 큰 산줄기이다.

로야령은 동만을 북만과 남만으로 갈라놓는 령이며 북간도와 동간도 그리고 동간도와 서간도를 갈라놓는 천험의 요새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름도 큰할아버지령이라는 뜻을 담아 로야령이라고 부르는것이다.

이 전설은 로야령산줄기에 있는 왕청현 로흑산의 천연수림속에서 있은 이야기를 담은것이다.

중국 동북지방에는 로흑산이라는 이름을 가진 산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것은 이 지방 사람들이 수림이 크게 우거져 검게 보이는 산을 모두 로흑산이라고 부르기때문이다.

그러니 이 전설이 생겨난 로흑산의 수림이 얼마나 깊고 무성하겠는가 하는것은 가히 짐작할수 있을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평생을 인민을 위해 바쳐오시는 80여성상 참으로 고충도 많이 겪으시였고 위험한 고비 또한 이루 헤아릴수없이 많이 넘기시였다.

그중에서도 항일유격대가 창건된지 얼마 안되던 1932년말 남만원정에서 돌아오시던 길에 반일부대와의 사업을 위하여 쏘만국경지대에까지 진출하시였던 그이께서 소왕청유격구로 가시던중 로흑산의 오지에서 겪으신 고초는 참으로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것이였다.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기 위해 항일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창건된 항일유격대가 1년도 안되여 꺼꾸러지느냐 아니면 다시 일떠서 싸우느냐 하는 바람앞의 초불과 같은 생사기로에 놓이게 되였다.

걸음걸음 혈전으로 길을 헤치며 와해되는 반일부대들을 수습해나가는 멀고도 험난한 로정에서 희생자도 나고 대원들을 여러 반일부대들에 파견하기도 하다보니 로흑산부근에 이르렀을 때 대오는 18명밖에 남지 않았다.

그런데다가 살을 에이는 강추위에 식량난이 겹쳐들어 대원들은 지칠대로 지쳐 한걸음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털썩털썩 주저앉는 대원들을 한사람 한사람 일으켜세워주시며 《자, 용기를 내시오. 조금만 더 가면 되오.》라고 고무해주시였다. 그러나 또 얼마 못가서 쓰러지군하였다.

수령님께서 눈속에서 허우적거리는 대원들을 일으켜세워주시려고 하면 대원들은 《장군님, 저를 두고 어서 가십시오. 그러다간 장군님의 신변까지… 흑흑.》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진정으로 애원하였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하오. 우리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야 하오. 자, 나에게 업히시오.》

그이께서는 엄하게 꾸짖으시며 한 대원을 업으시였다.

《안됩니다, 장군님. 어서 내려놓으십시오.》

그 대원은 몸부림을 치며 사정하였으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령마루우에까지 업어다놓으시였다.

그런데 그런 대원이 한둘이 아니여서 그이께서는 또 다른 대원을 업으시였다.

그러다나니 수령님께서는 몹시 힘이 진하시였다.

하늘에서는 여전히 적비행기가 삐라를 뿌리며 투항하라고 으르렁대고 땅우에선 《토벌》대놈들이 겹겹이 둘러싸고 점점 더 조여들었다.

새여나갈 틈도 없고 적들을 답새기며 돌파구를 열려고 해도 이런 력량으로는 도저히 엄두를 낼수 없었다.

항일유격대의 이런 사정을 잘 알고있는 적들은 그물에 든 고기라고 여기면서 마음놓고 악착스럽게 달려들었다.

《빨리빨리 추격하라! 뭘 꾸물거리는가?》

이런 기회에 《무공》을 세워보려고 사방에서 악을 쓰며 고아대는 장교놈들의 악청이 바람결에 실려왔다.

대원들의 얼굴엔 동요의 빛이 력력히 어리였다.

여기서 우리 혁명의 운명이 끝나는것인가.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을 모신 18명의 항일유격대원들은 로야령의 심산속에서 귀인을 만나 한명의 희생도 없이 모두 장수가 되여 포위진을 무사히 뚫고나왔다.

이 사실을 두고 왜놈들은 당황망조하였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하늘로 올라갔는가 땅으로 잦았는가 아니면 둔갑술을 썼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도무지 풀수 없는 수수께끼였다.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을 태양으로, 하늘님으로 높이 모신 우리 인민들은 알고있었다.

하늘이 낸 위인이신 위대한 수령님을 하늘땅이 자기의 령험으로 도와드렸다고…

그래서 그후 중국 동북지방에서 사는 우리 인민들속에서는 여러가지 흥미있는 전설들이 전해졌다.

당시 우리 인민들속에서 전해진 전설에 의하면 그때 수령님께서는 대원들을 모두 산등성이에 올려놓고 이렇게 말씀하시였다고 한다.

《신심을 잃지 말고 용기를 내시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집이 나질거요. 거기 가서 푹 휴식을 합시다.》

그이의 말씀에 대원들은 모두 의아해하였다.

(이 원시림이 우거진 심심산골에 무슨 집이 있단말인가?)

포수들도 다니지 못하는 험산오지에 집이 있다는 말씀이 쉽게 믿어지지 않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자기들에게 힘을 주려고 그러신다고 생각하면서 모두 마지막힘을 모아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런데 정말 얼마 안가서 수령님께서 《자, 동무들! 저기 앞을 보시오. 집이 있지 않소?》하고 밀림이 쩌렁쩌렁 울리게 우렁우렁한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대원들은 머리를 들고 그이께서 가리키시는 앞을 바라보았다.

과연 이게 웬일인가?

자기들이 가는 바로 앞 수림속에 난데없이 덩그렇게 큰 집이 솟아있는것이였다.

하늘에서 내려왔는가? 땅에서 솟았는가?

대원들은 기쁨과 함께 의혹이 짙은 눈으로 서로 마주보았다. 안깐힘을 쓰며 그 집까지 달려간 그들은 문을 열고 방안을 들여다보았다.

《엉!》

대원들은 깜짝 놀라 그자리에 돌처럼 굳어졌다.

후끈후끈한 온기가 풍겨나오는 방안엔 식탁에 갖가지 진수성찬이 한가득 차려져있는것이였다.

누가 방금 차렸는지 음식들에선 김이 물물 피여오르고있었다.

때는 한해가 다 저물어가던 섣달그믐날저녁이여서 누가 설음식을 준비해놓은것이 아닐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이 깊은 산중에 누가 살기에 설음식을 차렸겠는가.

방안에 들어선 그들은 모두 이러지도저러지도 못하고 어안이 벙벙하여 멍청하니 식탁을 내려다보기만하였다.

그러고섰노라니 다 쩨진 여름옷차림이여서 꽝꽝 얼었던 몸이 방안의 더위에 녹아 노그라지는데다가 오래동안 입에 대보지 못했던 음식내가 그들을 취하게 하여 방금 쓰러질 지경이였다.

《왜 보기만하고 그냥 서있소? 어서 식탁에 다가앉아 먼저 따뜻한 물부터 마시고 식사를 하시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였으나 대원들은 아직도 꿈을 꾸는것만 같아 어정쩡해 어찌할바를 몰라하였다.

수령님께서 한사람한사람 식탁앞에 데려다앉혀서야 그들은 손에 수저를 쥐였다.

식탁에는 메돼지고기며 곰고기와 노루고기료리며 닭알지짐

과 통닭구이가 있는가 하면 이면수, 해삼, 문어 등 산해진미가 다 놓여있었다.

대원들은 먼저 김이 몰몰 오르고있는 따끈한 물부터 마시였다.

그러자 그 물이 온몸에 퍼지면서 힘이 생기고 부쩍 식욕이 당기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음식을 드시였다.

오랜만에 아니 난생처음 산해진미로 푸짐히 식사를 한 그들은 수령님께서 이끄시는대로 옆방으로 갔다.

그들은 거기서 또한번 놀랐다. 그 방에는 신통히도 18개의 포단과 이불과 베개가 나란히 펴놓아져있는것이였다.

피곤이 몰릴대로 몰렸던 유격대원들은 자리에 눕자마자 단잠에 들었다.

아침에 일어나보니 또 누가 차려놓고갔는지 사람은 보이지 않는데 식탁에는 음식들이 풍성하게 차려져있었다.

아침식사를 끝내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책장에서 책들을 꺼내여 대원들에게 주시며 읽어보라고 하시였다.

그 책들가운데는 소설책도 있었고 정치서적도 있었으며 위인들의 전기도 있었다.

대원들은 책에 심취되여 시간가는줄을 몰랐다.

책을 읽은 다음에는 서로 소감을 말하고 토론도 하고 열면론쟁도 하였다.

그러다나니 대원들은 인적없는 산속에서 저도모르게 낮에는 군정학습을 하게 되였다.

그러는사이 대원들은 원기도 회복되여 일시 엄혹한 시련앞에서 나약해졌던 자신들을 뉘우치며 새로운 결의를 다지

였다.

그러던 사흘째 되는 날 한 대원이 위대한 수령님께 근심어린 목소리로 말씀드리였다.

《이거 우리가 무인산중에서 호강하다가 신선놀음에 도끼자루 썩는 격이 되는게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는 추격해오던 왜놈들이 이 집을 포위하고 달려들면 어떻게 하느냐고 하면서 걱정하는것이였다.

유격대는 언제 어디서나 반드시 보초를 세우고 경비를 강화하는데 아무런 방비도 하지 않고 그저 먹고 자고 책만 읽으니 그런 근심을 할만도 하였다.

《하하하, 그런 걱정 하지 말고 책이나 많이 읽고 식사도 많이 하시오. 인젠 떠날 때가 되여오는것 같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호탕하게 웃으시며 태연하게 말씀하시였다.

그런데 다음날, 추격해오던 왜놈들의 한무리가 이 집앞에 나타났다. 유격대원들은 긴장하여 놈들과 조우할 태세를 갖추었다.

허지만 왜놈들은 웬일인지 한놈도 이 집을 보지 못하고 그 집앞을 그냥 지나가는것이였다.

(이상한데.)

그 다음날도 또 그 다음날도 왜놈들이 나타났으나 보지 못하고 그저 지나갔다.

이러기를 아흐레째 되는날이였다.

이날 아침도 역시 저절로 차려진 식탁에 마주앉아 만족하게 식사를 한 유격대원들은 저마끔 책장에서 책을 하나씩 뽑아들고 그것을 읽으려고 하였다.

이런 일이 여러날 계속되니 인젠 모든것이 이상스럽게 생각되지 않고 어느덧 습관된듯싶었다.

그들이 책에 정신을 쏟고있는데 밖에서 찌—쿵하고 대문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사람의 발자국소리가 울리였다.

한 대원이 누가 오나 하여 무심결에 문을 열었다.

《아니?!》

그는 갑자기 화닥닥 놀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바람에 손에서 책이 바닥에 떨어졌다. 그 소리에 모두 머리를 들고 열려진 문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이게 웬일인가? 머리칼과 눈섭과 수염이 온통 새하얀 백발로인이 마당에 들어서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로인을 마주 향해 나가시였다.

백발로인은 그이를 보자 땅에 넙적 엎디여 큰절을 올리였다.

《너그럽고 인자하시고 영명하신 하늘님, 용서하시오이다. 로야령의 산신령으로서 내 산중에 하늘님이 드신줄도 모르고 로고를 끼쳐드렸으니 천벌을 받아 마땅하오나 그 죄를 조금이나마 씻고저 이렇게 서둘러 지은 집에 하늘님과 신하들을 모시고 조석으로 정성을 다했사옵니다. 이제 저 섬오랑캐들이 모르게 안전한 길로 안내해드리겠사오니 미흡한 제 성의를 받아주옵소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산신령의 청을 쾌히 수락하시고 모두에게 떠날 준비를 하라고 이르시였다.

그제서야 유격대원들은 지금까지 일어난 신기한 일들이 모두 장군님을 위해 로야령의 산신령이 일으킨 조화라는것을 알게 되였다.

《그러니까 산신령이 이 집에 둔갑술을 써서 왜놈들이 보지 못하게 한게로구만.》

《우리 장군님께서 어려운 고비를 당하시게 되면 신령들이 나타나 저마끔 도와준다더니 그게 사실이구만.》

유격대원들은 이런 말을 주고받으며 그이의 뒤를 따라나섰다.

산속의 신기한 집에서 어려운 한때를 극복하고 모두 장수로 된 대오는 산신령의 길안내를 받으며 길을 떠났다.

그들이 가는 앞길엔 왜놈들이 한놈도 얼씬하지 않았다.

시련속에서 더욱 억세게 성장한 대오는 마침내 위대한 수령님을 진두에 모시고 나팔을 불고 붉은기를 휘날리면서 왕청땅에 들어섰다.

후날 이 이야기는 《장군님께서 어려운 고비를 당하시게 될 때면 그 어디서나 산과 들, 물속에서 신령들이 나타나 저마끔 도와나선다》는 전설로 되여 만주땅은 물론 우리 나라 국내에까지 파다하게 퍼지게 되였다.

《울집》이 《웃음집》으로 된 이야기

1930년 겨울에 있은 일이다.

어느날 오가자에 계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혁명군대원들과 함께 장춘, 철령, 공주령일대의 혁명조직들을 지도하시기 위해 길을 떠나시였다.

로정은 멀고 또 하셔야 할 일이 많고 긴박하여 행군은 처음부터 긴장하였다.

혁명군대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신변안전을 위해 될수록 마을과 인가를 피해가며 걸음을 다그쳤다.

그런데 오가자를 떠나 얼마후 어느 한 마을 근처를 지나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라고 하시며 걸음을 멈추시였다.

대원들은 무슨 정황이라도 생긴것인가 하여 바싹 긴장하게 귀를 강구었다.

윙— 윙— 눈보라소리만 들리고 별다른 정황은 없었다.

《이게 아이들 울음소리가 아니요?》

위대한 수령님께서 재차 말씀하셔서야 그들은 비로소 마을

의 외딴집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가려들을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천천히 외딴집쪽으로 걸음을 옮기시였다.

대원들은 주춤거리며 갈 길이 급한데 그냥 가시자고 말씀올리였다.

하지만 그이께서는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귀전에서 들려와 아무래도 발걸음이 더디여질것 같다고 하시면서 그냥 그쪽으로 가시였다.

대원들이 자기들이 가서 알아보고 오겠다고 만류해나섰으나 그이께서는 함께 가보자고 하시며 끝내 그 집으로 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방문을 여시니 그 정상은 말이 아니였다.

해빛도 들지 않는 어둑침침한 방안에 손바닥만한 누데기를 펴놓고 거기에 네아이가 발들을 밀어넣고 앉아있었다.

그결에 열살남짓한 처녀애가 등에 업혀 우는 사내애를 얼리다못해 너무 안타까와 막 때리는데 그애의 눈에서도 눈물이 방울방울 떨어져내렸다.

이 집은 아들딸 6남매가 있는 가난한 집이였다.

험악한 그 세상에서 부모들은 기를 쓰고 일을 하여도 그 많은 아이들을 제대로 먹여살릴수가 없었다. 이른아침에 일하러 나간 어머니를 기다리다못해 젖먹이가 배고파 울기 시작하면 다른 아이들이 덩달아 우는데 그 울음소리는 하루종일 그칠새 없었다. 그래서 그 집을 《울보집》 또는 《울집》이라고 하였다.

눈물로 얼룩진 피기없는 얼굴들, 갈비뼈가 앙상하게 드러난 가슴을 내놓고 추워서 바들바들 떠는 정상은 참으로 보기에도 불쌍하기 그지없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부엌에 불을 지피게 하신 다음 방안에 들어가시여 아이들을 안아 무릎우에 앉히시였다.

《아버지와 엄마는 어디 가셨니?》

위대한 수령님께서 처녀애에게 물으시였다.

《아버지는 산에 가고 엄마는 남의 집에 빨래해주러 갔어요.》

《엄마가 밥 가져온다고 했어.》

처녀애의 대답에 이어 그이의 무릎에 앉은 대여섯살짜리 사내애가 하는 소리였다.

《점심은 먹었느냐?》

《아버지와 엄마가 와야 밥을 먹어요.》

그러니 이 애들은 점심을 모르는 모양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마음이 서글프시였다.

나라를 빼앗기고 거치른 이국땅에서 굶주림에 울고있는 불쌍한 조선아이들, 언제면 저 애들을 배불리 먹이고 울음대신 행복한 웃음을 웃게 해줄수 있을가.

말없이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어주시던 그이께서는 이제 밥을 주겠다고 하시며 대원들을 돌아보시였다.

밥이라는 말에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였다.

이리하여 이날 도중식사로 쌌던 줴기밥은 모두 이 집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차례지게 되였다.

대원들이 수령님의 식사때문에 걱정을 하였지만 그이께서는 다문 한순간만이라도 배고픔을 모르는 아이들을 보는것이 기

뻐신듯 정신없이 밥을 먹고있는 아이들만 보고계시였다.

아이들은 자기들에게 밥을 준 고마운분과 떨어지지 않으려고 발버둥질을 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지금 당장은 배고파우는 너희들에게 줴기밥 몇덩이밖에 줄수 없지만 이제 너희들이 배불리 먹고 새옷을 입고 마음껏 뛰노는 세상이 꼭 온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날 저녁이였다.

배고파우는 애들을 생각하며 6남매 아버지는 지친 몸이였으나 집에 빨리 가려고 걸음을 재촉하고있었다.

그런데 웬일인가?

동네어방에 들어서면 의례히 《엄마, 나 배고파 —으앙—》, 《아버지! 빨리 오라.》 하며 우는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오군하였는데 그날은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집에 무슨 일이 생긴게 아닐가?)

되려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아 불길한 생각이 갈마든 그는 황급히 집으로 달려가며 큰 소리로 애들을 불렀다.

《순희야!—》

《갑돌아!—》

그런데 뜻밖에도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고 집안에서 아이들이 활짝 웃으며 와르르 쏟아져나왔다.

아이들은 눈이 휘둥그래서 멍하니 서있는 아버지에게 달려가 안기며 저마다 종알거리였다.

《아버지, 나 밥 많이 먹었다.》

《어떤 아저씨가 우리들에게 밥을 주었어요.》

《아버지, 우리도 이제 매일 배불리 먹고 잘살게 된대.》

중구난방으로 쏟아놓는 애들의 말을 듣고서는 뭐가 뭔지

통 영문을 알수 없었다.

이윽해서 큰 딸에게서 자초지종 이야기를 다 들은 그는 그 길로 그분이 갔다는쪽으로 정신없이 달려갔다.

《여보시오!— 여보시오!—》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사람을 찾고 부르며 뛰고 또 뛰여 갔다.

자기 아이들을 그처럼 사랑해주신 이 세상에 둘도없이 고마운 그분이 어떤분이신지 알지 않고서는 못견딜 심정이였던 것이다.

그날 그는 너무도 늦은탓에 아무리 달려갔으나 고마운 그분을 아쉽게도 만나보지 못했다.

하지만 6남매 아버지는 그분이 어떤분이신가를 끝내 알아 내고야말았다.

《글쎄 오가자에 오신 혁명군 대장어른이 바로 우리 아이들에게 자신이 드실 식사까지 다 주고 가셨다질 않소.》

그는 울음이 사라진 내막을 알고싶어 찾아온 동네사람들에게 목메인 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캄캄한 조선의 밤하늘에 새별이 솟았다고 온 겨레가 우러러보는 그분께서 말이요?》

《예. 그분께서 우리 애들에게 배불리 먹고 잘사는 세상이 꼭 온다고 하셨답니다.》

《저런, 하늘의 별님이 이 집에 내리시다니… 이 집은 복을 받았수다.》

마을사람들은 저마다 감탄을 금치 못해하면서 이 집을 몹시 부러워하였다.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였다.

어느 하루도 빠짐없이 울음소리가 울리던 《울집》에서 매일 웃음소리가 울려나오는것이였다.

소문에 의하면 하늘에서 내려오신 별님이 준 신기한 좨기밥을 《울집》아이들이 먹은 다음부터 배고픔이 싹 없어져버렸다는것이였다.

또 이런 말도 돌았다.

별님이 준 좨기밥을 배불리 먹은 다음날 아침이였다.

어머니가 아침에 부엌으로 나가 솥뚜껑을 여니 글쎄 솥안에 8개의 좨기밥이 들어있는것이였다.

《여보!— 이걸 좀 봐요.》

안해의 말을 듣고 부엌에 달려나간 남편은 너무도 놀랍고 기뻐서 《여보, 이게 꿈이요? 생시요?》 하며 붙안고 돌아갔다.

덩달아 따라내려온 아이들도 좋아라 짝자꿍을 치며 어쩔줄 몰라하였다.

이런 일은 다음날도 또 그 다음날에도 계속되였다.

그즈음 오가자사람들은 서로 만나면 그 신기한 좨기밥에 대한 이야기로 시간가는줄을 몰랐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울집》을 《웃음집》이라고 고쳐 불렀다고 한다.

온성돌배나무

함경북도 온성, 회령, 경성… 등 륙읍일대에 가면 신기한 돌배나무에 대한 전설이야기가 널리 전해내려오고있다.

그 돌배나무는 봄이면 가지마다 아름다운 꽃을 한가득 피워 그 향기가 골안을 진동하고 가을이면 여느 돌배나무보다 2~3배나 더 큰 열매가 주렁주렁 열릴뿐아니라 그 맛과 향기가 유명하여 그 돌배맛을 한번 본 사람은 평생 잊지 못한다고 하였다.

그 돌배를 얼마동안만 먹으면 위장기능은 물론 순환기계통과 신경계통의 병까지 씻은듯이 나아 과일로보다는 약재로 널리 리용되였다고 하니 그 돌배나무의 신비로움을 가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러면 이 돌배나무가 어디서 어떻게 되여 생겨난것일가?

무엇이나 귀하고 동이 뜨게 좋으면 거기에는 발생시기부터 신기한 일화들이 생겨나기 마련인데 이 돌배나무에는 별로 놀랄만한 그런 이야기는 없고 70여년전 오늘의 온성군 풍계리에서 실지 있었던 일이 그대로 전해지고있을뿐이다.

1930년대초 어느해 5월중순이였다.

때는 늦은 봄이라 밤은 몹시 짧았다.

산기슭 바위밑 돌기와집에서 살고있는 채로인은 어제밤일

로 하여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아 이리 뒤치락 저리 뒤치락하다가 어느새 새벽을 알리는 닭울음소리에 놀라 소스라쳐 일어났다.

로인은 로친네를 깨워 얼른 아침을 지으라고 이르고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밖에 나섰다.

로친네를 도와 장작이라도 들여다주려는 생각에서였다.

로인이 어둠속을 더듬으며 마당 한켠에 가려놓은 장작더미로 발걸음을 옮기는데 뒤산 어데선가 가벼운 삽질소리가 고요한 새벽공기를 흔들며 들려왔다.

(이른새벽부터 무얼할가? 누구인지 부지런도 하군.)

그러나 다음순간 간간히 들려오는 그 삽질소리가 로인의 귀를 몹시 자극했다.

(삽질소리에 그분이 깨여나시지나 않을가?)

로인의 시선은 어느새 자기 집 웃방문으로 갔다. 지금 웃방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무시고계셨던것이다.

장작을 한아름 포개여안은채 뒤산과 웃방문을 번갈아보는 로인의 마음은 한줌만해졌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금이라도 더 휴식하시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였다.

발소리를 죽여가며 토방에 오른 로인은 부엌문을 살며시 열었다. 그리고는 장작을 받으려고 일어서는 로친에게 그대로 안겨주고는 도로 밖으로 나왔다.

빨리 산에 올라가 삽질을 하는 사람에게 량해를 구하려는 것이였다.

그런데 그가 막 대문밖에 나서려고 할 때였다.

그렇게도 요란스레 들려오던 삽질소리가 뚝 멎더니 사위는

고요속에 잠기는것이였다.

로인은 후— 긴숨을 내쉬며 마침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뒤돌아섰다. 그리고는 마당 한켠에 앉아 담배를 말아붙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로인의 집을 찾아주신것은 바로 전날 저녁때였다.

그이께서는 이날 오전 공수덕에 오르시여 륙읍일대의 지하혁명조직책임자들과 정치공작원들의 회의를 지도하시였다. 그리고 내려오시던 길에 밭에서 소를 대신하여 가대기를 끌고있는 나어린 소년을 보시고는 자신께서 가대기를 메시고 땀을 쭉 뽑으시고야 밭머리에 나오시여 마을의 농민들과 담화를 하시였다.

그런데 피곤에 싸인 그이께서는 로인의 집에 오시여서도 또 그의 미흡한 생각을 깨우쳐주시느라고 밤이 퍼그나 깊어서야 자리에 드시였던것이다.

채로인으로 말하면 젊은 시절에 독립운동에 관여하면서 쓰디쓴 고패를 겪을대로 겪고 외진 산골에 은신독거하는 몸이라 고집이 세고 편견이 또한 여간 심하지 않았다.

그러던 그가 위대한 수령님의 뛰여난 인품과 비범한 예지에 매혹되여 나중에는 그이의 두손을 잡고 진정에 넘쳐 말하였다.

《오늘은 정녕 짧지 않은 내 인생에서 제일 기쁜 날입니다. 답답하고 막막하던 내 가슴이 탁 트이고 죽었던 민족의 얼이 되살아나는것 같습니다. 이제야 조국광복의 시운이 활짝 열리였습니다.》

그처럼 위대하신분이 지금 자기 집 웃방에 계신다고 생각하니 로인은 흐뭇해지는 마음을 금할수 없었다.

이때였다.

누군가 다가오는 인적기에 로인은 생각에서 깨여났다.

(누가 첫새벽부터 찾아올가?)

로인은 손님을 대문밖에서 맞고 돌려보낼 생각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제먼저 마주 걸어나가며 앞을 살피였다.

그런데 어둠속에 나타난 손님은 무엇인가 정성들여 두손에 받쳐들고 오고있었다. 어스름속에서도 두손에 받쳐들고오는 것이 무겁게 느껴져 로인은 빠른 걸음으로 마중나갔다.

그러나 몇걸음 못가서 로인은 그자리에 굳어지고말았다. 그리고는 자기의 눈을 의심하며 다시 바라보았다.

그 손님은 뜻밖에도 이제껏 자기가 왼심을 쓰며 지켜드린 위대한 수령님이시였던것이다.

그이의 짐을 받아안으려고 다가서던 로인은 다시한번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그이께서 두손으로 받쳐들고 오신것은 바로 한그루의 애어린 돌배나무였던것이다.

감격에 목이 메여 아무말도 못하고 서있는 로인에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아침공기를 마실겸 돌배나무를 떠왔다고 하시면서 《이 심심산골에서 어린것들의 손에 쥐여줄것이 하나도 없으니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 나무를 잘 가꾸어 돌배라도 마음껏 먹이도록 해주십시오.》하고 말씀하시였다.

채로인의 주름잡힌 얼굴로는 뜨거운 눈물이 소리없이 흘러내리였다.

(이름없는 이 촌늙은이가 뭐길래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안으신 큰분께서 어제도 밤을 새워가며 다 사그라져가던 민족

의 얼을 되살려주시더니 오늘은 이른새벽부터 외진 산골집 생활까지 따뜻이 보살펴주십니까!…)

그후 채로인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심어주신 사랑의 돌배나무를 지켜 그 량쪽에 세그루씩 집식구만큼 여섯그루의 돌배나무를 더 심었다.

채로인과 그의 가족들은 새로 심은 어린 돌배나무들에 온갖 정성을 다 쏟아부었다.

그랬더니 어린 돌배나무들은 하루가 다르게 우줄우줄 자라올랐다.

그가운데서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심으신 그 돌배나무는 더 빨리 자라올랐다.

다음해엔 벌써 가지마다 배꽃을 하얗게 피우더니 가을이 되자 애기주먹만한 배알들이 가지가 부러지게 열리였다.

봄, 여름, 가을내내 꽃향기, 과일향기가 골안을 가득 채웠다.

로인은 손자애들에게 그 향기로운 돌배들을 따서 먹이였다. 그 배를 한동안 먹이였더니 놀라운 현상들이 생기였다.

손자애들의 키가 우썩우썩 크고 얼굴색이 고와지는가 하면 힘이 점점 세져 장사가 되였다.

이 소문은 순식간에 날개를 달고 린근마을에까지 퍼지였다.

그러자 그 돌배를 얻으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다음해부터 모든 돌배나무들에 열매가 다 열리여 많은 수확을 거두게 되자 채로인은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마다 그 돌배를 안겨주군하였다.

그 돌배를 먹은 사람들은 누구나 앓던 병이 떨어지고 몸이 건강해졌다면서 채로인에게 찾아와 고맙다고 인사를 하였다.

그때마다 채로인은 이렇게 말하군하였다고 한다.

《아니웨다. 나에게 인사를 할게 아니라 저 하늘에다 절을 하시우다.

이 돌배나무들은 속세의것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서 내려보내주신거웨다.》

로인이 이렇게 말한것은 **김일성**장군님은 하늘이 낸 위인이 분명할진대 그이는 곧 하늘님이시거늘 하늘에 인사를 드리는 것은 바로 그분께 드리는것과 같다고 늘 생각하고있었기때문이였다.

그리고 왜놈들이 살판치는 때여서 이 돌배나무를 **김일성**장군님께서 심으신것이라고 사실대로 말할수 없어 그저 하늘에서 내려보내준것이라고 은어로 말하지 않을수 없었던 사정도 있었다.

전설적색채가 짙은 로인의 이 말은 후날 이 돌배나무이야기를 전설로 되게 하였다.

이 이야기는 채로인의 가족들과 혁명조직성원들에 의하여 룩읍일대에 널리 전해지게 되였다.

백두산3대장군전설전집

5

발굴정리 김종석, 김우경
편　　집 선우연희
사　　진 로창업, 김형용　장　정 한명신
편　　성 정향애　교　정 김혜경

낸　　곳 금성청년출판사
인 쇄 소 평양종합인쇄공장
인　　쇄 주체95(2006)년 4월 20일
발　　행 주체95(2006)년 4월 25일

ㄱ-66021　값170원